

영통동

수원시 최초의 신도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CONTENTS

<p>I</p>	<p>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마을 변천</p>	<p>01.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007</p> <p>02. 근대 변역기 영통리 해주 오씨가 사람들의 세 가지 길 059</p> <p>03. 택지개발 전후 영통리 주민들의 생활 변화 087</p> <p>04. 격변의 세월을 거친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119</p>		<p>IV</p> <p>영통역 상업지역의 공간과 문화</p>	<p>01. 영통역 상업지역의 공간구조 393</p> <p>02. 영통역 중심상권의 형성과 변화 433</p> <p>03. 영통동 학원가의 형성과 운영 475</p> <p>04. 영통동 대학가와 지역사회 509</p>
<p>II</p>	<p>영통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공간</p>	<p>01.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개 141</p> <p>02. 영통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 181</p> <p>03.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223</p> <p>04. “아동들의 행위 공간은 장소가 된다.” : 영통동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장소 253</p>	<p>V</p> <p>더 나은 영통동을 위하여</p>	<p>01. 살기 좋은 주거·생활환경을 가꾸는 일 : 영통동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 535</p> <p>02.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 활동 551</p> <p>03. 영통동 주민들의 소통마당, ‘영통주민모임터’ 601</p> <p>04. 영통동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 617</p> <p>05. 푸른 쉼터, 영통동 공원 649</p>	
<p>III</p>	<p>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p>	<p>01.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289</p> <p>0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323</p> <p>03.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361</p>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마을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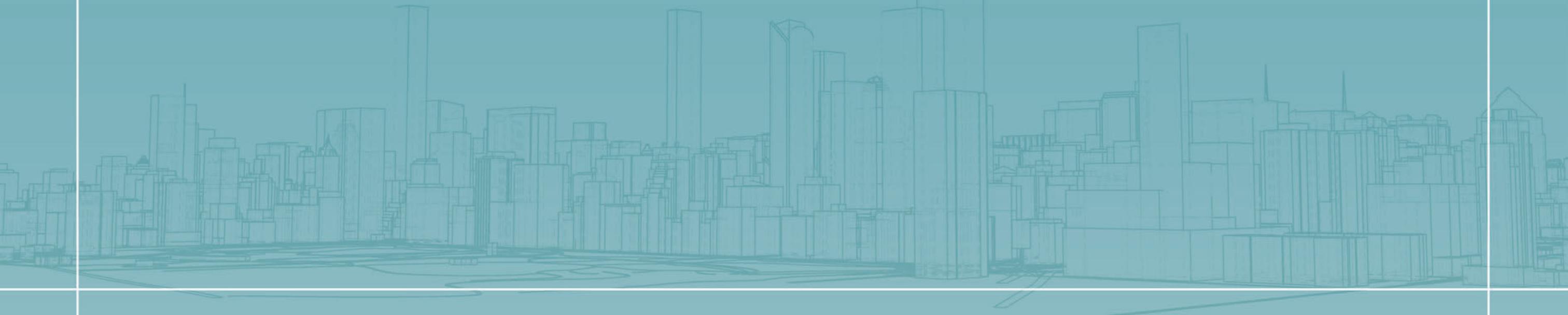
- 01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 02 근대 변혁기 영통리 해주 오씨가
사람들의 세 가지 길
- 03 택지개발 전후 영통리 주민들의 생활 변화
- 04 격변의 세월을 거친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01

영통동의 지리적 환경과 생활터전

1. 수원시 동남부에 건설된 계획도시

1) 3개의 법정동과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된 시가지

영통동(靈通洞)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마을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동의 명칭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사용해온 마을의 법정동 이름이기도 하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대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수원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영통처럼 오래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지역은 그 곳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통이라는 마을의 공간 범위가 다소 넓다. 그러나 택지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지역이 확장하면서 영통동에는 3개의 행정동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의 개념에서 영통동을 알아보았다.

수원시의 동남부에 자리한 영통동은 수원의 주변부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용인시 기흥구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다. 도시 주변부는 비도시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면서 인접 도시와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통동과 용인시 기흥구에는 일부 산지를 제외하면 비도시적 경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시가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연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두 도시의 실질적인 행정경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영통동에 있는 청명산이 있어서 그나마 두 도시의 경계가 뚜렷한 곳도 있다.



수원시 동남부에 자리한 영통동과 그 주변 지역

경계를 형성하는 행정구역은 영통동의 북쪽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동쪽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과 하갈동, 남쪽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등이다. 용인시와 마주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수원시 영통구의 원천동, 매탄동, 신동, 망포동 등과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영통동은 화성시에 대규모로 개발된 동탄신도시와 매우 가깝다. 영통동은 수원시에서의 위치만 고려하면 주변부적 성격을 가지는 시가지이지만, 인접한 지역에 자리한 시가지나 신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수원의 동남부에서 수원과 인접 도시를 연계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수원 동남부의 도시화를 선도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영통동의 행정동은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으로 구성되며, 이 중 영통2동은 법정동 신동과 망포동의 일부 구역을 포함한다. 가장 북쪽에 설치된 영통1동은 청명로 이북에서 국도42호선이 통과하는 중부대로에 이르는 구역이며, 청명산·달남어린이공원·영홍숲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이 공존하는 주거지역의 성격이 강하다. 가장 남쪽에 설치된 영통2동은 법정동 신동을 포함하므로 그 경계가 원천리천까지 이어진다. 영통2동의 망포역 동북쪽은 주거지역의 성격을 보이지만 일부 구역은 중대형의 제조업체·주택·상가 등이 혼재하는 곳이다. 영통3동은 영통1동과 영통2동의 경계를 조정을 통해 신설되었기에, 영통1동과 영통2동의 중간지대에 자리한다. 영통3동은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영통구보건소 등을 비

법정동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행정동



못한 여러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곳이며, 수인분당선의 영통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과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직녀광장과 구름광장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행정동별 면적은 영통1동 1.69km², 영통2동 1.36km², 영통3동 1.72km²로, 인접한 매탄동이나 망포동에 설치된 행정동에 비해 넓은 편이다.

2) 택지개발로 수원시에 편입된 마을

영통동은 택지개발 이전까지 수원의 영역이 아니라 화성과 용인의 영역에 속했지만, 1994년부터 실시된 택지개발과 함께 수원시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영통동은 본래 수원에 속했다가 화성으로 변경된 후 다시 수원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더불어 본래의 소속으로 복귀한 셈이다.¹ 여기에서는 영통동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표 1> 영통1~3동(행정동)에 편제된 법정동의 행정구역 변천

시기	영통동	신동	망포동
1895년	수원군 장주면 영통리	용인군 지내면 영통/덕동	수원군 장주면 신촌
1914년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수원군 태장면 신리	수원군 태촌면 망포리
1949년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	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화성군 태장면 망포리
1963년	화성군 태안면 영통리	화성군 태안면 신리	화성군 태안면 망포리
1985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
1994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수원시 팔달구 신리	수원시 팔달구 망포리
1995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수원시 팔달구 신동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003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수원시 영통구 신동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영통동은 본래 수원군 장주면(章州面) 영통리(靈通里)에 속했으나,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수원군 태장면(台章面) 영통리 소속이 되었다. 태장면은 당시 수원군에 속했던 태촌면(台村面)과 장주면, 그리고 남부면 일부가 통합된 행정구역이다.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시로 승격하지 않은 수원군의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통은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가 되었다. 1963년 화성군 태장면과 안룡면(安龍面)이 병합되면서 화성군 태안면 영통리가 되었고, 1985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가 되었다.

용인시 영덕동의 전신인 영덕리는 본래 용인군 지내면(枝內面) 영통(靈通)과 덕동(德洞)으로 나뉘어 있다가, 1914년 기흥면 영덕리로 통합되었다. 이후 1985년 기흥읍 소속이 되었고, 1994년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구역이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영통이라는 지명은 지금의 영통동뿐만 아니라 청명산 주변을 아우르는 명칭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1994년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될 당시 화성군 태안읍에 속했던 신리와 망포리, 그리고 용인군 기흥읍에 속했던 영덕6리(지금의 수인분당선 청명역의 북쪽에 자리한 황골마을 및 청명마을)도 개발지구에 포함되었다.² 신동은 본래 수원군 장주면 신촌(莘村)이었다가 1914년 수원군 태장면 신리가 되었고, 망포리는 수원군 태촌면 망포리(網浦里)에서 1914년 수원군 태장면 망포리가 되었다. 신리와 망포리는 1949년 화성군 태장면 소속으로 변경된 후 1963년 화성군 태안면 소속이 되었다. 이후 화성군 태안읍을 거쳐 1994년 수원시 팔달구로 이관되었다. 면적이 넓었던 영통동은 1994년 수원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법정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신리와 망포리는 이듬해인 1995년 4월 20일 법정동으로 지정되었다. 2003년 6월 9일 법정동 신동 일부가 법정동 영통동에 편입되었으며, 2009년 2월 16일 신동 일부가 매탄동으로 편입되었고 망포동 일부는 신동에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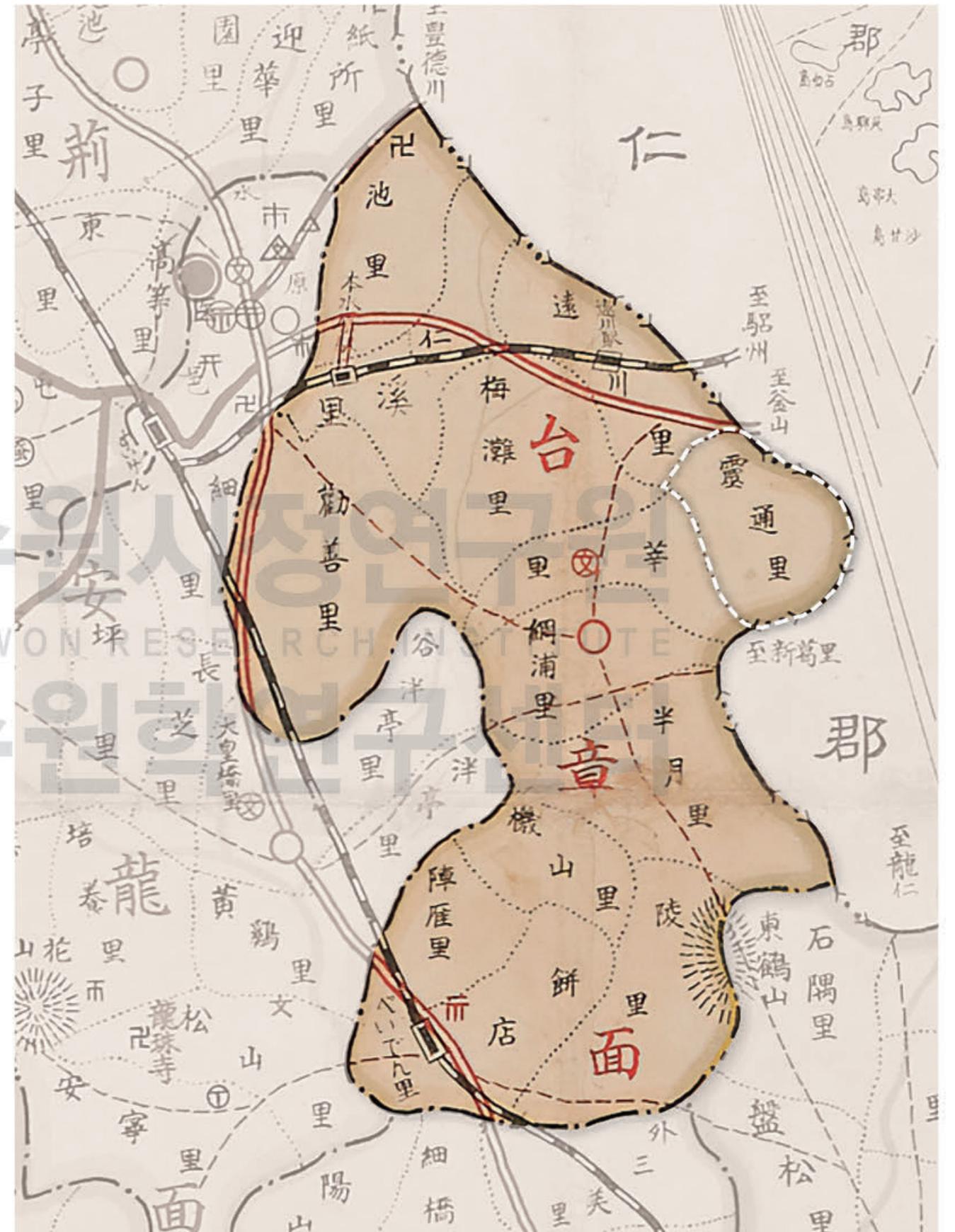
택지개발이 진행될 당시 개발의 단위지구는 행정구역상 리를 경계로 설정되었으며, 수원 시가지와 접해 있는 동시에 개발 가능지가 많았던 수원시·용인군·화성군 등 3개 시·군의 경계가 맞닿은 곳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다.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수원시가 택지개발의 중심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수원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들이 모두 수원시로 편입된 것이다.

영통동, 신리, 망포리 일부의 행정업무는 1994년 원천동에서 담당했지만, 법정동 신동과 망포동이 신설된 1995년 4월 이후에는 매탄3동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 1998년 3월 6일 영통동에 접한 매탄동 일부와 원천동 일부가 영통동에 편입되었다. 1998년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 10월 1일 행정동 원천동이 원천동과 영통동으로 나뉘면서 행정동 영통동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은 2000년 6월 26일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 분동되었다. 2017년 12월 26일에는 행정동 태장동이 관할했던 법정동 신동 전 지역과 망포동 일부 구역이 영통2동에 편입되었으며, 영통1동과 영통2동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고 영통3동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통동에는 영통1동, 영통2동, 영통3동에 이르는 3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행정동은 법정동 영통동 전 지역과 신동 전 지역, 그리고 망포동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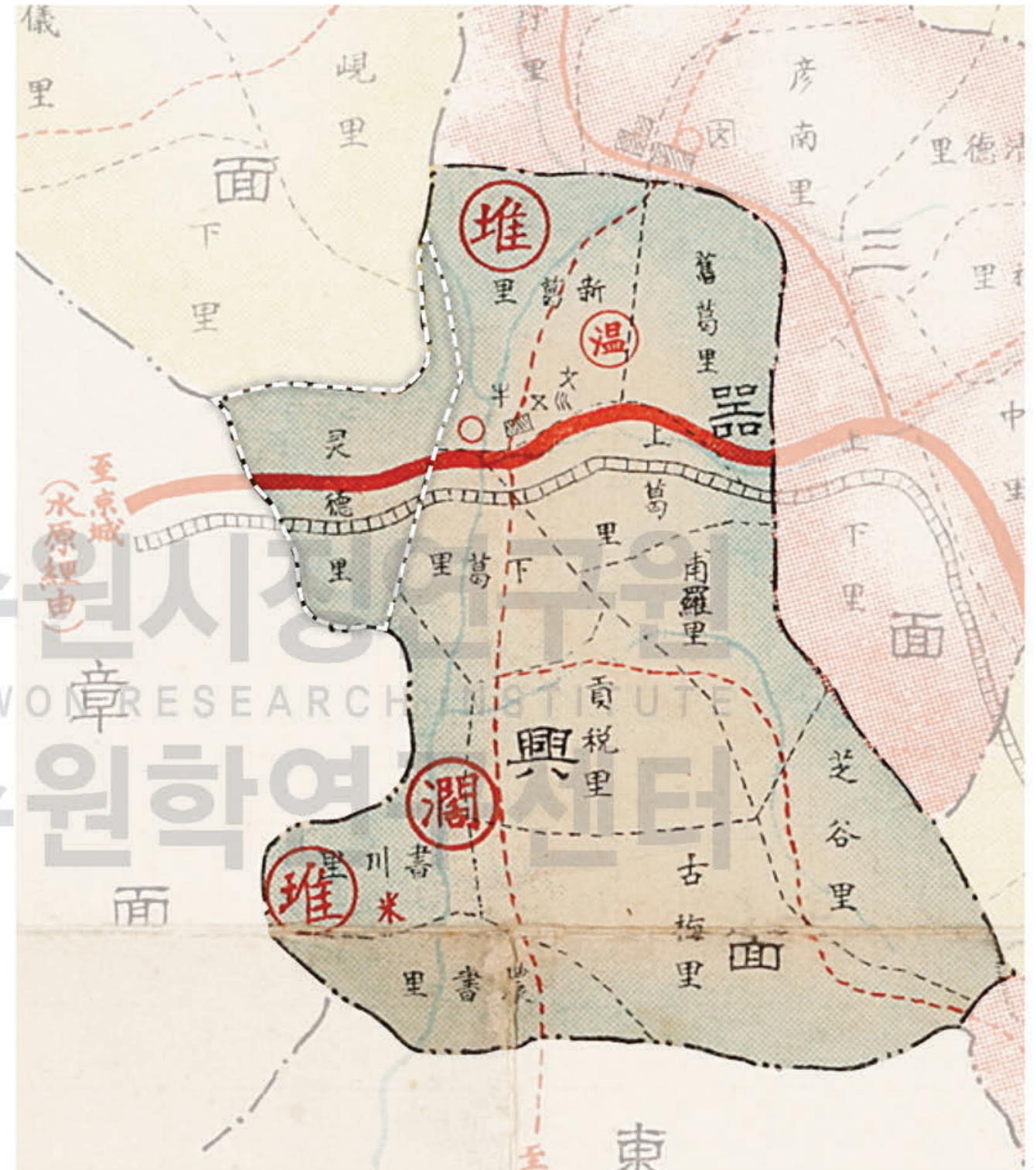
『수원부읍지에 나타난 태종면의 정주면(정주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1914년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



『해동여지도』 용인현 지도에 나타난 지내면(국립중앙도서관 제공)



1914년 용인군 기흥면 영역리

영통1동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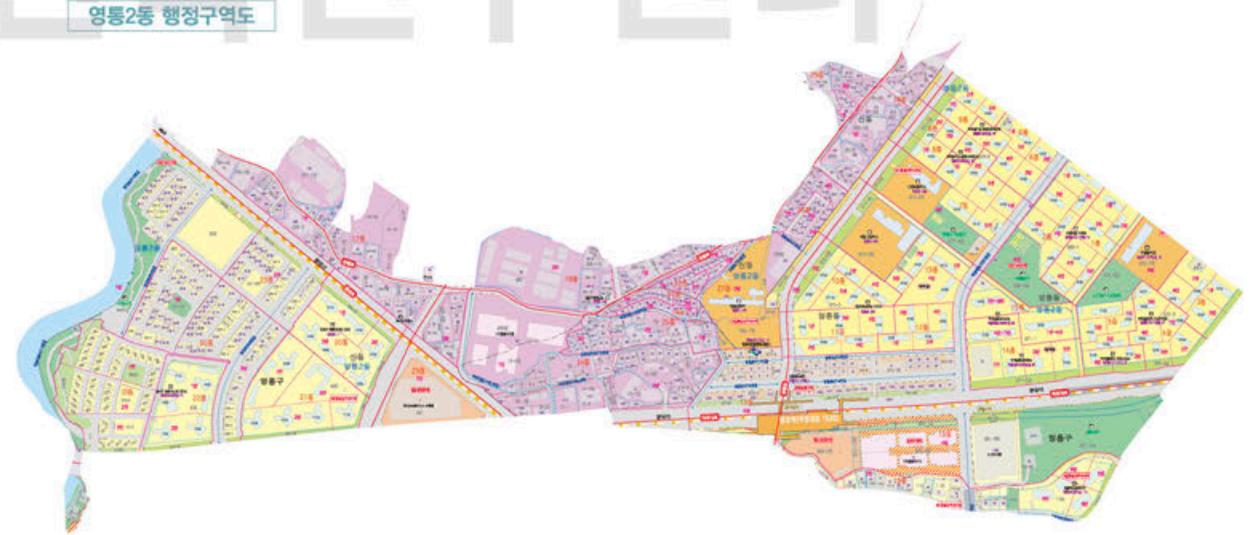


영통3동 행정구역도



수원시정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영통2동 행정구역도



부 구역을 관할한다. 법정동 망포동 가운데 영통2동의 관할구역은 망포역삼거리의 북동쪽에 자리하며, 도로 기준으로는 덕영대로의 북쪽이다. 망포동의 나머지 구역은 망포1동과 망포2동에서 관할한다. 영통동의 행정 경계는 용인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관계로, 2007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두 도시 사이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지금의 도시 간 행정 경계가 확정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 8월 13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부가 영통동에 편입되었다.

2. 낮은 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졌던 마을

1) 청명산 주변의 터전

‘영통’은 오래전부터 청명산의 서사면에 있던 자연마을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일찍이 영통리에는 큰말(大村), 뒷골(後谷)로 불리던 자연마을이 형성되었고, 영통리 남쪽으로는 신리(莘里)와 망포리(網浦里)가 있었다, ‘영통’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 번째는 청명산 산봉우리(巔)의 중심부(몸통)에 자리한 마을이라 ‘영통리’로 불렸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산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이 일대의 지형이 영통과 같은 모양이라는 데에서 영통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靈)과 통(通)하는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영통리는 과거에 산지촌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1920년대에는 산간벽지로 인식되기도 했다. 1973년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영통리의 산지에서 수종 개량, 산림 조성, 산림녹화를 통한 농촌 연료림 확보 등의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영통리는 산지와 농경지가 주요 구성 요소인 농촌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마을이다.

영통동은 택지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화의 물결이 거의 침투하지 않고 농경 활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농촌지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해발고도 200m 이내의 구릉성 산지를 비롯해 산지 사이를 흐르는 소하천, 소하천 주변과 계곡 사이에 펼쳐진 농경지와 자연마을, 멀리 원천리천 일대의 넓은 농경지와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다. 동쪽에는 청명산(191.9m)이 있으며, 이 산에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용인시의 아람산(143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용인시 기흥구와 경계를 형성한다. 영통동의 동쪽을 감싸는 듯한 청명산은 광교산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세가 구조선에 의해 단절된 형태이며, 완만한 기복은 해발 100m 내외의 구릉지로 발전해 산 곳곳에는 경사가 완만한 산록면이 발달하였다.³ 그러나 청명산의 서쪽 사면은 택지개발과 더불어 원래의 모습을 상실해서 과거의 지형적 특징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청명산의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아 구릉성 산지의 사이에 농경지가 형성되었다. 이 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로 인해 영통동은 중앙부에 해당하는 청명산 정상의 서쪽에 자리한 영통사 앞쪽(이곳에는 택지개발 이전에 자연마을 큰말이 있었음)의 고도가 높고, 영통동의 북쪽 경계 및 남쪽 경계로 향할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지형적 특징을 가진다. 영통동의 주요 지점별 해발고도는 북쪽의 영덕고가차도 근처가 약 60m, 청명역사거리와 영통사 일대가 약 70m, 망포역 일대가 약 30m이다.

택지개발 이전의 마을은 산지 사이에 조성된 산비탈의 밭과 평지의 논을 배경으로 사람



1950년대 영통동 일대 지형



청명산에서 바라본 영통리 전경(1993년)

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주변의 임야가 조화를 이루던 전형적인 농촌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청명산과 중앙의 산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경사도가 15% 이하인 저평한 구릉성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⁴ 전체적으로는 남쪽으로 향할수록 해발고도가 미세하게 낮아지는 북고남저의 형태이므로 사람들의 생활에는 장애 요소가 많지 않았다. 완만한 경사를 갖춘 지형적 특징과 수원의 기성시가지에 인접한 미개발지였다는 점은 택지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영통동에 있는 산지는 대부분 해발고도가 낮아서 험준하지 않은 저산성 산지이다. 특히 봉영로 서쪽에 자리한 산은 야산의 성격을 보이며 산줄기가 뚜렷하게 연결되지 않은 잔구성 산지의 특징도 가진다. 이러한 산지는 산사면이 평지와 만나는 지점에 가옥을 입지시킬 수 있고 마을 앞쪽으로는 넓은 농경지가 바라다보이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므로 과거 영통동의 농경지는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집 앞에 펼쳐진 문전옥답의 성격도 가졌다.

청명산은 산 정상에서 사방으로 30리가 훤히 보일 정도로 사방이 확 트여 있다는 데에

서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주변에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가 없고 대체로 고도가 낮은 야산이나 평평한 농경지가 분포했기 때문에 이 산의 정상에서 주변지역을 조망하기가 유리하였다. 청명산 이름의 또 다른 유래는 옛날에 군인들이 천명(天命)을 이어 가는 유명한 산이라는 데에서 천명산(天命山)으로 불리다가, 이후 시간이 흘러 지금과 같은 청명산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청명산은 예로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수원 지방에 가뭄이 들면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으며,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꼭 비가 내렸다고 한다. 산의 봉우리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전해지는 보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보물이 영(靈)과 통(通)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청명산 주변 마을을 영통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⁵ 1900년대 초반, 영통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청명산의 서쪽에 자리했던 큰말(大村)이었던 점도, 영통리의 지명유래가 청명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영통동의 산은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곳이다. 청명산은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 코스로 이용되며, 도시숲생태공원과 청명공원 등의 휴식처를 가지고 있다. 청명산의 서쪽에는 독침산(109m, 독지미산으로도 불림)을 중심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산사면에 형성된 영통리 농경지(1993년)



으로 조성된 영통독침산둘레길을 비롯해 독침산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영통중앙공원과 북쪽의 영흥숲공원 등이 주민들의 등산 및 휴식 코스로 기능하면서 도심 속 활력 충전소로 활용되고 있다. 영통동의 시가지 곳곳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지와 공원을 활용한 녹지공간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청명산을 비롯한 이 일대의 산지에는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2) 큰 하천이 통과하지 않는 마을

영통동은 수원의 4대 하천 가운데 하나인 원천리천을 경계로 권선동과 마주하지만, 영통동에 포함되는 원천리천의 구간은 백년교에서 곡반정교까지 약 700m에 불과하다. 이곳은 법정동 신동에 속한다. 광교산에서 발원한 원천리천은 원천저수지를 지나 영통구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흐르며, 수원비행장 남단의 대항교동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한다. 원천리천의 양옆으로는 오래전부터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벌터(坪村)라 불리던 자연마을도 있었지만, 수원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농경지는 대부분 시가지 또는 공업단지로 바뀌었다. 넓은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벌터는 일제강점기에 농사를 짓기 좋은 평평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동뿐만 아니라 원천리천 서쪽의 매탄동에 자리한 농경지까지가 벌터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했다.

원천리천의 동쪽 배후지에 자리한 신동도 2010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이 농경지였지만,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농경지가 지금과 같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하천변에 조성된 신동수변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산책 장소로도 이용된다. 2017년 원천리천의 물길을 그대로 살려 구불구불한 공원길로 조성된 신동수변공원(2만 4,000여㎡)은 자연 속에서 더위를 잊는 수원의 여름 명소 10선에 선정되었고 매년 여름 수국정원으로 꾸며지고,⁶ 봄철에는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행정 경계를 이루는 원천리천을 제외하면 영통동을 흐르는 하천은 그 규모가 아주 작았으며, 택지개발 이후에는 대부분의 물길도 사라졌다. 영통동의 골짜기와 농경지 사이를 흐르던 소하천은 주민들의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통동에서는 수원의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선사시대는 물론 통일신라시대의 거주 흔적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아,⁷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역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청명산에서 발원해 골짜기를 흐르던 하천은 망포동의 중앙에 자리한 농경지를 관통해



하천이 통과하지 않는 영통동(수원시 자연하천도)

신나무실(지금의 신동)을 지나 방죽머리 방향으로 흘렀지만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물길은 사라져 버렸다. 청명산에서 흐르는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되기도 했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던 물은 좋은 우물을 만들어 주었다. 영통사에 있는 우물도 청명산에서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고, 영통1동에서 영통2동으로 향하던 큰 고개를 찬우물고개라 부른 것도 청명산에서 내려오는 차고 좋은 물에서 유래하였다.

공동주택단지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황골, 신나무실, 살구골 등은 과거에 있었던 자연마을의 명칭이다. 이들 마을은 구릉지 또는 산사면의 끝자락에 자리했었기에, 마을을 통과하



청명산에서 발원한 물을 모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영통리(1993년)

는 하천이 없었다. 인간 거주에 물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인데,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영통동에서 일찍부터 다수의 자연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영통동은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은 물론, 땅속을 흐르는 지하수가 잘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통동에는 독침산 북쪽의 여우우물, 독침산 북쪽 논 가운데의 옷우물, 영통초등학교 근처의 오리우물, 청명산 서쪽의 중의우물 등 여러 개의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통동에 물이 풍부했음은 1950년대 수원 남쪽 태안평야의 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나무실 5단지 아파트의 서쪽에 방죽이 축조되었던 점, 그리고 좋은 샘이 있다는 데에서 마을 이름을 샘말로 불렀던 점 등으로도 알 수 있다.

3) 신시가지 개발로 일부만 전해지는 옛 지명

영통동은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대부분 잃어버렸지만, 지금의 시가지는 과거 농경지와 자연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터전으로 기능했던 곳이었다. 특히 산지 사이의 완사면과 평지에 조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농경활동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영통동에 속하게 된 마을(1971년)
영덕리 황곡, 영통리 큰말·뒷골·신영동·느티나무, 신리 신나무실·샘말이 현 영통동에 해당한다.

집단적인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이는 유서 깊은 자연마을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통동에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 1925년 기준 영통리와 신리에는 각각 75가구, 망포리 전 지역에는 79가구가 거주했고, 당시 태장면에 거주하던 인구가 1,329호에 7,792명이었다.⁸ 따라서 1호당 평균 가구원수는 약 6명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당시의 인구 규모를 추정하면, 영통리와 신리의 인구는 대략 450명 내외였을 것이다. 이후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택지개발 이전인 1990년 말 기준 영통동에 거주하던 주민은 약 2,000명이었다.⁹ 인구 증가는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 이외에 새로운 마을이 영통동에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택지개발 이전 영통동에 존재했던 자연마을에는 황골, 양지말, 뒷골, 큰말, 느티나무골, 신나무실, 새터말, 샘말(천죽, 天竹) 등이 있었다.¹⁰ 여러 곳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은 시가

지 개발로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새롭게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도시 내 시설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황골마을, 청명마을, 살구골마을, 신나무실, 벽적골이 영통동에 있던 자연 지명이다. 봉영로를 가로지르는 황골육교, 청명육교, 느티나무골육교, 신나무실육교를 비롯해, 황골공원, 벽적골공원, 살구골공원 등의 이름도 옛 지명을 계승한 것이다. 주요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¹¹⁾

황골

청명산의 북서쪽에 있던 마을로, 황곡(凰谷 또는 黃谷) 또는 황동(凰洞)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마을 이름은 큰 봉황이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데에서 생겨났다. 이 마을이 있던 곳은 영통동에서 가장 북쪽에 해당하며, 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용인에 속하였다. 지금은 수인분당선 청명역 북쪽의 주공아파트, 벽산아파트, 쌍용아파트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관련 지명으로는 황곡초등학교, 황골공원, 황골육교 등이 있다.

청명골

청명산의 서사면에 있던 골짜기이다. 수인분당선의 청명역 남쪽에 벽산삼익아파트, 주공아파트, 건영아파트, 삼성아파트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관련 지명으로는 청명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 청명역, 청명육교 등이 있다.

큰말

영통사 아래쪽에 있던 마을이며, 한자로는 대촌(大村)이라 표기하기도 했다. 영통동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할 때부터 형성되었던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다. '큰말'이라는 이름은 영통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큰말이 있던 자리에는 수원가정법원을 비롯한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살구골

경희대학교 캠퍼스의 서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이 일대는 현재 평평한 땅처럼 조성되어 있지만, 신시가지 개발 이전에는 낮은 경사를 가진 산사면이 있었고 그곳에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데에서 이름이 생겨났다. 지금은 살구골 동아아파트, 살구골 현대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으며, 살구골공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신나무실

독침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의 남서쪽에 있던 마을로, 개나리가 많다는 데에서 개나리 신(莘)자를 쓴 신나무실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법정동 신동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과거에는 장죽 또는 신촌(莘村)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1980년대에는 개나리가 신나무실의 동네 나무로 지



영통동에 남아 있는 옛 마을 지명

수원시성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소

정되기도 했다. 신나무실에는 동산말·양지말·샘말·아랫말 등의 이름을 가진 자연마을이 있었고, 마을마다 15호 내외가 거주했다고 한다. 지금은 신나무실 5단지과 6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봉영로를 건너는 신나무실육교에도 이름이 남아 있다. 신나무실에는 탐진 최씨(耽津 崔氏) 부호군파(副護軍派)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성촌이 있었다.¹²⁾ 1950년대에 간행된 「경기도지(京畿道誌)」에 따르면, 당시 신리에는 30호가량의 탐진 최씨가 살았고 마을의 역사는 약 500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택지개발 이전인 1994년까지 탐진 최씨 집성촌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¹³⁾

벽적골

신나무실의 남쪽에 있었던 골짜기로, 여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 가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데에서 이름이 생겨났다. 다른 유래로는 여주에 있는 신륵사에 사용할 기와를 이곳에서 구웠다는 설도 있다. 실제 벽적골에서는 기와 조각이 다량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지금은 벽적골 8단지과 9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중앙에는 벽적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느티나무골

큰말의 남쪽에 있던 마을로 느티마을 또는 앞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300년 이상의 수령을 지닌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이름이 생겨났다. 봉영로를 건너는 느티나무골육교에 이름이 남아 있다.

영통동에는 사람들의 거주 역사가 수백 년 이상 되었음을 알려 주는 보호수가 2곳에 있다. 대부분의 보호수는 마을 주변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해 온 마을 공동의 나무로 기능하며 마을의 상징이기도 하다. 영통동의 보호수는 모두 느티나무이고 1982년 10월 15일 수원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영통사 남쪽(청명로 100) 단오어린이공원 내부에 있는 느티나무(경기-수원-11호)는 나무의 나이는 500년이 넘는다. 그리고 청명중학교 서쪽(청명북로 118)에 있는 느티나무(경기-수원-18호)는 높이가 21m에 420년 이상 자란 보호수이다. 청명중학교 옆의 보호수 느티나무는 택지개발 계획에서 나무가 있던 자리에 도로가 통과하도록 구상되었지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를 분리하여 개설함으로써 도로의 중앙에 남아 있다.

단오어린이공원에 있는 느티나무는 본래 높이가 23m에 달했지만, 2018년 6월 비바람으로 훼손되어 지금은 후계목을 성장시키고 있다. 택지개발 계획에는 나무가 위치한 곳이 도로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해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영통청명단오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

청명중학교 서쪽에 있는
느티나무(이용창 제공)



통청명단오제의 명맥은 택지개발로 원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기존 마을 공동체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이 2005년부터 단오어린이공원의 느티나무에서 당산제를 지내면서 유지되고 있다.¹⁴

3. 택지개발을 통한 계획적 시가지 개발

1)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수원시에서는 1967년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후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년 12월 서울-신갈 간 개통), 경기도청 이전(1967년 6월), 공업화 등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9년 6월 재정비계획(건설부고시 제336호)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당시 화성군 태안면에 속했던 영통리가 수원시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¹⁵ 1993년 12월 28일에는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경기도고시 제1993-478호)이 공식적으로 고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초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시기에 영통동의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영통지구 개발은 인접한 용인 영덕지구와 함께 실시됨으로써 대단위의 택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영통지구 서울대도시권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서울로 집중하는 인구를 서울 주변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에 의해 개발되었고, 또한 수원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수원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 동수원 개발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수원의 도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원의 중추적 기능을 분담하도록 구상되었다.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최초 지정된 시기는 1989년 10월이다. 개발 예정지 면적은 1989년 10월 27일 지정된 영통지구가 256만 7,000㎡이었고 이에 앞서 1989년 10월 14일 지정된 용인 영덕지구는 62만 7,000㎡로, 모두 319만 4,000㎡이었다. 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은 1992년 12월 28일 328만 4,972㎡로 변경되었다. 당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공동주택(109만 4,912㎡)과 단독주택(11만 3,349㎡)을 합쳐 120만 8,261㎡에 달했으며, 수용인구는 세대당 평균 인원을 3.7명으로 계산하여 모두 2만 7,030호에 10만 명이었다.¹⁶

1980년대 말 수원의 도시공간은 지금과 같은 다핵이 아닌 단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원은 수원화성에서부터 시가지가 발달해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을 중심으로 도시

제12613호 판 보 1994. 1. 10. (월요일)

구분	종	면적(㎡)	비율(%)
기정 도로 및 광 소로, 광장	1,948.8	-	-
변경	1,557.9	-	-
기정 유 회 시 설 모체사장의 4층	390	-	-
변경	315	-	-
기정 편 익 시 설 면 소	18.5	10.3	-
변경	418.5	10.3	-
기정 공 원 광 리 시 설 쓰레기통의 1층	-	-	-
변경	-	-	-
기정 녹 지 및 기 타 녹 지	3,482.7	-	녹지율 58.0%
변경	2,701.6	-	녹지율 54.1%

○경기도고시제1993-478호
 현수면적(기정)을 시정하는 수원영동·용인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수원영동·용인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수원영동·용인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택지개발사업
 4. 사업의 위치: 수원시 영선구 영선동 11-2
 5. 사업의 면적: 3,284,972㎡ (영선동 11-2)
 6. 사업의 내용: 택지개발사업
 7. 사업의 용도: 택지개발사업
 8. 사업의 기타 사항: 택지개발사업

제12613호 판 보 1994. 1. 10. (월요일)

구분	종	면적(㎡)	비율(%)
기정 도로 및 광 소로, 광장	22,296,630.6	중 2,211,837	24,508,467.6
변경	30,239	중 23,707	62,946
기정 유 회 시 설 모체사장의 4층	3,459,064	중 462,568	3,921,632
변경	-	중 145,117	145,117
기정 편 익 시 설 면 소	3,499,064	-	3,499,064
변경	-	중 317,451	317,451
기정 공 원 광 리 시 설 쓰레기통의 1층	4,410,400	중 8,936	4,419,336
변경	1,065,700	중 2,352	1,068,052
기정 녹 지 및 기 타 녹 지	3,344,700	중 6,584	3,351,284
변경	99,091,401.4	중 2,689,176	101,780,577.4
기정 녹 지 면 소	13,469,091	-	13,469,091
기정 녹 지 면 소	81,611,770.4	중 2,689,176	84,300,946.4

○경기도고시제1993-478호
 현수면적(기정)을 시정하는 수원영동·용인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수원영동·용인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수원영동·용인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택지개발사업
 4. 사업의 위치: 수원시 영선구 영선동 11-2
 5. 사업의 면적: 3,284,972㎡ (영선동 11-2)
 6. 사업의 내용: 택지개발사업
 7. 사업의 용도: 택지개발사업
 8. 사업의 기타 사항: 택지개발사업



영통·영덕 신시가지 조성사업 조감도와 사업개요(수원박물관 제공)

수원영동·용인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결정조서(경기도고시 1993-478호)

기능이 확장되었지만, 시가지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및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인하여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이 쉽지 않았으며 도시 중심부의 흡인력도 강력하게 발휘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시가지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공군 비행장 등은 수원의 도시개발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수원시의 도시기능 확대에 따른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에 장애물이었던 셈이다.

이에 반해 수원권은 수도권에서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으며, 서울에서 분산된 일부 기능과 경기도의 주요 행정기능을 수용함으로써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원역에서 수원화성의 발달 문에 이르는 구간이 수원의 중심지로 기능했다면, 1990년대에는 수원역의 동쪽에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수원의 도시공간이 다핵화의 길에 진입하게 되었다. 수원의 시가지는 지금의 수원시청이 자리한 인계동을 중심으로 권선동 및 대탄동 일대가 새롭게 개발되면서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수원 시가지의 확장이 동쪽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개발된 마지



막 구역이 바로 영통지구라 할 수 있다. 영통지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원의 동쪽에서 도시화 수준이 낮은 미개발 상태의 농촌적 성격이 강했고 일부 구역에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만큼, 시가지 확장을 위한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수원에서는 주택부족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수원의 주택보급률은 1980년 56.4%에서 1990년 57.8%로 증가하는 데 그쳤을 정도로,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수원의 인구 규모는 31만 757명에서 64만 4,968명으로 증가했고, 세대당 인구는 5.6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수원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회적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원에서의 주택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한정된 토지자원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필수적이었다. 영통지구에 최초 계획된 2만 7,000여 호가 수원의 주택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주택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었다.



영통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1995년,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1995년, 수원박물관 제공)

2) 농촌적 토지이용을 대체한 도시적 토지이용

택지개발은 주택공급의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도시문제의 발생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영통동과 함께 1994년 수원시에 편입된 망포동과 신동은 영통지구에 맞닿아 있음에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됨에 따른 스프롤(sprawl) 현상을 노출하게 되었고, 이는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 등의 도시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신동과 망포동에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수원시 인구 증가 및 도시 성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통동에 인접한 망포동과 신동에서도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영통동에 접한 지역에서도 영통 또는 신영통이라는 장소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영통동은 택지개발을 통해 주거단지를 비롯한 도시적 시설물이 들어서고 도로망 역시

수원하역구센터

기존 수원의 도로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영통동의 변화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도로 및 건축물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도시경관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지목 구성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이다. 여기에서는 법정동 영통동과 신동을 대상으로 지목 구성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일부 구역만 영통동에 포함되는 망포동은 제외하였다.

지목이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지목 구성을 통해 도시적 요소 또는 농촌적 요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지목별 구성 변화에 대한 분석은 한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시계열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택지개발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994년은 물론 시가지 개발이 마무리되기 이전인 1997년만 해도 영통동과 신동의 지목 구성은 농촌적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신동에서는 제조업의 발달도 탁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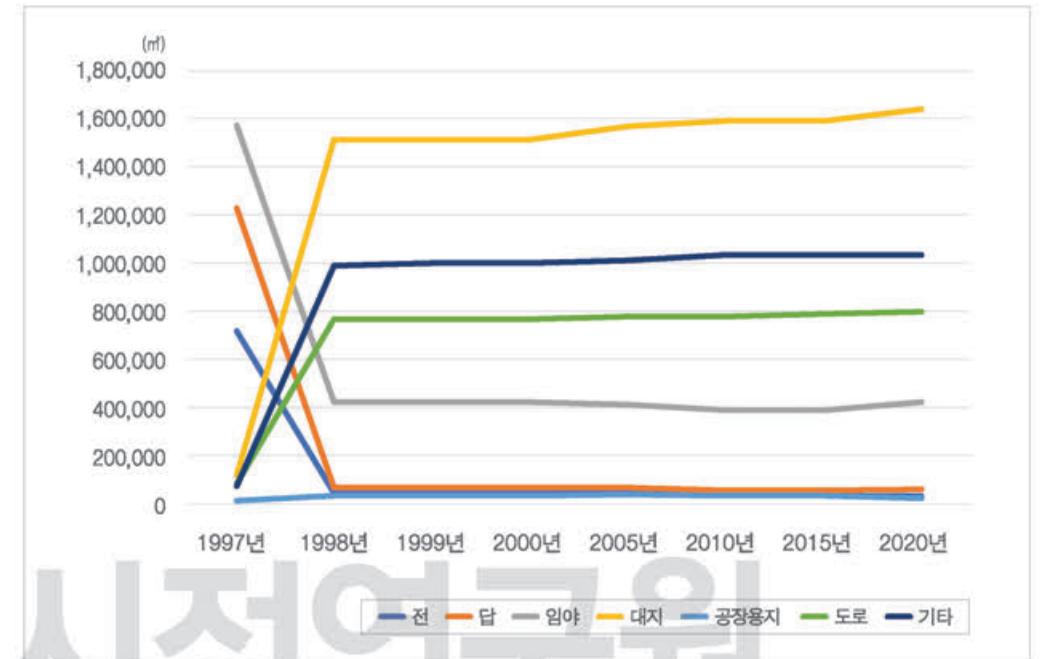
<표 2> 법정동 영통동과 신동의 지목 구성 변화

시기	법정동	(단위 : m ²)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도로	기타
1997년	영통동	3,823,490	720,176	1,231,583	1,573,991	120,958	14,950	85,922	75,910
	신동	1,352,948	121,290	276,992	57,117	115,554	613,171	59,225	109,599
1998년	영통동	3,866,917	50,015	72,410	429,542	1,515,673	33,585	772,967	992,724
	신동	1,352,273	120,646	274,097	57,117	111,316	618,035	59,268	111,794
1999년	영통동	3,865,661	45,916	72,410	424,902	1,516,707	33,585	773,123	999,017
	신동	1,224,732	104,086	172,625	56,754	110,168	626,596	57,841	96,662
2000년	영통동	3,865,600	45,296	72,410	422,316	1,519,825	33,585	773,150	999,017
	신동	1,225,972	89,000	146,717	56,053	107,537	640,102	89,411	97,152
2005년	영통동	3,938,268	48,283	68,511	414,977	1,569,838	40,646	781,476	1,014,536
	신동	1,154,099	54,334	134,212	37,776	91,712	659,728	84,945	91,392
2010년	영통동	3,938,272	38,367	62,339	395,200	1,588,182	33,985	782,821	1,037,377
	신동	563,575	43,153	142,004	17,271	95,293	116,308	71,847	77,699
2015년	영통동	3,938,270	38,367	62,339	391,442	1,593,598	33,985	787,109	1,031,430
	신동	563,387	2,340	3,259	2,728	233,932	99,176	114,720	107,232
2020년	영통동	4,024,550	34,190	62,288	424,102	1,641,859	26,551	800,880	1,034,680
	신동	607,663	1,680	3,199	2,721	254,373	102,085	128,004	115,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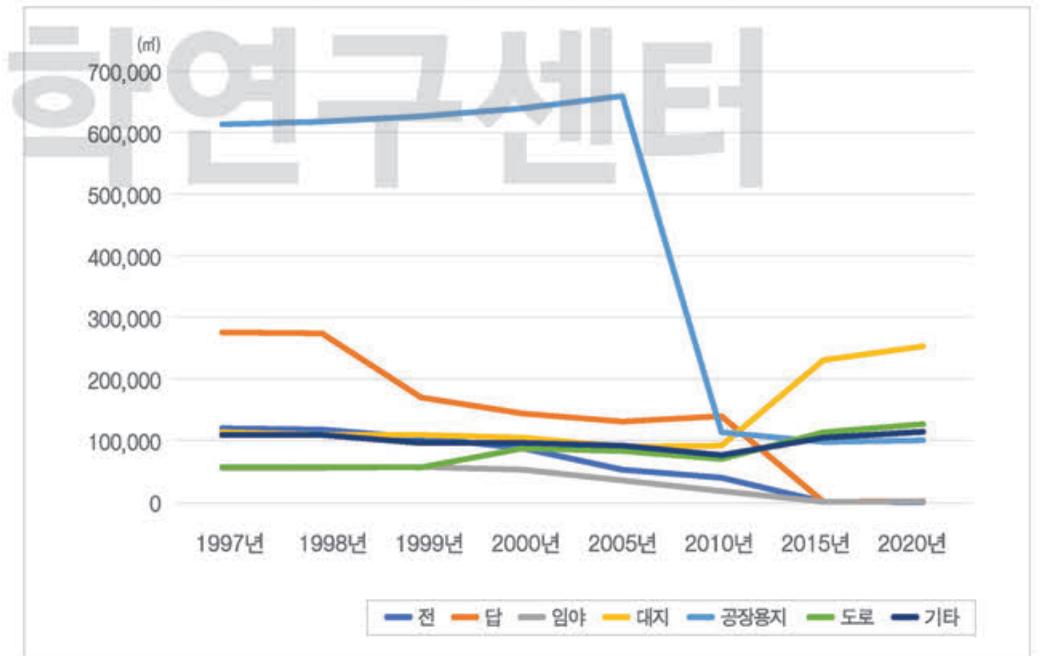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인 1997년 지목 구성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전체 면적의 41.2%에 달하는 임야이고 그 뒤를 이어 답(32.2%), 전(18.8%)의 순이었다. 임야는 청명산을 비롯해 독침산과 그 주변에 넓게 분포했었다.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을 보여 주는 대지(3.2%)와 도로(2.2%)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았다. 본래의 영통동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곳이었으므로, 상주인구의 규모도 크지 않았고 주택이나 도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었다.

신동의 지목 구성은 1997년 기준 공장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5.3%로 가장 높았고 답(20.5%), 전(9.0%), 대지(8.5%) 등의 순이어서, 영통동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동은 북쪽의 매탄동 및 권선동의 시가지와 접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물결이 영통동에 비해 일찍 침투한 곳이다. 즉 신동은 영통택지개발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수원의 도시화가 외연적으로 확대되는 최전선에 자리했으며, 이는 신동이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영통동은 신동보다 더 외곽에 자리하므로 도시화의 진



1990년대 후반 이후 영통동 지목 구성 변화



1990년대 후반 이후 신동 지목 구성 변화





공장용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신동(김승일 제공)

행이 미비한 농촌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영통동과 신동은 1997년까지만 해도 도시적 성격이 미약했지만 1998년 들어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택지개발지구의 서쪽에 자리한 해발고도 100m 내외의 일부 산지는 시가지로 개조되었고, 주변의 농경지는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도로 등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영통동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급감했고 전과답의 비중도 각각 1.3%와 1.9%로 줄었다. 반면 주택·사무실·상가 등의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의 비중은 39.2%로 상승했으며,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로 급증하였다.

영통택지개발지구에 접해 있지만 개발이 느리게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신동에서는 1999년 5월 준농림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통해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의 입지가 활발해지면서 공장용지의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신동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건설되면서 2008년 디지털엠피어2에 300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입주하기도 했다. 한편 신동의 면적은 2008년 115만 42㎡에서 2009년 55만 7,546㎡로 감소한 이

유는 삼성전관(지금의 삼성SDI)과 삼성코닝 등의 공장부지가 신동에서 매탄동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며, 신동의 공장용지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신동에서는 2008년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신동지구 개발은 수원시 주변에 자리한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영통지구에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도시 수원의 발전축을 형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신동은 일련의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지의 면적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논으로 이용되었던 곳은 주거지, 상업시설, 직교형의 도로 등이 지배적인 장소로 변화하였다.

3) 양호한 주거여건을 갖춘 도시브랜드, 영통

영통동은 1994년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의 주거단지가 조성된 후,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의 중산층들이 이주해 오고 삼성전자 수원공장과 접한 시가지로 발전하면서 수원시의 고급 주택지역 또는 부자들의 마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영통동은 2000년대 들어 수원의 동남쪽에 자리한 신흥주거단지인 동시에 중상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의 장소성을 지니게 되었고 시가지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영통동에 인접한 망포동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서도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영통이라는 브랜드는 행정구역이 영통동에 포함되지 않는 망포동 및 용인시의 공동주택단지 이름에 사용될 정도로 지명이 가지는 장소성의 공간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신개발지를 가리키는 지명은 단순히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면서 장소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따라서 영통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농경활동을 하며 거주하던 농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및 상업시설을 비롯해 교통망이 잘 구비되어 전체적인 생활환경이 양호한 신시가지로서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영통의 이미지는 수원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거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고착화하였다. 이로 인해 영통동에 인접한 지역에서도 영통이라는 장소이미지를 공유하기 위해 영통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근래에는 기존 영통지구에 접한 주변지역이 신영통으로 불리기도 한다.

4) 주변지역으로 잘 연결된 교통여건

택지개발을 통해 신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영통동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여건도



영동동 중심상권(김승일 제공)

크게 개선되었다. 택지개발 이전에는 영통동 일대를 관통하는 도로망은 폭이 좁은 도로로 구성되었지만, 개발 이후에는 증가한 인구와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충되었고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여건도 크게 향상되었다. 도로망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종로와 소로가 직교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맨발공원 서쪽의 영통로 건너편에서부터 원천리천을 건너는 백년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영통로, 덕영대로, 권선로 등에 둘러싸인 구역은 계획적 요소의 개입이 두드러지지 않아 과거의 경관을 유지한 채 미로형의 도로로 남아 있다.¹⁷

영통동에서는 청명산이나 독침산과 같은 자연적 경관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개발됨에 따라 산줄기 사이를 따라 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시가지를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왕복 10~12차로의 대로인 봉영로(국도43호선)가 간선도로로 기능한다. 도로명으로는 영통로가 영통동을 대표하는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영통동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는 봉영로이다. 봉영로가 영통로를 대표하는 간선도로인 이유는 수원시 도시계획과 일치하도록 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도43호선이 통과하는 도로의 이름이 봉영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영통동의 서쪽 경계에서 국도42호선(중부대로)과 교차하는 도로는 영통로이며, 영통로 파생된 영통로200번길은 영통동의 동남쪽에서 망포동 및 용인시와 경계를 이룬다. 영통동의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는 대부분 봉영로와 교차한다. 봉영로와 교차하는 도로에는 영통로541번길, 청명북로, 청명로, 반달로, 매영로, 청명로1517번길, 덕영대로 등이 있다.

〈표 3〉 영통동의 주요 도로 및 파생도로

주도로	파생도로
봉영로	봉영로1482번길, 봉영로1492번길, 봉영로1517번길, 봉영로1744번길, 봉영로1759번길, 봉영로1770번길
영통로	영통로200번길, 영통로213번길, 영통로214번길, 영통로 217번길, 영통로218번길, 영통로241번길, 영통로290번길, 영통로345번길, 영통로351번길, 영통로501번길, 영통로514번길, 영통로525번길
덕영대로	덕영대로1471번길, 덕영대로1483번길, 덕영대로1499번길, 덕영대로1556번길, 덕영대로1673번길, 덕영대로1681번길
매영로	매영로269번길, 매영로310번길, 매영로345번길, 매영로365번길, 매영로393번길, 매영로415번길, 매영로425번길
영일로	영일로6번길, 영일로21번길
반달로	반달로35번길
청명로	청명로21번길, 청명로43번길, 청명로59번길
청명남로	청명남로50번길
청명북로	청명북로7번길, 청명북로15번길



영통동의 주요 도로 및 파생도로



영통동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봉영로(김승일 제공)



영통동과 매탄동의 경계를 이루는 영통로(김승일 제공)



영통동 북쪽의 동서로 놓여 있는 중부대로(김승일 제공)



영통동 남쪽의 동서로 놓여 있는 덕영대로(김승일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2012년 11월 30일 수인분당선 개통일 청명역(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신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북쪽으로는 국도42호선이 동서 방향으로 통과했으며, 이 도로는 수원과 용인에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왕복 8차로로 확장되었다. 이 도로의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수원신갈IC가 설치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수원의 도심으로 연결된다. 영통동의 중앙을 관통하는 국도43호선은 영통동의 북쪽에서 국도42호선이 통과하는 영덕고가차도와 교차하면서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준다. 국도43호선은 남쪽의 망포동을 지나 화성시로 이어지고 주변지역으로 연결되는 일반지방도와 교차함으로써 남북 방향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통동의 북쪽으로는 용인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흥덕IC가 개통되어 있어서, 영통동에서 인접 지역은 물론 서울 등지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영통동의 교통여건에서 수인분당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의 청량리역에서 수원역을 지나 인천의 인천역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노선으로 2020년 9월 12일 전 구간이 개통했지만, 영통동을 통과하는 기흥역-망포역 구간의 노선은 이미 2012년 12월 1일 분당선 구간으로 개통하였다. 망포역에서 수원역 구간의 노선은 2013년 11월 30일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분당선 전구간이 개통되었다.¹⁸ 일제강점기인 1937년 개

통한 수인선 협궤열차가 사라지고 그 노선을 대체해 새롭게 부설된 수인선은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의 노선이었다. 수원역까지 운행하던 기존의 분당선과 수인선 철도는 개별 노선으로 운행했지만 2020년 9월 12일 하나의 노선인 수인분당선으로 통합되었다.

수인분당선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수원에서 서울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 주고 수원 서부의 안산과 인천 등지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의 간선철도망으로 가능하다. 수인분당선은 영통동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영통동에는 청명역, 영통역(경희대), 망포역 등의 지하철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동에서는 원천리천을 건너 매탄동에 설치된 매탄권선역까지의 거리도 가깝다. 영통동의 어느 곳에서든 이들 전철역까지 도보로 15분 내외의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노선버스를 이용한 교통은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수원 도심을 비롯해, 영통동에 인접한 화성시와 용인시 등지로 연결되고, 광역버스는 모두 서울로 향한다. 광역버스는 5개 노선이 봉영로를 따라 영통동을 관통하는데 그 가운데 4개 노선은 수원신갈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의 강변역, 신논현역, 서울역 등지로 운행하고, 1개 노선은 수원시 내를 경유해 사당역으로 향한다. 또 다른 2개 노선은 영통동 동남쪽의 덕영대로를 경유해 서울의 신논현역과 강남역으로 운행한다. 다만 영통로의 일부 구간(난방공사사거리-망포역사거리)은 노선버스가 전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화성시 동탄에서 안양시 인덕원으로 연결되는 복선 전철(동탄인덕원선)이 영통동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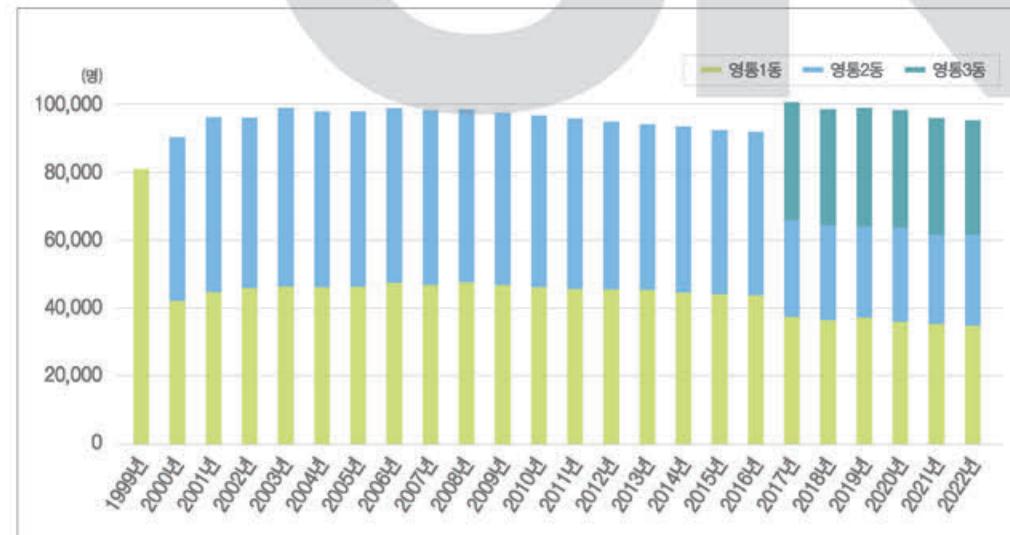
과하는 것도 영통동의 교통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 전철은 광교·영통·동탄 등 대단위의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탄인덕원선은 영통역에서 수인분당선과 교차한다.

4. 영통동의 인구 구성과 생활권

1) 외지인의 전입으로 빠르게 증가한 인구

영통동의 인구는 1999년 8만 779명이었다가 이듬해에 9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규모는 9만 5,000명을 상회했으며, 인구 규모의 정점은 2006년의 9만 8,841명이었다. 2006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영통동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지만, 2017년 법정동 신동이 영통동의 관할에 들어오면서 2017년(10만 702명)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영통3동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규모는 2017년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감소해, 2022년 6월 말 기준 9만 4,994명이다.

영통동의 인구 변화는 수원시의 인구 변화 패턴과 다소의 차이점을 가진다. 수원시의 인구가 2002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영통동의 행정동별 인구 규모의 변화(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통계로 보는 수원」 매년 12월 31일이 기준이고 2022년은 6월 말 기준이다.)



영통동 초등학교 앞 풍경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전환한 것과 달리, 영통동의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감소하였다. 즉 수원시의 전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영통동에서는 인구의 감소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2006년 이후 영통동의 인구 규모 변화가 수원시의 인구 증가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음은 택지개발 직후 영통동의 인구 증가가 수원시의 인구 증가에 미친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영통동의 인구가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8.9%에서 2022년 7.8%로 감소하였다. 2017년 이후 3개의 행정동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2만 4,154세대가 거주해 세대당 평균인구가 3.3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세대수가 3만 9,612세대로 증가했음에도 인구가 감소해 세대당 평균 인구는 2.4명으로 줄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 대상지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고, 새롭게 조성된 시가지에는 원주민보다 외지인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택지개발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0년 말 기준 영통동에는 약 2,000명이 살고 있었다.¹⁹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된 2001년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이 진행되었던 수원의 여러 개발지구 가운데 영통동은 외지에서 전입한 사람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당시 서울에서 전입한 사람의

비율은 영통동이 11.9%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원의 택지개발 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었다.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 영통동으로 전입한 사람의 비중은 울천지구 다음으로 높은 32.0%를 기록하였다.²⁰ 다른 택지개발지구로 전입한 사람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입한 사람의 비중이 전체 전입자의 30%에도 미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당시 영통동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주민은 이동성이 양호한 30~40대 젊은 연령층이 많아서, 영통동이 속했던 영통구는 2003년 주민의 평균 연령이 29.0세로 우리나라의 시군구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의 지위를 차지했으며,²¹ 영통동도 평균 연령이 낮은 '젊은 도시 영통'의 장소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²²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영통1동과 영통2동의 평균 연령은 모두 26세로, 이는 수원시의 평균 연령(30세) 또는 전국의 평균 연령(33세)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러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영통동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영통1동 38.2세, 영통2동 34.9세, 영통3동 36.8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연령은 42.9세이고 수원시의 평균 연령은 40.2세인 것과 비교하면 영통동의 평균 연령

수원-화성경제조정편입주민음악회에
참석한 영통동 주민
(2020년,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신규의 택지개발이 진행되었던 광고1동과 망포2동의 평균 연령이 각각 35.1세와 34.2세이었음을 고려하면, 택지개발의 시기가 오래된 영통동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표 4> 5세 간격 연령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

(단위 : %)

연령층	연도 성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유소년	0~4세	6.4	5.8	4.1	3.7	3.7	3.5	3.3	3.3	2.2	2.1
	5~9세	7.2	6.5	5.3	4.5	3.8	3.4	3.3	3.0	2.6	2.5
	10~14세	4.5	4.1	5.8	5.0	4.9	4.3	3.6	3.3	3.1	2.8
	합계	18.1	16.4	15.2	13.2	12.4	11.2	10.2	9.6	7.9	7.4
청장년	15~19세	2.5	2.4	3.7	3.3	4.8	4.3	4.2	3.8	3.1	2.9
	20~24세	1.8	1.8	2.8	2.7	2.8	2.8	4.0	4.0	4.0	3.8
	25~29세	3.4	5.1	3.5	4.0	3.0	3.4	3.2	3.3	5.7	4.5
	30~34세	6.8	7.9	5.9	6.4	4.9	5.2	4.4	4.7	4.9	4.3
	35~39세	8.0	7.0	6.1	6.6	5.7	6.1	4.8	4.9	4.3	4.1
	40~44세	5.6	3.8	6.4	5.6	5.9	5.1	5.1	4.2	4.2	4.5
	45~49세	2.1	1.4	4.1	2.7	5.1	4.4	4.9	4.9	4.7	4.7
	50~54세	1.0	0.7	1.5	1.0	3.1	2.2	4.1	3.6	4.1	4.2
	55~59세	0.5	0.6	0.6	0.6	1.1	1.0	2.6	2.1	3.4	3.2
	60~64세	0.4	0.5	0.5	0.6	0.7	0.7	1.0	1.0	2.2	2.0
합계	32.1	31.2	35.1	33.7	36.8	36.0	38.3	37.4	40.6	38.0	
노년	65~69세	0.3	0.5	0.4	0.6	0.5	0.7	0.6	0.8	1.0	1.0
	70~74세	0.2	0.4	0.3	0.5	0.4	0.7	0.4	0.7	0.6	0.8
	75~79세	0.1	0.3	0.2	0.3	0.2	0.5	0.4	0.6	0.4	0.7
	80~84세	0.1	0.1	0.1	0.2	0.1	0.3	0.2	0.4	0.3	0.6
	85세 이상	0.0	0.1	0.0	0.1	0.1	0.2	0.1	0.3	0.2	0.5
	합계	0.7	1.4	1.0	1.8	1.3	2.4	1.7	2.8	2.5	3.6

자료 :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해당연도.

영통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은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영통동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특히 15세 미만의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4.5%에서 2020년 15.3%로 급감했으며,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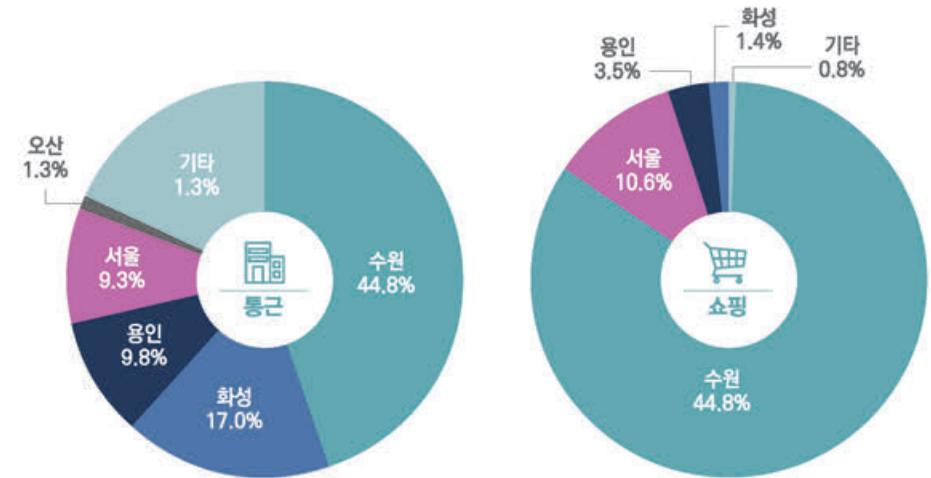
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은 2000년 2.1%에서 2020년 6.1%로 상승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장년층의 비중은 2000년 63.3%에서 2020년 78.6%로 크게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연령층은 2000년의 35~39세층과 30~34세층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5~29세층과 45~49세층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속성의 변화는 평균 연령의 상승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조만간 영통동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임을 의미하며, 젊은 연령층의 진입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시에 출산율이 낮아졌음을 보여 준다. 영통동의 성별 인구 구성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2) 주민들의 생활권

영통동은 서울로 집중하는 인구를 서울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의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이므로, 1990년대 이후 서울대도시권에서 본격화한 주거지 교외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주거지 교외화는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된 탈도시화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직장은 서울에 그대로 두고 주거지만 서울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직장과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영통동의 초기 입주자들은 수원시 내부에서의 이주보다는 서울을 비롯한 수원시 외부지역에서 전입해 온 젊은 연령층이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양호한 집단이므로 수원 이외의 지역에 직장을 두고 주거지만 영통으로 옮긴 경우가 많았다. 즉 영통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권은 수원의 기성시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권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영통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근통행 및 구매 행위를 위한 쇼핑통행의 일일 이동패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통근통행과 쇼핑통행의 도착지 순위에서 상위에 자리한 도시는 수원, 화성, 용인, 서울 등 4개 지역이 동일하지만, 통행목적에 따른 도착지별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통근통행은 대체로 인접해 있거나 가까운 거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영통동 거주자가 가장 많이 향하는 도착지도 수원시이다. 영통동에서 수원시로 향하는 통근통행의 비율은 전체의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화성시(17.0%), 용인시(9.8%), 서울시(9.3%) 등이었다. 수원에서는 영통구,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의 순으로 이동이 많았다. 한편 인접 도시인 화성에서는 영통동의 남쪽에 개발된 동탄신도시와 뉴타운이 개발된 향남읍으로 향하는 비율이 높았고, 용인에서는 영통동에 인접한 서농동, 영덕동을 비롯



2020년 영통동 주민의 통행목적별 도착지 분포(국가교통 DB)

해 기흥동 등지로 향하는 통행의 비율이 높았다. 영통동 거주자의 통근통행권은 수원시를 비롯해 인접한 용인 및 화성시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영통동에서 거리는 멀지만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서울로의 통근통행률도 높게 형성된 특징이 있다.

영통동 주민들의 상품 구매를 위한 생활권은 통근통행권과 다르게 전개되었다. 수원시(83.6%) 내부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시(10.6%), 용인시(3.5%), 화성시(1.4%)의 순이었다. 수원시에서는 영통구 내부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용인시나 화성시로 쇼핑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쇼핑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형성된 것이 통근통행과의 차이점이다. 영통신도시 개발 초기인 2002년에 영통동 주민의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생필품인 채소와 생선 등은 영통지구 내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의류 및 가전제품, 레저용품, 귀금속 등은 영통 이외의 수원시 또는 성남시 분당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였다.²³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영통동 거주자의 구매활동은 동수원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고가의 물품일수록 구매를 위해 수원시를 벗어나 먼 곳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성남시로 구매활동을 떠나는 빈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서울로 장거리 구매활동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영동역 중심상가 입구와 직녀광장(김승일 제공)

5. 노후 시가지 정비를 통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영통동

도시화의 흐름이 거의 스며들지 않은 채 농촌적 모습을 간직해 왔던 영통동은 1994년부터 본격화한 택지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전혀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과거의 영통리가 청명산과 그 주변의 구릉지, 산사면에 자리한 옛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넓은 들판, 한적한 전원적 성격을 가진 고즈넉한 마을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면, 지금의 영통동은 고층의 주거단지과 많은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넓고 반듯한 직교형의 가로망,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보유한 계획적인 시가지라는 특징을 가진 도시로 변모하였다.

시가지 개발로 과거의 생활터전은 대부분 사라지고 그곳을 점유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을 떠났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온 이주자들의 새로운 생활터전이 만들어졌다. 수원 도심과 인접 도시는 물론 멀리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었고, 다양한 도시기능의 입지는 사람들의 생활 편익을 증가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영통동은 수원시의 도시화 영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한 동시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용인시 및 화성시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영통동의 일부 구역은 여전히 노후 시가지로 남아 있고 도시환경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영통동 전체의 도시공간은 효율성이 감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택지개발로 조성된 신시가지만 영통으로 간주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인 영통동은 신시가지는 물론 신시가지에 접한 지역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영통동이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친화적인 공간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남을 필요가 있는 한편, 영통동 서쪽의 시가지에 대한 공간 재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시가지와 삼성전자의 중간 지대는 택지개발지구 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점이지대적 성격을 동시에 나타낸다.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이 혼재된 노후 시가지는 여건이 열악한 슬럼(slum)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므로, 예방 및 개선 활동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노후 시가지의 도로망과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신시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영통동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

1.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로 인해, 영통택지개발지구에 연관된 화성과 용인은 세력 축소 및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영통의 수원시 편입을 반대하였다.
2. 영통리와 신리는 1987년 수원시 행정구역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망감이 폭등해, 한때 부동산 투기 상설조사반 설치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의 지리적 환경』, 홍익문화사, 34-35쪽.
4.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동-용인영역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55쪽.
5. 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은누리기획, 139쪽.
6. 수원특례시 보도자료, 「자연 속에서 더위 잊는 수원 여름 명소 10선(選)」, 2022년 8월 9일.
7. 한신대학교박물관, 1993, 『水原靈通 龍仁靈德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 調査報告書』, 한신대학교박물관, 125쪽.
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97, 『수원시사』, 125쪽.
9.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동-용인영역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62쪽.
10. 수원지명유래(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052).
11. 수원문화원, 1999, 『수원지명총람』, 은누리기획, 484-492쪽.
12. 탐진은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13. 수원시, 2006, 『수원의 동족마을』, 시은기획, 285쪽.
14. 수원시, 2019,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삼이디자인, 35쪽.
15. 수원시, 2012,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64쪽.
16.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동-용인영역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25쪽.
17. 이 구역은 행정구역상 영통1동과 영통3동의 서쪽 경계부에서 시작해 영통2동의 북쪽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18. 이후 분당선의 청량리역-왕십리역 구간이 2018년 12월 31일 개통됨에 따라 분당선의 구간은 연장되었다.
19.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동-용인영역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62쪽.
20. 이권원·김세용, 2010, 『수원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1996-2006년의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5권 제1호, 12-13쪽(7-20)
21. 「고령화사회로 '고속질주」, 『문화일보』, 2004년 9월 25일.
22. 정다미, 2011, 「'정소상' 기반의 도시문화공간 연구-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49쪽.
23. 조기주, 2001, 『영통신도시 주민의 구매활동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27쪽.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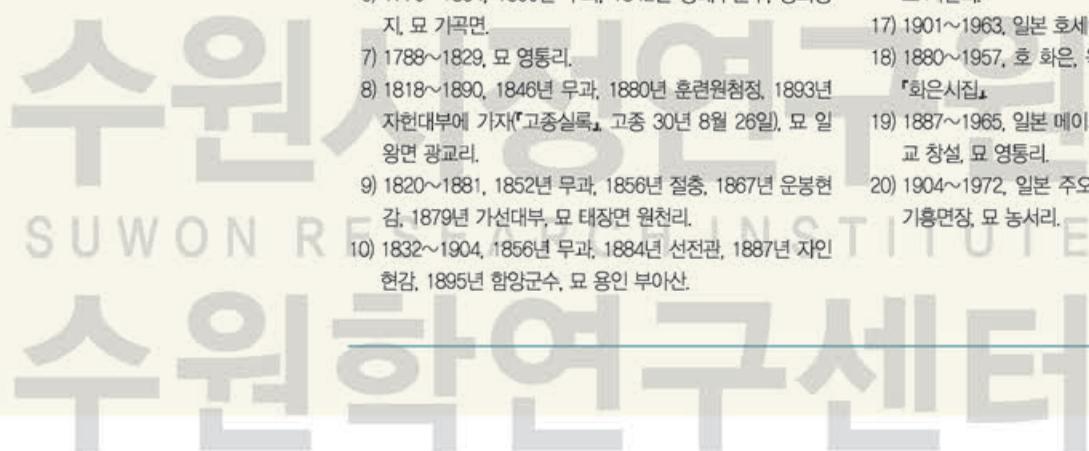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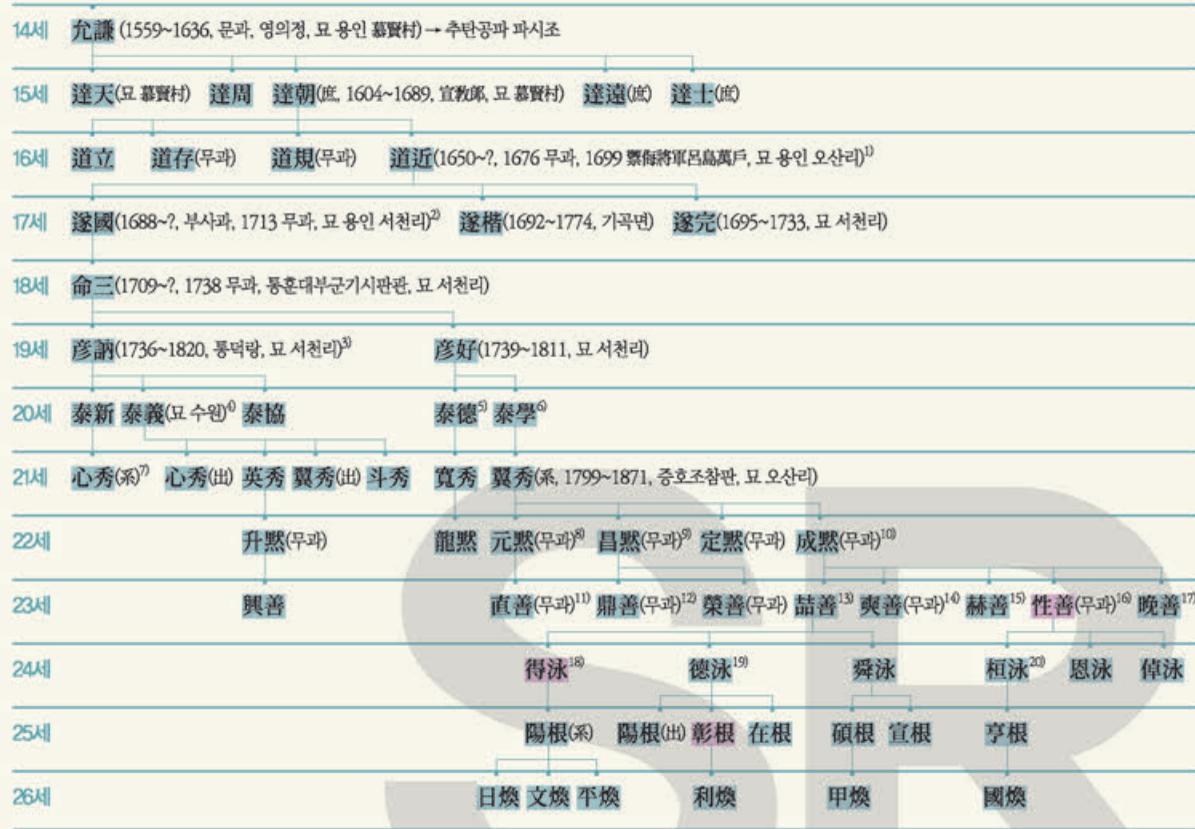
근대 변혁기 영통리 해주 오씨가 사람들의 세 가지 길

1. 영통리에 터잡은 해주 오씨가

영통리 해주 오씨는 수원과 용인과 경계지역에 세거해 왔다.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와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일대의 유력한 문반 가문이다. 영통리와 서천리는 서로 길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면내, 즉 원천(遠川)을 낚줄로 하는 원천문화권이다.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인 영통리와 서천리 일대에 세거하던 해주 오씨들은 지역의 유력한 가문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영통리 해주 오씨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14세 추탄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의 후손들이다. 이에 해주 오씨 추탄공파(楸灘公派)로 불리는 영통리 해주 오씨들은 오윤겸의 3자인 15세 오달조(吳達朝, 1604~1689)의 직계로 이어졌다. 특히 오달조는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3명이 무과 급제자였다. 이래로 16세부터 23세의 8대에 걸쳐 16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며 명문가의 전통을 이었다.¹ 특히 22세 오원묵·오창묵·오정묵·오성묵 4형제 모두 무과 출신으로, 무반으로서의 해주 오씨 가문 위상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영통리 해주 오씨의 번영을 이끌었다. 이후 막내인 오성묵(吳成默, 1832~1904)의 경우 5명의 아들 가운데 오석선(吳奭善, 1862~1934)과 오성선(吳性善, 1872~1950) 2명이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전통을 이어 갔다.

해주 오씨 추탄공파 세계도



- 1) 아들 수국이 분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어 통정대부병조참의에 오름.
- 2) 1726년 통훈대부군기시주부, 1739년 성환찰방, 이인좌 난에 자원 출전하여 안성에서 적을 격파, 원윤의 목을 베어 통정대부에 가져, 분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 방담첨사 지냄.
- 3) 『해주오씨추탄공파세보』에는 언눌의 생년이 병인(1746)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동생 언호의 생년(1739)과 맞지 않으므로, '병인(1746)'은 '병진(1736)'의 오기가 아닐까 판단된다(해주오씨추탄공파중증, 『해주오씨추탄공파세보』, 農經出版社, 1979).
- 4) 1770~1848, 묘 태장면 청명산.
- 5) 1761~1852, 증통정대부, 묘 서천리.
- 6) 1770~1854, 1800년 무과, 1842년 동래수군우, 증좌승지, 묘 기곡면.
- 7) 1788~1829, 묘 영동리.
- 8) 1818~1890, 1846년 무과, 1880년 훈원원참정, 1893년 자헌대부에 가져(『고종실록』, 고종 30년 8월 26일), 묘 일왕면 광교리.
- 9) 1820~1881, 1852년 무과, 1856년 절충, 1867년 운봉현 감, 1879년 가선대부, 묘 태장면 원천리.
- 10) 1832~1904, 1856년 무과, 1884년 선전관, 1887년 자인 현감, 1895년 함양군수, 묘 용인 부아산.
- 11) 1875~1947, 1887년 무과, 1898년 육군참위, 1900년 부위, 1901년 정3품, 묘 하갈리.
- 12) 1854~1911, 1876년 무과, 1879년 절충, 1891년 격포첨사, 묘 원천리.
- 13) 1857~1927, 1887년 전보국주사, 오위장가설, 1888년 훈원주부가설, 1897년 중추원의관, 1900년 시종원분시종, 1906년 통정대부에 가져, 묘 용인 보리리.
- 14) 1862~1934, 1882년 무과, 1889년 절충장군, 오위장, 1894년 총장위장, 첨지중추부사, 묘 영동리.
- 15) 1867~1935, 1888년 소경원수봉관, 1905년 승육, 1929년 전북 군산부, 익산군 직원, 묘 반월리.
- 16) 1872~1950, 1893년 무과, 1897년 시어, 1900년 상의사 주사 판임관 6등, 돈녕원주사, 1902년 승육, 중추원의관, 묘 서천리.
- 17) 1901~1963,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 졸업, 묘 영동리.
- 18) 1880~1957, 호 화은, 육군부위, 통훈대부, 묘 용인, 문집 『화은시집』.
- 19) 1887~1965, 일본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졸업, 태장초등학교 창설, 묘 영동리.
- 20) 1904~1972, 일본 주오대학 경제학부 졸업, 경기도주사, 기흥면장, 묘 농서리.

조선 후기 양반사대부라 하더라도 문과 출신과 달리 무과 출신자들은 상업적 진출과 경제적 부의 축적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도와 과거제도가 철폐되는 상황과 연결되면서 수원 지역 상업의 발전이 무과 출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영통리 해주 오씨 중 오성묵의 아들 5형제, 즉 오철선(吳喆善, 1857~1927), 오석선, 오혁선(吳赫善, 1867~1935), 오성선, 오만선(吳晩善, 1901~1963)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형제들과 오철선의 아들인 오득영(吳得泳, 1880~1957), 오덕영(吳德泳, 1887~1965)과 오성선의 아들 오환영(吳桓泳, 1904~1972) 등은 지역 유지로 활동하며 수원의 근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일제하 지역 유지들은 “근대 이행기의 정치 변동 과정에서 재산(토지)과 사회활동 능력

을 가졌던 이들, 다시 말해서 재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직 활동을 통해 당국의 신용(信用)과 사회적 인망(人望)을 획득한 재지 유력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²⁾ 이런 점에서 영통리 해주 오씨가 재산과 사회활동 능력과 명망성에서 다른 가문을 압도할 수 있었다. 근대적 학문의 수용, 특히 일본 유학을 통한 사회활동 능력 면에서 최상위 가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통리 해주 오씨가 3대에 걸친 3명의 인물을 통해 근대 변혁기를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제하 지역 유지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인물 유형으로는 영통리 해주 오씨 오성선을 꼽을 수 있다. 오성선은 1892년(고종 29) 무과에 급제했는데,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마지막 과거시험 세대였다. 과거시험을 통해 대한제국기에 관료생활을 시작했던 오성선은 근대적 변혁기에 개명 관료로 활동하면서 농촌계몽과 개발에 헌신한 삶을 살았다. 둘째로 오득영은 대한제국기 무관학

교 출신의 군인이자 관료였다가 낙향해 지역 유지로 한시를 읊으며 안빈낙도를 꿈꾸었던 마지막 조선 선비의 삶을 살았다. 끝으로 일본 유학을 하던 내지(內地)에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며 조선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감옥에서 고통을 견뎠던 오덕영의 아들 오창근 등의 삶은 해방 뒤에도 진보적 사회주의자의 길을 걷다가 북쪽을 선택하였다.

특히 오성선과 오득영은 무과 출신의 관료로 입신하였다. 이는 영통리 해주 오씨의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했다. 이후 오성선의 큰형이자 장자였던 오철선(吳喆善)의 둘째 아들 오덕영(吳德泳, 1887~1965)은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정학부 경제과를 졸업함으로써 영통리와 서천리 일대 해주 오씨 집안에서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오성선의 이복동생 오만선(吳晩善, 1901~1963)이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을 졸업하였고, 오성선의 큰아들 오환영(吳桓泳, 1904~1972)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오덕영의 장자인 오양근(吳陽根)은 일본 호세이대학, 2자인 오창근(吳彰根)은 일본 도호쿠대학(東北大學), 오순영(吳舜泳)의 아들인 오석근(吳碩根)은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을 졸업했는데, 이들 모두 어김없이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일본 유학과 '경제학 전공'이라는 범상하지 않은 사례는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이 경제적 가치와 실질을 숭상하는 가풍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 중심의 일본 유학의 전통은 이들 가문이 새로운 시대,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입장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적 정치권력이 이민족에게 빼앗기고, 전통적 문화예술의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삶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 근거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오성선, 오득영, 오창근 등 해주 오씨 3대에 걸친 3명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수원 근대사와 이들이 격동의 근대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오성선, 관료에서 농촌 계몽운동가로

1) 개명 관료 오성선

영통리 해주 오씨들은 수원 지역의 근대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우서(又西) 오성선(吳性善, 1872~1950)이다.³ 오성선은 농촌계몽운동과 실질적인 농촌개혁의 길을 열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즉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피폐한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일생을 바

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농촌 개발의 선구자', '빈농구제의 아버지'로 불렸던 것이다.

오성선은 용인군 기흥면 서천리 출신으로 1892년(고종 29)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오성선은 1895년 경성사범학교를 수료하면서 근대적 학문을 통해 개명관료로 입신하였다. 이후 시종원(侍從院) 시어(侍御), 영희전령(永禧殿令), 교방사(教坊司) 주사, 상의사(尙衣司) 주사, 순창원(順昌園) 봉사(奉事),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을 역임하였다. 1904년 12월 2일 양근군 임시우체 주사를 임명받았는데 부임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04년 말 이후 관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어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자료는 1907년 관계를 떠나 기흥면에 귀향한 후 지방 개발과 산업 개량에 진력하였다고 적고 있다.⁴



우서 오성선(1872~1950)

한편 오성선은 1908년 9월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會社) 설립위원(33명)으로 선발되었다. 1908년 8월 26일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 순종황제의 재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9월 5일 동양척식주식회사 한국인 설립위원회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1품 이호성 등 5명, 정3품 한상룡 등 11명, 6품은 오성선을 비롯하여 7명, 9품 문영관 등 10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가운데 실무적 일은 오성선을 비롯한 6품(7명)과 9품(10명)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척식회사(동척)는 한국 농업의 발달을 도모하며 미간지(未墾地)를 개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선전되었다. 준비위원들은 동양척식회사 정관을 만들고 주주를 모집하고 사무소를 열었다. 회사가 설립되자 설립위원회의 업무는 1908년 12월 30일 종료되었다. 오성선은 3개월 동안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하면서 한국인 설립위원들과 일본 시찰을 다녀왔다.

1908년 9월 일본시찰단(日本視察團) 참여는 오성선에게 문화적 충격과 반성을 가져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일본 시찰을 통해 오성선은 조선 농촌의 낙후된 현실에 비해 일본의 농촌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농촌진흥은 무엇보다도 농업 개량과 자금과 곡식을 저리 유통에 있다고 여겼다. 즉 국가 발전의 초석은 농촌 개발에 있음을 깨닫고 이후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다.

2) 농촌 개발과 계몽운동에 나서다

일본에 다녀온 뒤 느낀 바가 컸던 오성선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듬해인 1909년 우선 농업연구회(農業研究會)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각 마을 사람들을 힘써 농사짓게 하며, 농업연구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답을 살피 비료와 땅을 갈고 김매는 일 등을 일일이 감독하였다. 또한 자신의 토지를 은행에 저당하여 자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저리로 나누어 준 금액이 200여 원에 이르렀다. 그 효과는 매우 커서 1915년 조합원은 400명에 이르렀다.⁵

농업연구회를 창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농계(農契), 저축조합(貯蓄組合), 흥농조합(興農組合), 양위자금조합(養慰資金組合), 장학계(獎學契), 양잠조합(養蠶組合), 가마니조합(筵屐組合), 공동구입계(共同購入契), 기업조합(機業組合), 저수지 제언 축조 등의 농촌 개발사업에 헌신하였다. 1929년 6월 마을 안에 농사용 저수지 성화제(性和堤)와 만선제(滿善堤) 두 개를 파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했다.



용수흥농주식회사 전경(『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용수흥농주식회사 임원(『용수흥농주식회사 20년지』, 1929)

특히 어려운 농촌 현실에 직면하여 1927년 용수농계 금융부와 용수저축조합을 합병하여 용수흥농조합을 조직했다가 주식회사로 발전시켰다. 즉 1928년 5월 10일 지역주민들과 자본금 20만 원의 용수흥농주식회사(龍水興農株式會社)를 설립해 농촌 개발과 빈농구제를 조직적으로 펼쳤다.⁶ 농업자금 유통과 농촌 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대표적 주식회사로 발전시킨 것이다. 대주주로 참여한 주요한 인물은 오성선, 오득영과 수원읍내의 양성관(梁聖寬), 홍사훈(洪思勛) 등을 꼽을 수 있다.

용수흥농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오성선은 『용수흥농주식회사20년지(龍水興農株式會社二十年誌)』(1929년)와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龍水興農株式會社沿革)』(1935년)을 발간하였다. 이는 당시 지역에서 발간한 최초의 사례였다.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 관련 책자는 일본인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수원이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발전하는 수원(發展せる水原)』(1914년), 『화성의 그림자(華城乃影)』(1915년), 『수원(水原)』(1923년) 등 3책을 발간하였다. 수원군청과 조선총독부 등 관공서에서 『수원군지(水原郡地誌)』(1929년)와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수원군』(1929년)을 발간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태장공립보통학교 교장 박성근(朴晟根)이 편찬한 『태장향토사(台章鄉土史)』(1932년)가 발간되었을 뿐이다. 또한 오성선은 1932년 경기도에 『농촌개선에 관한 의견서』, 동아일보사에 ‘농촌구급책’에 관한 기고문을 제출하며 농촌 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 지역 유지 오성선의 길

1909년 『황성신문(皇城新聞)』(1909년 5월 11일)에 오성선의 농업연구회를 비롯한 농촌 계몽운동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농촌개발 사업의 미담은 1911년 조선농회(朝鮮農會) 수원지회 상의원과 1921년 조선농회 경기도 평의원으로 활동하게 만들었다. 당시 조선농회 수원지회 지회장은 수원군수 김관현(金寬鉉)이었고, 오성선은 상의원(常議員)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상의원은 대개 관리, 권업모범장 기사, 수원농림학교 교수, 동산농장 지점장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10명의 상의원 가운데 오성선은 조선인으로 유일한 존재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던 셈이다.

조선농회의 운영과 사업은 식민지 농정과 표리일체를 이루며 전개된 측면이 있지만, 오성선은 지역에서 농촌사업가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기에 조선농회 임원이 된 셈이다. 더욱이 오성선은 산림조합과 축산동업조합을 농회로 합병하고 군 농회를 관공서인 군청에 예속시키지 말고 독립적인 민간단체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조합에서 저리



동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농촌사업 공로자'로 표창된 오성선(『동아일보』 1930년 4월 9일)

자금을 농회를 통해 조사하고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등 농회를 식민농정의 말단기관이 아닌 농민을 위한 기구로 활용되기를 소망했던 인물이다.

한편 오성선은 1924년 경기도평의회(京畿道評議會) 용인군 민선의원이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협조로 이해될 수 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도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때 각 지역 유지들이 대거 도의원으로 진출하였다. 당대 지역 유지들의 현실 참여방식이자 관로(官路)가 막힌 조선인 명명가들의 또 다른 탈출구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친일행위이자 일신의 영예를 위한 명예심의 발로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1924년 당시 경기도평의회 민선 25명 가운데 경성부 4명을 제외하고 각 부군(府郡)의 민선의원은 1명씩이었다. 수원군은 한상봉(韓相鳳)이었고, 용인군은 오성선이었던 만큼 도평의회원의 위상은 막강한 것이었다.

한편 오성선은 지역에 보통학교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계(學契)를 조직하였고, 1916년 장흥의숙(章興義塾)을 설립하였다. 지역 유지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역 유지로서 활동은 1928년 큰 가뭄이 들어 이재민이 발생하고 기흥면 전체 80%가 피해를 입었다. 구제책을 강구해야 할 정도였는데, 오성선을 비롯한 기흥면 유지 수십 명이 구제회(救濟會)를 조직하였을 때 출선해서 3,000원을 빚을 내서 동리별로 이재민 비율에 따라 나눠 주는 선행을 베풀었다.⁷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오성선은 193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농촌사업 공로자'로 표창되었다. 이에 기흥면 주민들이 공적을 기려 1930년 5월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 기념비를 세웠다. 지역민들이 오성선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또한 1932년 『경성일보(京城日報)』(1932년 6월 23일)에 '농촌개발의 선구자, 빈농구제의 아버지 오성선 씨'라는 글이 실렸고, 1934년 경기도에서 발간한 『농촌진흥 경기의 빛』이라는



오성선 기념비 건립 기념(1930년 5월, 수원박물관 제공)

책자에 「마을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다는 오성선 소개 글이 실리게 되었다.¹⁴ 이는 용수흥농주식회사 사장, 용인군 농촌진흥위원회 위원, 서천리 농촌진흥회장으로서 오성선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수흥농(龍水興農)주식회사를 창설하고 사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농촌 개발사업에 종사한 업적을 높이 산 것이었다.

한편 오성선은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기념 표창자(5,292명)가 되었다. '지방 개발과 산업 개량에 진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농촌 개발과 지역에서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미 오성선은 1930년 4월 동아일보사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농촌사업 공로자'로 표창을 받았고, 1934년 경기도에서 농촌지도의 미담 사례로 '마을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한 인물로 현창되었기 때문이다.

오성선의 농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1935년 4월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농촌사업 부문 공로자로 다시금 표창되었다. 즉 조선어문(9명), 체육(4명), 농촌

교육(8명), 농림사업(15명) 등 36명을 표창하였을 때 농촌사업 공로자 1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¹⁵ 조선어문(朝鮮語文)의 공로자는 김두봉·권덕규·최현배·이운재 등 9명이었음에 비해 농림사업 공로자는 오성선 등 1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이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과 농촌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성선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친일의 행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인 대지주로서 양심적 지역 유지로서 농촌구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공적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국방헌금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유지들은 군용기 경기호 및 수원호 건조에 상당한 금액을 헌납하였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 국방헌금은 애국기(愛國機) 수원호(水原號)의 헌납이었다. 1937년 9월 21일 양성관과 차유순 등 수원 유지 70여 명이 모여 애국기 수원호에 대한 조성기금을 1만 5,000원을 출연하여 기부하였다. 웬만큼 산다는 사람은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에 1937년 군용기 경기호(京畿號) 건조에 용수흥농주식회사 이름으로 100원을 헌납하였다.¹⁶ 이는 오성선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는 적어도 친일의 오명을 개인 오성선의 이름으로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조선의 마지막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던 같다.

지금 볼 수 있는 오성선의 사진에는 웃음기 없는 옹골찬 얼굴로 등장한다. 이는 고민 많은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이다. 오성선은 1910년 국망 이전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일제 식민지 관료의 길을 포기한 셈이다. 그리고 1908년 일본 시찰 이후 나라가 쇠잔해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현실에서 농촌개생의 길이 애국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고향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3. 오득영, 안빈낙도를 꿈꾼 조선 선비의 길

1) 가문의 전통을 잇는 무관이 되다

오득영(吳得泳, 1880~1957)은 오철선(吳喆善)의 장남으로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적장자였다. 호는 화은(華隱)이다. 대한제국의 무관으로 육군 부위(副尉)로 재직하였고, 1906년 통훈대부가 되었다. 오득영은 1899년부터 1900년까지 내장원 소속으로 수원군 영화역둔(迎華驛屯)과 서원둔(書院屯) 사음을 지냈다. 그러나 1900년 7월 23일 20세의 나



오득영의 대한제국 군복(수원박물관 제공)

이로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생도로 뽑혀 보병과(步兵科) 수업을 받고 1903년 9월 20일 졸업하였다. 무관학교 졸업 이전 1902년 7월 육군보병 참위(參尉)로 보직되었고, 1902년 8월 14일 헤민원 주사가 되었다. 졸업 후인 1904년 1월 진위대(鎭衛隊)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1906년 7월 20일 육군보병 부위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오득영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낙향하였다.

군대해산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오득영은 수원 북부면 영화동에 거주하면서 수원측량학교(水原測量學校) 교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1909년 9월 오산 원동에 위치한 천도교 수원교구 교리전문강습회에도 참여하였다. 제1회 천도교 수원교구 특별지도 청년강습(特別指導青年講習)에 참여한 15명은 오득영을 비롯하여 송재은(宋在恩), 김명식(金命植), 박하원(朴夏遠), 장인수(張仁秀), 윤준구(尹俊求), 김유경(金有卿), 임영환(林永煥), 이종환(李鍾煥), 천윤근(千潤根), 구영서(具玲書), 장재건(張載健), 박영호(朴永昊), 진덕희(陳德羲), 이병헌(李炳憲) 등이었다. 이들은

이후 수원과 용인의 천도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였다.

오득영이 천도교 교리 강습에 참여한 것은 새로운 시대와 사상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남달랐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럼에도 오득영은 이후 천도교와 관련한 적극적 활동은 보



1909년 수원측량학교 졸업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사 오득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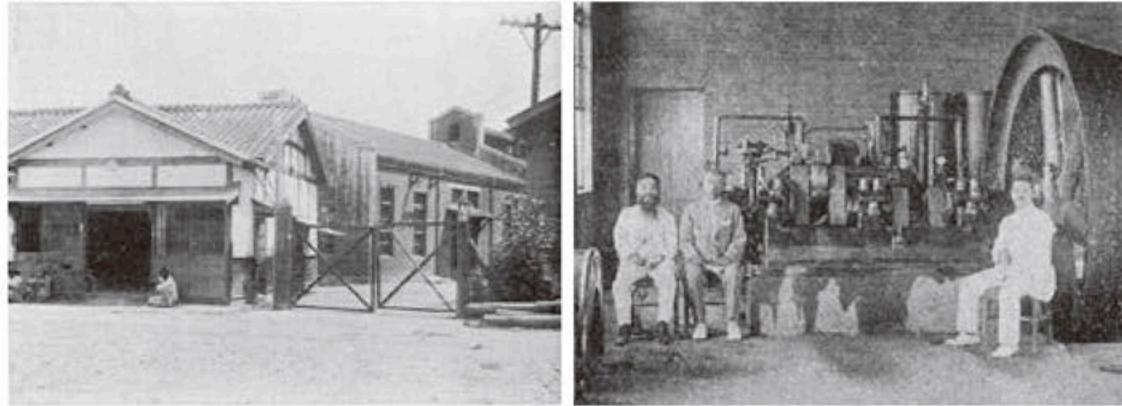
1917년 아버지 오철선의 회갑일에 무관 관복을 입은 오득영과 양복을 입은 오덕영(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천도교는 몰락한 양반층 또는 가난한 농촌의 각성된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는 점에서 유력한 지주 집안의 오득영은 더 이상 진전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근대 회사의 주주로 활동하다

오득영은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주식회사에 투자하며 선도적인 경제인으로 활동하였다. 1913년 7월 6일 수원 지역 유력자들이 수원전기주식회사(水原電氣株式會社)를 만들 때 주주로 참여하였다. 전력 공급과 전동 및 전기 기구 판매 및 대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원전기주식회사는 수원의 일본인 유력자들과 수원 지역의 유지들이 결합된 주식회사였다. 회사 중역으로 전무이사는 일본인 곤도(近藤虎之助)가 맡았고, 이사로는 일본인 가야마 히로시(香山弘), 사카데 류사브로(坂手重三郎)와 조선인으로 수원을 대표하는 지주였던 홍건섭(洪健燮), 양성관(梁聖寬) 등이 참여하였다. 감사는 일본인 노



오득영이 주주로 참여했던 수원전기주식회사(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수원군』)

나카 스에요시(野中末吉),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와 조선인 한상봉(韓相鳳)이었다.¹¹ 주주는 일본인으로 사도 히데미츠(佐渡秀光, 115주), 덴니치 쓰네지로(天日常次郎, 100주), 가야마 히로시(84주), 사카데 쥬사부로(66주), 노나가 스에요시(60주), 마나베 키요사쿠(眞鍋喜代作, 57주) 등과 조선인 주주로 한상봉(韓相鳳, 80주), 홍민섭(洪健燮, 60주), 오득영(57주)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 수원의 최고 부자라 할 수 있는 양성관과 홍건섭 및 한상룡(韓相龍)의 형인 한상봉이 중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득영의 지역적 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과 남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조선인 유지들과 함께 영통리 해주 오씨 가문의 오득영이 참여한 셈이다.

또한 1918년 5월 29일 설립된 수원인쇄주식회사(水原印刷株式會社)에도 주주로 참여하였다. 수원인쇄주식회사는 전무이사를 맡은 가야마 히로시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주도한 회사였다. 이사 3명(戶田正夫, 坂手重三郎, 吳得泳) 가운데 조선인은 오득영이 유일하였다. 주식은 가야마 히로시 342주, 도다 마사오(戶田正夫) 200주, 사카데 쥬사부로 100주, 그리고 오득영을 비롯한 4명이 각각 60주씩 출자하였다. 주주 7명 가운데 조선인은 오득영이 유일하였다. 당시 오득영은 근대적 주식회사를 통한 경제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유력한 경제인으로 부상하였던 셈이다. 오득영은 작은아버지 오성선이 주도하여 1928년 설립된 용수농업주식회사에 이사로도 참여하였다.

한편 1937년 오득영은 군용비행기 수원호 헌납에 300원을 기부하였다.¹² 1937년 9월 30일까지 헌금자 가운데 김광현(1,000원), 홍사현(400원), 정영덕·오득영(300원), 윤태인·이경의(250원), 이광현·이철영(150원), 박기양(100원), 임병구(50원), 조궁환(40원) 등이

참여하였다. 군용비행기 헌납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는 당시 수원 유지들의 대표적 친일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오득영의 삶에서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3) 낙향과 일사(逸士)의 삶

1937년 중일전쟁으로 더욱 군국주의적 착취와 친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오득영은 공주로 피신하는 길을 택하였다. 오득영은 1939년 봄 공주읍으로 이사하였다. 이는 군용기 수원호 헌납 등 친일적 행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낙향을 통한 은둔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공주로 낙향한 결정적 이유는 병약했던 양자 오양근과 관련이 깊다. 오양근(吳陽根, 1910~1940)은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오양근은 원래 오득영의 장남이었으나, 아들이 없는 오득영의 양자가 됨으로써 영통리 해주 오씨 적통을 이은 셈이다.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오양근은 고향 영통리에서 논산 출신 권태정(權泰正)과 결혼해 살았다. 그러나 몸이 약해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자 공주군 남부면 봉황리(현 공주시 봉황동)로 옮겨 가 살게 되었던 것이다. 오양근은 공주에 살면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병약했던 관계로 끝내 1940년 5월 29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

오득영은 1939년 봄 공주로 이사한 지 1년 만에 아들 오양근이 요절하자, 나이 어린 손자들을 전사하며 살았다. 그가 공주로 이사해 살았던 시기는 1937년 만주사변,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의 군국주의적 만행으로 고통을 받던 암흑한 시절이었다. 1937년 군용기 수원호에 헌금을 강요받은 이후 이러한 군국주의적 상황을 벗어나고자 1939년 공주로 낙향한 이후 1945년 해방을 그곳에서 맞이하였고, 뒤이어 터진 민족상잔의 6·25전쟁까지 공주에서 겪어야 했다.

한편 동생 오덕영과 이름이 비슷해 사람들이 오득영과 오덕영을 착각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공주 봉황리에 거주하던 오득영은 아들 오양근의 죽음 이후 1940년 11월 9일 오대영(吳大泳)으로 개명하였다. 1950년 전쟁을 공주에서 맞이했던 오득영은 1951년 여름 온 가족을 이끌고 수원 영통리 본가로 돌아왔다. 이후 1957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한시를 쓰는 문학적 삶을 살았다. 죽음 전날 친한 벗인 한봉교(韓鳳敎)가 문병을 왔을 때에도 한시를 지을 정도였다. 유고로 『화은시집(華隱詩集)』이 있다.¹³

『화은시집』에는 오득영과 교류한 6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한다. 오득영이 남긴 약 300수의 시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친구 또는 친척에게 쓴 시였다. 오득영은 수원과 용인의 친구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을 탐방하며 생활의 활력을 찾았고, 조



오덕영의 문집 「화은시집」 중에서 영통리에 대한 내용인 영은대와 영통노규기

선의 마지막 선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과 예절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았다. 삶 속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을 시의 주제로 삼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또는 일본과 관련된 시가 한 편도 없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던 해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일본과 관련한 시가 한 편도 없다는 것은 오덕영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조선 성리학과 학문 정신을 지키며 실천한 인물들과는 약간 다르지만 이를 지향한 삶으로 볼 수 있다.¹⁴

4. 오창근, 조선의 독립과 새 나라를 꿈꾼 진보주의자

1) 일본 유학과 독립운동

오창근(吳彰根, 1915~?)은 오덕영의 둘째 아들이다. 오덕영의 큰아들 오양선(吳陽善)은 큰아버지 오덕영(오대영)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 따라서 둘째 오창근이 오덕영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아버지 오덕영(吳應泳, 1887~1965)은 화성 궤리사 등에서 『소학(小學)』 등 한학을 공부하였고,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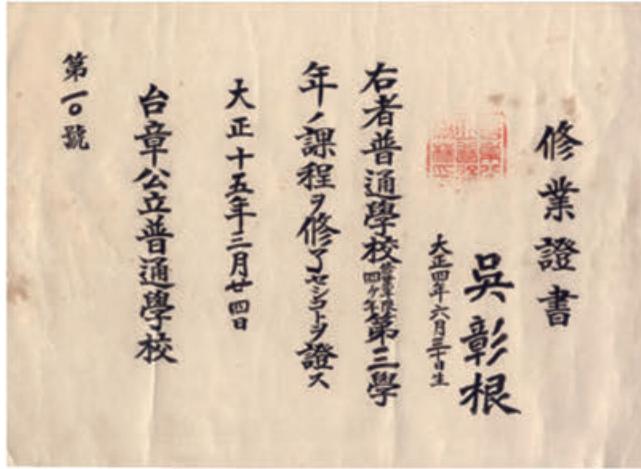
영통리 해주 오씨 사람 중 첫 일본 유학생이었던 오덕영의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 졸업기념(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학을 공부하였다. 이로써 영통리 해주 오씨 집안에서 일본 유학의 물꼬를 텃던 인물이다. 특히 경제학이 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즉 오덕영이 일본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래 영통리 해주 오씨는 모두 6명의 일본 유학생을 배출하였다. 오덕영·오덕영보다 나이가 어린 막내 숙부 오만선(吳晩善, 1901~1963)이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오성선의 큰아들 오환영(吳桓泳, 1904~1972)은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오덕영의 아들 오양근(吳陽根, 1910~1940)도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오덕영의 아들 오창근



오덕영의 메이지대학 법정학부 경제학과 졸업증서(수원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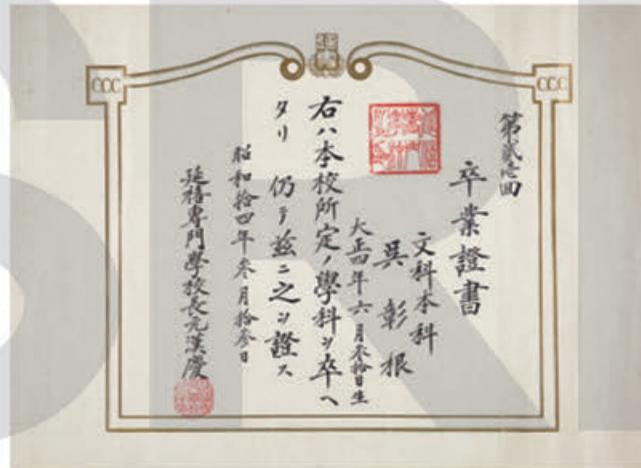
오창근 태장공립보통학교 수료증서(1926년)



오창근 기흥공립보통학교 졸업증서(1929년)



오창근 경성제2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증서(1935년)



오창근 연희전문학교 졸업증서(1939년)

(吳彰根, 1915~?)은 일본 도호쿠제대(東北帝大)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또한 오득영의 동생 오순영(吳舜泳, 1889~1950)의 아들 오석근(吳碩根, 1916~2005)은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이들 3대에 걸친 6명의 일본 유학생들은 한결같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용적인 것을 숭상하는 영통리 해주 오씨의 가풍을 반영하는 증표라 할 수 있다.

오득영은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조소앙(趙素昂, 1887~1958)과 같은 나이로 친분이 깊었다. 조소앙의 글씨가 집안에 남아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소앙은 해외로 망명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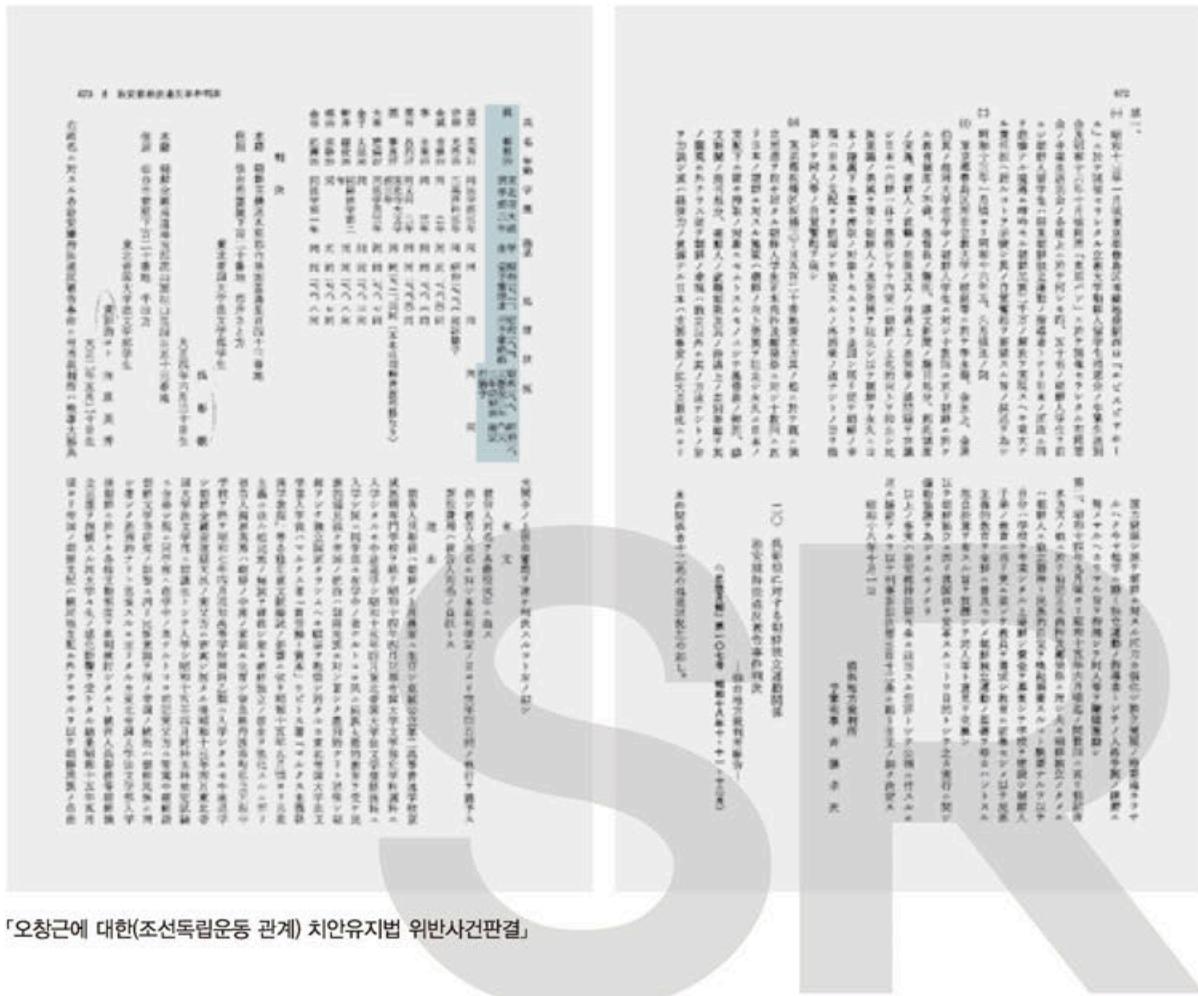
1935년 오창근과 윤길안의 혼례(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오득영은 조소앙과 함께하기로 한 중국 망명 약속은 때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3년상을 마치면서 흐지부지되었고, 결국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한때 한성은행을 다녔지만 1년도 채우지 않은 채 직장을 그만둔 오득영은 숙부인 오성선이 설립한 용수농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실질적 운영자가 되었다. 또한 태장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했지만, 대외적으로 나서거나 친일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아버지 오득영의 교육열 덕에 오창근은 서울로 유학해서 경성공립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북중고)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39년 4월 교토(京都)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중도 퇴학하고, 다시 1940년 4월 도호쿠제국대학 법문학부 경제과에 입학하였다. 이는 영통리 해주 오씨들이 일본 유학을 하면서 모두 경제과를 선택한 가문의 전통을 따른 셈이다.

일본 센다이시(仙台市)에 거주하며 도호쿠제국대학 법문학부에 2학년이 재학 중이던 1941년 12월 9일 오창근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경에 검거되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미야자기현(宮城縣) 경찰은 오창근을 비롯한 도호쿠제대 학생들의 동향을 예의



『오창근에 대한(조선독립운동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사건판결』

주시하다가 일제히 검거에 나섰던 것이다. 이에 오창근, 민태곤, 황채연, 이건호, 이용조, 박호준, 김태철 등 7명이 검거된 것이다. 일제는 ‘도호쿠제국대학 조선인학생 민족공산주의그룹’ 사건, 또는 ‘센다이 조선인학생 민족주의그룹’ 사건 및 ‘재도호쿠제대학생 조선민족 독립운동그룹’ 사건으로 불렀다.¹⁵ 이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41년 12월 9일 검거 구속되어 조사받았다. 이듬해 1942년 11월 25일 기소되었고, 1943년 9월 18일 재판에서 오창근과 황채연은 징역 2년형,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일제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오창근은 민족주의적 교육을 받아 민족적 의식이 강하고 일본의 통치가 조선민족에 대하여 현저하게도 차별적임을 실감하고 불만을 품게 되어 일찍부터 조선으로 하여금 독립국가가 될 것을 염원하였다는 것이다. 도호쿠제국대학 법문학부 입학 후 각종 좌익문헌을 탐독하여 신사상(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고 식민지 해방을

확신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그 신념을 강화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를 완수하는 데에 이바지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1941년 11월 센다이시 재류 조선학생과 연락 회합하여 조선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간에 민족의식을 양양하고 단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객관적 정세에 적응한 독립운동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 협의하는 등 제반 활동을 지속했다는 것이다.¹⁶

오창근·황채연(黃彩淵)·민태곤(閔泰崑)·이건호(李建鎬) 등 4명이 주동이 되어 박호준(朴鎬俊), 이영조(李榮祚), 김태철(金太喆) 등을 동지로 획득하였다. 오창근은 같은 학교 황채연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 현재 정세를 파악하고 조선독립 방침을 강구하였다. 당장 독립할 가망이 희박하므로 서로 연락을 강화하고 문화운동을 통해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조선 역사를 연구하기로 했다. 일본의 국력은 중일전쟁 이래 피폐된 것으로 보면서 객관적 정세에 유의하면서 일본에 혁명이 도래할 경우에 조선독립을 위하여 곧바로 쫓겨나기로 했다.

동시에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은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는 민족말살정책이라고 보면서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유문화의 유지 발전에 있으며, 이에 한글 사용금지 정책과 창씨개명 제도에 반대함과 동시에 민족의식 계몽에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른 당면과제로 충남 공주군 공주읍 소재 실업학교에서 조선인 자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교육을 시행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는 할아버지 오덕영이 공주에 살고 있었고, 큰형 오양근이 공주에 살면서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도호쿠제대 독립운동그룹에서 차지하는 오창근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또한 일본과 소련이 전쟁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고, 소련의 원조에 따라 조선의 독립을 실현하고, 조선독립이 실현된 뒤에는 삼민주의적 정치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협의하였다. 오창근을 비롯한 동북제대 독립운동그룹의 국제정세 인식과 현실에 대한 안목은 이후 역사적 전개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오창근은 결국 1년 10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셈이다. 이후 복학과 졸업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적어도 2년을 더 공부해야 졸업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1945년 8월 조국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2) 해방공간과 언론운동

1945년 8월 해방된 조국에서 오창근은 해방통신사(解放通信社) 기자로 활동하였다. 해방통신(解放通信)은 해방 후 최초로 나온 일반통신으로 1945년 8월 17일 일제하의 일본 도메이통신(同盟通信) 경성지사에 근무하던 김진기(金鎭琪)를 중심으로 20여 명의 한국인



오창근(수원박물관 제공)

사원들이 도메이통신 사옥(소공동 테일러빌딩)과 통신기기 및 집기 일체를 인수받아 하루 2편(便)씩 우리말로 발행한 통신이다. 외국통신사와 외신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단파수신기로 외신들을 무단으로 수신하여 신문사에 제공하는 형태였다.

해방통신사 대표는 김진기, 총무는 홍중생(洪鍾笙)·백병흠(白秉欽), 외신은 송영훈(宋永勳)이 담당하였다. 운영자금은 홍중생이 출자한 3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8월말 국내 정치의 혼란과 좌우의 갈등 속에서 김진기·백병흠·송영훈 등은 좌익노선, 홍중생은 중립노선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 결국 9월 김진기 등 좌익계열은 학병동맹(學兵同盟) 그룹의 지원으로 단파수신기 한 대를 떼어 장소를 옮겨 해방통신(解放通信) 이름으로 계속 통신을 발행하였고, 잔류파인 중립계는 통신 이름을

국제통신(國際通信)으로 바꾸었다. 오창근은 김진기 등 좌익노선의 입장에서 있었다.

오창근이 언제부터 해방통신사 기자로 결합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10월 말 전조선신문기자대회에 해방통신사 기자로 참여하고 있다. 즉 해방통신사 기자 오창근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1945년 10월 조선신문기자회 결성식이었다. 즉 전조선신문기자대회가 1945년 10월 23일 오후 4시 중앙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전조선 신문사 24개사를 대표하여 150여 명의 현역 기자와 전임 기자들이 모여 개최되었다. 조선통신사 이종모(李鍾模)의 사회로 신조선사(新朝鮮報社) 양재하(梁在廈, 1906~1966)의 개회사, 해방통신사 김진기(金鎭基)의 경과보고, 자유신문사 정진석(鄭鎭石)의 강령규약 발표, 조선인민보(朝鮮人民報) 김정도(金正道)의 선언문 낭독으로 조선신문기자회가 결성되었다.¹⁷

이튿날 전조선기자대회 제2일차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24개 신문사 기자 150명이 참석해 의안을 가결할 때 오창근이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즉 의안 2호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결의' 건을 한효(韓曉, 人民報), 오창근(吳彰根, 해방통신), 이갑기(李甲基, 釜山民衆報) 등이 "역사적 현 단계에서 우리 민족의 완전 통일의 길은 인민의 총의를 반영한 인민공화국의 지지로서 완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전국신문기자회는 인민공화국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가결하였다. 또한 북위 38도 문제의 시급한 해결은 조선통신(朝鮮通信) 대표로부터 민족통일전선과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가결하였다.¹⁸ 오창근은 해방통신사 기자로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의견을 회의석상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명확한 인식과 태도를 견지했던 셈이다.

그리고 이듬해 언론인들의 단결과 협조를 도모하고자 조선신문기자회 주최 제2회 전국신문기자대회를 1946년 4월 25일 서울 천주교 강당에서 거행하기로 했다. 이때 대회준비위원장과 각 부서(총무부, 연락부, 선전부, 경비부) 및 기초위원 등이 결정되었다. 준비위원장 이종모(李鍾模)를 비롯해 오창근은 연락부(부장 배은수) 부원(5명)으로 활동할 만큼 주도적이었다.¹⁹

한편 민전 사회실정조사단에도 참여하였다. 민전(民戰)은 1946년 2월에 남한의 좌익 정당, 사회단체 29개가 결집하여 과도정부 수립에 참여할 목적으로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의 약칭이다. 조직은 여운형(呂運亨)·박헌영(朴憲永)·허헌(許憲)·김원봉(金元鳳)·백남운(白南雲) 등 5명의 의장과 10명의 부의장이 있었다. 의장단을 포함한 상임위원 73명, 전국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305명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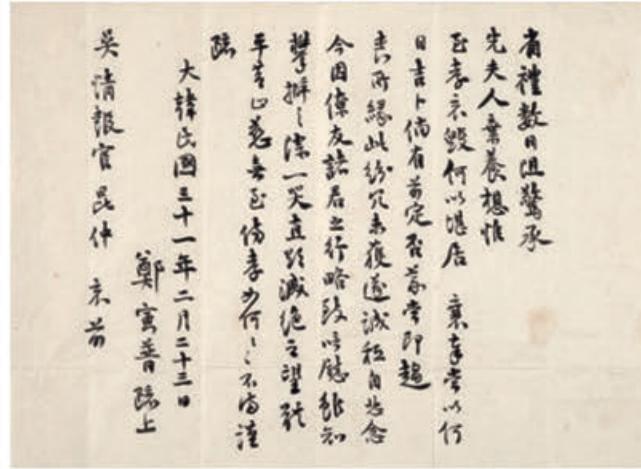
민전은 23개 사회단체 대표로 1946년 3월 28일 '사회실정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조사단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제1반 호남선을 중심으로 한 충남과 전라도, 제2반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충북과 경상도에 걸쳐서 약 20일 동안 사회·문화·의료 등 각 방면을 조사하기로 했다.²⁰ 4월 4일 사회실정조사단이 출발했는데, 오창근은 기자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신문기자단으로 오창근은 해방통신사 기자였지만 '기자회' 이름으로 조사1반에 참여하였다. 해방통신사의 이문연(李文衍)이 2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사정조사단은 해방통신사가 큰 역할을 담당할 셈이다. 민전의 사회사정조사단 구성은 좌익적 색채가 강하였다. 그러나 1947년 10월 18일 해방통신사는 군정법률 제7호 '해방통신 폐쇄' 명령에 따라 당일 폐쇄 조치되었다. 해방통신사가 강제 폐쇄됨에 따라 오창근은 해방통신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민전 사회실정조사단에 참여한 오창근 ('자유신문', 1946년 4월 5일)



1948년 오창근 감찰위원회 정보관 임명장



1949년 감찰위원회 위원장 정인보가 오창근에게 보낸 편지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감찰위원회 활동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정부는 1948년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보처에서 명단을 발표하였다. 감찰위원회 위원장은 위당 정인보(鄭寅普, 1892~?)였다. 1948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감찰위원회 직제가 승인되고, 8월 31일 '감찰위원회 직제'가 대통령령 제2호로 공포되었다. 감찰위원회의 업무는 “공무원의 위법(違法) 또는 비위(非違)의 소행(所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로 직제는 위원장 1인, 감찰위원 8인, 감찰관 10인 이내, 이사관 1인, 비서관 1인, 서기관 5인, 정보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²¹ 이에 따라 1948년 11월 5일 감찰위원회는 감찰관(8명), 정보관(15명), 서기관(3명)을 임명함으로써 감찰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오창근은 1948년 11월 5일 감찰위원회 정보관(15명)으로 임명되었다.²²

감찰위원회 활동은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비리공무원과 장관의 비리까지 밝히며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오창근의 감찰위원회 정보관으로서 활동은 자료 미비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이후 감사원으로 발전하였다. 오창근은 6·25전쟁 때 북쪽을 선택해서 월북하였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분명한 자기 결정을 강요받았던 시절의 선택이었다.

5. 맺음말

근대 변혁기 영통리 해주 오씨들의 삶을 통해 다양한 근대를 만날 수 있었다. 영통리 해주 오씨는 무과 출신의 양반가문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영통지역의 대지주로 역할하며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적 번영을 꿈꾸었던 오성선, 안빈낙도를 꿈꾸며 한시를 짓는 조선의 마지막 선비의 오득영,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진보주의자 오창근 등 세 명의 결이 다른 삶을 살펴보았다.

1894년 과거제도 폐지되면서 이전에 전통적 학문을 배우고 과거를 통해 출사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이라는 자의식이 강하였다. 특히 대한제국기 관료를 지냈던 이들은 고종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여 주었고, 친일과는 결이 다른 근황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오성선은 1892년 무과를 통해 관리가 된 인물로 조선의 마지막 양반사대부였다. 이들 조선의 마지막 과거시험 세대들의 자부심은 근대적 학문을 배운 후배들과는 다른 역사의식과 동류의식을 만들었다. 한시(漢詩) 모임을 통한 풍류와 문학적 소양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연친화적 삶의 지향을 통해 자연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의 삶은 신산한 것이었다.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가 되었다는 자부심은 이후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국망(國亡)을 목도하며 '참담하고 노역운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다. 일제강점기는 '유랑과 방랑과 추방의 시대'였다. 오성선은 식민지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1908년 일본 시찰 이후 격렬한 자의식으로 조선의 농촌현실을 타개하고 잘사는 농촌의 실현과 마을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고 대한제국기 개명한 관료였고, 지역의 대표적 지주였던 오성선은 일제강점기에도 힘들게 애쓰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안락한 삶보다 농촌의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 부단히 마을사람들을 계몽하고 함께 노력해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였다.

오득영은 오성선과 비슷한 듯 다른 삶을 살았다. 무관학교 출신의 군인이자 대한제국기 관료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오성선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오득영은 수원읍내의 지역 유지들과 더불어 근대적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며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였다. 영통리 해주 오씨 소종의 종손으로 상당한 토지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오성선과 오득영은 전통 한학을 통한 입신을 꿈꿨던 세대였기에 한문과 한시에 능하였다. 그럼에도 오득영은 오성선에 비해 한시를 짓는 문학활동을 통한 안빈낙도의 삶을 보다 강하게 꿈꾸었고, 이를 실천하였다. 자식이 없어 양자(오양근)를 들였으나 일찍 요절하면서 손자들(오일환, 오문

환, 오펜환)을 키우면서 갖게 된 인생무상과 자연을 관조하는 삶의 태도였다.

이에 비해 새로운 세대를 대표했던 오창근은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투쟁을 통한 새나라 건설에 분투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독립운동으로 구속되었고, 이러한 경력은 해방공간에서 강한 존재감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에 좌익적 색채의 해방통신사 기자로 활동하며 활발하게 언론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 관리를 감독하는 감찰위원회 정보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때 북쪽을 선택해 월북함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파격적이고 역동적인 장면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역의 유지 집안으로 상당한 토지를 소유했고, 영통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니며 친일적 행위로 지탄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그러나 영통리 해주 오씨의 대표적 인물 3명을 통해 살펴본듯 이들은 친일을 통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해 삶을 구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촌 개발을 꿈꾸었던 지역 공동체를 우선했던 오성선, 식민지 경제의 탐욕보다 안빈낙도의 삶을 선택한 조선의 마지막 선비 오득영, 이른 시기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영통리 해주 오씨들,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며 시대의 변화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지녔던 오창근이 걸었던 고난의 길은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이였다. 아직도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3명이 걸었던 길과 그리 다르거나 멀지 않은 셈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주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해주 오씨 추단공파의 수월정착과 오성선의 농촌진흥사업」, 『수원시사 18-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2. 자수걸, 2010,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56-180쪽.
3. 한동민, 2017, 「용수흥농주식회사와 오성선-농촌경생의 꿈」, 『용수흥농주식회사연혁』, 우서문화재단; 서상목, 2022, 「우서 농촌 구제책의 시대적 의미」, 『모정에 홀로 앉아』, 우서문화재단.
4. 조선총독부, 1935, 『조선총독부시정 25주년기념 표창자명감』, 936쪽.
5. 酒井政之助, 『華城乃影』, 1915; 이상식 역, 2011, 『화성지영』, 수원박물관, 45쪽.
6. 이승순, 2014, 「일제하 용수흥농주식회사의 설립과 활동」, 『수원시사 5-수원의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영』.
7. 「三千圓得債 罹災民에 分配, 龍仁 吳性善氏가」, 『동아일보』 1929년 3월 11일.
8. 「村人を家族の如く愛す」, 『農村振興 京畿の光』, 京畿道, 1934.
9. 「各界功勞者褒彰」, 『동아일보』 1935년 4월 26일.
10. 「軍用機京畿號 建造費贈金者」, 『동아일보』 1937년 10월 3일.
11. 中村貞良, 1921, 『朝鮮銀行會社要錄』, 東洋經濟新報社, 122쪽.
12. 「水原號에 凝集하는 郡民의 愛國丹誠, 누계 2만4천원 돌파」, 『매일신보』 1937년 10월 7일.
13. 진성규 한동민, 2021, 『「화은시집」 해제』, 『역주 화은시집(華隱詩集)』,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원.
14. 문화순, 2017, 「경희(景暉) 김영근(金永根)의 한시연구-강진에서 간도까지 「원유일록(遠遊日錄)」을 중심으로」, 『한국사기문화연구』 39, 한국사기문화학회.
15. 內務省 警保局, 1943, 「在留朝鮮人運動日誌」(1943-1944), 『特高月報』, 601쪽(『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5권);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3, 「時局關係の犯罪に關する調査」, 『思想彙報 續刊』.
16. 「오창근에 대한(조선독립운동 관계) 차안유지법 위반사건 예심종결결정(吳彰根に對する(朝鮮獨立運動關係)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豫審終結決定)」.
17. 「전조선신문기자대회 개최, 조선신문기자회 결성」, 『자유신문』 1945년 10월 23일.
18. 「전조선신문기자대회 이틀째」, 『자유신문』 1945년 10월 26일.
19. 「제2회 전국신문기자대회 개최 예정」, 『서울신문』 1946년 4월 17일.
20. 「사회사정조사단 일행, 남조선 실행 조사차 출발」, 『서울신문』 1946년 4월 5일.
21. 「監察委員會職制, 大統領令2號」, 『동아일보』 1948년 9월 2일.
22. 「監委會 人事發令」, 『경향신문』 1948년 11월 6일; 「監察委員會 人事」, 『조선일보』 1948년 11월 6일.

S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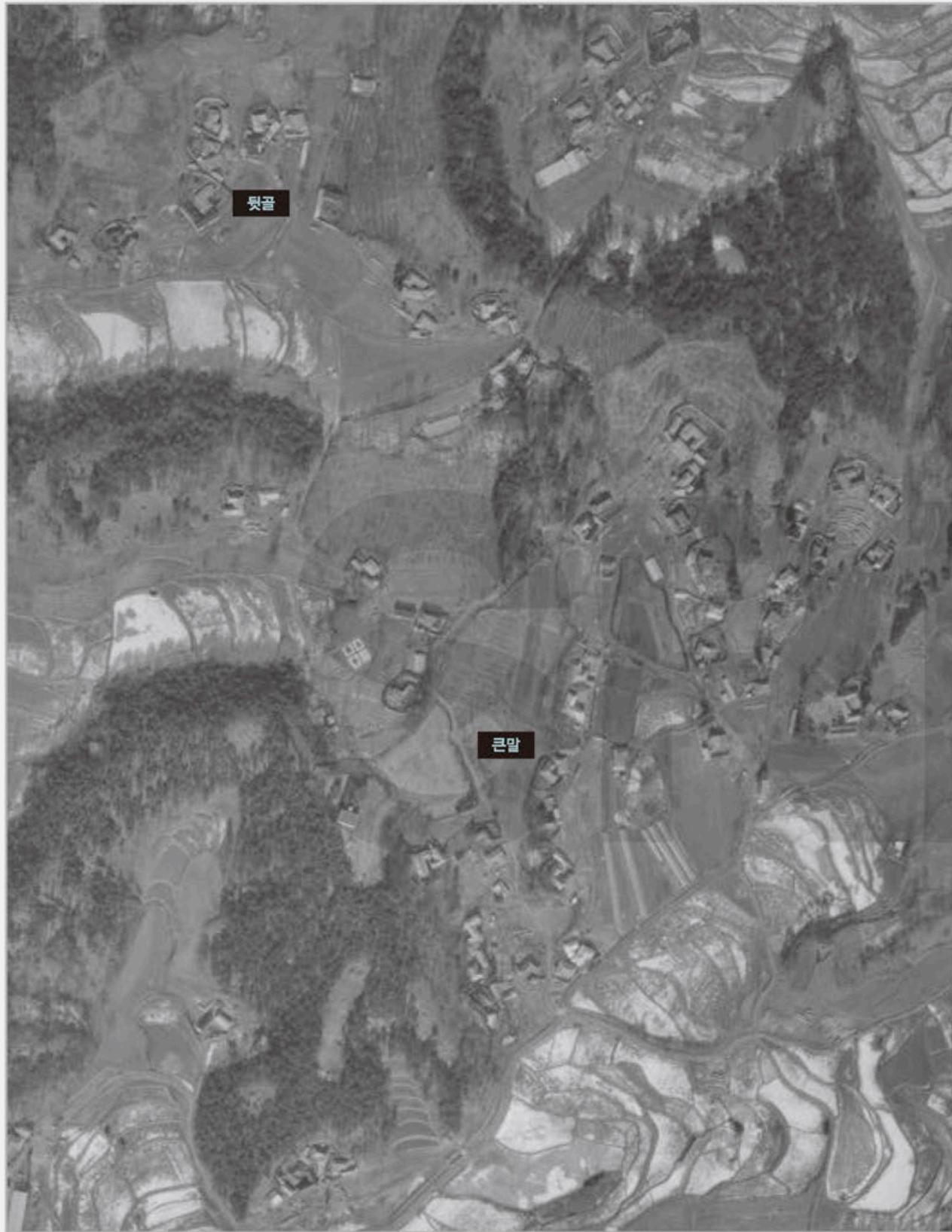
수원시정연구회 SUWON RESEARCH FORUMS 수원시정연구회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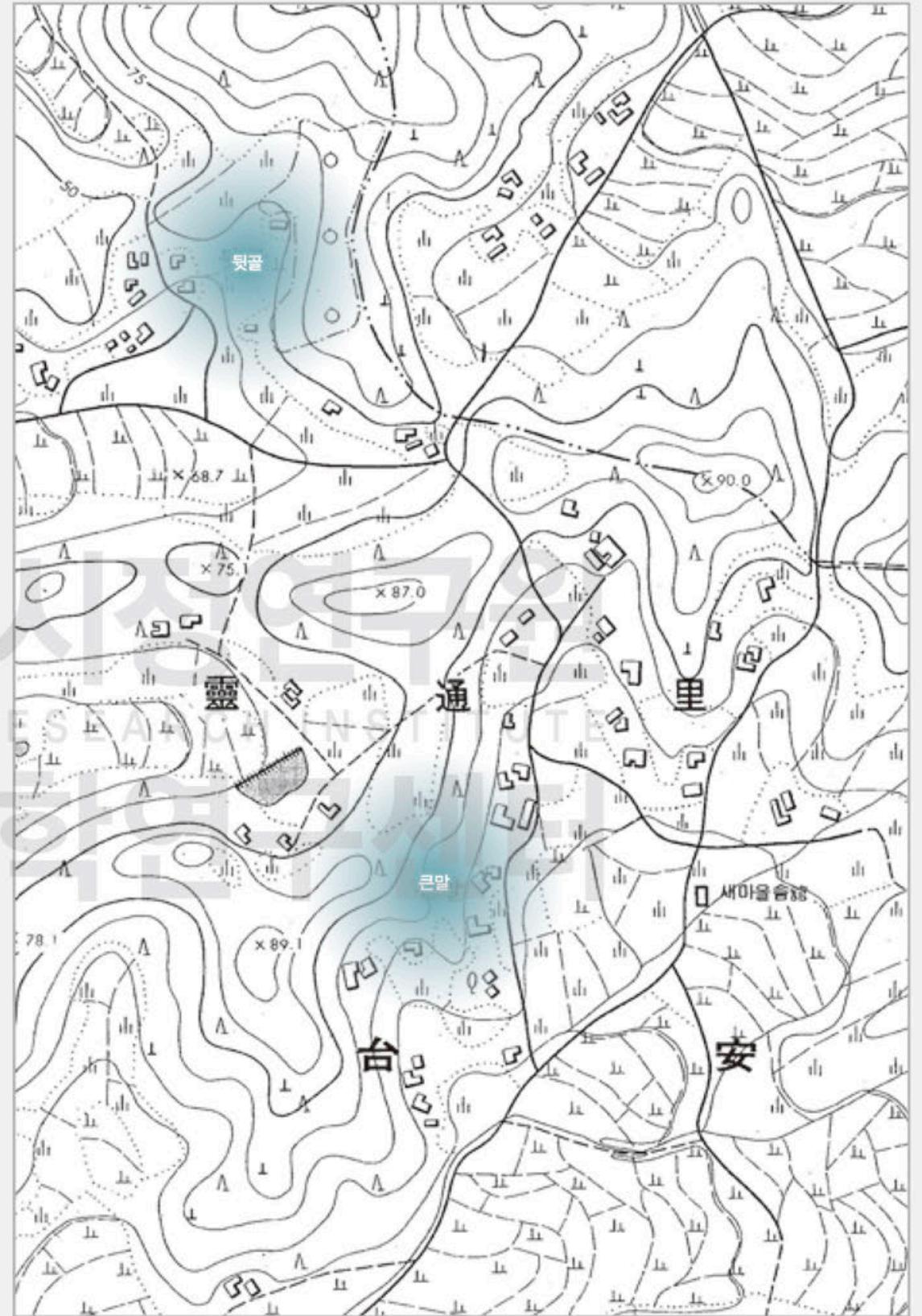
택지개발 전후 영통리 주민들의 생활 변화

수원의 '영통'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수원의 강남, 젊은 도시, 삼성전자, 높은 소득 수준, 대학가, 강한 교육열, 학원 밀집가 등 여러모로 '살기 좋은 동네', '신도시' 라는 특징이 떠오른다. 현재 영통동은 수원을 대표하는 주거 지역이자,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지역으로, 학원과 상권의 중심지이자 대기업 배후도시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된 지는 채 30년이 안 되었다. 영통동은 원래 농사를 짓던 전통적인 촌락공동체로, 수원과 화성의 경계이자 외곽 지대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1992년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원영통·용인영덕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동쪽 마을이 해체되고, 토박이 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1997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지금과 같은 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영통동 변화상을 살펴보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 만큼 변천이 심하다는 뜻의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과거의 영통동은 어떤 마을이었을까?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생업은 무엇이였을까? 도시 개발과 시대 흐름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백 년간 영통을 지켰던 토박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영통 마을 주민들의 과거 모습과 생활 변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영통의 토박이, 마을 사정에 해박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만나 현장조사와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여 마을 역사를 구성해 보겠다.



1980년 영통리 큰말과 뒷골



1983년 영통리 큰말과 뒷골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영통리 마을 이장을 지낸
이정우(1943년생)



영통청명단오제보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이환(1947년생)

<표 1> 구술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지역 활동	현재 거주지
이정우	남성	1943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통리 '뒷골말' 전주 이씨 집성촌에서 출생 영통리 마을 이장 역임 농협대의원, 농지위원회 위원, 민방위대장으로 활동 	매탄동 주택
오이환	남성	1947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통리 '큰말' 해주 오씨 집성촌에서 출생 영통 지역 대지주로 꼽힌 오덕영의 손자 영통청명단오제보존위원회 위원장, 고문 역임 수원박물관, 한신대학교에 영통 관련 유물 기증 	망포동 아파트

대대로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은 한 가문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다. 영통리에 거주하던 주요 성씨는 해주 오씨, 전주 이씨, 청주 한씨, 경주 김씨 등이다.

이정우는 영통리 '뒷골'에서 13대째 거주한 전주 이씨(全州 李氏) 견성군파(甄城君派)의 후손이다. 그는 1943년생인데,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약 6년간 영통리 마을 이장을 지냈다. 이 시기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기에, 그는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오이환(1947년생)이 나고 자란 영통동 '큰말'은 해주 오씨(海州 吳氏)가 오랫동안 세거한 마을이었다.¹ 오이환은 영통구의 대표적인 축제 겸 주민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은 영통청명단오제를 시작한 인물이다. 영통리에서 천석꾼으로 불린 조부 오덕영의 메이지대학 재학 당시 사진, 각종 상장, 호패와 도장 등 과거 영통 지역을 보여 주는 경제자료와 교육자료 등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영통의 역사를 거론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 택지개발로 전통적인 집성촌 마을이 해체되는 시점에 마을을 떠났다. 이들은 기존의 영통 마을에서는 떠났지만, 여전히 영통구에 머물고 있다. 이정우는 현재 매탄동의 주택가에, 오이환은 망포동 아파트촌에 거주하면서 예전 토박이들과 교류하고,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맡으며 마을의 큰 어른이자 터줏대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두 사람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영통의 과거 생활상, 마을의 변화,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경계지역 농촌마을의 풍경과 주민 삶

영통동은 택지개발 전까지 농촌마을이자, 화성과 용인의 경계에 있던 지역으로, 교통 오지에 속하던 곳이었다. 택지개발 전까지 영통은 행정구역상으로 한동안 수원이 아닌 화성군 태장면 소속이었다가, 1994년 영통지구가 개발되면서 수원시로 편입되었다.²

1914년 4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영통동은 '영통리'라는 동네였다. 영통리는 큰말, 뒷골, 새터말, 안영통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대부분 자취가 사라진 상태이다. 토박이들은 '영통리', '영통동'보다는 '영통'이라는 지명을 주로 사용한다. '큰말'은 본래 영통리가 생겼을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마을로, 영통사와 반야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³ 영통리에는 지주 집안인 해주 오씨들이 많아서, 한때는 전체 60~70여 호 중 해주 오씨가 30여 가구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청주 한씨, 전주 이씨, 경주 김씨 등이 거주하는 집성촌이었다. 해주 오씨 종손인 오이환의 집터에서 직선거리로 70m 정도 떨어진 지역부터 용인군에 소속되었으니, 수원에서도 변방 지역이었다. 영통리는 용인시 서농동과 영덕동, 화성시 반월동에 가까워서 이들 지역과 공통된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오이환 영통이 옛날에 화성군이었어요, 태장면의. 화성군하고 용인군의 경계. 우리 집에서 집터에서 직선 거리로 한 70m 정도가 그 용인군. 직선거리로 그렇게 돼요. 저보다 더 가까웠던 집이, 저기 김진흥 영통구청장 초대 했던, 진흥이네 집이 오히려 우리 집보다 더, 진흥이네 집은 한 40m 정도. 저도 중학교를 수원에서 다녔거든요. 수원복중을 다녔는데, 수원 사람이 그때는, 수원이 여기가 수원이었으니까. 수원시가 수원군 수원읍이었는데, 수원 인구가 돼서 이제 시(市)로 승격을 하다 보니까. 수원군 수원시, 어! 이상한데? 그 래 갖고 수원시를 또 달리 이름 하기도 그러니까 수원시라 그러고, 수원군이 화성군이 돼 버린 거요.



택지개발 전 영통리 큰밭(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택지개발 전 영통리는 주로 논농사를 짓던 지역이다. 밭에서는 약간의 콩, 보리, 수수, 잡곡류 등을 생산했으며, 과수원은 없었다. 농경지가 넓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낙후된 편이었다. 빗물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던 천수답(天水畓)으로 운영하다가, 1970년대 농업용 관정을 파고 펌프를 설치해 물을 구하였다. 물이 부족한 동네의 경우, 서로 물을 사용하려고 집안들끼리 물싸움도 하곤 하는데, 영통리는 천수답이 잘 되어 있어 주민들끼리 사이가 좋았다.

영통리에서 큰 지주로 꼽히던 이는 오이환의 조부인 오덕영(1887년생)으로, 천석꾼으로 불렸다. 토지를 갖고 있는 대성(大姓) 집안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서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통리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인근의 태장초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태장초등학교는 1922년 공립보통학교로 설립하였는데, 오덕영이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고 동네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내어 1919년 조선총독부로부터 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⁴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태장초등학교는 영통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태장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면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흥겹고 떠들썩한 마을 행사가 되었다. 영통리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과 화성의 경계지



택지개발 전 영통리 뒷골(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역이었지만, 생활권,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수원과 훨씬 밀접하였다.

오이환은 태장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원북중학교를 거쳐,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해주 오씨와 청주 한씨 후손 중에는 수원이나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가 꽤 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심해졌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위기가 가속되었다. 1930년대 30여 가구에 달하던 해주 오씨 집안은 택지가 개발될 당시인 1990년대 중반에는 6~7가구만 남아 있었다.

오이환 과수원은 없었고, 논농사, 밭농사. 농지가 많지 않았어요. 확실히 농경지가 많지는 않은 동네였으니까, 좀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는 좀 낮았죠. 여기 이제 대성(大姓)으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실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죠.

영통리는 땀값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먼 산에 가서 땀나무를 마련하는 '먼산나무'를 했다. 아침이면 밥과 찌지를 넣은 도시락을 메고, 용인 삼가동의 부아산에 가서 땀나무를 마련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3년, 영통리 산 1번지 일대에서 농촌연료를



오이환이 거주하던 영통리 큰말 구석집(1993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인에 접해 있어 어느 지역에서도 중심지가 아닌 변방지대였으며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소박한 가운데도 서로 간에 예의와 인정이 넘치던 곳이었다. 대성가문의 나이 지긋한 남성들이 마을의 중심이 되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농사를 짓는 일반 주민들끼리의 관계도 원만하였다. 택지개발 전까지 영통리는 소박하고 정겨운 농촌 마을로,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던 공간이었다.

2. 마을 이장 중심의 공동체

이정우의 고향인 영통리 '뒷골말'은 독침산 북동쪽에 있었던 마을로, 현재 영덕초등학교와 영덕중학교가 들어서 있는 자리이다. 영통리에서 가장 후미진 곳, 혹은 큰말에 비해서 뒤에 생긴 마을이어서 '뒷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⁶ 뒷골말은 태안, 수원, 용인, 오산 등 어느 지역의 중심지에서도 20~30리를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교통이 좋지 않고, 시장을 보러 다니기에도 꽤 불편한 마을이었다.



영통리 자택(영통리 136번지)에서 이정우와 자녀들(1985년, 이정우 제공)

이정우 원래 이 동네는 다, 왜냐하면 영통이라는 데는 또 다른 데보다도 오지 마을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입이 더 힘든 지역이라서 그렇죠. 영통이라는 데가 아주 오지 마을이었거든.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동네가 있고, 이제 '큰말'이라는 데가 제일 큰 동네고, 그다음에 '뒷골말'이라고, 우리 이제 '뒷골말'이야. 거기 이제 거기가 경계가 용인시하고 같은 경계예요. 수원시도 경계가 되고, 화성군도 경계가 되고, 거기에서 들은 데가 영통이예요. 이렇게 해서 태안농협의 태안면에서 제일 오지였어요. 42개 부락에서 제일 오지였어요. 내가 이장 볼 때 42개 리(里)가 있었어요. 영통이 아주 빈곤했었어요. 토지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고개를 넘는다는 게 어떻게 조그마한 산이예요. 나무도 막 있고, 이렇게 길만 이렇게 풀려서 넘어 가면 한 마을이 있고, 또 고개 넘어가면 또 한 마을이.

이정우는 태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다가, 군 복무 후 서울에서 10여 년간 장사를 하다가, 결혼하고 영통리에 돌아왔다. 마을 이장은 보통 그 마을에서 오래 거주한 중년 이상의 남성이 맡는다. 30대 중반이 되어 이정우가 마을에 복귀하자, 노인들은 그를 환영하며 젊은 사람이 이장이 되길 희망했기에, 다소 이른 나이에 이장이 되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다시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자 했던 이정우의 삶은 이장이 되면서

크게 달라진다. 1970년대 후반 농촌, 그 중에서도 오지에 속하던 영통리에서 마을 이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장의 업무와 일상을 살펴보면 당시 영통리의 특징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려볼 수 있다. 이정우는 이장이 되면서 집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였다. 앰프(음향기기)를 통해 아침마다 마을 소식, 새마을사업에 대한 공지, 각종 주의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방송하였다. 집에 머물거나 논밭에서 일하던 주민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들으며 마을 소식을 접했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였다.

이정우 (방송 장비가) 이장 집에 있었어요 이장이 아침이면 민원 같은 거 주민들이 알리게 방송을 다 해 주고, 또 무슨 뭘 행사 같은 게 있으면 행사 같은 거 전부 방송으로 해서 이제 새마을사업 하면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오늘은 뭐가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달라.” 내지는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 하고

이정우가 이장을 맡았던 시기는 1978~1984년인데, 당시 농촌 이장은 큰 권한과 의무를 가진 마을 책임자였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이장이 해야 될 일도 많았다. 이장이 출생 신고, 전출입 신고까지 담당했기에 그의 집은 지금의 주민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했다. 교통의 오지라서 면사무소와 시내 출입이 어려웠기에 주민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불일을 보러 나가는 이장에게 개인적인 대소사도 부탁하였다. 주민들 중 결혼식

새마을유아원이 설치된 영통리 새마을회관 (이정우 제공)



새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영통리 주민과 이정우(이정우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이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이장이 수원 시내에 가는 길에 인쇄소에 들러 청첩장 인쇄를 맡겼다. 요즘은 친척이 예식장에서 방명록과 축의금 관리를 주로 하지만, 당시에는 마을 이장이 접수대에 앉아 이러한 일들을 직접 담당하였다. 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온갖 경조사까지 이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보니 이장은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이정우의 집은 주민등록 서류를 비롯한 온갖 문서의 사본으로 가득했고, 출퇴근 시간의 구분 없이 일을 처리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의 방문으로 북적였다. 앰프와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에 소식을 전달했기에 그의 집은 작은 지역 방송국과도 유사한 역할을 했다. 1970~1980년대 마을 이장은 영농회장, 농지위원회 위원장, 예비군 소대장 직책을 겸임했기에 이 업무도 모두 이정우의 몫이었다. 외부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 토지를 구입하거나 팔더라도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 줘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러 왔고, 이정우는 일일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느라 더욱 분주해졌다. 요즘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행정이나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 이장, 통장, 반장들도 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누가 떠나며, 어떤 이에게 어떤 소식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영통리 마을 잔치(이정우 제공)

영통리는 지형적으로 오지 마을에 해당되어 전기가 늦게 가설된 편이다. 1974년경 전기가 들어왔는데, 오이환이 직접 발로 뛰어가며 전기를 신청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집성촌 대성가문에서 똑똑하고 적극적인 이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행동하며, 다른 마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다.

오이환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전기사업 들어오고 그럴 때. 도저히 안 되겠어. 아유. 내가 어떻게 하면, 발로 재 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몇 m. 그러면 20m 하나씩 해서 큰 전주, 그다음에 작은 전주 몇 개, 큰 전주 몇 개, 그다음에 전선을, 외선은 전기회사에서 해줘요 그다음에 집에 안에 내선, 그거 다 집집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면 그리고 “우리도 전기 좀 해 달라!” 고 74년이었나?

영통리 토박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으며 멀리 나무를 베러 가고, 함께 묘목을 심고, 새마을사업에 참여하였다. 마을방송을 통해 농사일에 관한 소식, 경조사, 우환 등을 공유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돈독한 유대감과 친목을 쌓았다.

3. 공연과 행사를 통해 화합하던 주민들

지금처럼 각종 오락, 쇼핑, 관광 등이 다양하지 않던 시기, 영통리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이들은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한가한 시기에는 행사와 공연 등을 가지며 망중환을 즐겼다. 오이환은 마을에서 의미 있는 행사로 단오제(端午祭)와 공연을 꼽았다. 음력 5월 5일 단오는 양력으로 6월 중순~말쯤에 해당한다. 파종을 하고 모를 낸 후 잠시 숨 돌릴 여유가 있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다지며, 재액을 예방하고 풍년을 기원한다. 영통리 성인 남성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새끼를 꼬아 큰 밧줄을 만들어 그넛줄로 삼으면, 여성과 어린이들은 그네를 탔다. 영통리와 용인군 하갈리를 연결하던 고개를 ‘옷고개’라고 불렀는데, 남성들은 이 고개를 넘어 저수지나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고 놀았다.

오이환 내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거기 느티나무 밑창이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이제 여름에는 멍석 깔아 놓고들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됐잖아요 느티나무가 이렇게 가장이가 아주 이렇게 쪽쪽, 거기에는 그네를 매주신다고요 이렇게 꼬아서. 그 동아가 짚으로 이렇게 하면 돌려 하는 게 있어요 뒤에서 돌아가면서 빠져. 그러면 꼬아 가지고 기다랗게 해서 한번 다시 세 번을 꼬면 완전히 동아 밧줄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굵은. 어른들이 하지, 나는 못 봐서요 ... 단오라는 게 그 농촌에서 보리라작 하고 그다음에 모내고, 모내기까지 끝이 나면 그다음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요 망중환이지. 논매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망중환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논을 매어야 하는데. 논을 세 번을 보통 매거든요 초벌, 세 벌. 그다음에 마무리해서. 그걸 훑친다고 마무리는 그걸 그 사이에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네도 타고, 그다음에 천렵도 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오이환의 부친인 오창근의 주도로 동네에 무대를 만들어 〈원술랑〉, 〈화랑 관창〉 등의 연극을 공연했다고 한다. 화랑은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내놓고 조국을 구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이 된다. 암울한 시기 민족정신과 의지를 표현하고, 이를 동네 주민들에게 암암리에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주제의 공연을 했으리라고 오이환은 해석하였다. 아버지와 그의 지인들이 극본을 각색하였고, 동네 젊은이들이 배역을 맡아 며칠씩 연습하였다. 지금의 영통사(영통동 1048-4)에서 40~50m 떨어진 언덕배기에 묘지가 있고, 주변에 평평하고 넓은 땅이 있다. 주민들은 절 부근의 큰 소나무 한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무대를 만들었다. 집집마다 대문을 떼어내 이어 붙인 후, 그 위에 멍석을 깔아 무대를 만들었다. 집마다 공출한 멍석의 귀퉁이를 꿰매어 휘장처럼 사용하였다.

추석 때 밝은 달 아래에서 열리던 공연에는 영통리는 물론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합하여 100여 명씩 관람하였다. 동네 어른들은 다 같이 먹을 간식거리를 준비하였다.

오이환 아래쪽에다가, 우리 동네는 아주 오랜 전통으로 일정 때 우리 아버님들이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연극을 각본을 쓰고, '원술랑', '관창' 이런 거를.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 해서. "너는 관창을 해라!", "너는 아무개를 해라!", 해서 각 대본 다 쥐 가지고, 몇 날 며칠 연습을 시키고, 분장도 하고 ... 동네 어른들, 청년들, 다. 무대를 만들면 기둥은 소나무 세 개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쪽은 기둥이 없으니까 기둥 하나 세우고. 이제 가로다지를 나무들 갖다가 하고. 밑창에 깔판이 문제잖아요 온 동네 대문이란 대문은 다 떼어다가. 그날은 대문 공출이야. 기억이 나는 게 '원술랑', '화랑 관창' 이런 거였는데. 아버님이 처음에 시작은 아버님이 하셨대요 그때는 일정 때고 그러니까 우리 것, 우리 것 하느라고 우리 민족혼, 뭘 등등 이런 거를 암암리에 고양하고 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오이환의 아버지가 작고한 후, 오이환의 사촌 형과 누나들이 이를 계승하였다. 이들은 모여서 15일씩 연습하며 준비하였다. 친척 형 중 수원농고(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 다니던 이가 밴드부 활동을 하던 친구를 마을에 데려와 3~4년간 트럼펫 연주를 하게 했다. 주민들은 농촌에서 쉽게 보기 힘든 금관 악기를 구경하고, 음악을 들으며 신기해하였다. 공연의 시작은 마을의 몇몇 엘리트 남성들이 주도했지만, 어느새 동네 주민들이 모두 준비하고 즐기는 축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공연을 주도하던 해주 오씨들이 서울로 유학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하며 공들여야 하는 연극 공연을 지속하기 힘들어졌다. 대신 노래 자랑 형식의 동네잔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 택지개발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와해되기 전까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러한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4. 영통지구 택지개발과 주민 삶의 변화

소박하고 정겹게 살아가던 농촌마을 영통리는 199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맞이한다. 1993년 9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도권 택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일원,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에 100만 평 규모의 신시가지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38만여 평의 부지 위에 아파트 2만 6,490가구와 단독주택 540가구 등 모두 2만 7,03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여 10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4만 1,800여

수원 영통과 용인 영덕지구 개발사업(『경향신문』, 1993년 2월 1일)



평에는 각종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⁷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대도시지역의 주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영통리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다. 토지를 많이 갖고 있던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을 꽤 받았다. 그런데 영통리는 농경지 규모가 작고, 땅을 많이 가진 이도 드물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삶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쫓겨 나가는 모양새가 되었다. 토지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부채지주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나머지는 연리 11%의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하고 현지 지주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나머지는 연리 10.5%의 1년 만기 채권으로 각각 지급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지구 내 가옥 소유 주민들은 3,000만 원의 현금과 감정평가에 의한 약간의 건물 보상비로는 이주 가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현금 지급 한도액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영통에서 해주 오씨 집안은 토지를 많이 소유했기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지낸 이는 오이환과 같은 해주 오씨 일가인 오유환이다. 오유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토개공이 보상금 지급원칙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특히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부실해 공사착공과 함께 주민들이 이주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다.⁸ 오이환도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영통의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는 데 힘썼다.

주민들이 받은 단독주택지는 지금의 영통2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앞이다. 오이환은 개발 전, 3,000평 규모 대지의 주택에 살면서, 정월에 온갖 나무와 꽃을 심어 관리하였기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오이환 집 앞으로 소풍을 와서 정원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등 마을의 명소로 꼽혔다. 그런데 당시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이렇게 넓은 주택도 60평 규모의 대지를 받을 뿐이었다. 그는 영통동이 개발되는 시기에 매탄동 한국1차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망포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하지만, 택지개발로 대대로 살던 넓은 집을 떠나게 된 것에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이정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된다니까 사실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보상을 받으니까 좋은데,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이환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사는, 여기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사요 ... 또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거기 살던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단독주택지를 분

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사는데 팔 때는 평당, 무슨 이룰려면, 10만 원을 얻은 게 다 택지개발하고 도로 다 해놓고 나니까 평당 200만 원이요

평생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며 받은 보상금을 밀천으로 장사를 하거나, 수원 혹은 인근 지역의 공장 일용직 노동자, 건물 경비원 등으로 취업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원래 살고 있던 영통리에서 가까운 지역인 매탄동 주택단지로 많이 이주하였다. 영통리 이장을 지낸 이정우도 매탄동에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놓아 그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주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확정된 후, 마을회관 등 공동재산에 대해 받은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영통리 뒷골말에서는 사무실을 하나 지어 주민들의 모임터로 갖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각각 어느 동네로 이주하게 될지 모르고, 훗날 누가 다시 마을로 돌아올게 될지, 사무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부분이 없었기에 사무실 설치는 무산되었고, 토박이들의 모임 공간도 사라졌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95년 영통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
(수원박물관 제공)



이정우 주민들이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마을에도 인제 마을회관이 있고, 동네 그 자본들이 있으니까.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어디 가서 토개공(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서 시위도 해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땅 많은 사람들은 다 찾아가. 없는 사람들만 갖다 들어 와요. 무슨 효과가 있어? ... 거기다가 여기 와서 사무실을 하나 하자. 사무실 하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또 반대가 많은 거야. 각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뭘 지어 놓고, 누가 사후 관리하나? 그다음에 그 혜택을 또 볼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충돌이 있어 가지고서 나중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지한 거예요.

개발은 마을 주민들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오지마을이 개발됨으로써 토지보상금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임대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도 생겼다. 다른 지역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는 이도 있다. 이들은 비록 고향이 사라지고 삶이 달라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윤택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농사꾼에게 갑자기 보상금으로 현금이 들어오자 외지에 나가 살던 형제나 일가친척 등이 돈을 빌려 달라거나, 나눠 달라고 요구하며 분란이 생기고,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했다가 돈을 모두 잃고, 노년을 궁핍하게 지내기도 한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이 접근했고,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오이환 영통 토박이들로서 영통에 나중에 다시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것도 안 돼. 10% 정도였거든요. 그때 입주 시기에. 이제는 15% 될 거야, 아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을 사면은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돈 받은 거를 보고 무슨 친척에다, 뭐 형제에다, 무슨 뭐다, 와서, “나는 뭐 없나?” “오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참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집도 제대로 ... 그러다 보니까 영통에 다시 들어와서 산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997년 영통지구 택지개발이 완공된 후, 주민 중에서 다시 영통동에 입주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10% 정도였고, 지금은 조금 증가하여 15%쯤 된다. 영통지구의 주택가나 아파트에 다시 들어와 살더라도, 과거 살던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뿐이지 고향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평생 유지해 온 생업이 바뀌었으며, 마을의 경관과 익숙하던 생활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실향민(失鄕民)’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에서 실향민은 주로 한국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을 일컫는데, 영통리 주민들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된 영통사(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이환 시골 옛날, 그 머릿속에 있는 고향, 마을 도랑 등등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제 경우는 그 실향민들, 지금 남아 있는 거라고는 저 청명산 밑에 저 반야사하고, 영통사. 영통사도 뭐, 새로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했던 거지. 그나마 거기가 거기다, 라는 정도로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 있는 게 없어. 느리나무 하나 있었는데 느리나무가 저기 그냥 그 바람에. 완전히 ‘실향민’이라니까. 그냥 이 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고향 풍경은 모두 사라졌다. 오이환을 비롯한 영통 토박이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일찍이 촬영해 두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화하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집을 떠나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잔치, 졸업식 등 특별히 기념할 만한 행사 때나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사는 집, 이웃집, 논밭, 산천, 일상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과거 영통리를 상기시키는 존재로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청명산 아래의 반야사(영



2017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에 선정된 영통동 느티나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통구 청명북로 66)와 영통사(영통구 봉영로 1658) 사찰이다. 수인분당선 청명역과 대구 모 아파트 단지가 가까이 들어섰기에 두 곳 모두 도심 속 절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마음 속에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것은 영통동 단오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이 나무는 500년 가까이 영통리를 지키던 명물이자, 주민들의 일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존재이다. 느티나무는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되고, 2017년 5월 '대한민국 보호수 100선(선)'에 선정되면서 원주민은 물론 영통신도시에 새로 들어온 주민들에게도 자부심을 안겨줬다.

그런데 2018년 6월 강풍과 폭우에 나무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영통 마을 주민들의 상실감도 대단하였다.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남성들은 새끼 꼬기를, 노인들은 휴식과 담소를, 부녀들은 그네타기를 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일상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영통동 느티나무는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아닌,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상징적인 존재였다. 수원시는 보호수 밀동을 보존해 밀동 주변에 움트고 있는 맹아(萌芽, 새로 돌아오는 싹)와 실생묘(實生苗, 씨앗에서 새로 난 묘목)를 키워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⁹ 밀동만 남아 있는 나무이지만 다행히 살아남은 가지와



2018년 6월 26일 태풍으로 부러진 영통동 느티나무(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2020년 영통동 느티나무 후계목(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뿌리 쪽에서 새 촉이 올라와 이제 제법 자란 상태이다. 자라나는 느티나무를 보면서 주민들은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대견함과 수원시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오이환 느티나무에 대한 상실감이 참 대단히 커요 ... 실생(實生), 저 떨어져 가지고 씨 난 게 이만했던 거 자라는 거 보니까 그놈이 오히려 더 튼실해. 그래서 “아! 실생이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대견해.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시(市)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5. 청명단오제, 영통의 역사를 잇다

1960~1970년대 영통리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학을 떠나고, 전국적인 이농현상과 맞물리면서 영통리의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1969년 삼성전자가 매탄동 일대에 자리 잡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도 함께 변화하였다. 생산라인의 근로자들이 증가했고, 이들이 공장 근처에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였다. 1980년대에는 월세 방을 구하는 사람들, 표준주택을 구입해 들어오는 이들,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로 영통리 주민 수가 늘어났다. 수백 년간 조용한 집성촌 마을에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기존 마을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태어나 성장과정을 지켜보았으며, 혈연관계로 얽혀 있었고, 태장초등학교 동문이라는 학연으로 연결되었다. 경조사를 공유하고, 새마을사업에 참여해 마을 발전을 이끌고,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영통동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토박이들과 가까워질 명분도 없었고, 상조제와 같은 기존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개인의 삶에 집중하였다.

오이환 영통이 가구 수가 좀 있다가, 좀 줄었다가, 그게 이제 이농현상 등등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한동안은 그렇게 뭐 별 변동이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변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영통에 이제 가구 수가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려가서 한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80년대, 그쯤 됐을 거예요. 80년대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고, 방 구하기도 그렇죠. 힘든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풀러 풀러 영통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집을 새로 짓, 그냥 단독 주택에다가 방 하나 놓는 거 형태인 거죠. 아니면 집을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농가 개량된 농가 주택을 보급을 하고 그랬었어요. 표준주택들, 농가의 표준주택들이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얻어 가지고 집 없는 분들이 그걸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여러 채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오이환은 집성촌 토박이이자 대지주의 후손으로서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고, 공동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주민들은 그러한 오이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민 전체가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내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가, 서로 인사도 없이 지나치며 마을 분위기가 점차 각박해지는 것에 오이환은 속이 상하였다. 과거 영통에서는 청년 한 명이 입대를 하거나, 누가 이사를 떠날 때도 일일이 챙겨 주는 문화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분위기를 이어 가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마을 단합을 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하던 끝에 그는 단오절 행사를 추진하였다. 음력 5월 5일인 단오는 농사가 한창 바쁜 시기이다. 농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별로 협동이 필요하기에, 마을 단위로 만든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가 있었다.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농악인데, 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지역학연구

1980년대 중반 영통리 두레 풍물
(이정우 제공)





영통 두레패 깃발과 악기(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든 농사일을 복돋기 위해 작업을 하러 갈 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깃발인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풍물재비들이 장구·팽과리·북을 치며 일터로 간다. 영통리는 마을 두레의 수준이 높아서 다른 마을에서 “영통 두레를 못 이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때 태장면의 대표로 선발되어 화성군 두레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경우 서로 진짜, 하다못해 군대를 가도 송별식을 꼭 했고, 누가 이사를 가도 다 가서, 만 두레들은 영통 두레를 못 이겼어요!

과거 두레패를 이끌던 노인들은 고령으로 작고하거나 건강이 좋지 못했고, 젊은 층 중에는 이를 제대로 물려받은 이가 없었다.

오이환은 먼저 한국민속촌에 가서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숙소에서 동네 상황을 설명하며 주민들에게 두레 농악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하였다. 이에 풍물패를 지휘하는 상쇠가 직접 영통에 와서 주민들에게 몇 달간 장단을 가르쳤다. 오이환과 가깝게 지내던 동네 남성들은 이를 함께 배웠고, 영동시장에 가서 옷과 음식을 장만하였다.

단옷날과 가까운 일요일 아침, ‘영통의 허파’라고 불리는 청명산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 느티나무에서 고사를 지냈다. 주민들은 마을의 평화, 주민들의 화목,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마을 행사가 있다는 고지를 들은 이주민들도 아침부터 마을이 종일 떠들썩하자 하나 둘 모여 들었고, 이를 계기로 토박이들과 인사하고 통성명을 했다.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한번 친교를 맺게 되자, 직장을 다니는 이주민들과 농사를 짓는 토박이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마을 분위기도 좋아졌다. 도시화와 주민들의 이주로 기존 마을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농경사

회의 공동체 의식이 다시 등장하여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단오제는 영통리청년회에서 맡아서 1983년부터 10년 넘게 지속하면서 영통의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오이환 영통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이웃사촌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 “화목”이 첫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어느 시골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근데 이제 외지에서 다른 데서 오고, 저 단오제를 다시 한 이유도 이제 그중에 하나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잘 이렇게, ...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래도 같이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한 동네가 또 없잖아? 영통 말고는! 또 어디있어요?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영통리 주민들은 1994~1995년에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공사가 끝나고 원주민들의 일부는 영통으로 돌아왔지만 소박하고 정겨웠던 농촌 마을은 세련되고 웅장한 신도시로 변모한 상황이었다. 이주자 택지 혹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끔 자신들이 살던 영통을 지나가던 이들은 낯설게 바뀐 경관과 소멸된 기존 공동체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영통동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영통청명단 오제보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과거 단오제와 마을 공연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오이환이 초대 보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영통청명단오제를 준비하였다.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전문가에게 정식으로 자문을 받아 전통제례의 원형에 근접하게 당산제향을 고증하고 의식을 복원하였다.

2005년부터 재개된 영통청명단오제 행사는 2022년까지 벌써 16회째 이어지고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다. 2018년 6월 느티나무가 폭우에 쓰러지자, 느티나무가 없어진 영통동 단오어린이공원 대신 장소가 넓은 주변의 영통사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당산제가 아닌 대동기원제를 지냈다. 2022년부터는 다시 느티나무가 있던 영통동 단오어린이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동기원제를 지냈다. 장마로 쓰러진 뒤 밀동만 남아 지역 주민들을 참담하게 했던 느티나무 주변으로 새끼나무가 많이 자라 아름답디나무의 밀동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영통청명단오제는 이제 영통구는 물론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수원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구청장 등도 참여하고 있다. 산신제와 대동제를 포함한 제례의식에 개막행사, 공연한마당, 참여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변화한 아파트 도심 한복판, 초여름 햇살 속에서 치르는 단오제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주부들, 장기자랑에 직접 참여하거나 응원차 나온 중고생들, 마을을 떠난



2009년 제5회 영동청명단오제 당산제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2008년 제4회 영동청명단오제 행사
(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원주민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하러 온다.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통의 역사와 변화상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이들은 행사의 기원과 성격을 기재해놓은 리플렛을 살펴보거나 축사와 기념사를 들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영통이 어떤 지역인지, 왜 이곳에서 단오제가 열리는지 알게 되고, 그 의미를 한 번씩 되새기게 된다.

1980년대 마을 분위기를 통합하기 위해 시작된 단오제는 택지개발 후, 신규 세력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고 영통동을 널리 알리는 지역축제로 변모하였다. 청명산을 누비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를 뛰고, 오지 마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애쓰던 영통의 원주민들은 폭우에 꺾인 후 다시 자라는 느티나무의 생명력을 보면서, 신도시를 활기차게 다니는 주민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주

1. 수원문화원, 『수원사랑』, 2016 겨울 Vol. 258, 2016, 28쪽.
2. 1796년부터 수원군 장주면 영통리 소속이었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해 수원을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되었을 때 화성군 태장면 영통리로 편제된 후, 1994년 영통지구가 개발되면서 수원시 원천동에 편입되었다. 1999년 원천동에서 영통동이 분동되고, 2000년 영통동에서 영통1·2동을 분동하였으며, 2003년 영통구 개칭으로 팔달구 영통1동에서 영통구 영통1동으로 개칭되었다.
3.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5쪽.
4. 『영통해주오씨가의 삶과 영통의 개발』, 『수원근현대사 증언자료집4』, 수원박물관, 2010, 17~18쪽.
5. 『박대통령 참석 가지치기 숙야내기 별채등 농촌연료채취 시범교육』, 『조선일보』, 1973년 10월 25일; 『농촌 연료 채취 시범교육 박대통령 참석 화성군 영통리서』, 『매일경제』, 1973년 10월 25일.
6. 수원시, 『수원의 지명과 도로명 총람』, 2015, 467쪽.
7. 『수원(水原) 영통(靈通) 龍仁 영덕(靈德)지구에 1백만 평 규모 신시가지 건설』, 『연합뉴스』, 1993년 9월 8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수원 영통-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994.
8. 『영통(靈通)·영덕(靈德)지구 토지보상금 지급방법에 주민 반발』, 『연합뉴스』, 1994년 1월 14일.
9. 『강릉에 쓰러진 영통 느티나무 복원』, 『일간경기』, 2018년 10월 23일.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레' 참고.
11. 『영통의 축제, '영통청명단오제' 열리던 날, 코로나로 멈췄던 단오제 행사에 지역 주민들 웃음꽃 활짝』, 『e 수원뉴스』, 2022년 6월 12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04

격변의 세월을 거친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1. 영통동경로당의 두 친구

1937년 용인 기흥면의 백현마을에서 나고 자란 한영옥은 태장면 신리 신나무실 유일의 방앗간 집 오형제 중 넷째 아들과 결혼하였다. 유년 시절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동네 선생님이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고, 시집은 뒤로는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싶을지언정 배굶을 일은 없었다. 방앗간과 논밭을 오가며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저층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삼게 되었다.

같은 해 신리에서 태어난 박순덕은 남달리 학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 갔다. 당시 집 근처에는 중학교가 없었으므로 일하는 사진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남문으로 학교를 다녔다. 24세에 시집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고향 땅에서 마냥 농사를 짓고 싶지 않았던 박순덕은 삼성에 입사해 직장인으로서 커리어를 쌓았다. 바쁘게 회사를 오가며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니 어느새 지금의 저층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삼게 되었다.

이 둘은 동네의 가까운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 오랜 시간을 함께해 왔다. 적막한 영통동 경로당(영통구 매영로 421-7)에는 '진짜' 영통동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현재 남은 구성원은 한영옥과 박순덕뿐이다. 물론 이 둘 외에도 경로당을 찾는 주민들은 있지만, 두 친구만큼 매일 출석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평범하고 무던하게 살아왔다고는 하나, 한영옥과 박



한영옥



박순덕

순덕이 영통동에서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동안, 삼성이 들어서 온 동네가 들썩였고, 밭 매던 곳의 맞은편에는 경희대학교가 들어섰으며, 분당신도시의 후발대로 영통신도시가 자리 잡아 지금의 저층 공동주택 단지가 마련되었다. 이 세월을 겪으며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관리인이 된 한영옥과 박순덕의 기억을 통해 영통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원 깊은 산골짜기와 신나무실

1959년 한영옥이 23세의 나이로 신리 신나무실에 시집왔을 무렵, 이들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일대에는 야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영옥과 박순덕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 큰 야산이 밀리고 자신들이 그 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 줄 꿈에도 몰랐다. 산을 갈고 밭을 닦아 만든 현재의 확장된 영통동과 달리, 두 친구가 살던 신리 신나무실에서는 영통리야말로 '진짜 산골'이라 생각하였다. 도로망이 확충된 현재와 달리 신나무실 사람들이 영통리에 가려면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야 했는데, 영통리에는 감이 많이 열려 '감 좃어 먹으러' 가는 곳이었다. 지금은 신나무실을 당연스럽게 영통동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당시의 주민들은 영통리를 청명산 아래의 지역만으로 한정해 일컬었고, 영통리의 어린이들은 신리 신나무실 위를 지나 망포리(현 망포동)에 있는 태장국민학교에 다녔다.

한영옥 자전거가 어디야, 산 그냥, 산 위로 길이 이렇게 나 가지고 우리 집 위로 지나갔지. 많이 지나갔지.
박순덕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서는, 거기 산 바로 밑에가 집이 있는데, 큰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산이 그냥 희물어진 거야. 무너져 가지고 그 집을 그냥 다 덮었어. 그래서 애들이 죽었어.



영통동의 1966년 당시 행정구역

박순덕은 인명 피해가 날 정도로 무서운 골짜기에 위치했던 영통리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를 청명산에서 찾는다. 청명산이 인근에 있는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험함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녀는 청명산에서 현재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여우를 만나 영험함을 경험했다고 설명하였다.

박순덕 청명산 밑이거든 영통이. 거기는 더 산골이었어. 그래 가지고 그 청명산에서 여우가 막 이렇게 뛰어 오는 거야. 마당에 거가다 멍석 깔아놓고 앉아 있으면, 그 위에 거기 동생네 산에 소나무 하나가 큰 게



1966년 신리 신나무실

있어 하나. 그냥 여우가 막 거기로 올라가는 거야. 소나무, 참나무. 참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는 막 여우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난리 나고, 6.25사변 날부터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

박순덕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른들은 청명산의 호랑이 이야기를 해 주기도 했다. 영통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배고픈 밤에 동네로 내려오던 호랑이도 여우도 사라졌다. 영험한 청명산에서 사라진 것은 호랑이와 여우뿐만이 아니었다. 박순덕은 과거에는 있었던 도깨비며 팔신까지 다 없어졌다고 말한다. 신나무실과 달리 무서운 큰 산 아래 있었던 영통리는 주기적으로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파이고 덮인 청명산은 이전보다 작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영통역 옆에 있는 느티나무도 청명산만큼이나 사랑받았다. 감나무가 많이 열려 감나무 골로 불리던 곳의 한 주민은 박순덕에게 느티나무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봤다는 상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2018년 장마에 느티나무가 부러지고 말았지만 한영옥과 박순덕은 분명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주민들에게 신나무실은 당연히 영통동에 포함된다. 지금의 관공서 및 주거 밀집지가 위치한 곳은 야산이었고 느티나무 인근과 경희대학교 맞은편, 그리고 신나무실 아파트가 위치한 곳에 민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영옥은 방앗간 집 넷째 아들에게 시집왔는데, 방앗간은 마을의 온갖 곡식과 작물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자원이 1차로 가공되는 중요한 장소였다. 방앗간 집 며느리의 일과는 그 누구보다 공사다망하였다. 손님 접대와 식사 준비, 각종 집안일은 물론이고 고춧가루나 벼를 뺏는 일, 그리고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지어야 했다.

한영옥 새벽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고, 밥 먹고 나가서 또 해야 하고, 점심 먹고 또 해야지. ... 우리는 방앗간도 하고 농사도 많았어. 농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 해 주니까. 밭도 안 그만 했어 ... 밥 먹는 거. 맨날 먹을 거 해줘요. 방앗간은 방앗간대로 하고 농사는 농사대로 하고 그랬어.

시대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밭을 매거나 방앗간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밭짓는 일의 연속이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큰 땅을 다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꾼을 고용했는데, 대가족에 더해 일꾼들의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다. 그러던 중 1969년 한영옥이 젊은 날을 보내던 신리 신나무실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움트고 있었다.

수원사상연구소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센터

신리(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신리 신나무실(1992년,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한영옥이 살았던 신나무실 집

3. 논밭의 바깥으로

1969년 영통동과 맞닿아 있는 매탄동에 삼성전자가 설립되었다. 방앗간 경영과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한영옥과 그 가족에게 삼성전자의 설립은 남의 일로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많은 영통 주민들이 그렇듯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을 만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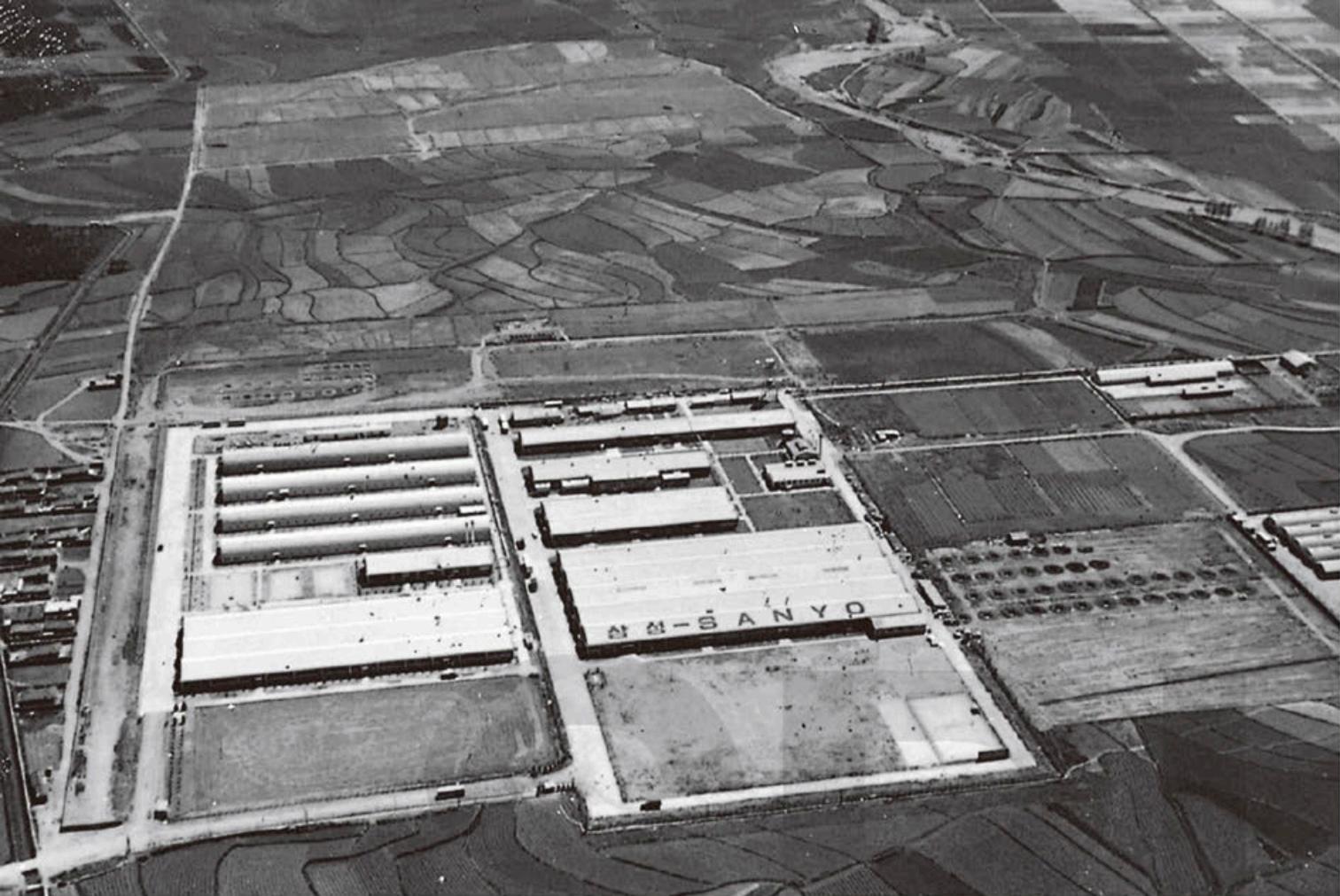
박순덕 옛날에는 삼성전자 지금 처기가 다 논이었어. 논. 그랬더니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지.

한영옥 이렇게 풀 심어서 그거 매려 덩기고, 중앙개발이라고 이제 저기 조금 짓고 그러고서... 나도 저기 꽤 덩겼어. 그때. 짓기 전에 땅에다가 잔디를 심었다 이거야. 잔디. 감독도 없어 그걸 우리 맨날 풀 뽑고 매번 저녁 때 또 와놓고 돈 주고 그랬잖아. 중앙개발에서 저기 일을 놔도 꽤 덩겼어. 집에 일하면서 또 그거 돈도 벌려고.

동네에서 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도나도 모여 공장 관련 부지에 잔디를 심으러 갔다. 다른 곳보다 임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다. 주업은 그대로 농사를 짓는 일이었지만 영통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의 변두리에는 영통 주민들의 손길이 담겨 있다. 밭의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한시적일 뿐이었다. 한영옥은 아이들의 방학 동안 잔디 심는 일을 다녔다고 기억한다. 시대 농사를 돕는 일꾼들이 한영옥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처럼, 삼성 공장에는 기숙사가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기업 노동자와 만나거나 교류할 일이 많지 않았다.

박순덕 그때는 초등학교만 나고 애들도 다 그냥 데려갔어. 공부 더 안 하는 애들은 저기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 지방에서 다 전라도 충청도 다 그런 데로 벌써 뽑으러 다녀 사람을. 애들을 뽑으러 다녀 거기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오고, 이제 각 학교로다가 상고 애들 그렇잖아. 개네들 그냥 막 그냥 줄을 세워서와. 상고 애들.

공장이 등장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근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상업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뽑아 왔다. 조용한 마을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면서 전에 없던 활기가 생겼다. 특히 월급날에는 수원 남문 일대 시장이 '덜컹덜컹'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회사 앞으로 택시가 길게 늘어섰고 맛있는 냄새 나는 시장으로 직원들을 이끌었다. 시장의 호황은



매탄동 농경지에 들어선 삼성

마을에까지 소문나서 “누가 수지를 맞았다.”라든지, “삼성 때문에 먹고산다.”든지의 말이 돌기도 했다.

삼성 직원 중에 수원 시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였다. 기존의 농사를 이어 갔던 한영옥과 달리 박순덕은 공장에 입사하였다. 1970년대 다시 돌아온 고향 땅에서 박순덕은 2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 특히 박순덕은 단순 제조업자가 아닌 총무과에서 근무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컬러TV 후생보조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비 등을 지급·관리하였다. 직장생활을 하게 된 탓에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박순덕은 구직을 위해 시내로 나가야 했던 이전과 달리 집에서 통근하는 ‘직장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가족끼리 경영했던 방앗간을 접고 형제들의 밭을 나눠 가진 뒤 새로운 일을 구하고자 했던 한영옥의 남편은 결국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삼성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2,000평 넘는 큰 땅을 놀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한영옥이 농사일을 혼자 도맡게

되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농사 이외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 단순하게는 잔디를 심는 일부러 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까지, 신리와 인접한 매탄동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멀어졌다. 산업화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흐름에 발맞추어 신리도 자연스럽게 변화의 시류를 타게 된 것이다.

박순덕 경희대가 더 먼저 들어왔거든요. 개발되기 전에 야산 있을 때부터요.

한영옥 내가 그전에 저 밭에 경희대 이제 우리 집에서 가면은 경희대가 이렇게 바로 보였지. 시집오고 나서 경희대가 들어왔어.

박순덕 여기 길 건너면 서천리거든. 그 서천 뒷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됐지 또 ... 삼성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또 그랬지. 그러니까 이 근처 사람들이 부자가 됐지.



삼성전자 재직 당시 박순덕

삼성만큼이나 영통리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준 곳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이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정부의 서울 인구 억제정책에 따라 1979년 이전에 발표되고 1980년대 중반부터 공대, 산업대, 체육대 등의 단과대가 옮겨 왔다. 영통동과 맞닿아 있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설립되자, 서천동 주민들은 한영옥과 박순덕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들은 밀려드는 학생들의 하숙이나 자취방을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조용한 농촌마을에 혈기 왕성한 학생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주민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마주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방 천지에 최루탄 가루가 즐비하였다. 한영옥의 텃밭은 경희대학교에서 길 하나 건너면 도착하는 곳에 있었는데, 작물을 관리하려 갈 때면 당최 눈을 뜰 수 없는 공기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최루탄 가루는 작물에 치명적이라서 밭에 나가는 것을 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영통동에는 농사짓는 사람들과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막는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뒤섞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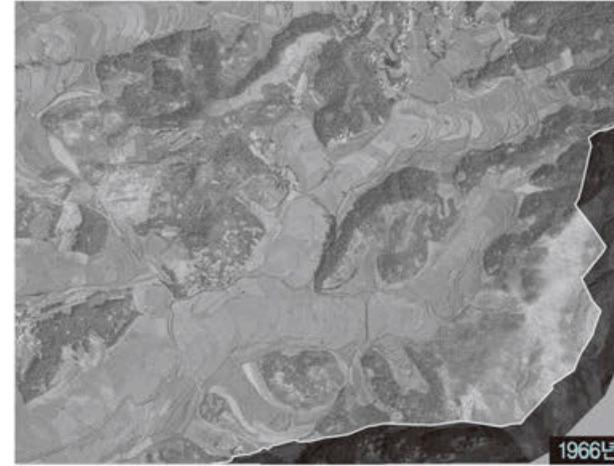
4. 新도시 영통으로

1993년 박순덕이 삼성에서 은퇴할 무렵 영통에는 신도시의 바람이 불었다. 영통신도시의 개발 기간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로 계획되었고, 1989년 10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1992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그다음 해인 1993년 12월에는 보상 착수와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되었다. 한영옥이 1980년대까지 트랙터 없이 우경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1990년대 신도시 개발은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큰 변화였다. 박순덕과 한영옥은 가진 땅을 팔았고 택지를 얻었다. 두 친구가 단짝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웃한 택지를 받았고 여기에 저층 공동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한영옥 수용되고 그거 어디 떨어지고 이제 짓는 거지 다. 봐 가지고 ... 8년 동안 이걸 짓고서 들어온 거. 김대중이 이복 가는 날이야. 가는 날.

한영옥 부부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다 마침내 이사하게 된 날은 2000년 6월 13일이었다. 2000년 6월 13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날이었는데,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 6월 13일의 기쁜 추억을 잊지 못한다. 두 친구가 영통동에 남아 저층 공동주택을 짓기로 마음먹은 데는 노후 대책의 이유가 컸다. 박순덕과 한영옥의 남편은 회사를 은퇴한 상태였고 늘어가는 나이 때문에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와 경희대학교의 인접 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직장인, 학생 대상의 원룸 월세 관리의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여생을 적당한 일과 적당한 벌이로 살아가고자 했다. 신도시 계획 아래 저층 공동주택은 확실히 지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한 층에 원룸 4개,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16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며 방 내부 구조와 사이즈 또한 비슷하다. 16가구는 지어질 수 있는 최대의 가구 개수였다. 이 때문에 지대가 무른 한영옥의 건물에는 지하층을 두지 않고 3층으로 건설해, 총 12개의 가구를 수용한다. 2002년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의 특징이 된다. 신축 건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필로티가 없다는 특징은 영통이 '신'도시가 된 지 20년을 훌쩍 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두 친구가 영통에 남기로 결심한 것과는 달리 1990년부터 2000년을 전후로 많은 주민이 영통동을 떠났다. 한영옥 남편의 형제자매 중 지금의 자리에 남은 가족은 한영옥의 가족뿐이다. 누군가는 택지를 팔고 수원 중심부 건물을 매입해 더욱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보상받은 돈을 투자했다가 재산을 날리기도 했다. 그사이 큰 도로를 낀 인근에 각종 고



영통동경로당 일대의 변화

수원
SUWO
수원학연구센터

층 건물이 들어섰으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동수원세무서, 수원가정법원 등의 관공서가 몰려들었다. 관공서를 둘러싼 저층 공동주택에는 직장인과 학생이 거주하게 되었고 이들의 일상을 위한 작은 가게들이 입점하였다. 두 친구의 건물이 있는 반달공원 뒤편에는 상가주택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오로지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영통동의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영통동 토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이 경로당을 왔다 갔고, 많은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원룸 월세 집에서 살다가 나갔다.

영통동은 택지개발을 통해 1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유입된 수원의 대표 신도시이다. 특히 영통동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1년 기준 전체 전입지 1만 5,595개 중 서울이 11.9%, 경기도 32%를 차지하며 울천동에 이어 타 시도 유입 2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일대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김승일 제공)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김승일 제공)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박노선 정말 또 집도 싸게 샀죠. 그때 IMF 때 애들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까 노후 대책으로 괜찮아. 이 건물 노느니 하는 거지. ...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퇴직이 된 거예요. 명퇴되어 명퇴. 그래 가지고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그래 가지고 여기서 경희대가깝잖아. 완전 다 걸어도 니로 우리 딸 때문에 그냥 아들은 내가 좀 고생하자.

두 친구와 함께하던 동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두 친구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인 박노선은 영통동 아파트로 재산을 불러 현재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관리자가 되었다. 박노선과 두 친구는 영통동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층 공동주택 소유주 중 실제 그곳에 살고 있는 주인은 많지 않다. 학교 인근의 작은 원룸 월셋방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오랜 기간 주민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건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마저도 서울 등에 사는 외부인이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 개발 이전부터 영통에 살았던 두 친구는 2000년도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을 마냥 반기지는 않았다.

박순덕 그냥 살 집만 ...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통째로 사 가지고 오는 사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룸 통째로 사 갖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요.

물론 두 친구가 처음부터 새로운 이웃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물었을 때 박순덕은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지만,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로 내용이 진전되었을 때 '오래 만나지 않아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60년 이상을 영통에서 살아오며 오랜 시간 감정적으로 교류하던 기존 주민처럼 깊은 사이가 되기 어려웠다. 이들은 새로 유입된 사람들의 '조금 살다가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친해질 겨를도 없이' 떠난 이들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박순덕 명칭하게 처음에는 아주 참 재밌었어. 이제 우리네 또래가 많아가지고 재밌었는데 그 사람들 다 가 버렸어요. 공원에 가서 뭐 여기서 밥 해다 먹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

버렸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팔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안 그래 팔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사고 또 팔고 그래서 자꾸 그걸 아까 그 사람들은 그게 특인가 봐. 여기서 팔면 좀 남으면 팔고 또 판 데 가서 사고 그래 들. 나는 한 번 사면은 그냥 언제까지 그냥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

도시개발 이전부터 영통에 살았던 주민들이 생각하는 영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마땅했던 인간관계가 사라졌던 요즘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과거가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두 친구는 과거의 영통을 추억하며 방앗간에서 짜낸 기름과 농사 지은 작물들을 수원 시내에 내다 팔았던 경험을 늘어놓았다. 너무 오지라서 6·25전쟁 당시 숨어 살기 좋았던 곳이라는 점에서의 영통이나 감나무골에 감을 따러 갔던 추억까지, 자신의 역사와 영통의 역사를 함께 켜켜이 쌓아 나갔다. 이 때문에 언뜻 봤을 때, 자신과 함께 발전해 온 영통에 투자를 목적으로 잠깐 왔다가는 사람들이나 대학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들렀다 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영통동 저층 공동주택 소유주들이 지역 내에서 어떠한 관계 맺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박순덕과 한영옥 서로만큼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나, 여기에는 상대적인 정도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영통동이 본격적으로 신도시로 변성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 새로운 주민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나간 20여 년은 결코 짧다 하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개발과 함께 들어온 복지기관이나 종교시설은 주민들을 더 다양한 장소로 이끌었다. 선택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경로당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영통동에서 살아온 두 친구 정도에 그치지만, 이 들도 경로당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어서 박노선과 같은 새로 유입된 주민과 교류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한편, 저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를 주고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이기도 하다. 두 친구뿐만 아니라 박순덕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사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위해, 직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저층 공동주택 소유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가치를 쥐어 주는 사람 정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직업이나 상황 등을 모두 알고 있었고, 성공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자랑이 되기도 했다. 박순덕은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세입자의 집에 봉투에 담긴 떡을 걸어놓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한영옥은 예쁜 단풍잎을 선별하고 말려서, 세입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전시하듯 올려놓기도 하고 산뜻한 그림이 그려진 액자를 함께 두기도 한다.



영통동 중심상가 일대에 건립된 원룸형 공동주택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연구센터



영통동 중심상가 일대에 건립된 상가주택

5. 두 친구의 역사와 영통동

한영옥과 박순덕이 말하듯, 영통동을 노후를 위한 돈 벌이 수단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사 온 사람도 있으며 현재의 저층 공동주택을 구매하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 영통동 내에서 부동산을 투자해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영통동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해서 영통동 주민으로서 관계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이를 이어 가는 동시에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에 충분히 애정을 가지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이다. 저층 공동주택을 소유한 새로운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은 '영통'이라는 한 공간 속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며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존 공동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변화한 영통의 저층 공동주택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시각으로 영통을 바라보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

공간과 그 의미는 오가는 사람들과 정책,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역사 속에서 변화한다. 두 친구의 60년 인생 속에서의 영통동은 진짜 산골부터 공장 노동자들이 모이는 도시, 그리고 학생들이 역동하는 공간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였다. 1960년대에 한영옥과 박순덕이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영통동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는 쉽게 추측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두 친구가 영통에서 살아온 인생을 통해 지금까지 영통 주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지, 시대의 변화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변화에 마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영통동경로당에 있는 한영옥과 박순덕

수원대학교의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대학교의

영통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공간

II

- 01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개
- 02 영통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
- 03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 04 “아동들의 행위 공간은 장소가 된다.”
: 영통동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장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시정연구원

01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개

1.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배경

수원시 동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단지인 영통지구, 이른바 '영통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하나이다. 이른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배경에는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 확산이 놓여 있었다. 1970년대 개발이 진행된 서울의 강남을 넘어, 1980년대 들어 목동과 상계동, 중계동 등 서울 각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었지만 치솟는 주택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욱 집중되고 1980년대 이른바 '3저(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상'에 힘입은 경제 호황으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결국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유례없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¹

이에 1989년 4월 개발이 발표된 분당과 일산과 함께, 1988년 말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평촌과 중동, 산본이 포함된 '5대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에 수십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 신도시 다섯 곳이 건설되던 1989년부터 1991년 초까지는 신도시에 대한 환상이 역설적으로 부동산 열풍을 더욱 부추겨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² 하지만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주 시작되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교수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200만가구 건설 "順航"



88년부터 시작된 주택 2백만가구의 5개년건설계획 기간중 중반시점인 지난 6월말 현재 건축허가실적은 1백12만가구로 56%의 진척률을 나타냈다.

88년 이후 112만戸 건설
목표대비 56%나 달성
 6월현재

200만 호 건설 현황을 알리는 신문기사(『매일경제』, 1990년 8월 7일)

택지조성사업이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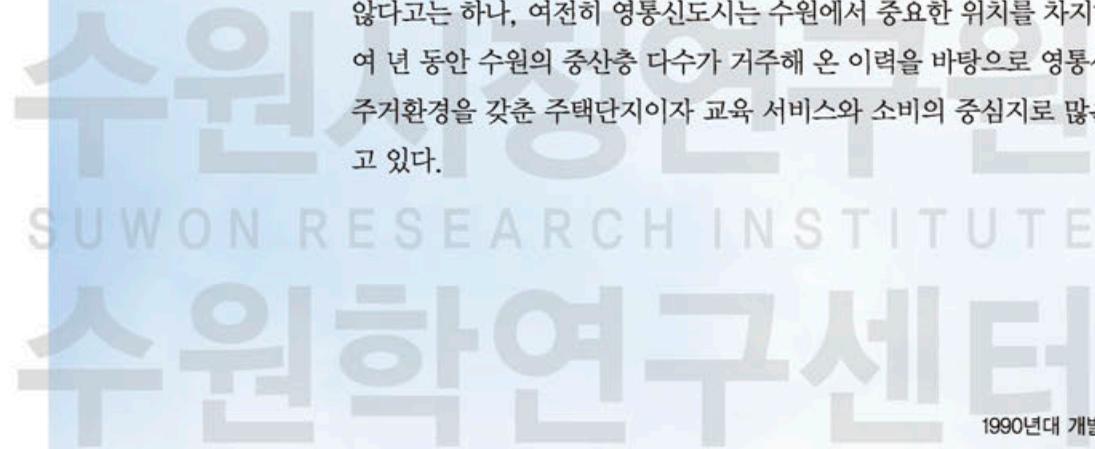
택지개발사업은 크게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 시행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첫 번째 단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은 택지개발 지구의 범위를 정하는 단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집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공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예정지구 지정대상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서류를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지구와 관련이 있는 주민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실시계획 승인 단계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

주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 이후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까지 이어졌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며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영통신도시(영통지구)도 그중 하나로, 신도시 조성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만 6,000여 호의 주택과 10만 명을 수용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영통신도시는 2000년대 중반 수도권 제2기 신도시로 개발된 광교신도시 이전까지 수원시에서 시행된 가장 대규모의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 등을 포함해 고시한 후, 이를 시행자 및 시장에게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시행 단계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또는 수용 절차를 통해 택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게 된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된 개발 이후 1998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영통신도시는 수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비록 광교신도시 개발 이후 수원시 내부에서 영통신도시의 주거지 위상이 예전만 같지 않다고는 하나, 여전히 영통신도시는 수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20여 년 동안 수원의 중산층 다수가 거주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영통신도시는 지금도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단지이자 교육 서비스와 소비의 중심지로 많은 수원시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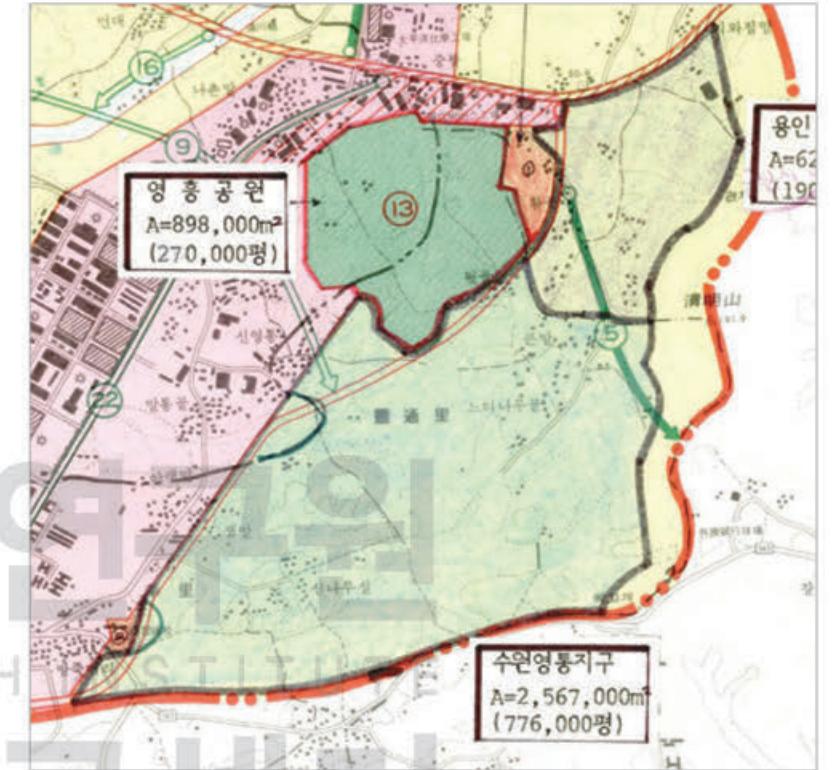
1990년대 개발 전 청명산에서 바라본 영통리 (한신대학교박물관 제공)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2.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

영통지구의 경우 1989년 10월 14일 용인 영덕지구가 예정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27일 수원 영통지구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어 1992년 12월 28일, 건설부는 '건설부고시 제1992-772호'를 통해 수원 영통·용인 영덕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각각 수원 영통지구(건설부 고시 제621



1989년 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영덕지구

호, 1989년 10월 27일)와 용인 영덕지구(건설부 고시 제588호, 1989년 10월 14일)로 나뉘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을 합쳐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원 영통지구의 256만 7,000m²(77만 7,000평)과 용인 영덕지구의 62만 7,000m²(19만 평)에 추가로 9만 972m²를 더해 총면적 328만 4,972m², 대략 100만 평의 대규모 대지에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게 되었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중심축과 생활권이 결정되었는데, 중심축은 영통지구의 형상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중심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으로 배치하였다. 생활권의 경우 영통지구가 동수원대생활권에 속하므로, 동수원대생활의 필요시설을 사업지구 배분하되 상업지구가 중심이 되도록 주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북측과 남측의 2개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소생활권은 공공시설물, 학교 등의 배치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지와 이주주택지(단독주택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지는 건축평형에 따라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중심상업지역 및 대중교통수단과 인접한 지역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고밀 주거지로 계획하였다. 공동주택지의 경우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권 및 적정밀도 배분 등을 고려한 단위 가구(街區, 250×250cm)를 설정하였다.

중심상업용지는 지리적으로 사업지구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입지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구 내 간선도로와의 결절점에 인접하도록 하였다. 근린상업용지는 사업지구 주진입로인 국도 42호선과 사업지구 간선도로의 교차점, 태장국민학교(현 영동중학교) 남측부,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접지에 입지시키도록 하였다.

계획지표 설정 단계에서는 계획인구 규모, 상업용지 수요 추정, 도입시설 및 공간 수요가 확정되었다. 먼저 계획인구 규모는 10만 명과 11만 명을 검토한 끝에 10만 명으로 결정되었다. 상업용지의 경우 공간 수요 예상결과 4만~4만 5,0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입시설의 경우 학교시설은 유치원 20개소와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5개소, 고등학교 4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원시설은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구 내 양호한 수림군(樹林群)을 활용하여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생활권별로 유치(誘致)거리를 고안하여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자 했다.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6만㎡(1인당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용청사는 구청청사, 소방파출소, 변전소, 전화국, 세무서, 동사무소, 경찰서, 경찰파출소, 우편국, 등기소 등을 수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계획지표 설정 후 대안 설정 단계에서는 세 가지의 기본방향이 결정되었다. 첫째, 중심상업 및 공용청사는 지구 중심에 집중화시켜 중심성을 제고하며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지구 중심부를 기준으로 남북의 2개 단위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구상한다. 셋째, 국도 42호선과 지방도 343호선을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주간선도로를 골격으로 하여 가로망 체계를 구성하도록 정하였다.

대안Ⅱ는 토지이용 효율성이나 도시 우회도로 개발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영통산 절취라는 어려운 점이 따르며, 대안Ⅰ은 간선도로변을 따라 각종 중심시설이 배치됨에 따라 주간선도로의 부하량 증가가 예상되었다. 주간선도로와 직교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그와 연결하여 각종 중심시설이 배치되는 대안Ⅲ은 주거환경 보호, 보행자 안전 및 신시가지의 쾌적한 공간 창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Ⅲ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⁴

<표 1> 영동지구 개발 대안 설정

구분	대안 개념도	공간구조와 동선체계
대안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방향의 주간선도로를 따라 중심상업 및 공공업무시설 배치 • 지구 중심의 영통산을 중앙공원으로 개발하여 상업용도와 연계 개발 - 동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방향의 2개 노선을 구간으로 도로망체계 형성 • 중심지역 주변으로 일방차선체계 도입 • 주간선도로와 직교하는 상징도로(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대안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중심의 영통산을 철취하여 기하구조적 공간체계 형성 - 동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자형의 도로망체계 도입 • 지구 동측에 우회도로 설치
대안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방향의 주간선도로와 직교하는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그와 연계하여 중심상업 및 공공업무시설 배치 - 동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방향의 주간선도로와 Loop형의 보조간선도로체계 형성 • 영통산-지구 중심-경희대학교를 연결하는 보행동선 구상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동-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83~85쪽.

<표 2> 영통지구 개발 대안 발전단계

단계	내용
발전단계 I → 발전단계 II	① 상업지역 이면도로계획 : 지구 내 주간선도로에 접한 상업용지의 필지규모를 약 900~1200평으로 세장비는 1.5로 예상 ② 상업용지 위치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상업용지계획 ③ 근린상업용지 위치 변경 : 분당선 연장 수원시 전철 인입 노선이 국도 42호선을 따라 계획 될 것을 대비하여 근린상업용지 위치 변경 ④ 교차방식 변경 : 본 사업지구 개발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국도42호선과 지구 진출입로인 50m도로와의 교차점을 당초 이체처리에서 3지 평면교차방식으로 변경 ⑤ 단독주택지 가로망계획 :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지 주변으로 Loop형의 가로체계를 계획 하고 단독주택 획지분할(평균 평형 60평) ⑥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용하여 각종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
발전단계 II → 발전단계 III (개발계획승인)	①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배치계획 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형태 일부 조정 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선형 변경 ③ 북측 배수구역의 우수처리를 위해 저류조가 필요, 따라서 근린공원 위치 변경하여 지하부 활용 ④ 주차장계획 변경 : 도로 중앙에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은 주차 효율 저하, 교통안전 저감 등 불리한 점이 나타나므로 상업용지 내부에 주차장계획 ⑤ 주민의 운동공간 확보 및 대학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와 인접 하여 사회체육시설부지 계획 ⑥ 적정규모의 종교시설부지와 유아원부지를 생활권별로 분리 배치
발전단계 III → 발전단계 IV (개발계획 변경승인)	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지구 내 도로 확장 및 노선 변경 ② 국도42호선과 지구 중앙도로 접속부에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국도42호선 확장 (8→10차선) 부지 확보 ③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에 따라 지상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을 위한 인입철탑부지의 면적 확대 및 지하선 확보를 위한 위치 조정 ④ 지하처리장 동측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면적 확대 및 지구 내 도로 선형 변경 ⑤ 지구 내 계획된 버스정류장의 제원변경에 따라 완충녹지 조정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통-용인영역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91~93쪽.

기본구상을 마친 후 1992년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는데, 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상업용지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으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표 3> 영통지구 계획지표 및 기본계획

부문	계획지표	기본계획
인구 및 주택	- 수용 인구 : 100,000명 - 수용 가구 : 29,730가구 - 인구밀도 : 760인/ha - 획지배분 • 단독 : 10% 이하 • 공동 : 90% 이상	- 인구밀도 및 가구 • 단독 : 176인/ha, 540가구 • 공동 : 895인/ha, 26,490가구 - 획지분할 • 단독 : 113,349㎡ • 공동 : 1,094,912㎡
상업용지	- 시설별 건폐율 - 50~70% 기준	- 상업·의료·기타시설 등 : 135개소 138,233㎡
교통	- 교통량 분석	- 광로 : 4개 노선 5,358m - 대로 : 11개 노선 9,315m - 중로 : 14개 노선 5,029m - 소로 : 49개 노선 8,367m - 보행자전용도로 : 29개 노선 4,203m
공원·녹지	- 자연공원 - 근린공원 500m 이내(10,000㎡ 이내) - 어린이공원 250m 이내(1,500㎡ 이내)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자연공원 : 17개소 21,781㎡ - 근린공원 : 7개소 22,502㎡ - 어린이공원 : 13개소 67,909㎡ - 완충녹지 : 32개소 150,510㎡ - 경관녹지 : 10개소 51,420㎡
공공시설	- 주변지역 고려 - 학교시설기준령	- 행정시설 : 23개소 93,172㎡ - 교육시설 • 유치원 : 8개소 9,449㎡ • 초등학교 : 8개소 9,646㎡ • 중학교 : 5개소 60,950㎡ • 고등학교 : 4개소 65,416㎡
상수도	- 도시기본계획상 지표 수용	- 급수인구 : 103,000인 - 1인 1일 평균급수량 : 500ℓ - 일 최대급수량 : 51,500,000ℓ - 급수관망 : 격자형
하수도	- 도시기본계획상 지표 수용 - 우수 분리식	- 1인 1일 최대오수량 : 451ℓ - 배수관망 : 격자형
공급 처리 시설	- 전력 총수요량 추정	- 총소요량 : 147,439KWA - 변전소 : 지구 북측 국도42호선
통신	- 도시기본계획상의 전화 보급률 및 소득수준 고려	- 총전화 회선수 : 56,956회선 • 가정용 : 40,545회선 • 업무용 : 12,441회선
열에너지		- 도시가스 • 가정용 : 48,654㎡/일 • 업무용 : 12,441㎡/일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26~127쪽.

<표 4>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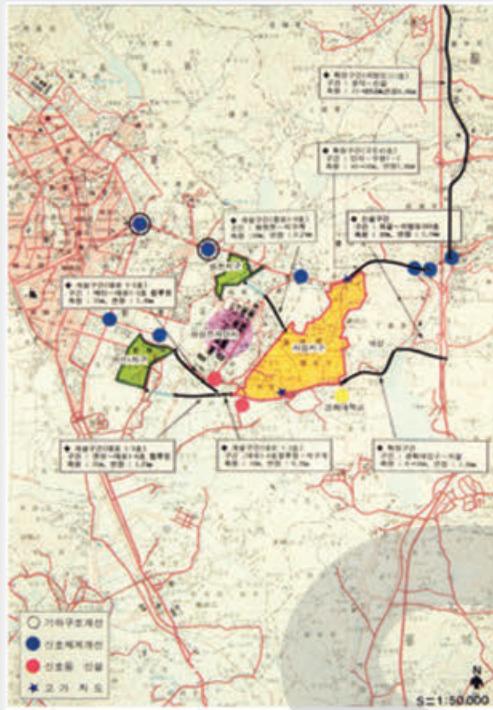
구분	1992(당초)		1997(완공)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계	3,284,972	100.0	3,260,533.9	100.0	
주택건설부지	소계	1,236,680	37.7	1,226,333.2	37.6
	단독주택	113,349	3.5	106,788.7	3.3
	공동주택	1,094,912	33.3	1,090,852.4	33.4
	근린생활시설	28,419	0.9	28,692.1	0.9
	소계	138,233	4.2	133,584.2	4.1
상업업무용지	중심상업	85,404	2.6	85,384.7	2.6
	근린상업	52,829	1.6	48,199.5	1.5
	소계	1,910,059	58.1	1,900,616.5	58.3
공공시설용지	도로	770,182	23.4	764,141.2	23.4
	광장	10,327	0.3	10,303.0	0.3
	주차장	23,755	0.7	23,709.0	0.7
	공원	314,711	9.6	342,689.0	10.5
	녹지	201,930	6.2	203,800.2	6.3
	공공공지	22,262	0.7	15,854.1	0.5
	학교시설	231,984	7.1	230,839.6	7.2
	공용의 청사	93,172	2.8	93,109.8	2.9
	종합의료시설	31,523	1.0	31,376.0	1.0
	사회복지시설	7,200	0.2	7,193.1	0.2
	사회체육시설	4,649	0.1	17,484.8	0.5
	종교시설	7,308	0.2	7,790.6	0.2
	수도시설	26,054	0.8	26,496.3	0.8
	하수도시설	63,055	1.9		
	열공급시설	40,589	1.2	40,537.1	1.2
	전기공급시설	3,856	0.1	11,329.0	0.3
	통신시설	6,002	0.2	5,981.1	0.2
가스공급시설	11,078	0.3			

구분	1992(당초)		1997(완공)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공공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29,764	0.9	37,272.6	1.1
	자동차정류장	8,854	0.3	9,247.0	0.3
	주유소	1,804	0.1	1,809.0	0.1
공장용지			19,664.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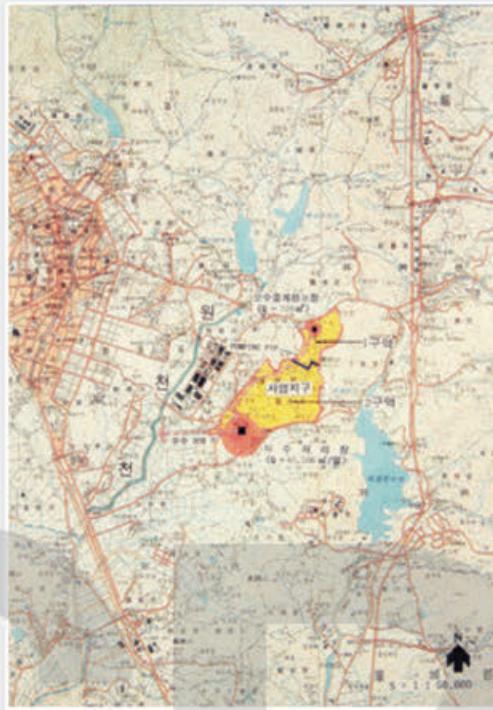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동-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27쪽;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49쪽.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도(1992년)



영통지구 종합개선안도



영통지구 하수계획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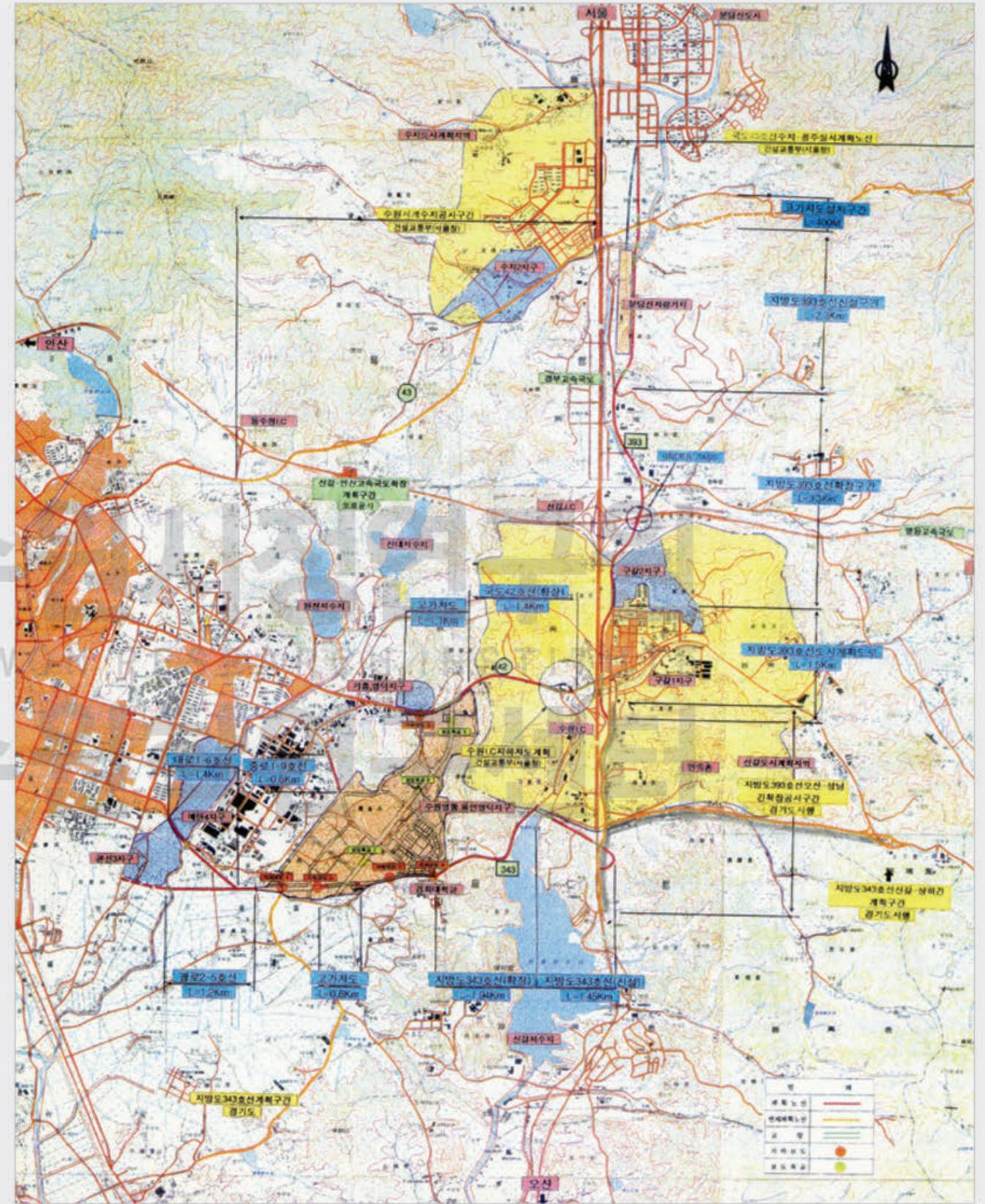


영통지구 상수계획계통도



영통지구 기타시설 배치계획도

- | | | |
|----------|----------|---------|
| 학교 시설 | 하수도 시설 | 자동차 정류장 |
| 공공의청사 | 열공급 설비 | 주유소 |
| 종합 의료 시설 | 전기 공급 설비 | |
| 사회 복지 시설 | 통신 시설 | |
| 사회 체육 시설 | 가스 공급 설비 | |
| 수도 시설 | 폐기물처리 시설 | |



수원 영통지구 주변 도로 위치도

<표 5> 영통지구 택지개발계획의 변경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사업면적(㎡)	3,284,972	-	3,286,325
사업기간	1992.12.28.~ 1996.12.31.	-	-
사업비 (백만원)	계 711,537	840,917	-
	용지 426,537	536,517	-
	조성 285,000	304,400	-
수용인구계획(인)	100,000	-	99,492
주택계획(호)	27,030	-	26,893
토지 이용 계획 (㎡)	계	1,237,572	1,208,261
	주택용지	단독 113,838	113,349
		공동 1,123,734	1,094,912
	근린생활	21,911	28,419
	상업용지	138,230	138,233
	공공시설	1,887,259	1,910,059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도로폭원 조정 - 국도42호선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 개발면적 변경 (감 647㎡) • 기정 3,284,972㎡ • 변경 3,286,325㎡
고시일 (고시번호)	1992.12.28. (건설부 제722호)	1993.9.15. (건설부 제353호)	1995.9.7. (경기도 제315호)
3차 변경	4차 변경	5차 변경	6차 변경
-	-	3,286,775	3,260,534
-	-	1992.12.28.~ 1997.12.31.	-
840,917	-	-	-
430,800	-	-	396,600
410,117	-	-	444,317
-	-	99,479	-
-	-	26,890	-
-	-	-	1,197,641
-	-	-	106,789
-	-	-	1,090,852
-	28,981	28,771	28,692
-	135,366	142,462	133,584
-	1,923,868	1,917,432	1,900,617
-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한 행정구역 조정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개발면적 변경 - 예정지구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증 452㎡) • 당초 3,286,325㎡ • 변경 3,286,775㎡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감 26,241㎡) • 당초 3,286,775㎡ • 변경 3,260,534㎡
1995.10.28. (경기도 제364호)	1996.2.29. (경기도 제30호)	1996.11.26. (경기도 제327호)	1997.12.22. (경기도 제470호)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28~129쪽.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계획이 1992년 12월 28일 승인되었으나, 1992년 승인된 당초 개발계획은 영통지구 준공 이전까지 총 6차에 걸쳐 변경되었다. 1992년 당초 개발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2만 6,490가구와 단독주택 540가구 등 모두 2만 7,030가구의 주택을 1996년 12월까지 건설하여 가구당 3.7명 기준으로 1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면적 328만 4,972㎡ 가운데 주택건설용지는 123만 6,680㎡로 37.7%를 차지했고, 상업용지가 13만 8,233㎡로 4.2%, 도로와 공원, 학교, 녹지, 각종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용지가 191만 59㎡로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후 1997년 12월에 승인된 6차 변경계획에 따르면 개발 면적은 당초의 328만 4,972㎡에서 326만 534㎡로 감소했으며, 수용 호수는 2만 6,890가구로, 수용 인구도 9만 9,479 명으로 소폭 변경되었다.

영통지구는 그 개발 목적이 주택문제 해결을 통해 수원 지역에 집중된 도시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고 인접지역 즉, 서울·용인·화성 등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어서 주택용지의 비율은 기존의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지만 다른 용도의 구성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가운데 개발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분당(1,968ha)이고 영통지구(326ha)는 규모면에서 분당의 17%에 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개발지역이다. 영통지구 토지이용의 용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은 분당(32.2%)보다는 상회하고 평촌(37.7%)과 비슷한 비율인 37.6%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상업 또는 업무용지 비율은 기존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평균 비율인 7.7%보다 낮은 수준인 4.1%의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영통지구의 공공시설용지 비율은 58.3%로 기존 신도시의 비율인 59.4%보다 약간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도로율의 경우 중동, 영통, 평촌 지역이 높았는데 이 지역은 지형조건이 평지이고 기존의 시가지와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으로 인해 도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원녹지 비율은 일산이 23.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일산은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호수공원과 같은 공원과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었다.

영통지구의 용적률은 220%로 비교적 높지만 중동(225.6%)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결적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도시미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로 대규모 택지개발 시 중소도시의 경우 150~180%를 적정 용적률로 제안하고 있는데, 영통지구는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당과 일산은 자족적 신도시로서 적정 용적률로 계획되어 용적률 측면에서 쾌적성을 확보하였다.⁵ 건설되는 아파트 평형은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1만 6,500가구, 18평 초과 25.7평 이하가 4,750가구, 25.7평 초과가 5,240가

구로 계획되었다.⁸ 전체적으로 18평 이하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다룬 신문기사
 (『한겨레』 1993년 1월 14일)

한국토지개발공사⁷가 주도하는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계획이 1992년 승인되며 이듬해인 1993년부터 이 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에 이어 수원 영통·영덕지역에도 1백만 평 규모의 수도권 신도시가 생긴다. [...] 건설부는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만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대 99만 4천 평 등 수도권 3개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토개공은 연초부터 수원 영통·영덕지구에 7천1백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6년 말까지 택지를 조성한 뒤 10만 명이 살 수 있는 2만 7천 30가구(단독주택 5백 40가구·공동주택 2만 6천 4백 9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토개공은 특히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전체 건설 주택용지의 50% 이상을 18평(60평방m) 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에 할당하고 국민학교 8개, 중·고교 9개 등 교육시설은 물론 병원·공원·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 영통·용인 영덕 등 100만평/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중앙일보』 1993년 1월 13일)

기사들은 이 지역을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택지개발지구”⁹로 주목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주택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수원에 대한 배후지원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¹⁰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그 이전에 개발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가 서울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된 반면,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는 서울과 맞닿아 있지 않은 수원시 동남부 지역을 배경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매수를 위해 1993년 9월부터 토지평가를 시작해 같은 해 안으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1994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외지인에게는 3,00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토지수용법 개정 내용이 처음 적용되는 지구라는 사실도 있었다.¹⁰ 이후 실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정은 계획보다 다소 늦게 진행되어 1994년 4월 말까지 약 94%의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¹¹

<표 6> 영통지구 보상 대상 토지

구분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수용·사용할 토지				합계	
	필지수	면적	국공유지(유상)		사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61	129,972	7	2,300	1,701	3,154,504	1,869	3,286,776
전			1	721	529	680,005	530	680,726
답			4	1,362	584	1,192,451	588	1,193,813
대					145	110,891	145	110,891
임야			1	85	384	1,149,909	385	1,149,994
도로	132	78,438			34	3,902	166	82,340
하천	8	11,531					8	11,531
구거	21	40,003	1	132	3	1,589	25	41,724
잡종지					2	1,940	2	1,940
기타					20	13,817	20	13,817
소유자	건교부 외 6인		건교부		오인환 외 1,097인		오인환 인 1,105인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31쪽.

<표 7> 영통지구 보상 대상 지장물

구분	종류	건수	구분	종류	건수
건물	소계	367	기타	소계	109,799
	가옥	276		분묘	12,111
	축사	58		한전주	362
	공장	30		체신주	226
	종교시설	3		수목	108,000

자료 : 한국토지공사, 2000, 『토지개발사업총람』, 131쪽.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시군 경계도(『한겨레』 1994년 8월 3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와 신리 2.54km²와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0.67km²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또한 영통동 일대는 행정구역상 본래 수원부 장주면에 속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수원군 태장면 영통리로 불렸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수원면이 수원시로 승격된 후 영통리는 화성군 태장면에 속하였다. 이어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의 태장면과 안룡면에 속해 있던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태장면과 안룡면에 남은 지역을 통합해 태안면에 편제시켰는데 이때 영통리도 태안면에 편제되었다.

이처럼 영통지구를 대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 1990년대 초까지도 영통리 일대는 행정구역상 화성군에 속한 지역이었다. 사실 영통리는 이미 1989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후 1992년 12월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및 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위치한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며 영통지구의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당초 영통지구의 개발계획은 수원시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영덕·영통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개발 예정부지 100만 평 중 약 30%는 용인군, 그리고 약 68% 정도가 화성군에 속해 있었으며 수원시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였다.¹² 따라서 수원시가 중앙의 개발계획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수원시는 영통지구(공식적으로는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개발 예정지 일대의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하였다.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원이 신리, 망포리 일부와 함께 수원시 원천동으로 편입되면서 영통지구는 화성군을 떠나 수원시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1997년 12월 8일,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천동사무소 산하 '영통민원증계소'를 신설하고 영통지구에 2개소를 개소하였다.¹³

그 후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1999년 10월 1일, 드디어 영통동이 원천동으로부터 분동·신설되었다. 유입 인구의 증가에 따라 10개월 뒤인 2000년 6월 26일 영통동



1994년 택지개발 초기 영통지구



1994년 12월 22일 영통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95년 1월 19일 영통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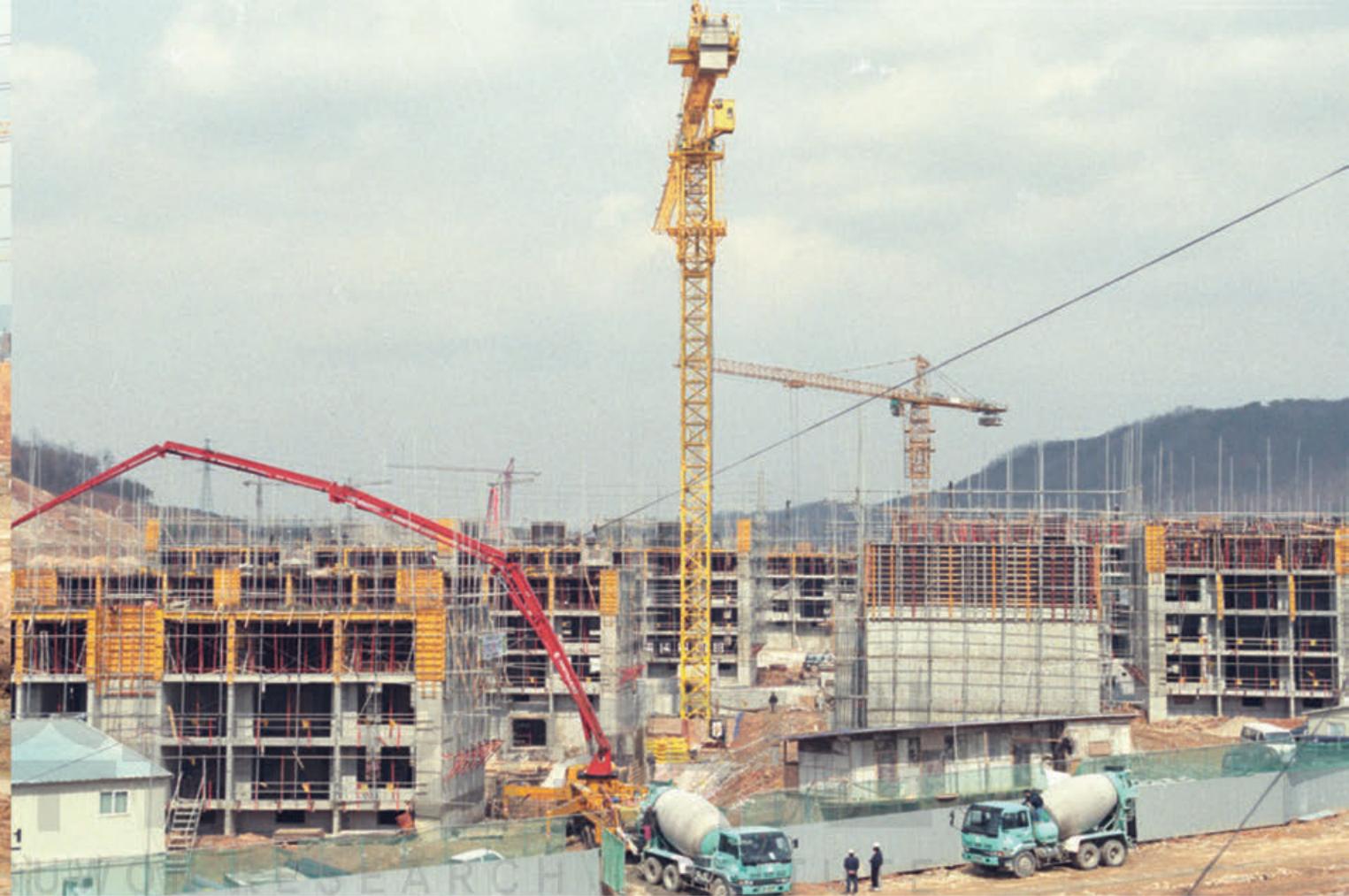
1994년 영통지구



1996년 3월 19일 삼성아파트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이 영통1동과 영통2동으로 분리되었고, 2003년 11월 24일에는 영통구가 신설되면서 영통지구 일대는 이전의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소속이 바뀌기에 이른다.

영통지구가 수원시에서 주목받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명성을 얻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며 그에 따른 행정 수요가 증가하자 영통동의 분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었다. 결국 2017년 12월 26일 태장동(현재의 망포동)이 관할하던 법정동인 신동 전역과 망포동 일부 지역(덕영대로 북부)이 영통2동에 편입되고, 기존 영통1동과 영통2동의 일부가 분리되는 방식으로 영통3동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1990년대 개발된 영통지구는 행정구역상 영통1동, 영통3동, 그리고 영통2동의 동쪽 일부(벽적골 8단지과 벽적골 9단지)에 해당한다. 주거단지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서부터 황골마을(1단지와 2단지)과 청명마을(3단지와 4단지), 신나무실(5단지와 6단지), 살구골(7단지), 벽적골(8단지와 9단지)이라는 5개 마을에 9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3·4단지와 6·7단지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상업지구인 영통 중심상가를 아우르는 지역이 영통지구, 즉 영통신도시라 불리는 지



1996년 3월 19일 건영아파트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수원학연구센터

역인 셈이다.

한편 당초 '수원 영통·용인 영덕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불린 이 일대의 사업명은 앞서 언급한 행정구역 변화와 함께 이름이 바뀌게 된다. 수원시 매탄동,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및 신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원이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일원으로 재편되며 1995년 9월 15일,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의 명칭이 '수원 영통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바뀌었다(경기도 고시 제1995-315호).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약칭의 '영통지구'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통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첫 분양은 1995년 봄 이루어졌다. 1995년 즈음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를 거의 찾기 어렵고 수도권 5개 신도시 역시 입주를 완료한 시점이었다.¹⁴ 이런 상황에서 그때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을 끈 지역이 바로 수원 영통지구였던 것이다. 개발계획 발표 당시부터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수도권 5대 신도시에 버금가



수원시 미분양아파트 위치도(『매일경제』 1996년 3월 22일)
영통지구는 주택공사, 쌍용건설, 신명주택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표시되어 있다.

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소개되어 온 영통지구는 '한수 이남의 명당', '수도권 청약자들의 최대 관심 지구'¹⁵로 주목받았다.

이어 1995년 6월 1일, 수원 영통지구 2차 동시분양이 실시되었다. 삼성건설과 태영, 동삼건설, 신명종합건설, 삼호건설, 동보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한 2차 동시분양에서는 32평형과 33평형 등 2개 평형의 아파트 2,596가구를 공급하였다. 이어 1995년 10월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공분양과 근로복지 가구를 합쳐 4,000여 가구를 분양했으며, 이때의 분양은 23평형과 25평형대가 주종을 이루었다. 이후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영통지구의 첫 입주는 1997년 12월 11개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졌다.

영통지구 입주가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 1990년대 건설된 아파트는 주로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들이었는데 그에 걸맞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층의 증가가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며 1990년대 중반에 이미 수도권 각지에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던 상황이었다.¹⁶ 그런 와중인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외환위기의 발발은 주택시장에 한파를 몰고 왔다. 영통지구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1997년 9월 2일 영통지구 공사현장 순시(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수원·용인지역 대규모 단지 아파트 입주권 가격이 폭락사태를 빚고 있다. 최근 IMF 한파로 주택시장이 공공 얼어붙은 가운데 대량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수지지구 등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가파른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등 거래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 1월 말까지 1만 5,374가구의 입주가 시작된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는 최근 입주율이 20%에 그치면서 입주권 프리미엄은 50%가량 폭락한 상태다.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3,600만 원까지 거래되던 24평형 아파트 입주권은 최고 2,200만 원까지 떨어진 1,400만~2,200만 원을 호가하나 매수 문의가 일체 끊겼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수원·용인 아파트입주권 가격 폭락』, 『매일경제』 1998년 1월 5일)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신도시로서 영통지구의 정상적 작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한 기사에 따르면, "영통신도시 내 신설 13개 초·중학교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늦어져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¹⁷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1997년 12월 영통지구의



수원시연구센터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여극센터



1997년 11월 28일 영통지구 아파트와 공공시설 공사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97년 11월 28일 지역난방공사와 상가 건설현장(수원박물관 제공)



1999년 7월 21일 영통도서관 개관(수원박물관 제공)



2004년 7월 영동사회복지관 개관(수원박물관 제공)



1999년 10월 5일 영통동사무소 개소(수원박물관 제공)



2000년 7월 1일 영통2동사무소 개소(수원박물관 제공)



2017년 12월 26일 영통3동주민센터 개청(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첫 입주에 발맞추어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에 걸쳐 영덕중학교와 영일중학교를 비롯한 총 13개의 학교가 개교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입주가 늦어지며 학교마다 학생 부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이후 오래지 않아 경기가 회복되며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가 추진되면서 영통지구는 '부촌'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¹⁸ 1997년 한 해에만 1만 2,246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2002년까지 2만 3,000여 가구의 입주가 진행되었다. 전체 9개 단지로 이뤄진 영통지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입주가 진행된 아파트는 벽적골 9단지 롯데아파트로, 2002년 3월 입주가 시작되었다.¹⁹ 2000년대 중반의 한 기사는 수원 토박이인 주민의 입을 빌려 "당시 매탄동 현대와 삼성아파트, 권선동 등 구시가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부자가 대거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촌이 형성"²⁰ 되었다고 다루기도 했다.

영통지구의 현재 인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수원 영통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간 범위가 현재의 영통1~3동과 대체로 일치하기에 3개 동의 인구를 통해 영통지구에 거주하는 인구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²¹에 따르면 영통1동 3만 3,985명, 영통2동 2만 6,038명, 영통3동 3만 2,201명으로 전체 9

만 2,224명의 인구가 행정구역상의 영통1~3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영통2동의 서쪽 지역(법정동 신동과 망포동 일부)을 제외하면 대략 9만여 명이 현재 영통신도시 주민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수원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영통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여건 변화, 법 개정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2011년 11월 8일(수원시 고시 제2011-201호) 수립하여 도시 기능·미관 및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마련하였다.

영통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11년 326만 1,397㎡이었으나 2022년에는 326만 7,538.6㎡(증 6,141.6㎡)로 증가하였다. 영통지구 용도지역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125만 5,331.6㎡로 38.5%를, 자연녹지지역이 86만 1,715.6㎡로 26.4%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37만 5,629㎡로 11.5%를 차지한다. 용도지구는 대로3-36호선과 대로3-39호선, 대로3-42호선 등의 주변으로 미관지구, 광로2-6호선과 대로3-34호선 등의 주변으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표 8> 영통지구 용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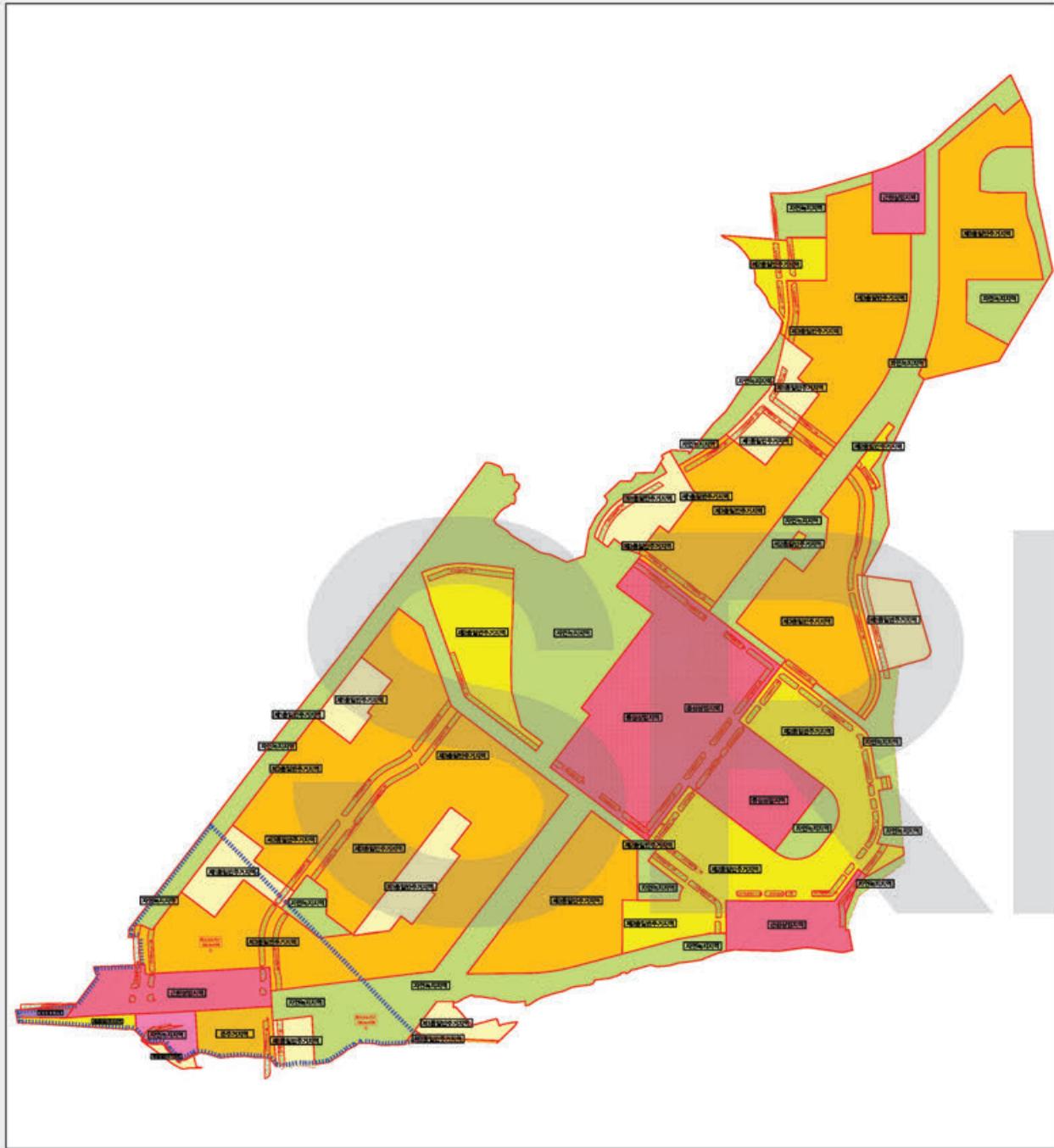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22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3,261,397.0	100.0	3,267,538.6	10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147,067.0	147,067.0	4.5
	중심상업지역	317,451.0	317,451.0	9.7
	일반상업지역		18,349.6	0.5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7,601.0	37,601.0	1.2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1,047.8	254,393.8	7.8
	제2종 일반주거지역	375,629.0	375,629.0	11.5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55,331.6	1,255,331.6	38.4
자연녹지지역	877,269.6	26.9	861,715.6	26.4

<표 9> 영통지구 용도지구(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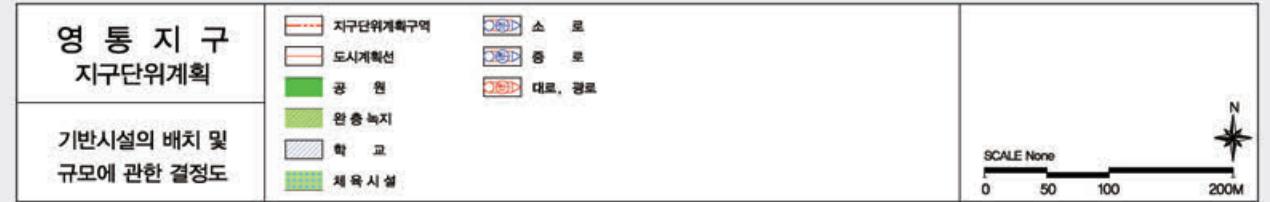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미관지구	-	140,612.2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최고 고도지구	영통동 973-3일원	359,250.0	제1,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영통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영통지구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영통지구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영통지구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도로는 광로 3개 노선(일부 편입), 대로 12개 노선, 중로 27개 노선, 소로 90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다. 학교 및 유치원 24개소, 공공청사 20개소, 공공공지 22개소, 전기공급설비 3개소, 주차장 10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등이 결정되어 있다. 또는 공원 및 녹지의 경우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10> 영통지구 도로(2022년)

구분	합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노선수	132	3	12	27	90	
합계	연장(m)	35,005 (32,781)	7,117 (5,357)	9,225	7,021 (6,947)	11,642 (11,252)
	면적(㎡)	752,954	262,404	255,227	131,668	103,655
	노선수	55			18	17
1류	연장(m)	11,102 (11,028)			4,482 (4,408)	6,620
	면적(㎡)	159,673			92,975	66,698
	노선수	61	1	1	9	50
2류	연장(m)	12,486 (11,112)	5,025 (4,038)	90	2,539	4,832 (4,445)
	면적(㎡)	282,780	205,516	2,700	38,693	35,871
	노선수	16	2	11		3
3류	연장(m)	11,417 (10,641)	2,092 (1,319)	9,135		190 (187)
	면적(㎡)	310,501	56,888	252,527		1,086

<표 11> 영통지구 공공시설(2022년)

구분	개소	면적(㎡)	구분	개소	면적(㎡)
학교	18	225,812.9	전기공급설비	3	8,506.3
유치원	6	6,962.0	사회복지시설	1	7,878.1
공공청사	20	88,275.0	청소년수련시설	1	737.7
공공공지	22	17,474.3	체육시설	1	4,650.9
광장	3	26,903.0	종합의료시설	1	31,376.0
열공급시설	1	40,537.1	폐기물처리시설	2	41,736.0
수도공급시설	1	26,496.3	주차장	10	23,709.0
방송통신시설	1	5,981.1	공원 및 녹지	74	529,468.5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영통지구는 쾌적한 거주환경은 물론, 상업과 여가, 교육시설을 풍부하게 갖춘 수원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첫 입주민이 영통신도시에 들어선 뒤 어느덧 25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지났다. 그런 지금이야말로 영통신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문화를 되짚어 보기에 적합한 시점이기도 하다. 영통지구 첫 입주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영통신도시 주민들이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연구센터

1. 정현목, 2017,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재건축 열풍에서 아파트 민주주의까지, 인류학자의 아파트 탐사기」, 반비, 71쪽.
2. 정현목, 2017,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재건축 열풍에서 아파트 민주주의까지, 인류학자의 아파트 탐사기」, 반비, 3쪽.
3.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 공간적 특성 연구: 영동,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51쪽.
4.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수원영동-용인영덕지구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85쪽.
5. 김해정, 2007, 「신도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수원영동지구와 광교지구예정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16쪽.
6. 「수원 영동영덕 택지개발 본격화 - 2만 6천가구 10만명 수용」, 「한국경제신문」, 1994년 5월 11일.
7.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 중 하나인 한국토지공사의 옛 이름으로, 1975년 설립된 토지공교가 1979년 명칭이 바뀌며 영통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인 1992-1993년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라 불렸다. 1996년 한국토지공사로 다시 이름이 바뀐 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해 지금의 LH가 되었다.
8. 「수원 영동영덕 택지개발 본격화 - 2만 6천가구 10만명 수용」, 「한국경제신문」, 1994년 5월 11일.
9. 「수도권 남부 대규모 새 도시 조성/수원 영동-용인 영덕」, 「한겨레신문」, 1993년 1월 14일.
10. 「수원 영동-영덕지구 - 100만 평에 주택 2만 7천가구 건설」, 「한국경제신문」, 1993년 9월 27일.
11. 「수원 영동지구 백민평 개발」, 「국민일보」, 1994년 6월 17일.
12.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69쪽.
13.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0쪽.
14.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영동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3쪽.
15.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영동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4쪽.
16. 정현목, 2017,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 재건축 열풍에서 아파트 민주주의까지, 인류학자의 아파트 탐사기」, 반비, 82쪽.
17. 「영통지구 학교 운영 차질: 입주 늦어져 13개교 학생 크게 부족」, 「조선일보」, 1998년 1월 14일.
18. 박해천, 2019, 「낀 신도시의 사반세기 생애: 영동 지구에 대한 메모」,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5쪽.
19.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 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1쪽.
20. 「수원 영동-수도권 남부 고급아파트촌 각광」, 「헤럴드경제」, 2006년 3월 10일.
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02

영통동 아파트 공간의 탄생

1.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영통신도시 조성은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건설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영통지구는 1989년 10월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강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200억 원의 사업비 추가부담 및 도로 개설,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수원시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자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건설부로부터 1992년 12월 28일 서둘러 개발계획을 승인받는다.¹

<표 1> 영통지구 주택건설용지 공급

구분	1994년(계획)			1997년(준공)		
	면적(m ²)	세대수	인구수	면적(m ²)	세대수	인구수
계	1,208,261	27,030	100,000	1,226,333.2	26,890	99,479
단독주택지	113,349	540	2,000	106,788.7	506	1,872
소계	1,094,912	26,490	98,000	1,090,852.4	26,384	97,607
공동주택지	60㎡ 이하	556,044	16,500			
	60~85㎡	212,862	4,750			
	85㎡ 초과	326,006	5,240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4, 「영통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한국토지공사, 1997, 「수원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보고서」.



공동주택 배치 계획도

개발계획에 따르면 영통지구에는 120만 8,261㎡의 주택지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중 단독주택지가 11만 3,349㎡이고 공동주택지가 109만 4,912㎡였다. 공동주택지는 60㎡ 이하가 55만 6,044㎡로 50%, 60~85㎡가 21만 2,862㎡로 20%, 85㎡ 초과가 32만 6,006㎡로 30%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영통 지구는 원거주민을 위해 계획된 소규모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택용지를 공동주택지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의 집중적 이용을 위해 15층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용지로 설정하였다.

영통 지구는 1기 신도시 입주 이후 다소 늦게 계획됨에 따라 미분양 사태가 한창일 무렵인 1995년에 분양이 시작되었다. 미분양 위험에서 다소 유리한 지점은 기존 신도시와 달

리 분양가에 채권가격을 더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이다. 매수 희망자들은 더 많은 채권을 산 사람에게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적절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정된 34개사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고려해 가변형 벽구조를 시도하거나 조정 또는 건축 자재를 고급화하며 입주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짓기만 하면 엄청난 경쟁률로 분양이 마감되었던 과거와 달리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쏟아졌고, 인근 용인 수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되면서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100만 평에 달하는 가장 큰 규모의 택지개발지구 중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지방과 달리 상대적으로 분양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졌다. 신문에는 정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전원도시로 서울에서 분양받기 힘든 중대형 평수가 많아서 일부 몰릴 것이라는 기사가 실린다.²

1995년 2월에 첫 분양을 시작으로 4월과 6월 1~2차 동시분양에서 일부 평형이 수원 거주자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대부분의 물량이 수도권 거주 청약 1순위에서 끝날 정도로³ 미분양 사태와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1995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한 주공아파트는 2,700가구 중 2,000여 채가 미분양되었다. 민간건설사의 경우 집의 크기가 클수록 건설비가 낮아지는 효과와 소비자들의 큰 평형 아파트 선호현상을 반영하여 국민주택 규모에 근접한 크기 또는 그 이상의 건설물량을 가져갔다면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나머지 소형 아파트 물량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 후 1996년에 분양한 대형 평형대의 현대아파트는 3일 만에 완료되는 등 큰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다.

분양 희망자의 눈을 맞춰 쓰인 기사와 달리 사실 영통 지구는 소형 평형 아파트의 천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준공 이후 작성된 영통 지구 주거환경수준 평가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한 과도한 배분으로 다양성과 개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평가는 공간설계의 다양성 부족을 차지하더라도 제도적 한계 안에서 계급 간의 위화감을 고려해 단위면적이 달라도 같은 수준의 인구밀도를 계획하고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중심가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

또한 1992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선 후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임대제도가 잠시 사라졌다가 미분양 물량 해결과 다시 급등하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공여지책으로 임대제도가 부활하였다. 영통 지구에서도 하이웨이유통과 뉴타운개발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부도로 백지화되었고, 5년 임대 후 분양은 대한주택공사의 600세대가 유일하였다.

국가에서 주도한 주택 200만 호 건설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목적



수원 영통지구아파트 분양계획

단지번호	업체명	가구수	분양면적	분양률
①	주택공사	1,224	18평이하	97.3
②	명진한국	1,068	*	95.12
③	신원동삼건설	980	*	*
④	쌍용건설	904	*	*
⑤	주택공사	3,252	*	미정
⑥	대우중시주택	1,024	25.7평이상	95.12
⑦	삼익벽산건설	1,254	18-25.7평	95.3
⑧	신원	977	18평이하	미정
⑨	건영건설	523	25.7평이상	96.12
⑩	삼성생명보험	759	*	*
⑪	신성신안진흥	1,744	18평이하	95.12
⑫	주택공사	1,523	*	미정
⑬	신원미주산업	577	25.7평이상	96.12
⑭	신원동보건설	868	18-25.7평	95.3
⑮	주건영	449	25.7평이상	96.12
⑯	삼익극동건설	783	18-25.7평	*
⑰	주공	1,559	18평이하	미정
⑱	태영삼성건설	865	18-25.7평	95.12
⑲	건영중합	1,327	18평이하	96.12
⑳	하이웨이뉴타운	1,044	*	95.6
㉑	한신부산우성	1,878	*	95.2
㉒	고려산업개발	660	25.7평이상	95.12
㉓	삼지서광진덕	1,248	*	95.3

영통지구 아파트 분양계획(“동아일보”, 1995년 1월 21일)

에 부합하는 성공을 이룬다. 특히 1기 신도시 개발 목적 중 하나인 서울의 인구 분산과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로 인한 저소득층 및 도시 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기본계획에서 영통지구가 서울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여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듯이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전입한 입주민의 비율 중에 인근 수도권 다음으로 서울 거주자가 많았다. 또한 주춤했던 수원시의 인구 증가는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순이동 증가율이 5%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입주는 IMF 경제위기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미분양 적체에 빠진 민간건설사들이 연쇄 부도를 맞아 일부 아파트는 건설 일정이 미루어졌고,⁴ 입주자는 높아진 금리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예전에 살던 집의 매매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입주를 못 하게 되었다. 당시 입주율은 20%를 밑돌았다.⁵ 이에 많은 양의 아파트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주변 용인 수지와 수원 도심 아파트보다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교통난과 상업시설 및 의료기관⁶이 제때 유치되지 않는 등 도시환경 미비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살구골 진덕서광성지동아파트 건설공사 현장(1996년 3월 19일, 수원박물관 제공)



신나무실 미주아파트와 신원아파트 건설공사 현장(1997년 11월 28일, 수원박물관 제공)

<표 2> 영통동 아파트 건설 현황

사용승인일	아파트명	건설사	세대수	동수	지층/고층	주차 대수	세대당 대수
1997.12.10.	벽적골(8단지) 주공	주택공사	1,548	18	18/20	1,211	0.78
1997.12.12.	청명마을 주공	주택공사	946	11	18/20	812	0.85
1997.12.12.	벽적골 삼성태영	(주)삼성물산, (주)태영	832	12	16/18	832	1.00
1997.12.12.	청명마을 벽산삼익	(주)벽산, (주)삼익	1,242	14	17/20	1,277	1.02
1997.12.12.	황골마을 벽산풍림	(주)벽산	928	10	17/20	983	1.05
1997.12.15.	신나무실 주공	주택공사	1,504	18	15/20	1,216	0.80
1997.12.16.	황골마을 주공1단지	주택공사	3,129	39	15/20	2,783	0.88
1997.12.16.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	(주)신성 외 3	1,616	16	16/20	1,649	1.02
1997.12.16.	신나무실 동보신명	(주)동보건설, (주)신명종합건설	836	8	18/20	890	1.06
1997.12.16.	벽적골 두산우성한신	(주)두산건설	1,842	18	18/20	1,503	0.81
1997.12.31.	황골마을 신명한국	(주)신명주택건설, (주)한국산업개발	952	8	16/20	1,043	1.09
1998.01.26.	살구골 진덕서광성지동아	(주)진덕산업 외 3	1,248	18	16/20	2,171	1.73
1998.03.10.	황골마을 쌍용	(주)쌍용건설	872	10	16/20	885	1.01
1998.05.28.	살구골 현대	(주)고려산업개발	612	10	18/20	1,115	1.82
1998.06.23.	청명마을 대우동신	(주)대우, (주)동신	984	12	18/20	1,764	1.80
1999.02.18.	청명마을 건영1차	(주)건영	502	6	16/19	923	1.83
1999.05.03.	황골마을 주공2단지	주택공사	1,190	14	15/20	1,198	1.00
1999.11.10.	벽적골(9단지) 주공	주택공사	1,265	15	15/20	1,275	1.00
1999.12.29.	신나무실 신원미주	(주)신원종합개발 외 1	574	7	17/20	976	1.70
2000.07.20.	신나무실 건영2차	(주)건영	470	7	16/17	791	1.68
2000.10.11.	신나무실 극동풍림	(주)풍림건설	776	10	17/20	798	1.02
2001.10.30.	청명마을 삼성	(주)삼성물산	714	9	16/20	1,217	1.70
2002.03.30.	벽적골 롯데	(주)롯데건설	1,040	6	16/20	1,040	1.00
2002.10.25.	영통풍림아이원3차	(주)풍림산업	494	5	16/25	596	1.20
2006.07.28.	영통아이파크	(주)현대산업개발	212	2	26/28	219	1.03
2007.08.03.	영통e편한세상	(주)대림산업	230	5	13/15	243	1.05
2008.06.02.	영통하우스토리 (주상복합)	남광토건	98	1	30/31	168	1.71
2008.06.09.	대우월드마크 (주상복합)	(주)대우건설	208	2	36/36	364	1.75
2013.06.04.	청명센트레빌	(주)동부건설	233	3	19/20	294	1.26
2017.09.26.	영통라운프라이빗	(주)라운건설	351	4	24/28	392	1.11

200만 호 공약에서 비롯된 영통신도시의 건설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땅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택지보상 양도세 시행이 급하게 통과되었지만 택지보상금을 일부 채권으로 준다는 바람에 한바탕 언론에 오르내렸다. 또한 당시 과열된 건설 경기로 공급물량이 최정점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분양이 우려되었다. 게다가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준공과 입주 지연이 나타나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각종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럼에도 영통지구는 서서히 도시의 틀을 잡아 나갔고, 아파트 단지도 완공되어 갔다.

한편 1990년 수원의 주택 유형별 공급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42.1%, 아파트 40.1%, 연립주택 9.7%,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기타 주택이 8.1%로 여전히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어진 지역은 매탄동과 구운동 일부 지역이었으며, 매탄동은 수원화성과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단핵구조에서 벗어나 동수원생활권을 만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입주를 앞둔 신나무실 신안아파트
(1997년 11월 28일, 수원박물관 제공)





영통지구 첫 입주민(1997년 12월 12일, 수원박물관 제공)

들기 위한 신시가지 계획안에 함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주택 유형은 압도적으로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영통동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중에는 수원 매탄동 아파트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권선동 단독주택지에 살았던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이주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매탄동 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더 큰 주거공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편리성의 경험은 다음 주거 유형으로 다시 아파트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분양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청약제도를 통한 아파트 분양이 새집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주택 유형이었다. 김영실은 인계동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고쳐 주인세대로 20여 년을 살다가, 2004년에 영통동 아파트로 이사 왔다. 김영실은 인계동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고 남문시장이 가까워 생활하는 데 편리했음에도 자식들을 위해서 아파트 생활을 선택한다.

김영실 생활권은 이제 옮겨 가도 되겠다. 대학교 다닐려면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애들도 결혼시켜야 되는 데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결혼도 생활권이 바뀌어야지 그 인계동 거기서는 좀 그렇잖아. 올라가는 길이라도 좀 보기에 그렇고 애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김영실은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남 보기에 괜찮은 주거형태가 아파트였기 때문에, 새장 같아서 아파트 생활을 반대했던 남편을 어렵게 설득하여 이주하였다. 이미 아파트는 판타지가 가미된 꿈의 공간이었다. 김영실은 영통동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도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만들어진 관계망을 쫓아 구도심의 남문시장에서 장을 보고 미용실을 가고 사람들을 만났다. 생활권은 여전히 구도심이었다.

아파트가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과정 안에 있기도 하지만 거꾸로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 중산층에게조차 아파트는 한 번쯤 살아보아야 하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장소성을 넘어서서 신도시 자체가 중산층의 욕망으로 자리 잡기까지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을 이루고자 한 국가의 제도가 강력한 영향을 끼친 탓이다.

아파트 대단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페리의 근린주구론은 도시의 스프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교외 거주지의 구성원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가구 단위를 계획한 미국의 주택단지에서 한국의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면, 사회학자 허버트 갠스의 레밋타운 묘사인 “안락하고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공간(일상적 욕구에 맞게 기능할 수 있는)”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리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풍족한 커뮤니티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 상점과 도로의 접근성, 가까운 종교시설과 공원시설은 지금도 아파트 대단지의 편리성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영통지구도 편리성에서 도로와의 근접성과 인구 10만 명 규모로 인해 자족적인 도시 환경을 위한 상업시설의 높은 비율이 편리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역으로 말하면 근거리에 형성된 다수의 상업시설 덕분에 굳이 단지를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구도심과 동떨어진 섬과 같은 생활방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구역이라는 의식까지 더해지면서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좁은 영역만 지칭하게 된다.

영통동도 기존의 신도시처럼 ‘영통’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수원의 정체성을 앞서서 생겨난 장소이기도 하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는 기존 도시의 공간 구성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족적인 규모로 인해 원도심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만큼 지역 정체성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1999년에 영통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게 된 박은아는 수원과 연고가 없었던 사람으로, 전업주부에서 직장을 가지게 되어서야 영통동이 아닌 수원의 다른 동네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박은아는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인천에서 충북 음성으로 근로자 아파트를 거쳤고, IMF 경제위기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여러 번의 우연을 통해 영통동에 오게 됐다. 원래 서울에 주거지를 구하려 했으나 높은 집값에 포기하였고, 영통동이 괜찮다는 친구 말을 듣고 둘러보다가 부동산중개인이 된 또 다른 친구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테니 집을 사라.”는 말에 계약하게 됐다고 한다. 10동밖에 없는 근로자 아파트에서 외딴섬처럼 지역 사람들과 교류 없이 답답한 생활을 하고 온 뒤인지라,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생활은 꽤 만족스러웠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10동뿐인 근로자 아파트에서 인구 10만 명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거주지가 변했을 뿐, 이전과 똑같이 영통동이 아닌 수원의 다른 장소에 나가 본격적으로 교류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웃과의 커뮤니티는 같은 동네 사는 아이 엄마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2.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구성과 배치

영통동 아파트는 1997년 12월 10일 사용승인된 벽적골(8단지)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2002년 준공된 벽적골 롯데아파트까지 23개 아파트가 5개 마을(황골마을, 청명마을, 신나무실, 살구골, 벽적골), 9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1~9단지 아파트는 총 296동 2만 5,622세대이다. 9개 단지 외에 2002년 사용승인된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부터 2017년 승인된 영통라운프라이빗까지의 7개 아파트는 총 22동 1,826세대이다.

<표 3> 마을별·단지별 영통동 아파트 현황

마을	단지	아파트명	마을	단지	아파트명
황골마을	1단지	주공1단지, 주공2단지	벽적골	8단지	두산우성한신, 주공
	2단지	쌍용, 벽산풍림, 신명한국		9단지	삼성태영, 주공, 롯데
청명마을	3단지	대우동신, 벽산삼익	기타	영통풍림아이원3차, 영통아이파크, 영통e편한세상, 영통라운프라이빗, 영통하우스토리(주상복합), 대우월드마크(주상복합), 청명센트레빌	
	4단지	건영1차, 주공, 삼성			
신나무실	5단지	주공, 신성신안쌍용진흥			
	6단지	신원미주, 건영2차, 극동풍림, 동보신명			
살구골	7단지	진덕서광성지동아, 현대			



영통동 공동주택지역 마을 및 단지 구분

영통동 아파트 단지 배치 원리는 클러러스 페리(Clarance Arthur Perry)의 근린주구론(neighborhood unit)과 맥이 닿아 있다. 페리는 근린주구의 적정 인구 규모를 5,000~6,000명으로 보고, 1,000~1,20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1개소를 주거지 800m 안에 두었다. 특히 근린주구 단위 중앙에 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함께 연계되어 있다. 간선도로는 모두 외곽에 있으며 블록의 모서리에 상점이 있다.

영통지구는 한 블록 안에 한 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000m 내외로 통학거리를 두었다. 계획 당시 2,500세대당 1개교 설치를 기준으로 학생수 1만 2,000명, 8개 학교를 설정했으며 이는 한 초등학교당



황골마을 1~2단지(김승일 제공)



신남무실 5~6단지외 벽적골 8~9단지(김승일 제공)



청명마을 3~4단지(김승일 제공)



살구골 7단지(김승일 제공)

수원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 배치도

파트 단지가 순환도로와 연계해 놀이터 및 휴게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소극적이지만 보행로를 연결해 단지 중심공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조금 더 커뮤니티 기능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모두 □자형 배치로 주거동 공간 이외에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주거동 전면부 주차장, 출입구, 놀이터 및 휴게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한다. 각 동 앞의 클러스터를 한 묶음으로 단절성이 강화되는 형국이다. 이는 박은아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자녀의 학급 학부모와의 모임도 있지만 주로 같은 동에 사는 또래 아이들의 학부모와의 커뮤니티가 더 친밀했다고 한다.



-자 주동(판상형) 형태에 □자형 배치를 보이는 신나무실(5단지) 신안아파트(1997년, 수원박물관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게다가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 단지 안에 전용면적 차이가 큰 동을 섞어서 배치하기보다는 60㎡ 이하, 60~85㎡, 85㎡ 초과 세 단계로 나눠 단지를 조성했고, 거주자들의 경제적 상황도 균질해지면서 동질성을 확보한 단지마다 폐쇄성을 띠게 되었다. 구분이 뚜렷한 공간 구성으로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난다. 김영실은 영통동 청명마을로 오면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성당으로 옮기게 되었고 성당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평수에 따라 사람이 나뉘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김영실 나는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가는 거야. 근데 내가 활동을 해보니까 한군데서 딱 만나도 큰 평수는 큰 평수로 뭉치고 작은 평수는 작은 평수로 뭉치고 그래서 이거 아는데, 내 생각에 반 기도회는 반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봉사를 했어요. “그럼 밥을 먹읍시다.” 하고 장소를 정하잖아. 그러면 딱 갈라져서 가. 차가 딱 갈라져. 어우 희한하더라고

박은아도 황골마을(1단지)에서 살다가 큰 평수대의 청명마을로 옮기고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되면서 속상한 일을 겪었다. 청명마을의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건영아파트와 삼성아



벽적골(9단지) 주공아파트 배치도

파트는 큰 평수대로 블록은 부촌과 부촌이 아닌 단지로 갈리는 곳이었다. 그 안의 신성초등학교는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고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노골적으로 아이를 구분하고 차별하였다. 게다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지 내 커뮤니티는 전업주부가 아닌 경우 소외되는 구조로, 당시 박은아는 직업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박은아 정말 황골마을하고 천지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여기서 너무 학대를 받은 거지.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를 해봤자요 꼬리표만 붙고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힘들었어요 막 애한테 합부로 하고 그 동네 애들이 진짜 명품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애들은 험이 입던 너털너털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애를 너무 무시한 거지.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시작된 단지계획은 블록 내부로 자족적인 주거단지를 이루는 폐쇄성과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촉발된 주택 공급 시스템의 영향하에서, 단지별로 선명하



벽적골(9단지) 삼성태영아파트 배치도

게 구별되는 평수에 따라 배타적인 커뮤니티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동일 주거동의 반복배치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표준설계체제로 정착되면서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아파트들은 구별 짓기에 훨씬 더 용이하기도 하다.

그리고 경유 도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컬데삭 유형의 도로 패턴은 □자형 배치 안의 클러스터 공간 외에 활동 반경을 제한함으로써 같은 동 안에서의 교류만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기존의 -자형 배치는 주로 거주자들이 남향을 선호하고 아파트 생활이 생소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주동 형태와 똑같은 배열의 단지를 조성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잠실 주공아파트와 유사한 □자형의 배치는 단지 내 커뮤니티를 증진하기 위해 중정 안에 휴게시설과 놀이터를 확보한 것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건설사들에게 □자형의 배치는 기존의 -자형 배치보다 용적률을 더 늘릴 수 있는 유리한 배치였으며 실질적으로 □자형의 외부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이 아닌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1992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일조권 규제기준인 동 간격이 1배에서 0.8배로 완화되어 주어진 대지 안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자형 배치와 건축법 완화는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건축법 완화라는 유리한 환경을 건설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택 공급량을 유지했고 건설사들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되 주거의 질보다는 이득이 되는 방향이 거주자들에게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3. 영통동 아파트의 평면 유형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에서는 2,094개 주호 평면을 분석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미세한 치수의 차이 외에는 동일한 유형의 평면이 반복되고 규모의 고정화 현상이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전 시대의 큰 평면 규모에서 나타난 유형이 작은 평면으로 하향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⁸

영통지구만을 대상으로 평면 유형을 분석해도 동일한 평면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쓰는 평면 유형이 하향화되거나 2000년대에 주로 많이 쓰인 평면계획이 혼용되어 나타났다. 영통지구 아파트의 내부 평면 유형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8㎡, 49~50㎡, 59~60㎡, 75~85㎡, 99~102㎡, 117~120㎡, 134~135㎡, 164~165㎡로 나눌 수 있다. 75~85㎡를 제외하고 각 단위면적은 모두 최대 크기에 근접해서 계획되었다.⁹

영통동에서 가장 작은 면적 A타입은 38㎡로 벽적골 롯데아파트 한 곳이다. 1987년부터 40~45㎡의 면적 크기에서 주로 나타난 유형이다. 입주일을 기준으로 2001년에도 평면계획이 쓰이고 있으며 더 작은 면적에 적용되었다. 50㎡ 이하 면적 단위는 민간에서 롯데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했으며, 38㎡ 평면에서 조금 더 커지고 거실 겸 침실을 방과 거실 2개로 나눴다. 5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평면으로 1,495세대가 이 유형으로 쓰였다.

2000년대까지 소형 평면은 전면이 좁고 세로로 깊은 유형이 다수였다. 특이하게 B타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세로로 깊이가 있는 유형이 아닌 가로로 길고 방 2개와 거실이 전면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 면적 배분

에 있는 3bay로 앞면에 전면 발코니를 설치하고 후면에 현관이 있는 평면을 시도한다. 전면이 가로로 길어진다는 의미는 기둥과 기둥 사이 구획인 bay가 옆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기둥이 아닌 내력벽 구조로 내벽과 내벽 사이의 구획을 지칭하며 전면에 발코니 설치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발코니에 접한 거실 또는 방의 개수에 따라 bay를 칭한다. 50㎡ 단위면적까지 복도형으로 되어 있다.

<표 4> 영통지구 아파트 단지의 면적 및 구조

구분	아파트명	면적정보	공급(㎡)	전용(㎡)	세대수	방/욕실 (개)	현관 구조	용적률 (%)	건폐율 (%)	
배교리(배교)	1단지	주공1단지	65	65.91	49.44	28	2/1	계단식	215	16
			68	68.96	49.76	489	2/1			
			77	77.29	59.80	180	3/1			
			82A	82.55	59.94	96	3/1			
			83B	83.14	59.99	2,336	3/1			
	2단지	주공2단지	68	68.96	49.76	76	2/1	계단식	218	17
76A	76.8		59.39	15	3/1					
77B	77.29		59.80	195	3/1					
82B	82.62		59.99	830	3/1					
배교리(배교)	3단지	쌍용	81A	81.57	59.79	512	2/1	계단식	219	17
			81B	81.98	59.80	360	3/1			
	4단지	벽산풍림	109A	109.31	84.96	464	3/2	계단식	220	18
			109B	109.14	84.84	464	3/2			
		5단지	신명한국	81A	81.36	59.95	392	3/1	계단식	219
	82B			82.82	59.99	560	3/1			
배교리(정안)	6단지	대우동신	124	124.70	99.87	440	4/2	계단식	217	16
			162	162.71	134.64	392	4/2			
			195	195.66	164.76	152	5/2			
	7단지	벽산삼익	96(벽산)	96.42	73.79	158	3/1	계단식	220	12
			96(삼익)	96.42	73.79	158	3/1			
			109(벽산)	109.1	84.96	463	3/2			
			109(삼익)	109.1	84.96	463	3/2			
	8단지	건영1차	110	110.99	84.99	64	3/2	계단식	219	18
			125	125.5	99.96	74	4/2			
			163	163.29	134.81	364	4/2			
9단지	주공	68	68.96	49.76	114	2/1	계단식	218	17	
		82A	82.55	59.94	76	3/1				
		82B	83.14	59.99	756	3/1				
		126	126.91	92.23	258	3/2				
	10단지	삼성	155	155.48	119.87	228	4/2	계단식	219	16
174			174.95	134.23	152	4/2				
212			212.11	164.94	76	5/3				
73			73.95	49.59	360	2/1	복도식			
77	77.45	59.96	120	3/1						
82B	82.62	59.99	984	3/1						
82A	82.55	59.94	40	3/1						
신나리(실실)	5단지	주공	73	73.95	49.59	360	2/1	복도식	219	17
			77	77.45	59.96	120	3/1			
12단지	신성신안 쌍용진흥	80	80.8	59.96	1,616	3/1	계단식	21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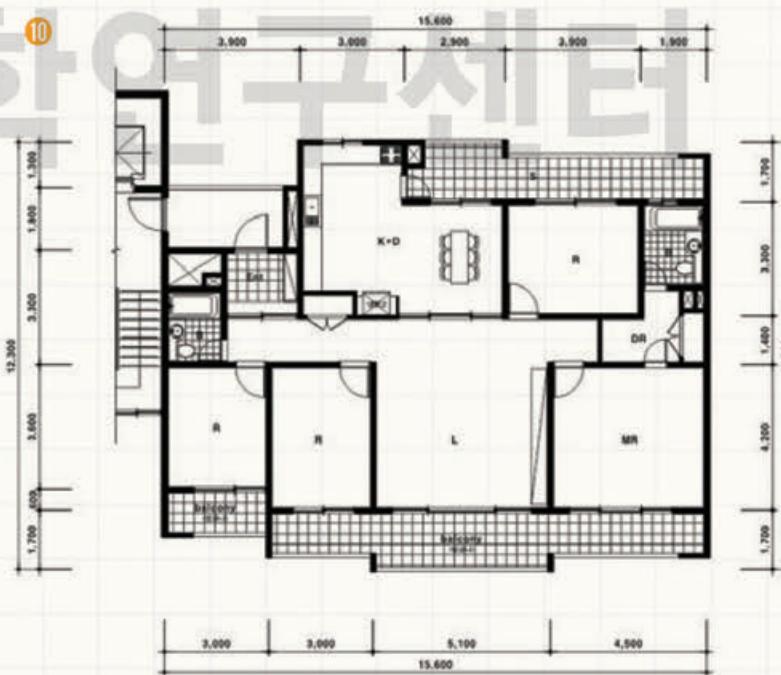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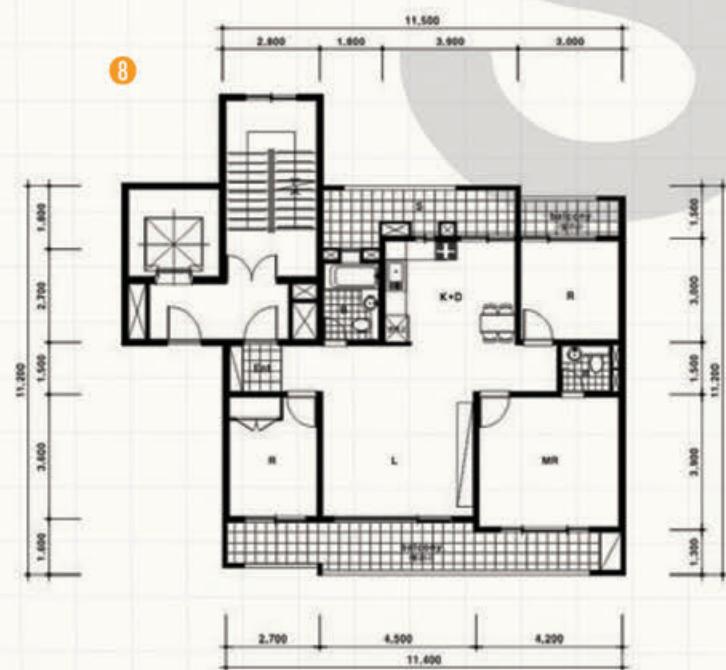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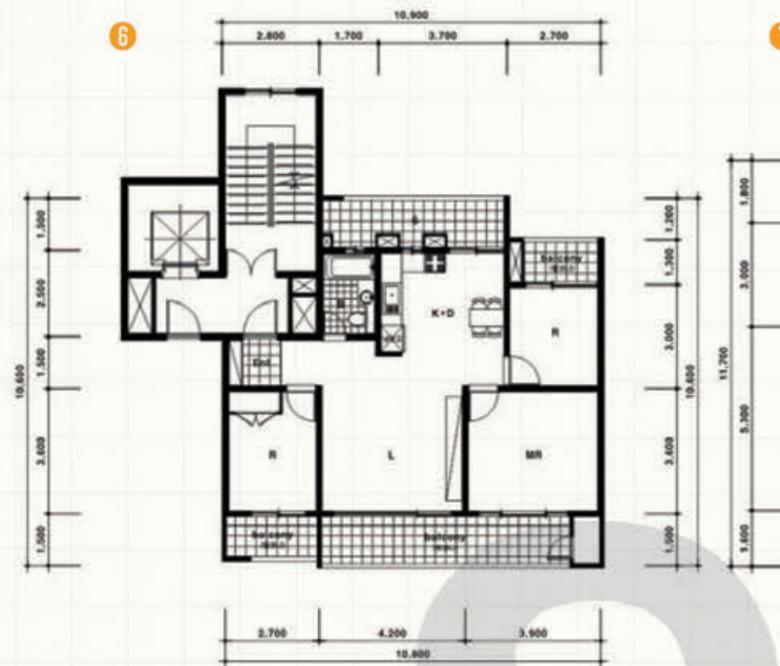
구분	아파트명	면적정보	공급(㎡)	전용(㎡)	세대수	방/욕실 (개)	현관 구조	용적률 (%)	건폐율 (%)	
신나리(실실)	6단지	신원미주	127A	127.06	101.71	160	4/2	계단식	218	16
			127B	127.28	101.99	120	3/2			
			143	143.23	117.61	3	3/2			
			145	145.23	118.97	1	3/2			
			164B	164.8	134.99	173	4/2			
			164A	164.14	134.78	117	4/2			
	7단지	건영2차	111	111.03	84.99	68	3/2	계단식	219	19
			125	125.61	99.96	198	4/2			
			163	163.42	134.81	204	4/2			
	8단지	극동풍림	98	98.7	75.69	296	3/2	계단식	219	16
108			108.93	84.9	480	3/2				
9단지		동보신명	106	106.68	84.9	836	3/2	계단식	219	17
			126	126.33	101.25	728	4/2			
배교리(정안)	7단지	진덕서광 성지동아	163	163.01	134.88	360	4/2	계단식	219	16
			197	197.52	164.85	160	5/2			
			120	120.41	99.58	220	3/2			
	8단지	현대	162	162.95	134.76	312	4/2	계단식	219	16
			199	199.38	164.89	80	5/2			
			80B	80.54	59.84	1,482	3/1			
	80A	80.39	59.73	360	2/1					
	9단지	주공	73	73.95	49.59	600	2/1	계단식	196	13
			82B	82.59	59.99	912	3/1			
	10단지	삼성태영	107A2	107.82	84.88	308	3/2	계단식	218	18
108A1			108.3	84.84	208	3/2				
109B1			109.49	84.93	208	3/3				
109B2			109.96	84.91	208	3/2				
11단지		주공	68A	68.31	49.63	42	2/1	복도식	218	17
	68B		68.6	49.57	38	2/1				
	73		73.43	49.26	119	2/1				
	80A		80.96	59.39	938	3/1				
	81		81.74	59.39	90	3/1				
12단지	롯데	50	50.57	38.16	208	2/1	복도식	193	21	
		65	65.88	49.71	416	2/1				
		79	79.46	59.96	416	3/1				
		81B	81.01	59.34	38	3/1				

60㎡는 영통지구에서 가장 많은 단위면적으로 총 1만 3,414세대이며 52%를 차지한다. A타입 평면 단위는 유형이 계단실형 코어에 앞뒤 전면 발코니를 가지고 있으며 3LDK에 화장실은 1개이고 거실과 안방이 전면에 있는 2bay이다. 전면 폭이 좁고 깊다.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공간 구성으로 1980년을 기점으로 전용면적 85㎡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며 점차 하향하여 1990년에는 수도권 신도시의 60㎡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¹⁰⁾

영통지구에서 가장 많이 쓰인 공간 구성으로 60㎡ 주호의 80%인 1만 752세대가 같은 평면이다. A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B타입 공간 구성도 함께 나타난다. B타입은 1990년대에 85㎡에 쓰인 전형적인 평면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타입이다. 이 평면은 하향화되어 60㎡에도 적용되었으며 면적의 한계로 화장실은 1개이다. 주방을 길게 쓸 수 있는 이점 덕분에 A타입 평면보다 여유 있는 ㄱ자형 싱크대를 둘 수 있다. 495세대에 쓰였으며 많이 채택되진 않았다. 이 외에도 C타입은 주공에서 B타입에 거실의 모서리를 중심으로 2면이 발코니에 접한 평면 시도를 했으며 60㎡라는 좁은



- ① 벽적골 롯데아파트(14평형)
전용 38㎡, 공급 50㎡, 복도식
- ②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20평형)
전용 49.7㎡, 공급 69㎡, 복도식
- ③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24평형)
전용 59.99㎡, 공급 82㎡, 계단식
- ④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23평형)
전용 59.96㎡, 공급 77㎡, 계단식
- ⑤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23평형)
전용 59.99㎡, 공급 50㎡, 계단식



- ⑥ 청명마을 복산삼익아파트(29평형)
전용 73.79㎡, 공급 96㎡, 계단식
- ⑦ 신나무실 극동아파트(32평형)
전용 84.8㎡, 공급 108㎡, 계단식
- ⑧ 황골마을 복산아파트(33평형)
전용 84.96㎡, 공급 109㎡, 계단식
- ⑨ 건영아파트(49평형)
전용 134.8㎡, 공급 163㎡, 계단식
- ⑩ 살구골 현대아파트(50평형)
전용 134.7㎡, 공급 163㎡, 계단식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공간에 확장된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전용 85㎡ 미만 평면 단위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규모로 국민주택의 기준이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기이다. 1990년대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지어진 규모이지만 영통동에서는 총 4,746세대로 18.5%만 지어진다. 85㎡에 근접한 규모만 따지면 16%까지 줄어든다.

85㎡에 근접한 전용면적 단위부터 화장실이 2개이며 방 3개, 거실(L), 식당(D)/부엌(K)인 3LDK이다. 시기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1990년대 주류인 A타입과 2000년대 주류인 B타입이 혼재되어 있다. 영통에서는 32평이 A타입, 33평이 B타입으로 나타난다. 영통지구에서는 B타입이 더 많이 지어진다. 드물게 75㎡인 29평형 612세대가 지어졌으며 A타입과 B타입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있다. 하나는 A타입이 치수만 작아진 똑같은 평면이고, 두 번째 B-1타입은 전면에 거실과 방2개가 배치된 3bay이지만 면적의 한계로 화장실은 하나이다.

85~135㎡ 미만 중 135㎡에 근접한 평형은 49평형, 50평형으로 A타입과 B타입이 있으며 방 4개와 화장실 2개, 전실과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다. 차이점은 A타입은 3bay, B타입은 4bay이다. B타입은 1990년대에 140㎡ 이상에서 나타나는 평면 유형으로 A타입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라면 B타입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평면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 85㎡ 평면 단위에서도 발코니 확장을 통해 방 3개가 전면에 면한 4bay 유형이 하향화되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영통지구는 135㎡ 평면 유형에서 현대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신원미주아파트에서 시도되었다. 102㎡ 미만은 37평형과 38평형으로 3bay에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이다. 주방·식당과 거실이 중앙에 앞뒤로 마주보는 구조로 개방감을 주었고 방 4개가 각 4면 모서리에 위치한다. 120㎡의 43평형과 135㎡ 미만의 49평형 A타입과 동일한 평면 유형으로 차이점은 안방에 화장실과 전실, 드레스룸의 유무이다. 102㎡ 미만 중 현대아파트 85㎡ A타입을 미주와 삼성아파트가 85㎡ B타입 드물게 적용했고 신원아파트는 전면에 방 1개와 거실·홀, 주방·식당을 가로로 길게 배치한 후 후면에 방 3개를 배치한 새로운 타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가장 큰 크기는 165㎡에 근접한 면적 크기로 59평형, 62평형이 있으며 4bay에 방이 5개, 화장실 2개 또는 3개, 전실과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다. 135㎡ B타입에 후면에 방이 하나 더 있는 형식이다. 대우동신아파트,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가 같은 유형으로 총 468세대(1.83%)가 지어졌다.

4. 영통동 아파트 실내공간 활용

영통지구의 평면단위 유형은 국민주택 규모(85㎡)보다 적은 60㎡ 단위면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영통지구의 가장 대표적인 단위면적인 60㎡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실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들어서서 가전제품이 늘어나거나 대형화되면서 60㎡ 크기로 생활하기 불편하였다.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에 살았던 송혜숙은 4인 가족으로 당시 좁았던 부엌·식당을 이야기하였다.

송혜숙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주방이 좁아. 내가 볼 때 부부와 아이 하나 정도 딱이야. 4인 식탁을 놔볼 때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 싱크대하고 붙여서 3명 정도는 앉을 수 있어도 4인 가족이 나올 구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냉장고를 베란다에 놔서. 둘 수밖에 없어.

평면계획을 했던 1990년대 초중반에는 김치냉장고가 필수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1995년 후반 만도기계에서 나온 위니아 덩체가 아파트 생활을 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주부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가전제품 1위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송혜숙은 좁은 부엌·식당에 김치냉장고를 두었고 1990년 초부터 다용도실의 기능으로 변모한 후면 발코니에 세탁기와 냉장고, 또 다른 김치냉장고를 두었다. 좁은 발코니에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연달아 배치하면서 부엌에서 냉장고까지 가는 동선보다 방을 거쳐 재로들을 가져오곤 했다고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기존의 냉장고 자리는 작은 냉장고 용량에 맞춰 빠듯하게 계획된 탓에 김치냉장고가 자리를 대신하고 냉장고는 발코니로 빠지게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24평형) 가구배치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양문형 냉장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부엌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박은아도 부엌에 식탁을 놓는 대신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단지에 사는 동안 비싼 가격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로 양문형 냉장고가 아닌 사이즈를 조금 키운 일반 냉장고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송혜숙과 박은아 모두 2010년이 돼서야 양문형 냉장고를 바꾸었으며 박은아는 2009년 135㎡ 크기의 건영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부엌에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다.

현재 황골마을을 주공1단지아파트와 벽적골 롯데아파트에 사는 두 신혼부부는 제한된 크기에서 어떻게 부엌을 꾸몄을까? 황골마을을 1단지에 사는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로 수지에 사는 친정과 가까워 영통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부는 기존 냉장고가 있던 자리까지 싱크대를 확장해 짧은 ㄷ자로 만든 후에 정수기와 커피머신, 아이의 간식을 올려놓을 수 있게 했다. 싱크대를 ㄱ자형에서 ㄷ자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식탁을 놓기에 비좁아졌지만,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 수 있는 홈바 기능을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거실 발코니를 확장한 후 전면 창 쪽에 2인용 테이블이 놓여 식사공간 겸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문형 냉장고는 후면 발코니 오른쪽 끝에 배치되었고 왼쪽 끝에는 현재 유행하는 세탁기·건조기가 일렬로 세워져 있다.

같은 면적의 롯데아파트에 사는 오상미는 맞벌이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구이다. 남편과 본인의 직장 중간 지역이고 친정 근처라는 요인이 작용하여 영통동으로 이사하였다. 부엌·공간의 싱크대는 기존에 쓰던 ㄱ자형을 그대로 쓰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2인용 식탁과 의자, 선반이 놓여 있다. 냉장고는 후면 발코니 오른쪽에 배치했으며, 왼쪽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다.

두 집 모두 용량이 커진 냉장고를 후면 발코니로 옮겨 부엌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식탁의 유무는 싱크대에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된 홈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카페 문화가 발달하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홈바 기능이 추가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김치냉장고가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면 2020년대 초반에는 애초에 냉장고가 후면 발코니로 이동하고 냉장고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홈바가 추가되었다.

거실과 방의 위계, 배치는 또 어떻게 다를까? 2020년대 영통동 거주자들의 거실은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를 위한 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두 집 모두 2인용 소파가 있다. 한 집은 소파 맞은편에 텔레비전을 놓았고, 다른 집은 책장을 놓았다. 현관 옆 작은방은 두 집 모두 옷방으로 사용하였으며, 한 집은 작은방을 발코니 공간까지 확장하면서 넓어진 공간에 컴퓨터를 놓았다. 다른 작은방에는 두 집 모두 장난감을 정리해 두었는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23평형) 가구배치

벽적골 롯데아파트(23평형) 가구배치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데, 한 집은 발코니 확장 자리에 책상을 놓았으며 앞으로 자녀 방으로 꾸밀 예정이다. 2개의 작은방 중 1개는 발코니 공간까지 확장하였고 확장한 공간에는 모두 책상이 놓였다. 안방은 침대와 아기 침대, 화장대를 놓았으며 이 또한 같았다.

두 집 모두 안방은 부부침실, 작은방은 자녀방과 옷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옷장은 사라지고, 방 전체가 행거와 서랍장이 놓인 옷방이 되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했으며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발코니와 방의 경계 벽이 두껍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짐은 많고 창고 공간이 부족해 보였다.

2000년대 초중반에 영통동 거주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다닐 무렵 이주하였다. 생애주기에서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송혜숙은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2004년에 영통동으로 이사 왔다. 남편 직장이 화성시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화성시 남양읍 소재 사원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화성시 봉담읍으로 한 차례 이사를 했다. 그 후 자녀가 수원에 있는 중학교를 가고 싶어 하여 급하게 영통동으로 이주해

왔다. 봉담읍 아파트는 전 집주인이 해놓은 인테리어 덕분에 꽤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저수지가 훤히 보이고 그 당시 유행하던 체리몰딩이 아닌 흰색 몰딩이었고, 현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현관 중문과 거실 발코니 확장을 통해 발코니 끝까지 마루를 깎아 예쁜 집이었다. 급하게 구한 영통동 아파트는 쾌적한 환경보다는 자녀 교육을 중심에 놓고 생활공간을 정하였다.

송혜숙 엄청 버렸지. 좁은 데로 간 거니까. 새로 장만한 건 컴퓨터야. 봉담에서부터 2대를 놔 줬어.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한다고 텔레비전을 버렸어. 내 거까지 컴퓨터가 3대였어. 안방을 아이들을 줬어. 그리고 가구를 모둘러 같은 가구로 다 맞췄어. 책상도 다 칸막이로 쌓을 수 있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다 샀어. 책상도 큰 상판을 놓고 바퀴 달린 서랍 놓고. 공부방을 큰 안방으로 주고 작은방에서 부부가 살고 다른 작은 방은 형제가 타고 그랬어.

송혜숙은 “30대에는 남편 직장 위주로 집을 정한다면, 자녀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학교를 위해 주거환경을 맞춘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 배치도 자녀를 우선순위에 놓고 위해 정하였는데, 부부가 쓰는 안방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꾸몄으며 거실은 텔레비전을 치우고 서재로 만들었다. 송혜숙 본인도 논술을 가르치는 직업 특성상 작업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실에 컴퓨터와 책상을 놓고 일을 했다. 송혜숙의 교육방향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남편도 안방을 자녀에게 주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안방 외에는 방의 역할을 따로 두지 않았고, 침대가 없었으며 원하는 방에서 때에 따라 잠을 잤다고 한다.

박은아는 자녀가 3명이고 성별이 달랐기 때문에 공부방과 침실을 분리할 순 없었는데, 셋째가 자란 후에는 첫째와 방을 같이 썼다. 그리고 안방을 제외한 방들은 좁아서 침대를 두지 않았고 각각 책상을 놓았다. 두 집 모두 기본적으로 자녀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옷방을 두거나 물건을 둘 창고 기능의 방을 따로 둘 수 없었고 후면 발코니 또는 전면 발코니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실내공간 활용에서 과거 영통동에 거주했던 두 집과 현재 영통동에 거주하는 두 집의 차이는 자녀수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현재 영통동에 사는 두 집은 모든 생활공간이 육아에 맞춰져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자녀가 한 명이기 때문에 아이 방이 하나 있고, 부부침실과 아이 방의 위계가 바뀌어 있지 않았다. 물론 공간에 여유가 많진 않았고 방 하나는 무조건 드레스룸으로 쓰이고 있었다. 20년 전과 달리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기본적으로 드레스룸과 안방 화장실이 보편화되었고 그만큼 라이프스타일 감각이 달라진 것이다. 1단지에 사는 부부의 경우 화장실에 아이 욕조가 자리를 차지하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방(원형 유지)



기본(1차) 수리한 주방(126동 주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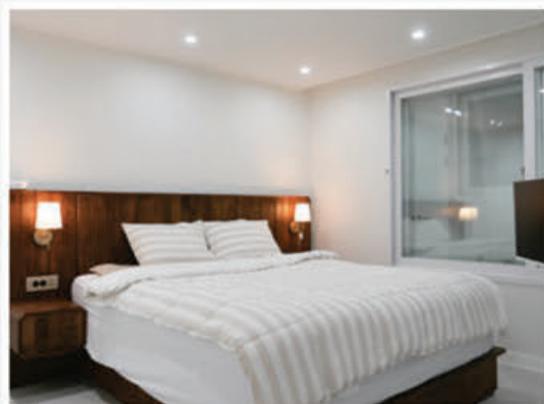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기본(1차) 수리한 실내공간(126동 주민 제공)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기본(1차) 수리한 실내공간(126동 주민 제공)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인테리어(2차 수리) 시공 후 실내공간(126동 주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인테리어(2차 수리) 시공 후 실내공간 활용(126동 주민 제공)



청명마을 신명한국아파트(82B㎡) 실내공간(최인경 제공)

수원 SUWON RESEARCH INST

수원학연구소센터

면서 부부침실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였다.

아파트 실외공간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에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하였다. 아직 생애주기에서 부부가 중심에 있고 자녀 양육은 교육보다 돌봄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확장되기 전 상태이기도 하다. 또한 2000년대의 경우 비슷한 포레 아이들이 같은 단지 내에 많았다면, 현재는 다양한 연령대가 살고 있고 맞벌이 부부라는 요인이 단지 내 커뮤니티 참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5. 영통동 아파트 거주 주부들의 커뮤니티 활동

2000년대 영통동 주부 커뮤니티는 부녀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특



PEC스포츠아카데미 광고(PEC스포츠아카데미 제공)

히 영통동 주민들의 교육열은 강남 다음으로 심했다고 회자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마치 현재 동탄맘 커뮤니티가 막강한 것처럼 영통동에 사는 주부들의 커뮤니티가 교육환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공교육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학원이 많았기 때문에 학군이 좋은 거라고 말하였다. 박은아도 그 당시 영통동에 있는 학원비가 대치동 수준으로 고가였다고 기억한다.

영통동은 일반 교습학원도 유명했지만 PEC축구교실도 인기를 끌었다. PEC축구교실은 1999년 영통동에서 창단되었는데, 2004년에 PEC스포츠아카데미로 명칭을 바꾸어 스포츠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박은아는 청명마을에 이사 오면서 교류가 마땅치 않은 차에, 자녀가 PEC축구교실에 들어가면서 축구교실 학부모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다달이 돈을 내고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치와 함께 축구를 하였는데, 클럽당 참여인원이 제한되었고 유니폼까지 갖춰져 있었다. PEC축구교실은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활성화되어 남자 아동 2~3명에 1명꼴로 PEC축구교실에 가입할 정도였다.

박은아 약간 매니아들만 하는 문화라면 영통동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세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구도로 홍보를 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도 나도 하고 대회를 벌이면 엄마들이 와서 자기 아들 이기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주말마다 대회니까 나는 피곤한 거야. 왜냐면 쫓아가서 응원을 해야지 다른 집 애들은 간식 이만큼씩 싸오고 소풍 온 것처럼 하는데 우리 애만 보낼 수 없잖아. 그러게 막 가량이 찢어지게 했던 거죠. 쳐도 재미도 있었어요.



자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영통동 주부들의 교류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PEC는 스포츠클럽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축구에서 농구로 옮겨 가기도 했으며 학원의 의지보다는 엄마들의 힘으로 클럽 인원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스포츠로 바꾸고 아이들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주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옮겨 가고 자연스럽게 스포츠클럽을 그만둔다. 유행처럼 번진 스포츠클럽 때문에 집집마다 등번호가 쓰인 유니폼 하나쯤은 걸려 있었을 정도로 영통동만의 문화이기도 했다.

맘카페나 SNS가 활성화되기 전 아파트 문화는 단지 내 학교 또는 같은 동에 사는 또래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울리는 주부들의 입소문으로 만들어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 공동체 생활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주부로 지내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밥도 해 먹고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나 그랜드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청명산으로 운동하러 가는 등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영통동 부녀회도 잘 조직되어 있어서, 부녀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저렴하게 요가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알뜰장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시립 스포츠센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였다.

박은아는 2000년에는 개방적인 교류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나 점차 개별 문화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특히 광고신도시와 동탄신도시 등 주변에 신도시가 완공된 후 주민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영통동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삼성 자치구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622세대의 인구 규모와 잘 갖춰진 상권,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등 영통동 아파트 단지 자체는 안정적이고 살기 편한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송혜숙은 자녀들이 모두 졸업한 후 망포동으로 이주했고, 박은아는 아이들이 크면서 좀 더 넓은 서천동으로 이사 갔다. 김영실도 아파트 생활을 한 후 현재는 서천동에 빌라를 지어서 살고 있다. 각자 생애주기의 한 시절을 지낸 후 영통동 아파트에서 나와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고 모두 다 멀지 않은 곳에 터를 잡았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영통동에서의 삶이 편하고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영통동으로 들어온다. 오래된 아파트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들도 서울과 교통이 가깝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입소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구매한다. 단지 내 커뮤니티에 참여할 시간도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 이는 아파트 공간에서 비롯된 문제만은 아니다. 기존의 돌봄과 가사는 그림자 노동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복지가 강화되기보단 서비스 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쓰면 편리하게 해결되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는 다시 되먹임 구조로 순환하며 복지의 영역도 공동체가 나누지 않고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성질로 고착화된 것이다.

결국 사회가 사라진 자리를 개인이 짊어지면서 돈으로 환산되는 공간에 대한 집착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국가가 소극적으로 관여한 주택 공급 제도가 공간 경험 자체를 편협하게 바꾸어 놓은 점도 한몫하였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사회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끼치고 인식을 변화시키며 궁극에는 라이프스타일로 경험한 아파트 생활 자체가 사회와 제도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아파트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부모세대가 살았던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고 살아간다.

영통신도시는 1990년대 끝자락에 생겨났다. 태생적으로 서울과 5대 신도시에서 유행하던 아파트 공간이 똑같이 재현되었고, 개성이나 수원의 지역성이 드러날 수 없었다. 수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인들이 이주 정착하여 신도시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해 간 장소이다. '영통'이라는 장소는 서울로 통하는 교통과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입지적 장점에 학군을 보강함으로써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적 경험이 무엇인지 주택 공급자들에게

힌트를 주었다. 또한 2000년대까지 작동했던 4인의 정상가족 외벌이 신화는 영통동 아파트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리고 현재는 오래된 주민들과 젊은 부부, 1인 가구의 사람들이 영통동 아파트의 역사와 1990년대 제도가 남기고 간 흔적을 안고서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박철수, 2017, 「박철수의 거주박물지」, 집.	백해선, 2003,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일상생활공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철수, 2021, 「한국주택유전자」, 2, 마티.	이상진, 2019,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의 배치형태와 주동면형태의 변화 양상과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해천, 2015, 「아수라장의 모더니티」, 워크숍프레스.	이동근, 1980, 「500만호에서 5개 신도시까지」, 「한국현대생활문화사」, 창비.
세진기획, 2001, 「아파트백과-수원시편」,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2000.	최권중 외, 2015,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아파트평면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6-5, 한국주거학회.
수원시, 「수원통계연보」, 2000.	임서한, 2005, 「주택정책반세기」, 기문당.
임동근·김종배, 2015,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반비.	김수암 외, 1997,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
임서한, 2005, 「주택정책반세기」, 기문당.	박인석 외, 2014, 「전용면적 선정기준 변화와 발코니 용도변환 허용이 아파트 단위주거 평면 설계에 미친 영향」,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5-2, 한국주거학회.
김수암 외, 1997,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	박철수 외, 1999, 「한국의 주택공급제도가 단위평면계획에 미친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10, 대한건축학회.
한국토지공사, 1994,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 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한국토지공사, 1997, 「수원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거환경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1997, 「수원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거환경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아파트 주거 환경통계.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아파트 주거 환경통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

1. 「수원영통 용인영덕 제2신도시 조성」, 「경향신문」, 1993년 2월 1일.
2. 「수원 영통-영덕지구 다음 달부터 분양」, 「조선일보」, 1995년 1월 16일.
3. 「수원 영통-용인지구 아파트 대거 분양」, 「동아일보」, 1995년 9월 14일.
4. 건영은 1차 부도 이후 화생 기간을 거쳐 분양에 성공하지만 뉴코아 계열 건설사 하이웨이유통과 뉴타운개발은 최종 부도처리 후 한국부동산 신력에서 시행을 맞아 롯데건설에 시공을 맡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 신력마저 2001년 부도 처리되면서 시공이 늦어지는 등 우려곡절을 겪게 된다.
5. 「대출 길 막히고 전세도 인 나가 아파트 계약포기-미입주 속출」, 「조선일보」, 1998년 1월 5일.
6. 계획한 의료기관 부지는 26년간 밟지 끝에 2023년 아파트 단지로 토지 계획을 변경한다.
7. 당시 건설 경기 과열로 1991년 건설경기진정대책, 1992년 총건설량 50만 호 제한 등을 발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다.
8. 김수암 외, 1997,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
9.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김수암 외, 1997,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에서 1974-1996년 수도권에 공급된 2,094개의 주호평면 분석을 기준으로 삼았다.
10. 김수암 외, 1997, 「우리나라 민간아파트 주호평면의 시계열적 흐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5-1, 한국주택학회.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시정연구원

03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 비율이 절반 이상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8년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주택 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영통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아파트 공급의 증가와 함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은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났고,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공간으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개개인의 삶과 생활행위가 담겨진 커뮤니티 시설들이 조성되며 정부나 건설업체에서는 거주민들 간의 교류와 커뮤니티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세대와 세대, 세대와 단지, 단지와 지역 등 더 넓은 범위까지 확장되어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고 동시에 거주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을 구현한다. 또한, 거주민들의 문화, 경제, 사회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고 공동생활을 지원하여 구성원들이 교류활동을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

수원시 내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역인 영통동은 신도시의 위상을 지닌 주거지역으로 20년 동안 자리를 지켰으며, 최근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수원시의 주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변화



영통동 아파트 단지 전경(김승일 제공)

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오랜 시간 영통동을 지켜온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고,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와 기존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엮어 아파트 단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생적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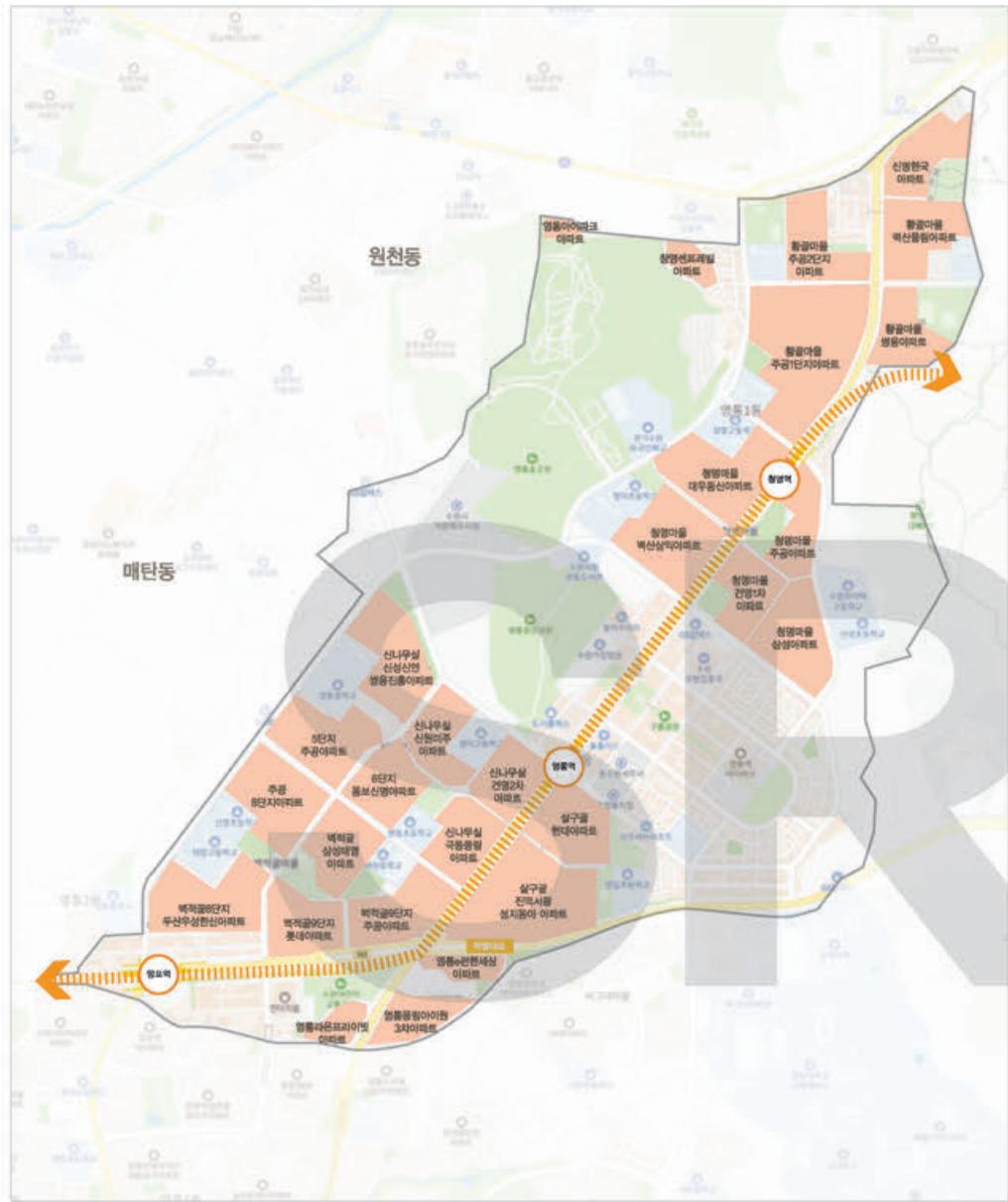
1) 1990년대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영통동 아파트 단지들의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다.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세대수만 봐도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한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1979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화되었고,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당시 아파트 단지 건설 목표는 개별 단위주호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커뮤니티 시설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들이 획

일적인 아파트 단지를 양산해 왔을지도 모른다.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영통동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 계획도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졌을 것이며 실제로,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특정계층을 위한 시설들로 계획되었다. 이는 단지 내 거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의 효율성과 기능이 미흡한 실정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영통동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명	지번	세대수	동수	사용승인일
황골마을 주공1단지	영통동 955-1	3,129	39	1997.12.16.
황골마을 주공2단지(영통센트럴파크뷰)	영통동 948-4	1,190	14	1999.05.03.
황골마을 쌍용	영통동 1052-2	872	10	1998.03.10.
황골마을 벽산풍림	영통동 1053-2	928	10	1997.12.12.
황골마을 신명한국	영통동 1054-3	952	8	1997.12.31.
청명마을 대우동신	영통동 956-2	984	12	1998.06.23.
청명마을 벽산삼익(영통에듀파크)	영통동 957-6	1,242	14	1997.12.12.
청명마을 건영1차	영통동 1047-1	502	6	1999.02.18.
청명마을(4단지) 주공	영통동 1048-2	946	11	1997.12.12.
청명마을 삼성	영통동 1046-1	714	9	2001.10.30.
신나무실(5단지) 주공	영통동 964-5	1,504	18	1997.12.15.
신나무실 신성신안쌍용진흥	영통동 1048-2	1,616	16	1997.12.16.
신나무실 신원미주	영통동 965-2	574	7	1999.12.29.
신나무실 건영2차	영통동 966-2	470	7	2000.07.20.
신나무실 극동풍림	영통동 967-2	776	10	2000.10.11.
신나무실 동보신명	영통동 968	836	8	1997.12.16.
살구골 진덕서광성지동아	영통동 988-2	1,248	18	1998.01.26.
살구골 현대	영통동 989-2	612	10	1998.05.28.
벽적골 두산우성한신	영통동 973-3	1,842	18	1997.12.16.
벽적골(9단지) 주공	영통동 970-3	1,265	15	1999.11.10.
벽적골(8단지) 주공	영통동 973-2	1,548	18	1997.12.10.
벽적골 삼성태영	영통동 969-1	832	12	1997.12.12.
벽적골 롯데	영통동 971-1	1,040	6	2002.03.30.
영통풍림아이원3차	영통동 1093	494	5	2002.10.25.
영통아이파크	영통동 1153	212	2	2006.07.28.
영통e편한세상	영통동 987-1	230	5	2007.08.03.
청명센트레빌	영통동 1166	233	3	2013.06.04.
영통라운프라이빗	영통동 1154	351	4	2017.09.26.



영통동 아파트 단지 현황(저자 작성)

영통동 아파트 단지들의 커뮤니티 시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영통동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시작하면서 1997년 아파트가 처음 들어섰고, 그 중 이 글에서는 벽적골 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와 신나무실 5단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벽적골 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총 18개 동, 1,842세대로 이루어진 영통동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으며 세대수에 맞게 6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여기서 살펴볼 커뮤니티 시설은 어린이놀이터이다. 6개의 어린이놀이터는 주거동 사이사이 분산하여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단지 전체의 공간구조에서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외곽에 조성됨으로써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배치되고 있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유입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차량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접근성과 이용성이 높아야 할 공간들이 단지 외곽에 배치됨으로써 당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아파트 단지계획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벽적골 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와 연결한 한울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담으로 단절된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 보행자전용도로

계성을 살펴보았다. 근린공원과 면하여 어린이놀이터가 배치되었으나 아파트 단지의 경계 부는 담을 통해 단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울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는 차량 유입이 불가한 보행자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 공원으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조성되어 있어 보행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접촉과 커뮤니티 활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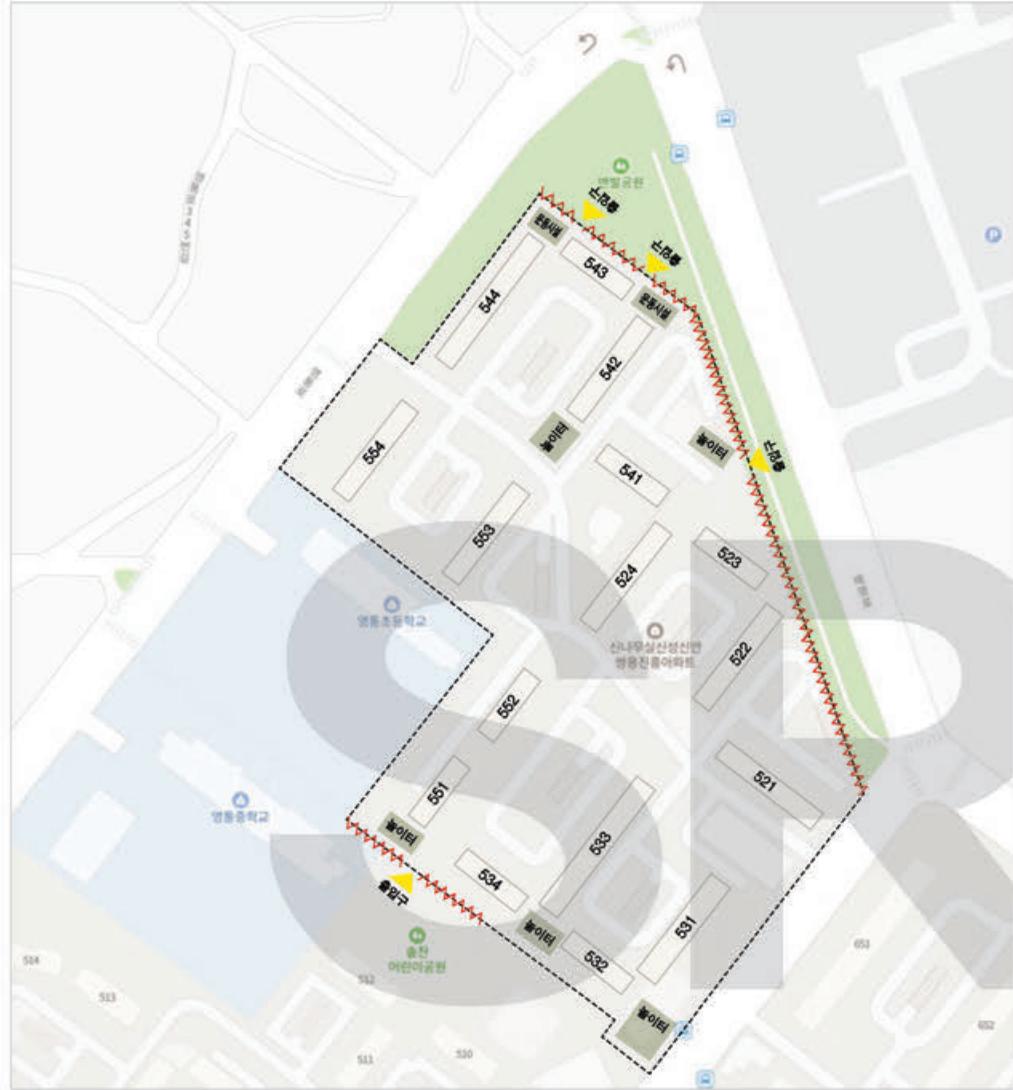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를 통해 본 커뮤니티 시설은 주변시설 및 도시 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절된 공간구조의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공간구조는 지역커뮤니티의 부재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와 같은 시기에 준공된 신나무실(5단지) 신성신 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는 총 16개 동, 1,616세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주요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있다. 신성신 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는 커뮤니티 시설 배치 형태와 단지 주변 공원이 위치해 있는 등 벽적골(8단지)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공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신나무실(5단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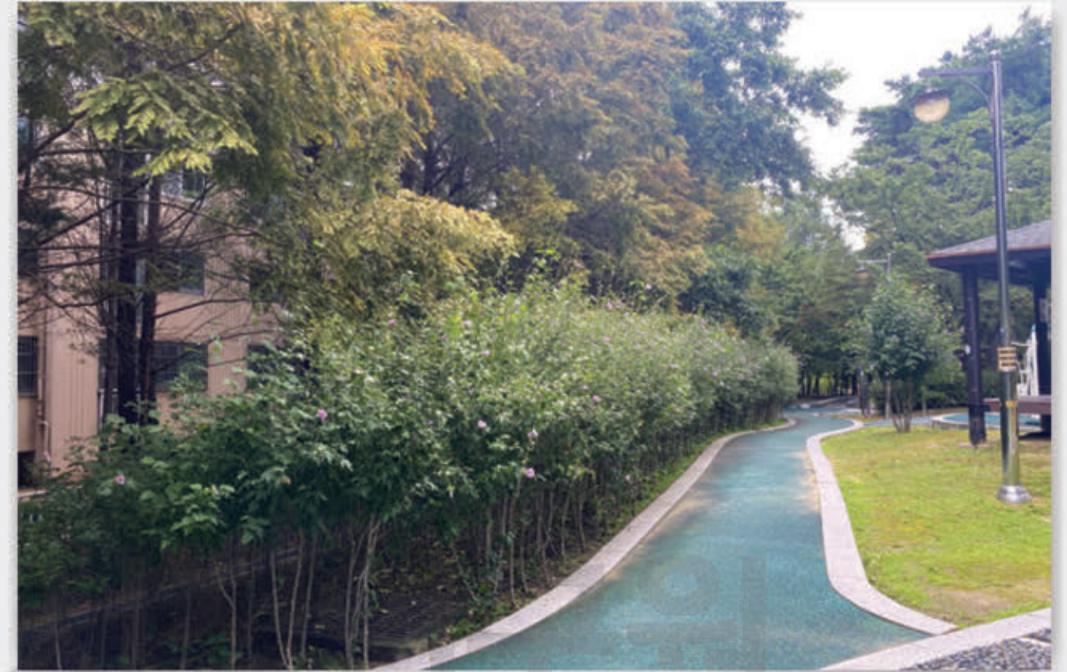
신나무실(5단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은 단지 외곽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솔찬어린이공원과 맨발공원에 맞닿아 있다. 맨발공원과 솔찬어린이공원은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맨발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3곳의 출입구를 제외하면 높은 수목과 담장이 아파트 단지를 단절하고 있어 맨발공원에서 보았을 때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은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솔찬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

수원 연구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단절된 맨발공원과 신성신안쌍용아파트



맨발공원-신성신안쌍용아파트 출입구



높은 수목과 담장으로 차단된 쌍용진흥아파트와 솔찬어린이공원

지는 완충녹지 및 펜스,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원에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차단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이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장 녹지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내 시설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개별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시설이 주변 지역과 연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별 단지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기준과 면적기준만을 포함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 시설들과 커뮤니티를 고려할 수 있는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영통동처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연접해 있을 경우, 획일화된 커뮤니티 시설들이 반복적으로 설치됨으로써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발생하게 된다.

2) 200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아파트 단지들은 점차 브랜드화되고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화·고급화되었다.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여가생활의 증가와 함께 아파트 외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 공간의 계획도 중요해졌다. 영통동에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와 영통라운프라이빗아파트는 이처럼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과 영통라운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는 총 5개 동, 230세대로 2007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ㄷ'자 형으로 주거동의 배치로 단지 내부에 중앙광장을 형성하고 있다. 단지 중심부 광장은 공원 시설로 계획되었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보행공간으로 거주민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살펴본 1990년대 아파트 단지들과 달리 지상주차장의 감소로 단지 내부의 차량 진입이 제한되었으며, 그로 인해 옥외시설 및 활동 공간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점적으로 분산하여 위치하던 커뮤니티 시설들이 점차 단지 중심에 조성되고 거주자들의 생활동선과 연계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계획이 단지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이전 아파트 단지들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기 시작하였다.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는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중앙광장과 휴게공간, 수경시설 등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실제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의 중앙광장은 놀이공간, 운동공간 등은 다양한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경시설 주변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거주민들이나 산책로를 통해 단지 내부와 외부로 산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전과 다른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아파트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 중앙광장 및 보행공간



영통풍림아이원3차아파트 단지 수변공원 및 휴게공간

수원시상업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영통라운프라이빗 아파트 단지 배치도(저자 작성)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파트는 점차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통라운프라이빗아파트 단지는 총 4개 동, 351세대로 2017년 9월에 준공되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차량동선을 외곽으로 분리시켰고 단지 중심은 보행광장을 도입하여 거주민들을 위한 중심생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단지 내 광장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은 곳에 공원과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아파트 단지 전체가 커뮤니티 활동의 장소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각 주거동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계획으로 주거동과 커뮤니티 시설간의 연속되는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외부 공간의 개방감과 시각적 연속감을 주고자 하였다.

영통라운프라이빗아파트 단지는 영통동 아파트 단지 중 공원과 휴게공간이 잘 조성된 곳으로 꼽히고 있다. 녹지공간의 일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체험형 공간을 만들고 분수와 실개천 같은 자연과 전원시설을 도입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와는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조경공간과 휴식공간을 가진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위치하며 벤치가 있는 주민센터와 인접해 있어 엄마들이 아이들을 주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



영통라운 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중앙광장 및 보행공간

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외곽은 힐링을 테마로 한 산책로가 조성되며, 커뮤니티 시설이 나 단지 전체 곳곳에 접근할 수 있다.

영통동은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 자녀를 가진 세대수가 많다. 수원에서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부분 영통을 대답하기도 한다. 영통라운 프라이빗아파트 단지에는 이러한 영통동의 지역적인 특성과 거주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커뮤니티 시설로 키즈 카페가 있다.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시설은 아이들과 부모들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며 거주자들의 장기적인 활용성이 기대된다.

이처럼 영통라운 프라이빗아파트 단지는 거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 여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행기반의 커뮤니티 시설계획으로 거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영통라운 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수변공원 및 휴게공간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영통라운 프라이빗아파트 단지 외곽 산책로

2. 수원시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영통동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된 곳으로 커뮤니티 시설도 획일화된 모습과 공간의 활용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부재를 인식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사업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역문화와 마을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수원형 마을 만들기'라는 구상으로 추진되었다.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르면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주민 스스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원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커뮤니티 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사람과 사람이 머무는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의 '북카페'

2012년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현 영통센트럴파크뷰) 주민들은 공모사업 제안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로 북카페를 조성하였다. 북카페가 조성되기 전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을 음악회나 여러 축제 및 행사로 아파트 주민들과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 왔다. 아파트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이 모이거나 담소 나눌 마을공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수원시 마을 만들기 사업인 '마을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매주 토요일 8시간(9~17시) 동안 5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으며 총 17명이 마을학교를 수료하였다.

지경숙 당시에 마을학교를 이수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5주라는 기간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마을학교를 이수하면서 마을 만들기는 왜 해야 하는 건지,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활동을 왜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저희 부녀회나 하고자 하는 의지들과 생각들이 훨씬 많았던 상황이었으니까 20명 중 총 17명이 교육에 끝까지 참여하면서 수료하게 된 거죠. 저희 북카페와 같이 이런 마을공간이 10만 원이 필요하다면 단 1만 원인 작은 구실 하나만 들어와도 돌아갈 수 있어요. 100% 관리비만으로 운영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니까요.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용이니 만큼 "우리 돈 100%가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으로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니 떼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북카페가 조성된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15명을 구성하여 북카페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5명의 카페지기들이 무보수 관리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북카페 운영 초기에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스토리텔링 등의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북카페 공간이 점차 공부방처럼 사용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생겨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경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교체했다고 한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 전경
(김승일 제공)



지경숙 공부가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블록놀이도 운영하고 엄마들 대상으로 뜨개질 교실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영화상영도 했어요 추석이나 가래떡데이(1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송편 만들기 등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공부하러 오는 느낌으로 공간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면, 무작정 이 공간에 오면 신나게 놀 수 있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또 관리소 앞에 아이들 학원차량이 멈춰서 아이들을 태우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카페가 생겨나면서부터 아이들이 학원차량 기다리면서 여기서 놀고 쉬다가 내려가서 학원차 타고 학원가고, 엄마들도 안심하고 의도치 않게 육아까지 하게 되는 공간이 되었죠(웃음)

북카페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발굴하여 연령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주민들 개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도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페지기들은 하루 2시간씩 각자 정해진 타임에 맞춰 북카페를 지켰으며 직장인들을 고려하여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기도 하였다. 북카페는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 주민 외 인근 주민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북카페를 도맡아 운영해 온 지경숙은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

지경숙 북카페가 2층에 생기고 나서 중고등학생들이 북카페에 들어오지는 않고 계단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희도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북카페에 와이파이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와이파이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공간에 자기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먹던 간식도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니 어른들이 있는 공간 안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어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는 모습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먼저 찾아오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게 저는 제일 뿌듯했어요.

황골마을 주공2단지아파트 북카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마을에서도 벤치마킹된 사실이다. 지경숙은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북카페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며, 공간이나 시설에 매몰되지 않고, 운영의 미를 살리는 방법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북카페 공간을 조성하면서 운영 활동이 항상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부 입주자대표들이 공동체 공간보다는 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거나 아파트 외관 및 입구환경 조성 등에 사업비를 사



2016년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 '북카페'에서 개설한 다양한 프로그램(내일신문 제공)

용하고자 하여 부녀회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작은 공동체 활동이 조금씩 아파트 내에 정착하고 그다음 세대나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마을 공간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마을 공간과 공동체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사업비 전부를 수원에 다시 반납하기도 했다. 현재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의 북카페도 이러한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운영이 중단된 마을 공간은 순수하지 못한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공간을 영리사업으로 바꾸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물론 모든 마을 활동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을 활동에 대해 모르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분들이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마을 만들기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조성되는 커뮤니티 공간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속력을 갖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경숙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마을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음세대, 우리 자식세대가 조금 더 편안한 세상 사람냄새 나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냄새 안나요 마을 만들기가 많이 퇴색이 돼서 이전보다 운영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인 것만 해결돼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것만 돼서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흥이 나는 취미 공간, 황골 벽산풍림아파트 단지의 '음악동호회실'

영통동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인 봉영로 양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봉영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황골마을은 오래되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황골마을(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는 보기 드문 커뮤니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음악연주실이다.

입주 초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송성돈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음악동호회실을 제안하였다. 아파트 입주 초기에 색소폰 부흥으로 아파트 내 악기연주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다고 한다. 이웃 간의 불화와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음악실을 조성할 마땅한 커뮤니티 시설이 없던 탓에 송성돈 노인회장은 유휴공간을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 지하주차장의 램프 하부공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음악동호회실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황골(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
(김승일 제공)



송성돈 내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이해서가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바꿀 순 없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예 안 쓰는 공간, 방치된 공간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비하고 내 사비를 조금 보태서 바닥이랑 방음공사를 하게 된 거죠. 또 음악동호회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관리비 문제로 민원을 낼 수 있으니까 공간을 만들 당시에 계량기를 달아서 “우리가 사용한 건 우리가 내자.”라고 했죠. 동호회회원들에게 회비를 건어서 관리비 내고 하는 거죠.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웃음)



황골(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 음악동호회실



황골(2단지) 벽산풍림아파트 단지 음악동호회실 음향장비

음악동호회실 공간을 조성하고 1년간 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지만 악기를 파트별로 구성하려다 보니 참여가 적어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악동호회실에서는 사물놀이, 합창단, 색소폰,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주민들 스스로 가르치며 배우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씩 오는 가을 음악회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로당에서 음악 재능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음악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야유회도 가며 악기연주발표도 했다. 벽산풍림아파트 음악실의 장점은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 아무 때나 와서 음악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 맞는 회원들은 모여서 연습하거나 개인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새벽에 혼자 와서 연습하기도 한다.

송성돈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춰 연습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을 한 거죠.

참여 연령대도 다양해요. 25살 직장인부터 노인 분들까지 악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습하고, 또 집에서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없는 악기연주를 여기 와서 편안하고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쉬운 것은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칩이 나올 수 있는 악기연주나 목소리를 내는 사물놀이와 같은 활동은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 운영을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벽산풍림아파트 음악동호회실은 단원들의 개별 연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였다. 음악동호회실 이용이 중단되어 있을 동안 송성동은 음악동호회실에 노래방기계를 비치하였다고 한다.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을 운영할 계획이며, 동호회 회원들과 빠른 시일 내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 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3) 온기 가득 열정 가득, 신나무실 신원미주아파트 단지의 '신원미주문화센터'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 단지의 신원미주문화센터 공간

2000년도 1월 입주를 시작한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의 관리동 지하에는 문화센터 공간이 현재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 20년이 넘는 시간으로 인해 문화센터 공간은 낡고 오래된 시설이 되었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신원미주아파트 공동체는 문화센터 공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수원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응모하였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약 한 달간 리모델링 공

사를 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던 환기·방음시설과 냉난방기 설치와 바닥재 교체를 통해 3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되었다.

공간 개편 후 프로그램도 다변화되었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에어로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댄스스포츠, 요가, 에어로빅, 키즈 음악줄넘기 등의 여러 취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다양한 연령대와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센터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었다. 신원미주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직접 강사들을 섭외하고, 요일과 시간대를 나눠 프로그램을 계획

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센터 공간은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공간 대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악기를 불고 싶은데 소음이 걱정되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화센터 공간을 대여하여 악기연습을 할 수 있다. 문화센터의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총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공동체가 팀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신원미주아파트 단지를 오랫동안 관리해 온 박옥금 관리소장은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께서 잘 이용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박옥금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전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나바다 행사나 벚꽃축제 등을 진행했었는데 문화센터공간을 개선하면서부터 아파트 축제나 행사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공동체 활동 하였던 주민들이 축제나 행사날에 부침개를 부쳐서 원가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한 번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 단지 전경
(김승일 제공)



신나무실(6단지) 신원미주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옆 북카페 공간

벚꽃축제날 저희 문화센터 댄스스포츠 팀의 참여해 공연도 하고 아이들이 음악줄넘기 공연도 하면서 대상도 받았어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운영이 조금 힘들더라도 좋아하시는 주민들을 보면 보람도 있고 또 주민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 주세요.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의 합이 잘 맞아서 지금까지 잘 활용되는 것 같아 감사 할 따름입니다.(웃음)



신원미주아파트 힐링 텃밭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운영을 중단했지만 개별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공간대여를 신청하여 이용하기도 했다. 2022년 5월에는 문화센터 운영을 재개하였다.

문화센터 개선 후 활용이 높아진 것을 체감한 박옥금은 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사무소 옆 운영이 저조하던 문구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집에 손님이 오거

나 주민들끼리 모여 수다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현재 코로나 유행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마을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로 북카페 공간에서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활동으로 2022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아파트 힐링텃밭 교육 참여사업에 지원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있는 마을텃밭을 조성하고 텃밭 가꾸기를 원하는 주민들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박옥금 저희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간이 주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부

리는 그간 사용하지 못했던 북카페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요. 앞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원미주아파트 주민 공동체와 관리사무소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신원미주아파트의 문화센터와 북카페, 힐링텃밭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 되면서 이웃 간의 교류에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 정을 느끼고 있으며 신원미주아파트가 가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3.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아파트 커뮤니티 활동

· '마을을 기록하는 아파트 속 마을 방송국'

영통동 아파트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이어받아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자체적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다.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현 영통에듀파크)에 사는 입주민들 몇몇이 모여 아파트 공동체인 '한뼘'을 결성하였고 라디오를 통한 마을미디어 활동을 꿈꿔 나갔다. 하지만 그 당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와 공간이 없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공간을 알게 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해 관리동 지하에 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뼘은 공동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얻은 뒤, 회원들과 함께 직접 공간을 청소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시작한 커뮤니티 활동은 어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였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거나 비누 만들기, 역사공부, 뜨개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을 넓혀 나갔다.

한뼘이 진행한 여러 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은 라디오특강이었다. 수원미디어센터를 통해 1주일에 1회 총 8회차 동안 마을미디어 심화교육을 받으면서 마을미디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한뼘은 2019년 수원시속가능도시재단의 주민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라디오영통'을 개국하게 되었다. 라디오 부스로 활용되는 공간은 방음벽이 설치되고 라디오 방송 장비 등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라디오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최초 아파트 단지 내 방송실이 조성되었다. '라디오영통'은 4개의 팀(나의 사춘기에게, 비정상회담, 그림책라디오, 즐거운 영통생활)으로 구성되며 각 팀이 주제에 맞는 대본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송을 제작하고 나머지 팀은 방송 준비나 기타 도움을 주는 방식



마을라디오 영통 방송실(『아파트관리신문』, 2019)



한뼮 활동 게시판(『아파트관리신문』, 2019)

으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라디오 방송은 팟빵,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방송에 참가하는 게스트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섭외하며 아이들이 라디오의 게스트로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뽐내기도 한다.

‘라디오영통’은 방송만 제작하는 방송국만이 아니라 마을미디어 활동을 주제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 ‘라디오영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통동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한뼮이 커뮤니티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해에는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주최한 ‘20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에서 영상부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한뼮의 ‘라디오영통’은 영통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디오영통’만의 또 다른 특별한 경험으로는 영통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제5회 커피축제’에 부스를 배정받아 공개방송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영통 차 없는 거리 축제’와 ‘반달공원 커피축제’ 등의 수원시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활동을 이어 갔다. 한뼮 회원들은 축제의 전반적인 음악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도 진행하며 주민들과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청명마을 벽산아파트의 ‘한뼮’은 영통동 아파트 마을공동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더 많은 아파트 단

지 내 커뮤니티 활동이 확산되기 위해서 수원시는 더 많은 지원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공간들의 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영통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람 냄새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남길 희망해 본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04

“아동들의 행위 공간은 장소가 된다.”

: 영통동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장소¹⁾

1. 아동들의 행위 공간과 장소 조사

산업화 이후 태어나서 자라던 곳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게 되었다. 도시인 대부분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나는 직업의 특성상 주민들을 만나 도시와 마을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많다. 그들에게 마을과 도시에 대해 ‘어떻게 해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는 것이었다. 특히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고향의 봄’은 몇 소절 부르면 여러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 울긋 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와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삶을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남아 있는 장소가 있다. 함께했던 사람들, 동물 또는 혼자만의 사색을 위한 장소 등 각양각색의 공간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고향이 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는 2020년 공동주택이 약 73.7%이며, 특히 아파트가 전체의 59.1%로 주요한 일상생활 공간이 되었다. 아동들의 경우 사회·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요 활동 공간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아동들이 또래집단과 다양한 행위를 하며 그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을 만드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의 변화는 아동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이러한 행위의 변화는 장소의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0년 전에는 없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PC방이 대중화된 시대에 아동들의 몇몇 행위들은 영향을 받고 사라졌을 것이다. 어떠한 아동들의 행위들이 아파트라는 주거지에서 나타나고 장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데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통동 아파트 거주 아동들의 행위와 장소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대상지인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에는 인근에 영통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안에는 근린공원과 중앙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1990년대 조성되었다.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1,616세대와 신나무실마을 주공아파트 1,504세대로 총 3,12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영통초등학교는 2015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특수학급(1)을 포함하여 29개 학급 총 77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2022년 특수학급(1)을 포함하여 20개 학급 총 486명으로 2015년 대비 63.1% 수준으로 학생수가 줄었다.

SRI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김승일 제공)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센터



영통동 신나무실(5단지) 위치



1	2
3	4
5	6

1.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광장 2.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농구장 3. 531동 옆 놀이터
4. 광장에 면한 놀이터 5. 단지 내 상가 6. 관리사무소 및 어린이집

1	2
3	4
5	6

1. 보행자전용도로 2. 배드민턴장 3-4. 근린공원
5-6. 영통동 신나무실 6단지 놀이터 전경

<표 1> 2022년 영통초등학교 학생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특수학급
학급수	3	3	3	4	3	4	20	1
학생수	남	46	43	35	49	38	259	2
	여	33	38	32	39	35	221	4
계	79	81	67	88	73	92	480	6

자료 : 영통초등학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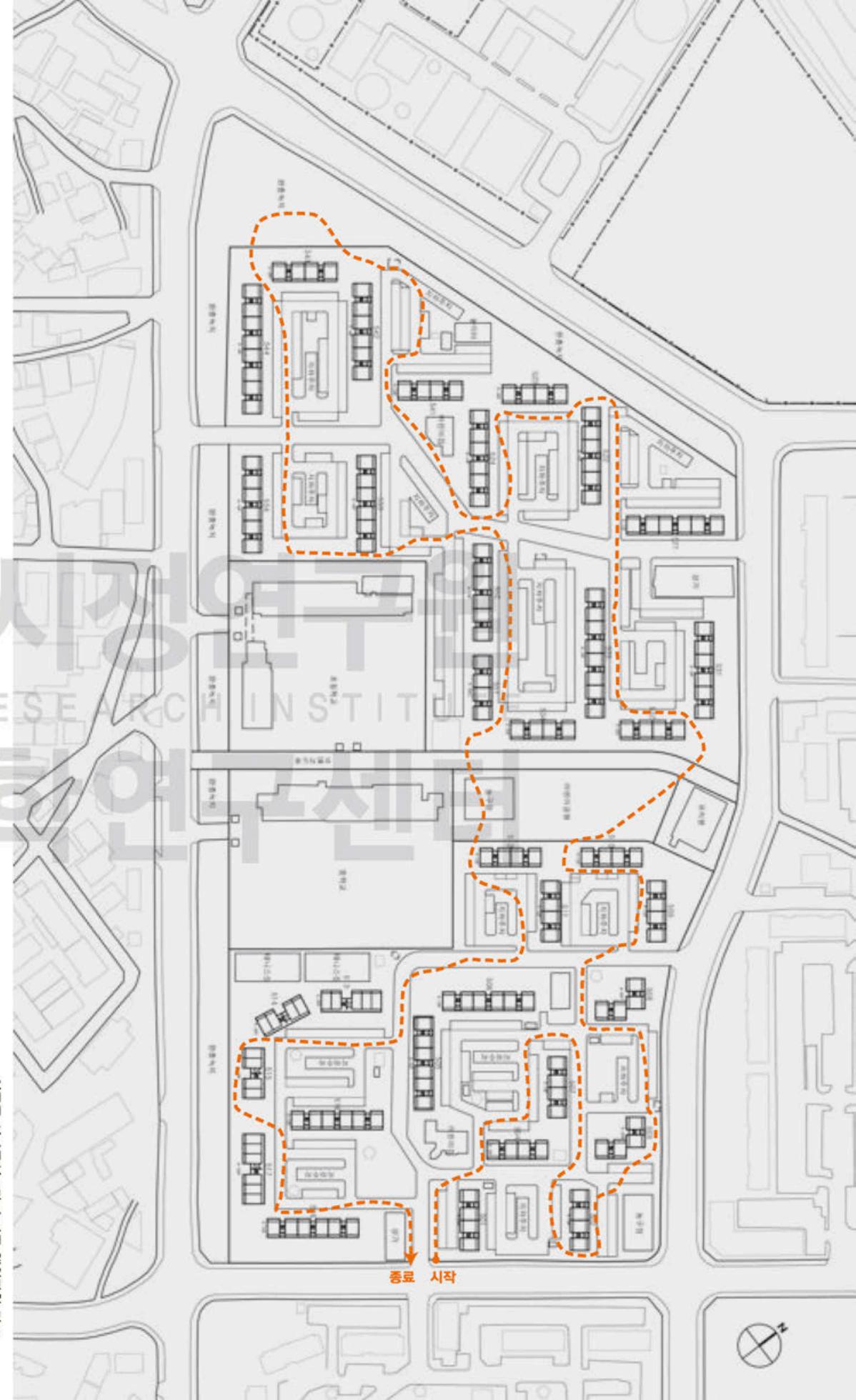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지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커다란 물리적 환경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다만 인근 영통동 신나무실 6단지에 소재한 대규모 어린이공원으로 인하여 아동들의 장소와 행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다음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아동행위관찰과 인터뷰 자료가 있는 대상지와 이 여건과 비슷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아동행위 관찰조사를 수행하였다. 관찰은 행위지도와 사진촬영을 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외부공간의 모든 부분을 시각적으로 관통하는 행위관찰경로를 결정하는 관찰경로법(observation route method)을 택하여 경로를 따라 단지별로 매회 한 차례 관찰 및 자료기록, 관찰시기를 달리하여 총 5회 반복하였다. 행위 관찰을 구체적으로 2015년 6~9월에 14~19시, 2022년 11월 토요일 오후 관찰하였는데 단지 관찰시기 및 경로의 임의배분(time sampling, route sampling)을 하였다. 단지 배치도에 행위 위치를 표기하고 행위 메모, 사진 촬영, 아동의 연령 및 성별을 표기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연구실에서 주제에 대한 토의 및 연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현장에서 연구자에 따른 상이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아동들에게 중요한 장소와 그 이유에 대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단지 외부공간에서 놀이를 하거나 단순통행 또는 등하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개별 접근하여 연구목적 설명 후 개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각 개인별 20분 내외의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크게 3개 문항 면담 및 필요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면담 문항으로는 “단지 내외부 여러 곳 중에서 일상생활에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가 있는가?”,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응답에 따라 배치도에 위치를 파악하여 기록 및 표기하였다. 다음 질문으로는 “왜 그 장소가 중요한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 하였다. 이는 각 장소에 대한 아동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소를 조사하는 데 여러 가지 용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가치 있는 장소, 좋아하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 중요한 장소 등을 조사하였다. 장소를 연구하는 데에 이러한 용어들은 엄밀하게 사전적, 인식론적

수원시정원연구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원연구소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관찰 경로



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아동들에게 이는 모두 비슷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Korpela의 경우는 좋아하는 장소를 조사할 때 연구대상들에게 그들의 중요한 장소를 기술하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고,² Gustafson의 경우에는 중요한 장소를 조사하고 이를 다시금 의미 있는 장소들로 치환함으로써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³

이 조사의 주된 방법은 가장 자연스럽게 현실감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인터뷰의 형식은 개방식 면담(open ended interview) 형식을 취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직접 기록하였다.

2.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행위

행위관찰은 사전에 아동들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고, 평일과 주말로 요일을 구분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을 배분하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2015년 총 199건의 행위를 관찰하였다. 2022년 주말인 토요일 오후 관찰로 32건의 행위를 추가 관찰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행위 관찰은 행위변화를 직접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며, 주변 환경 변화와 함께 대략적인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한 자료는 2015년 조사에 한정되어 있다.

관찰된 아동들은 남성이 124명(62.3%)이며, 여성이 75명(37.7%)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8~10세)의 아동들이 주거지 외부공간에서 전체의 78.4%로 나타났으며, 특히 8세 아동들이 40.2%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표 2).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행위관찰에서 혼자서 하는 행위가 56.3%로 나타났으며, 2명이 30.2%로 2명까지 행위인원 규모가 86.4%로 나타났다(표 3).

총 199건의 행위 중에서 단순 이동이 77건(3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탈것을 타는 놀이가 53건(26.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성이 강한 2건의 행위가 128건(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행위가 28건(14.1%)로 나타나고 있다(표 4).

행위를 함께한 동료들을 살펴보면 혼자서 하는 행위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와 하는 행위가 38.2%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형제들인 가족은 20.1%로 나타났다(표 5).

<표 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관찰 대상 연령 및 성별

구분		연령						전체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남	빈도수	39	32	19	16	13	5	124
	비율(%)	19.6	16.1	9.5	8.0	6.5	2.5	62.3
여	빈도수	41	9	16	5	2	2	75
	비율(%)	20.6	4.5	8.0	2.5	1.0	1.0	37.7
전체	빈도수	80	41	35	21	15	7	199
	비율(%)	40.2	20.6	17.6	10.6	7.5	3.5	100.0

<표 3>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행위인원 규모

구분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구분	빈도수	비율(%)	누적 비율(%)
1명	112	56.3	56.3	6명	2	1.0	98.0
2명	60	30.2	86.4	7명	1	0.5	98.5
3명	13	6.5	93.0	8명	2	1.0	99.5
4명	6	3.0	96.0	9명	1	0.5	100.0
5명	2	1.0	97.0	합계	199	100.0	

<표 4>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관찰 결과

구분	빈도수	비율(%)	구분	빈도수	비율(%)
공놀이	11	5.5	자연놀이	4	2.0
놀이터 놀이	28	14.1	장난감 놀이	7	3.5
사회모임	17	8.5	탈것	51	25.6
역할놀이	2	1.0	휴식	2	1.0
단순 이동	77	38.7	계	199	100.0

<표 5>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행위 동료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가족	형제	9	4.5	친구	76	38.2
	부모	31	15.6	혼자	83	41.7
	계			계	199	100.0



수원
SUWO
수원



1	2
3	4
5	6

1-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탈것
3-4.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장난감 놀이
5-6.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단순 이동

1	2
3	4
5	6

1-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놀이
3-4.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공놀이
5-6.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사회모임



1-2.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이동
3-4.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놀이터 놀이

1	2
3	4

행위하는 아동들의 성별에 따라서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자 아동의 경우는 공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 아동의 경우는 놀이터 놀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6>.

연령에 따른 아동들의 행위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학년(8~10세)은 놀이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8세 아동은 놀이터 놀이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9세 아동은 장난감 놀이와 탈것, 10세 아동은 탈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학년이라 할 수 있는 11세에서 13세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이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11세 아동들은 공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고, 12세 아동들은 사회모임이 높게 나타났다<표 7>.

1 2 1-2.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탈것
3 4 3-4.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사회모임
5 6 5-6.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장난감 놀이

<표 6>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성별에 따른 아동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남	빈도수	11	6	8	1	52	4	6	35	1	124
	비율(%)	8.9	4.8	6.5	0.8	41.9	3.2	4.8	28.2	0.8	100.0
여	빈도수	0	22	9	1	25	0	1	16	1	75
	비율(%)	0	29.3	12.0	1.3	33.3	0	1.3	21.3	1.3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표 7>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연령에 따른 아동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8세	빈도수	1	20	8	1	28	1	2	19	0	80
	비율(%)	1.3	25.0	10.0	1.3	35.0	1.3	2.5	23.8	0	100.0
9세	빈도수	3	4	3	1	11	2	4	13	0	41
	비율(%)	7.3	9.8	7.3	2.4	26.8	4.9	9.8	31.7	0	100.0
10세	빈도수	2	2	3	0	14	1	0	11	2	35
	비율(%)	5.7	5.7	8.6	0	40.0	2.9	0	31.4	5.7	100.0
11세	빈도수	4	2	0	0	11	0	1	3	0	21
	비율(%)	19.0	9.5	0	0	52.4	0	4.8	14.3	0	100.0
12세	빈도수	1	0	3	0	7	0	0	4	0	15
	비율(%)	6.7	0	20.0	0	46.7	0	0	26.7	0	100.0
13세	빈도수	0	0	0	0	6	0	0	1	0	7
	비율(%)	0	0	0	0	85.7	0	0	14.3	0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행위를 함께한 동료에 따라서 행위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는 사회모임과 이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제의 경우는 놀이터 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와 함께하는 경우는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모임이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인 경우는 이동과 탈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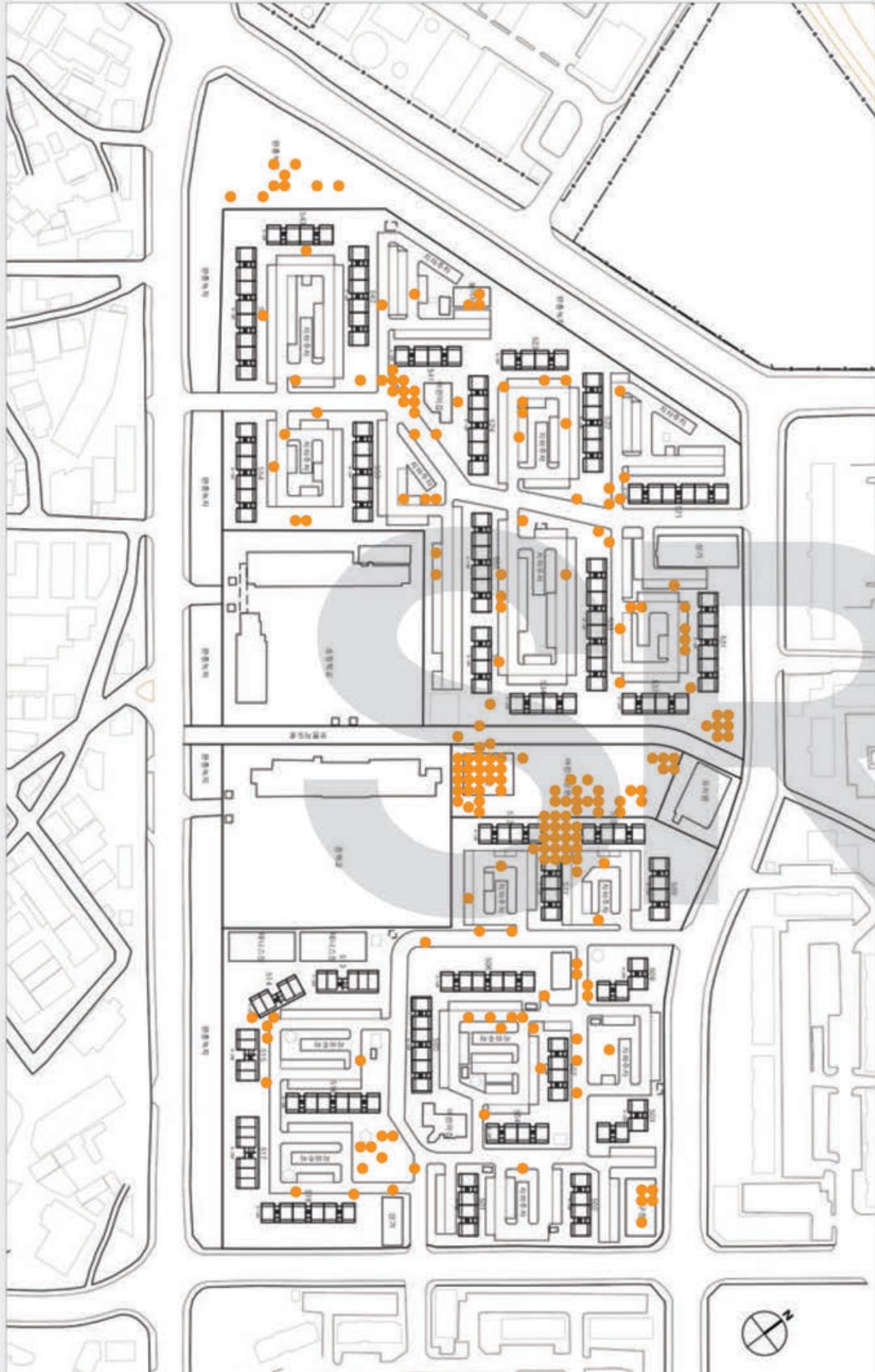
행위 참여인원에 따른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혼자인 경우 이동과 탈것이 높게 나타나며, 2인의 경우 놀이터 놀이, 3인의 경우는 공놀이가 높게 나타났다(표 9).

<표 8>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함께한 사람에 따른 아동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부모	빈도수	0	3	6	0	19	0	0	3	0	19
	비율(%)	0	9.7	19.4	0	61.3	0	0	9.7	0	100.0
형제	빈도수	0	5	1	0	2	0	0	1	0	9
	비율(%)	0	55.6	11.1	0	22.2	0	0	11.1	0	100.0
친구	빈도수	10	18	10	2	20	3	4	8	1	76
	비율(%)	13.2	23.7	13.2	2.6	26.3	3.9	5.3	10.5	1.3	100.0
혼자	빈도수	1	2	0	0	36	1	3	39	1	83
	비율(%)	1.2	2.4	0	0	43.4	1.2	3.6	47.0	1.2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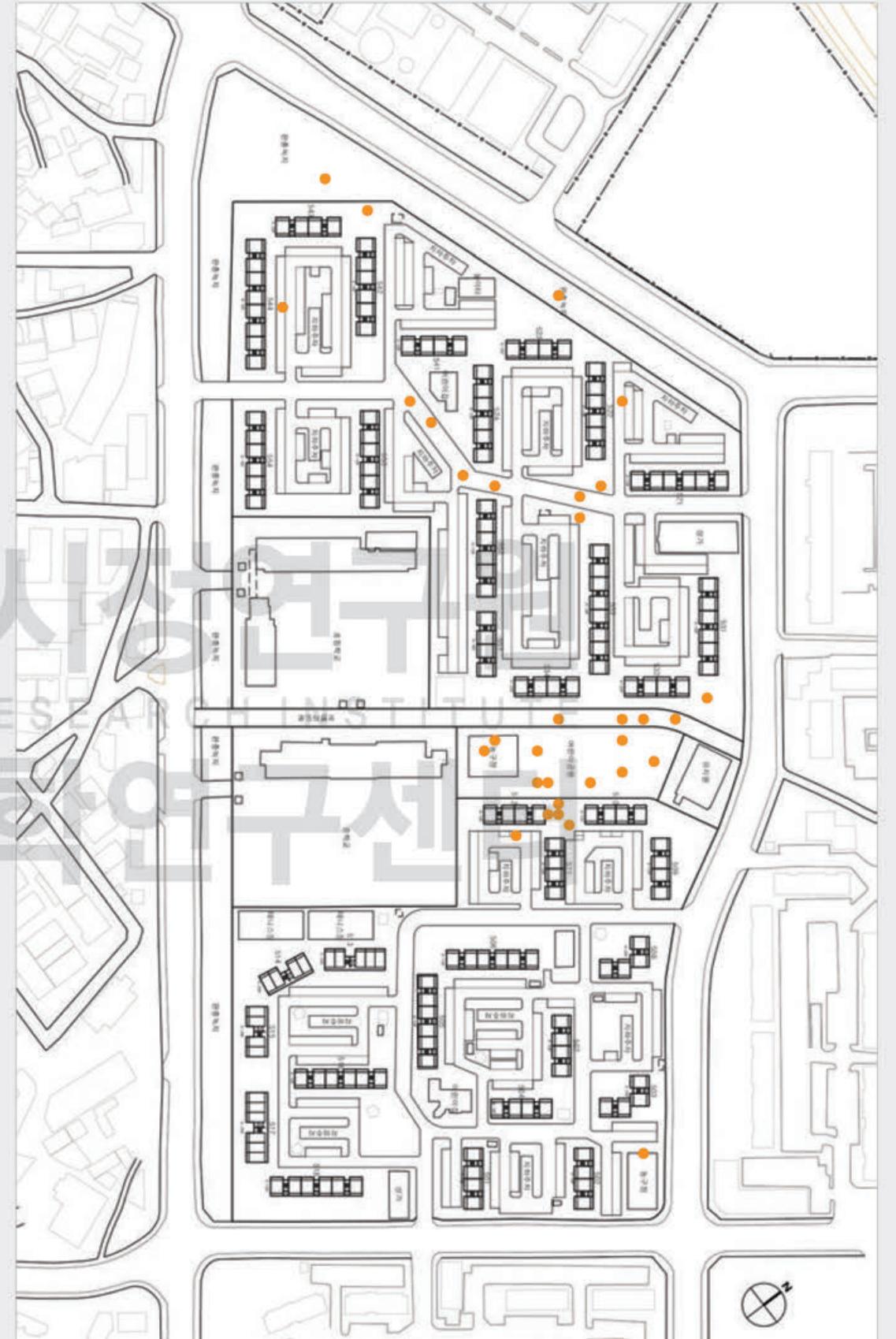
<표 9>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참여인원에 따른 행위

구분	공놀이	놀이터 놀이	사회 모임	역할 놀이	이동	자연 놀이	장난감 놀이	탈것	휴식	전체	
1명	빈도수	1	5	5	0	54	1	3	42	1	112
	비율(%)	0.9	4.5	4.5	0	48.2	0.9	2.7	37.5	0.9	100.0
2명	빈도수	3	20	8	1	19	0	2	7	0	60
	비율(%)	5.0	33.3	13.3	1.7	31.7	0	3.3	11.7	0	100.0
3명	빈도수	4	2	0	0	3	2	0	1	1	13
	비율(%)	30.8	15.4	0	0	23.1	15.4	0	7.7	7.7	100.0
4명	빈도수	1	1	1	0	1	1	0	1	0	6
	비율(%)	16.7	16.7	16.7	0	16.7	16.7	0	16.7	0	100.0
5명	빈도수	0	0	2	0	0	0	0	0	0	2
	비율(%)	0	0	100	0	0	0	0	0	0	100.0
6명	빈도수	0	0	0	0	0	0	2	0	0	2
	비율(%)	0	0	0	0	0	0	100	0	0	100.0
7명	빈도수	1	0	0	0	0	0	0	0	0	1
	비율(%)	100	0	0	0	0	0	0	0	0	100.0
8명	빈도수	1	0	0	1	0	0	0	0	0	2
	비율(%)	50.0	0	0	50.0	0	0	0	0	0	100.0
9명	빈도수	0	0	1	0	0	0	0	0	0	1
	비율(%)	0	0	100	0	0	0	0	0	0	100.0
전체	빈도수	11	28	17	2	77	4	7	51	2	199
	비율(%)	5.5	14.1	8.5	1.0	38.7	2.0	3.5	25.6	1.0	100.0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 발생 위치

수원시청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센터



2022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 행위 발생 위치

3.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장소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5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03곳의 장소를 중요한 장소로 도출하였다. 남자 아동 28명(48.3%)과 여자 아동 30명(51.7%)을 대상으로 도출되었으며, 평균 1.78개의 장소를 응답하였다. 최대로 응답한 아동은 4곳의 장소를 응답하였고,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9.8세 이다.

<표 10>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인터뷰 대상 일반 현황

구분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전체
남	빈도수	7	6	7	1	4	3	28
	비율(%)	12.1	10.3	12.1	1.7	6.9	5.2	48.3
여	빈도수	10	6	2	6	4	2	30
	비율(%)	17.2	10.3	3.4	10.3	6.9	3.4	51.7
전체	빈도수	17	12	9	7	8	5	58
	비율(%)	29.3	20.7	15.5	12.1	13.8	8.6	100.0

58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장소인터뷰 결과 총 103곳의 장소가 아동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아동들의 중요한 장소는 집(26.2%)이며, 다음으로 학교(14.6%)가 높게 나타났다. 중앙의 어린이 공원이 5.8%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선 두 곳과 비교적 차이가 나고 있다.

<표 11> 인터뷰 데이터

구분	성별	나이	인터뷰 내용
1	여	10	중요한 장소에 그냥 놀이동산이요, 에버랜드 같은 데요. 집안에 강아지랑 놀아요. 2살이예요. 집 말고는 없어요.
2	남	10	집이요. 집에서 민서랑 장난감 가지고요. 딱데 있죠. 놀이터요. (8번구역) 민서랑 같이 놀아요.
3	남	10	집이요. 동생이랑 같이 티비요. 아빠 회사요. 아빠가 회사에 안 나가면 월급이 없으니깐요.
4	여	11	집이요. 그냥 놀아요. 학교? (영통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노는 거요.
5	여	11	화장실이요. 불일 봐야 돼서요. 놀이터. 아무놀이터나 학교요 (영통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서요.
6	여	11	학교요 (영통초등학교) 친구랑 같이 노는 거요. 학원이요. 태권도 학원. 1년 넘게 다녔어요.
7	남	10	학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하고 축구하는 거요. 집앞 놀이터? (5번구역)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놀아요.
8	남	10	집이요. 혼자 컴퓨터 하면서 놀아요. 롤이요 (게임이름). 저도 학교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거?
9	남	10	학교 축구장이요. 친구랑 같이 축구하는 거요. 없어요.

구분	성별	나이	인터뷰 내용
10	여	8	피아노 학원이요.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깐요. 일주일에 3번가요. 집이요.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11	남	9	학교? (영통초). 친구들이 많아서요. 학교 말고는 집앞 놀이터요 (10구역). 그냥요 (웃음). 그네 타면서 놀아요.
12	남	7	(12번 동생) 놀이터요. 저기 뒤 놀이터요 (10구역) (재질문) 집이요. 형이랑 같이 놀아요.
13	남	13	중요한 장소면 집? 집엔 가족들이 있으니깐요. 컴퓨터 해요. 아파트 안에서는 저기서 많이 봐요. (23구역) 친구들이랑 거기서 자주 봐요.
14	여	11	집? 집 말고는 학원? 미술학원이요. 친구들이랑 그림 그리는게 좋아요. 학교도 좋아요 (영통초) 친구들 때문예요.
15	여	11	공원이요. 저기 끝에 있는 공원이요. (17구역) 엄마랑 자주 나가요. 놀이터? 집 옆에 놀이터요. (27구역)
16	남	8	태권도 학원이요. 태권도 배울 수 있어서요. 공원이요. 저쪽 공원이요. (9, 22구역) 자전거 탈 수 있어서요.
17	여	9	학교랑 집이요. 집은 쉴 수 있고 학교는 가야 돼서요. 놀이터? 그냥다요 (특별한 데 있어?) 몰라요.
18	남	7	놀이터요 (8번구역)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요. 슬래집기요. 주차장이요. 아빠차가 있어서요 (22구역)
19	여	12	학교요 (영통초) 친구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요.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해요. 집? 가족이 있으니깐? 강아지랑 같이 놀아요.
20	남	8	학교(영통초). 집. 학교는 공부하니깐. 집은 우리가 사니깐. (재질문) 없어요.
21	남	7	집. 그쪽에 장난감이랑 엄마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는 없어요.
22	남	7	유치원. 거기에 선생님이랑 장난감이 있어서. 아파트에는 없어요.
23	여	9	집. 가족들이 있어서.
24	여	7	유치원. 친구들. 엄마 아빠 놀이. 다른 데 모르겠어.
25	여	9	집. 가족들이 있어서. 놀구 책보고. 놀이터. 저기 (9번구역) 친구들과 그네타고 철봉해요.
26	여	8	집이요. 언니랑 엄마 아빠가 있어서요. 우리집 앞 놀이터요. (8번) 친구들이랑 미끄럼틀
27	남	11	학교요 (영통초) 학교에는 친구들도 많고 축구도 할수 있어서요. 다 큰데요? 저기 놀이터요. (어머니 : 공터) 공터요. 아빠랑 야구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해요.
28	여	13	집. 집에서 잠. 티비도 볼수 있어서요. 별로 없어요.
29	여	13	전 에버랜드요. 엇그제 가족끼리 갔다왔어요. 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깐? (재질문) 몰라요.
30	남	9	집. 당연히 아늑하니깐. 친구집이요. 집에서 닌텐도 할 수 있어서요.
31	남	9	터닝메카드요 자동차요. 장난감이요. 집에서 닌텐도. 별의 커비(게임이름)
32	여	10	학교요. 아니 아니 학원이요. 피아노학원. 피아노 칠 수 있으니깐? 집 주변엔 없어요.
33	여	9	놀이터 (19구역) 놀 수 있으니깐. 친구들이 있어서.
34	남	9	집. 엄마아빠가 있어서. 여기 (놀이터 19구역) 재미있으니깐. 그녀가 재미있어서.
35	남	8	영동이요 (강원도 영동인 듯) 강아지가 있어서. 학교 안전하니깐. 부엌 밥 먹으니깐. 나무공원 나무공원은 아무도 모름.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와도 못 찾음. 줄넘기장 (8구역) 줄넘기 하는 것이 좋아서.
36	남	8	음식점. 밥 먹으니깐요.
37	남	12	집이요. 가족이 있어서. 포근한 느낌.

구분	성별	나이	인터뷰 내용
38	남	12	진주. 태어난 곳이어서. 롯데마트. 가장 좋아하는 곳. 초록공원 농구장 놀이터 가 있어서. 매일 놀아서.
39	여	12	부여. 할머니가 사는 곳이라서. 학교.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고백을 해서.
40	남	12	놀이터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요.
41	여	12	수영장이요. 수영을 좋아해서요.
42	남	12	축구장이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서.
43	여	8	신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깐 (신천에서 살다가 음) 놀이터 (24구역) 모래도 있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아서. 학교.
44	여	8	인천. 살다 온 곳이어서. 집이요. 가족이 있어서? 또 맨발공원이요. 내가 좋아하는 물도 있고 그러니까.
45	여	8	연무동. 많이 살다왔고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집. 가족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어서.
46	남	8	저 뒤에 (23구역) 많이 놀아요. 풀이랑 그런것들. 바닷강. 물속 안에서 놀았음.
47	여	8	에버랜드. 재미있고 수영장에 장애물이 많아서.
48	여	8	없어요. 재미있는 곳이 없어요.
49	여	8	에버랜드. 놀이터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어서. 한국민속촌. 옛날 영화를 봤었음.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50	여	8	미술학원. 재미있어서.
51	여	8	맨발공원 물놀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음.
52	여	11	놀이터요. (5번구역) 친구들이랑 자주 오고 놀 게 많아요. 집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요.
53	남	10	학교 축구장이나 여기요 (5번구역 농구장) 친구들이랑 축구나 농구를 할 수 있어서? (재질문) 학교요.
54	남	10	집이요. 집이니깐?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깐요.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깐.
55	남	8	공원. 저기 위요. (맨발공원) 자주 가요. 엄마 아빠랑. (재질문) 몰라요.
56	여	9	외할머니 덕이요. (서울)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놀이터. 집앞이요. (10구역)
57	남	7	유치원. 장난감이랑 친구들이 많아서요. 집. 엄마 아빠가 있어서요.
58	여	12	학교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해야 돼서. 아파트에선 모르겠어요.
59	남	13	인계동이요. 거기서 살다오고 친구들도 많아서. (재질문) 다 좋은 거 같아요. 딱히 없어요.
60	남	13	전 학교요. 친구들 때문이에요. 학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놀 수 있어서. 맨발공원. 그냥 보기 좋아요.
61	남	9	산이요. 아빠가 산을 좋아해서 자주 가요. (이름은 잘 모르는 거 같다) 공원? (8, 23구역) 놀 수 있으니깐? 자전거 타요.
62	여	9	집이요. 가족들이랑 있을 수 있고 자고 먹고 할 수 있어서요. 놀이터? 그냥 아무데나요.
63	여	8	놀이터요! (8구역) 놀게 많아서요. 집이요. 집이니깐.
64	남	7	유치원 ㅋㅋ 장난감이 많아서. 주차장. 자동차가 많아서.
65	남	9	학교랑 집이요. 학교는 친구들이 많아서고 집은 내가 사는 곳이니깐요.
66	여	7	집이요. 집이 좋아서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있어서.
67	여	7	놀이터요 (9구역) 놀게 많아서. 그네 타요. 유치원? 친구들이 많아서.
68	남	7	저기 공원 (23구역) 축구 할 수 있어서요. 축구 좋아해요. 축구장. 저번에 아빠랑 축구 보러 갔어요.

<표 12> 2015년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연번	장소	빈도수	비율(%)	연번	장소	빈도수	비율(%)
1	503뒤 놀이터	2	1.9	21	연무동	1	1.0
2	503뒤 농구장	1	1.0	22	영동	1	1.0
3	510옆 놀이터	4	3.9	23	외할머니집	1	1.0
4	517옆 놀이터	1	1.0	24	유치원	1	1.0
5	531옆 놀이터	1	1.0	25	음식점	1	1.0
6	554앞 놀이터	2	1.9	26	인계동	1	1.0
7	나무공원	1	1.0	27	인천	1	1.0
8	놀이동산	4	3.9	28	주차장	1	1.0
9	놀이터	2	1.9	29	진주	1	1.0
10	도시	1	1.0	30	집	27	26.2
11	마트	1	1.0	31	초록공원	1	1.0
12	맨발공원	5	4.9	32	축구장	1	1.0
13	미술학원	2	1.9	33	친구집	1	1.0
14	민속촌	1	1.0	34	태권도 학원	2	1.9
15	산	1	1.0	35	피아노 학원	1	1.0
16	수영장	2	1.9	36	학교	15	14.6
17	신천	1	1.0	37	학교 운동장	4	3.9
18	아빠 회사	1	1.0	38	학원	1	1.0
19	어린이공원	6	5.8	39	화장실	1	1.0
20	어린이공원 옆 놀이터	1	1.0		합계	103	100.0

장소 유형을 살펴보면 집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동체시설 27.2%로 나타났다. 내부 장소라 할 수 있는 집과 시설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외부공간인 놀이터 및 운동장, 공원 및 녹지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13>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유형

장소유형	빈도수	비율(%)	장소유형	빈도수	비율(%)
공동체시설	28	27.2	놀이터 및 운동장	19	18.4
공원 및 녹지	18	17.5	집	35	34.0
기타 오픈스페이스	3	2.9	합계	103	100.0

아동들의 응답을 민병호 외(2006)의 연구에서 분류한 장소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장소의 의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23.3%)이며, 다음으로 소속감과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21.4%로 나타났다.

<표 14>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의미

장소 의미	빈도수	비율(%)	장소 의미	빈도수	비율(%)
자주이용	6	5.8	원하는 행위에 적합	22	21.4
생활에 중요	10	9.7	소속감	22	21.4
장소에서 놀이가 즐거움	8	7.8	물리적 특성 의존	9	8.7
재미있는 요소 존재	2	1.9	합계	103	100.0
심리적으로 중요	24	23.3			

장소의 유형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체 시설의 경우는 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과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원 및 녹지의 경우는 자주이용과 행위를 지원하는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놀이터 및 운동장의 경우는 장소에서 놀이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중요성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5> 장소 유형에 따른 장소 의미

구분		공동체 시설	공원 및 녹지	기타 외부공간	놀이터 및 운동장	집	전체
		빈도수	1	5	0	1	0
자주이용	비율(%)	3.6	29.4	0	5.3	0	5.8
	빈도수	5	0	0	0	5	10
생활에 중요	비율(%)	17.9	0	0	0	14.3	9.7
	빈도수	3	1	0	4	0	8
장소에서 놀이가 즐거움	비율(%)	10.7	5.9	0	21.1	0	7.8
	빈도수	0	1	0	0	1	2
재미있는 요소 존재	비율(%)	0	5.9	0	0	2.9	1.9
	빈도수	1	2	1	0	20	24
심리적으로 중요	비율(%)	3.6	11.8	20.0	0	57.1	23.3
	빈도수	4	4	2	5	7	22
원하는 행위에 적합	비율(%)	14.3	23.5	40.0	26.3	20.0	21.4
	빈도수	12	1	1	6	2	22
소속감	비율(%)	42.9	5.9	20.0	31.6	5.7	21.4
	빈도수	2	3	1	3	0	9
물리적 특성 의존	비율(%)	7.1	17.6	20.0	15.8	0	8.7
	빈도수	28	17	5	19	35	103
전체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의 장소 위치

4. 아파트에서 아동 행위와 장소 변화

: 분당 아파트와 영통동 아파트 비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는 시대가 흐르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일까? 개인의 일상적 삶에서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들은 변화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상징성이 강할수록 의미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주거지 일상생활 공간에서 장소들은 달라질 것인가? 이는 개인들의 중요한 공간들로 일부 친구 및 주변의 지인들과 그 의미를 공유하는 장소로 존재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호 등의 연구⁴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와 장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장소의 변화에 대해서 이석환 등의 연구⁵에서는 장소와 시간과의 관계는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의 성격은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물과 경관의 변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시간은 결국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지영 등의 연구⁶에서는 농경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놀이의 형태와 문화가 다중적인 방향을 가지고, 잉여에너지의 소모나 자연스러운 실체 활동인 동적 놀이에서 정서적, 인지적 형태의 문화로 놀이가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행위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혜경은 공원의 장소성 연구⁷에서 활용적 관점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장소성이 변화되거나 재생산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주체와 이용자들의 요구의 주장으로 장소성이 변화하고, 왜곡되는 과정을 겪기도 함을 주장하였다. 공원의 장소성 연구를 통하여 행위와 장소에 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 아동의 행위 변화

분당구 한솔마을 행위 발생의 건수가 2006년 조사에서는 222건의 행위를 관찰하였으며, 2015년에는 104건의 행위를 관찰하여 약 절반에 가까운 행위를 관찰하였다. 과거에 비하여 현재 아동들의 행위가 근린공원(농골공원)과 8자 놀이터(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그 빈도가 높지 않았지만 분산되어 있는 여러 놀이터에서의 행위들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및 정자 등에서 아동들의 행위를 관찰할 수가 없었다. 행위 위치를 살펴보면 보다 개방되고 놀이공간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또한 몇 개의 놀이터와 정자에서는 노인



2006년 분당구 한솔마을 아동 행위 발생 위치



2015년 분당구 한솔마을 아동 행위 발생 위치



2015년 영통동 신남무실 5단지 행위 발생 위치



2022년 영통동 신남무실 5단지 행위 발생 위치



분당구 한솔문구 앞 아동 행위(상 2006년, 하 2015년)

과 장애인들이 항시 앉아 행동하는 모습들이 관찰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것이 몇몇 공간에서 아동들의 행위를 관찰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과거 활발하게 행위가 관찰된 7단지 상가 주변의 공터와 주차장은 새로운 임대주택이 증축되면서 그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그 공간에서 아동들의 행위가 사라지게 만든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구점 앞에서 주로 관찰되던 다수의 아동들이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는 전자오락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한명이 오락을 하면 그 뒤에서 구경하며 이야기하는 아동들의 행위들은 더 이상 관찰할 수가 없었으며, 문구점 주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몇 번 오락기를 내놓았지만 아동들이 이용이 없어 치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게임의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과거 근린공원의 넓은 광장은 게이트볼장과 농구장 그리고 운동기구들의 설치로 인하여 자전거 등의 탈것을 타는 놀이가 해당 지역에서 현격하게 줄고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이용한 운동들이 관찰되고 있다. 근린공원에서 달라진 또 하나의 행위는 물놀이장의 설치로 인하여 유아와 저학년들이 여름철 물놀이가 관찰되는 것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연놀이가 과거에 비하여 그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외부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는 놀이(레슬링, 뛰기 등)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경의존적인 행위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환경독립적인 이동과 탈것의 행위의 비중이 현재에 와서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표 16> 분당구 한솔마을 행위 유형 변화 결과

구분	과거 빈도(%)	현재 빈도(%)	구분	과거 빈도(%)	현재 빈도(%)
공놀이	19(8.6)	9(8.7)	역할놀이	13(5.9)	1(1.0)
자연놀이	36(16.2)	5(4.8)	이동	21(9.5)	28(26.9)
놀이터 놀이	27(12.2)	16(15.4)	탈것	23(10.4)	18(17.3)
장난감 놀이	24(10.8)	7(6.7)	레슬링 뛰기 등 놀이	19(8.6)	-
사회모임	22(9.9)	17(16.3)	계	222(100.0)	104(100.0)
휴식	18(8.1)	3(2.9)			

2006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장소에서 행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행위는 공놀이와 놀이터 놀이, 자연놀이, 장난감 놀이였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장소에서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는 행위는 공놀이 하나의 행위 유형만 나타났다. 자연놀이와 장난감 놀이는 과거의 연구와는 다르게 장소 외부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행위들은 환경에 보다 의존적인 행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 연구에서 장소 외부에서 행위는 환경에 독립적인 이동과 탈것과 레슬링, 뛰기 등 놀이들이 관찰되었으나, 2015년 관찰에서는 장소 외부에서 이동, 자연놀이, 장난감 놀이, 휴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환경에 독립적인 이동이 과거와 같이 장소 외부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장소에 따른 행위 유형에서 과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공놀이와 이동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르게 나타난 자연놀이와 장난감 놀이는 과거 연구에서 특성을 환경의존적인 행위로 구분하였으나 그 구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난감 놀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은 특별히 장소의존적인 행위로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과거의 물총놀이나 전자게임과는 다른 형태의 장난감 놀이의 등장이 이러한 특성 구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당구 한솔마을 공간 변화(근린공원)

분당구 한솔마을과 비교(2006 vs 2015)하면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2015년과 비교하여 2022년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⁸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상당한 행위 위치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아동들의 장소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수준과 간략한 약식 관찰 조사에서 유추할 때 행위 위치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년 영통 초등학교 학생수가 2015년에 비하여 63.1% 수준으로 줄었다. 아동들의 절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변화(특히 노년층의 증가)가 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록 현재는 영통3동이 수원에서도 평균 나이가 젊은 축에 드는 지역⁹이나 앞서 살펴본 한솔마을과 같이 인구구조에 따른 외부공간의 변화(고령층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등)를 겪을 수 있다.

<표 17> 2015년 한솔마을 장소에 따른 행위 유형

구분		in	near	outside	전체
공놀이	빈도수	7	1	1	9
	비율(%)	77.8	11.1	11.1	100.0
놀이터 놀이	빈도수	7	0	9	16
	비율(%)	43.8	0	56.3	100.0
사회모임	빈도수	6	3	8	17
	비율(%)	35.3	17.6	47.1	100.0
역할놀이	빈도수	0	0	1	1
	비율(%)	0	0	100.0	100.0
이동	빈도수	1	3	24	28
	비율(%)	3.6	10.7	85.7	100.0
자연놀이	빈도수	1	0	4	5
	비율(%)	20.0	0	80.0	100.0
장난감 놀이	빈도수	1	1	5	7
	비율(%)	14.3	14.3	71.4	100.0
탈것	빈도수	6	8	4	18
	비율(%)	33.3	44.4	22.2	100.0
휴식	빈도수	0	1	2	3
	비율(%)	0	33.3	66.7	100.0
전체	빈도수	29	17	58	104
	비율(%)	27.9	16.3	55.8	100.0

비고 : 카이제곱=44.01, 자유도=16, p<0.01

2) 아동들의 장소 변화

우선 과거의 아동들의 장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2.44곳의 장소를 그들의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응답을 하였으나, 2015년 1.34곳을 장소로 응답하였다. 한 명의 아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 장소유형을 살펴보면 놀이터 및 운동장은 과거에 비하여 조금 낮아지고 공원 및 녹지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기타 오픈스페이스는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낮아지는 폭이 크며 공동체시설은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다.

놀이터 및 운동장에서 과거에는 8자 놀이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놀이터들이 아동들의 장소로 응답하였으나, 2015년은 몇 개의 놀이터 및 운동장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놀이터 및 운동장이 아동들로부터 의미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지의 문구점과 상가들이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되었으나 그러한 응답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문구점 1, 상가 1). 이는 문구점과 상점들이 아동들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구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상점 주변의 공터가 놀이터였던 시절과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구점의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전자오락기가 사라지고, 상점 옆의 공터와 주차장 역시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찾아온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우선 한솔마을 아동들의 행위를 살펴본 결과 이동(26.9%), 탈것(17.3%), 사회모임(16.3%), 놀이터 놀이(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독립적인 행위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관찰된 행위들은 4개 단지의 중앙에 위치한 8자 놀이터에 집중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행위들이 관찰되었다. 친구와는 주로 사회모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와는 놀이터 놀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부모와 혼자서 하는 행위는 주로 움직이면서 하는 행위인 이동과 탈것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아동들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사한 조건의 대상지로 선정된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아동들의 행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환경에 독립적인 움직이면서 하는 행위인 이동(38.7%)과 탈것(25.6%)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에 의존적인 놀이터 놀이(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솔마을 아동들의 장소는 65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87곳의 중요한 장소를 도출하였으며, 아동을 각각은 평균 1.34곳의 중요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곳은 8자 놀이터(18.4%)이며, 다음으로 능골공원(12.6%)과 학교(12.6%)로 나타났다. 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놀이터 및 운동장(39.1%), 공동체시설



장소 변화

(21.8%), 공원 및 녹지(19.5%), 집(11.5%), 기타 오픈스페이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장소의 의미로는 소속감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21.8%)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에는 주로 생활에서 중요하고 심리적 중요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학년에는 원하는 행위 그리고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소유형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공동체 시설의 경우 생활에서 중요하거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놀이터 및 운동장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행위위치는 과거에 비하여 농골공원과 8자 놀이터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관찰되었던 단지 내 소규모 놀이터에서의 행위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상가 주변(공터와 주차장)에서의 행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행위그룹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행위를 지원했던 자원의 소멸, 그리고 아동 인구의 감소를 생각할 수 있다.

행위 그룹 간의 충돌은 과거 아동들의 행위가 주로 관찰되었던 정자와 공원에서 다른 그



문구점 옆 공터에 들어선 건축물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룹인 노인들의 행위가 주로 관찰되는 데 있다. 주로 7단지 내의 정자와 놀이터, 그리고 농골공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찰된다. 농골공원은 중앙의 광장을 게이트볼장과 운동시설의 설치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 개의 정자는 노인그룹과 장애인 그룹이 상주하는데서 있으며, 그와 인접한 놀이터에서도 아동들의 행위를 볼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과 노인 그룹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간의 디자인과 함께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할 때 세대 간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위를 지원했던 자원의 소멸의 가장 큰 것은 문구점 전자오락기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조그만 오락기에 오락하는 친구와 이를 뒤에서 구경하는 모습은 이제 관찰을 할 수 없다. 전자오락기가 사라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은 스마트폰의 보급에 있다.

한솔마을 아동행위를 관찰하는 동안 아동들의 행위 빈도가 낮았다. 같은 시간과 횟수를 시행한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의 경우는 199건의 행위를 관찰한 반면, 한솔마을은 104건의 행위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아동인구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지 아동들이 과거 연구에서는 4개 단지에 약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



분당구 한솔마을 708동 옆 정자 행위(좌 2006년, 우 2015년)



분당구 한솔마을 공간 영역화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 공간 영역화

로 언급하고 있으나, 2015년 한솔초등학교에 258명이 등록된 상태로 절대적인 아동들의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단지에서 아동들의 중요하거나 의미 있게 생각하는 장소들은 과거에 비하여 위축되었다. 우선 아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수가 줄어들었으며(평균 2.44에서 1.34로 줄어들음), 각 유형의 장소에서 나타나는 개별 장소들이 위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앞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구구성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해당 대상지의 아동들의 전체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놀이문화(휴대폰 게임 등)로 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대상지 아동들의 인구수 변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또한 노인인구와 장애인의 외부공간 점유가 과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민병호 등이 밝힌 바와 같이 행위와 장소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주거동 주변 정자는 전동휠체어가 항상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몇 개의 놀이터와 정원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고 노인들이 상주하고 있다. 과거 아동들의 행위가 관찰되었으며, 장소로 지목되었던 곳들이 서로간의 영역 다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은 그렇게 몇 개의 장소를 상실하고 대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간 영역화에 대한 흔적이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에서도 2022년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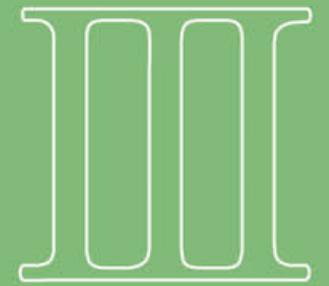
다음으로 문화적 변화에 의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인터넷게임 문화의 발달과 휴대폰게임의 발달로 상가와 문구점에 있는 전자게임기가 사라지면서 그러한 장소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는 환경에 독립적인 행위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서 특정한 외부장소보다는 공동체 시설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가 된다.

수원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의 중요한 장소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를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즉 행위를 지원하는 자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 아동들의 행위가 위축되고 그들의 장소가 한정되는 것들은 적절한 자원의 지원을 통하여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할지라도 영역다툼에서 상대적 약자인 아동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살기 편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주거지가 결국 주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주

1. "아파트 외부공간에서 아동들의 행위와 장소 변화에 관한 연구"(허현태, 2015, 수원사정연구원을 바탕으로 2022년 약식 행위관찰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영통동 신나무실 5단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 Korpela, K., 1992, "Adolescent's favorite places and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 pp.249-258.
3. Gustafson, P., 2000, "Meanings of place: Everyday experience and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pp.5-16.
4. 민병호, 1996, "주거단지 외부공간구조와 아동놀이: 상계동 2개 단지 비교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제5호), 대한건축학회, 39-50쪽.
5. 이석현&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2권(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69-184쪽.
6. 박지영&김명수, 2009, "인지활동을 지향하는 실외놀이구조물 연구: 초등학교 어린이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제22권(제3호).
7. 김해경, 2010,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고 변화 해석」, 『서울학연구』 제39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79-117쪽
8. 주변 6단지에 대규모 놀이터가 재단장했다. 차량이 통행하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비교적 거리가 있음에도 보행자전용도로의 연계와 새로운 놀이 시설 등으로 인하여 여러 그룹의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9. 2022년 기준 영통3동 평균 연령은 36.9세로 수원시 전체 6번째로 젊은 동네에 해당한다.
10. 민병호, 1996, "주거단지 외부공간구조와 아동놀이: 상계동 2개 단지 비교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제5호), 대한건축학회, 39-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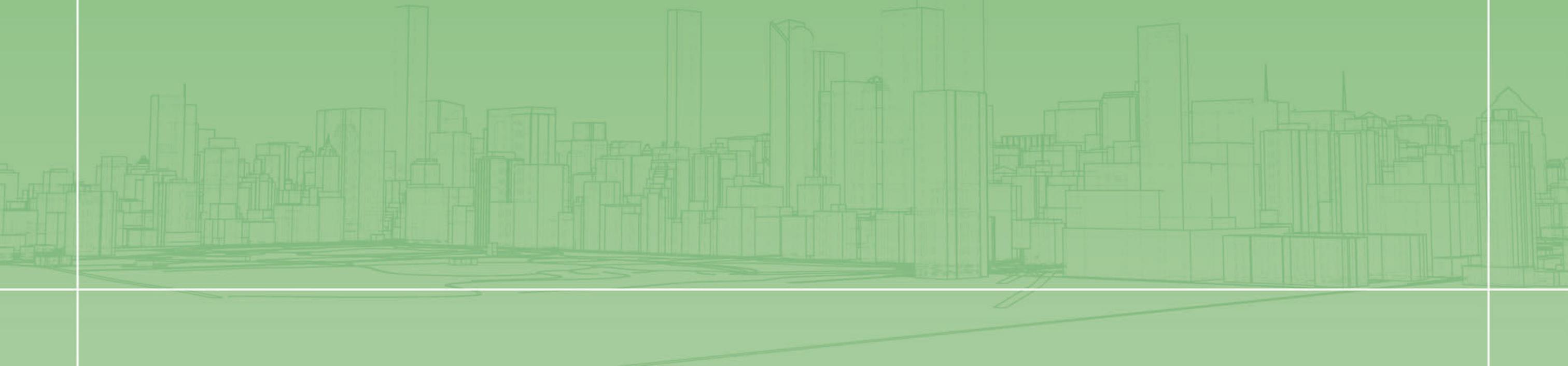
영통동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 01.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 0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 03.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01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1.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1997년 12월,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첫 입주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봉영로의 청명역사거리부터 황골사거리까지 중부대로 방향을 향했을 때 왼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단지의 끝과 끝까지 도보로 약 10분이 소요되는 대단지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121동부터 159동까지 39개 동 3,129세대로 구성된 소형 평형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조성한 첫 작품이었다. 1995년 영통지구의 분양 홍보 당시, 타 도시와의 차별성으로 내세운 교통, 규모, 교육, 주거환경, 이 네 가지 장점은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신갈IC가 반경 2.2km 내,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흥덕IC가 반경 1.6km 내에 위치해 타 지역, 특히 서울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2012년에 150번대 동 근처에 수인분당선인 청명역이 개통되면서 인천과 분당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뒤편에는 공원, 음식점, 학원, 병원, 편의시설 등이 들어차 있다. 이 중 아파트의 주민들이 꼽는 으뜸은 단지의 숲길이다. 단지 입구부터는 곧게 자란 나무들이 단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듯 초록빛의 터널을 만들어내고 그 밑에는 알록달록한 꽃들과 널찍한 도로가 자리한다. 이 단지의 나무도 꽃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모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다. 초대 입주자인 구희선은 단지가 공





아파트 단지 내 가로수길

터에서 오늘날의 꽃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하였다. 1997년도에 입주한 그는 1998년도부터 약 5년간 부녀회로 활동하면서 단지 내 화단과 공터에 약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화를 심었다. 하지만 연산홍, 옥잠화, 줄장미 등과 같은 음지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어 버려 관리하기가 까다로웠다. 이후 매년 새로운 식물들을 심어보고 단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와 꽃들을 찾아 아파트의 화단을 조성해 나갔다. 구희선과 부녀회의 애착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의 푸르른 단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학군도 빼놓을 수 없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이점이다. 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유치원, 황곡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다. 2000년에 입주할 당시 4살이었던 이지은은 황곡초등학교,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를 졸업해 어엿한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현재도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그는 당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별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어 황골 주공1~2단지아파트 거주자는 황곡초등학교만 진학이 가능했다고 한다. 동네 친구가 반 친구가 되고, 동창



황곡초등학교 전경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청명고등학교 전경

1



3



2



4



황골 주공1단지 아파트

① 65㎡ ② 77㎡ ③ 82㎡ ④ 83㎡

이 되는 경험 속에서 이지은은 1단지 포레 친구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더라도 “한술밥 식구”라는 느낌을 받았다. 분위기도 비슷하고 사는 수준도 비슷한 친구들인데다가 이사 가는 경우도 적어서 함께 초·중·고를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지은의 학창 시절에 동탄신도시와 광교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했지만 이지은의 부모님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에서 굳이 이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지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바로 옆에 산다고 한다.

한편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에서 다른 단지 사람로부터 듣던 아쉬운 소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2000년대 들어선 대형마트 홈플러스와의 거리가 멀어 장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알뜰시장, 화요장을 모르는 소리였다. 주민들도 홈플러스와 이제는 사라진 그랜드백화점의 푸드코트에서 짜장면을 후루룩 먹던, 첫 브랜드 운동화를 갖게 되었던 추억들이 있지만 그건 다른 단지 주민들 모두와 공유하는 추억이었다. 반면 알뜰시장에서의 추억은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만의 추억이다. 구희선은 알뜰시장이 서는 날이면 홈플러스와 인근 마트의 매출이 떨어졌다고 한다. 품목 선정과 상인들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알뜰 시장을 일으켜 세운 구희선은 지금의 화요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처음부터 지정된 상인들이 나란한 천막 밑에서 나란히 각기 다른 품목을 진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체계가 잡힌 알뜰시장은 오늘날까지도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밥상에 신선한 식재료와 야식을 올리고 소소한 생활용품을 조달한다. 주민들은 화요장의 으뜸은 값싸고 싱싱한 야채와 채소, 그리고 파인애플 탕수육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실제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바로 건너편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도 화요일이 되면 채소와 파인애플 탕수육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 하지만 주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이 열리는 화요일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롯데마트와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으며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과 단지 뒤편에 위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봉영로 쪽에 위치한 ‘장바구니’ 등이 알뜰시장의 빈자리를 메워 주기 때문이다. 결국 장을 보기 위해 홈플러스까지 갈 필요가 없기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황골 마을”의 모습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주민들에게 영구적인 보금자리이기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도 하다. 보통 이곳을 영구적인 보금자리 삼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정착한 경우로 노년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대체로 젊은 편이다. 신혼부부가 자가를 마련하기 전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 젊은 부부가 가족 수가 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대형 평형대의 아파트로의 이사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1단지가 30대가 반, 70대 이상이 반이라고 한다. 소형 평형대라는 공간적 특성이 주민들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이 조직하는 주민 단체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리된다. 이 민주적인 절차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30대의 반란”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 글에서는 주민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연대하며 아파트를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 활동 : 부녀회와 노인회의 이야기

오늘날의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만들어낸 주역은 이곳의 주민들이다. 아파트가 세워진 199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활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필요에 따라 단체가 생겨났고 상황에 따라 사라지기도 했으며 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자율방범대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중 부녀회와 노인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아파트처럼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도 부녀회가 있었다. 구희선은 당시 부녀회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며 아파트에 대한 애착을 키워 갔다고 한다.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부녀회장까지 도맡게 되었는데 그의 큰 업적은 엉망이었던 알뜰장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당시 알뜰장에서 판매를 허가하는 권한은 부녀회장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부녀회장에게 뇌물을 주고 알뜰장에 들어오려고 했다. 그때를 구희선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구희선 그전에는 막 이계 와서 이 담 밑에 쪽 그 사람들 자면서 막 부녀회장한테 들여보내 달라고 하면 부녀회장이 지목하는 대로 들어와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정리도 안 되고 상인들이 자기 안 넣어 주면 막 이렇게 해요.

알뜰장은 부녀회의 주요 활동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비리와 부패에 의해 입주자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알뜰장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알뜰장

표회의와의 갈등과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부녀회장이 된 구희선은 알뜰시장의 체계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상인들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계약제로 전환하여 오늘날의 안정적인 알뜰시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전에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은 회계 처리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서 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여느 아파트처럼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갈등은 부녀회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부녀회의 활동이 텅빈 것으로 남지는 않았다. 부녀회 덕분에 1단지는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부녀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아파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몇몇은 입주자대표회의로 옮겨 아파트와 주민들의 삶을 위해 힘써 왔기 때문이다.

현재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투표를 거쳐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처음부터 이러한 평화로운 방식을 갖추고 있던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이진아는 처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민원을 넣어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의아함을 가진 이진아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직접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첫날부터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토박이, 주로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때마침 “아파트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젊은 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진아를 포함한 몇몇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진아는 당시를 “30대들의 반란”이라고 회상한다.

이진아 사실 젊은 층들이 원했던 거는 이 아파트는 소통이 안 된다. 이게 가장 컸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 뭔가 민원을 넣어도 즉각즉각 해결해 주지 않고 이때 황골 아파트가 약간 유명하긴 했어요 좀 약간 문제 있는 아파트. 일단 문제 있는 아파트 한 일간지는 영통이 할렘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 화가 난다. 아파트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정말 30대들의 반란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에 젊은 동대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젊은 동대표들이 아파트는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한 공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록과 운영비 지출 내역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관리비를 둘러싼 의견도 분분하였다. 가령 젊은 동대표들은 관리비를 2,000원만 올려 노후한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존 동대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동대표들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 기존의 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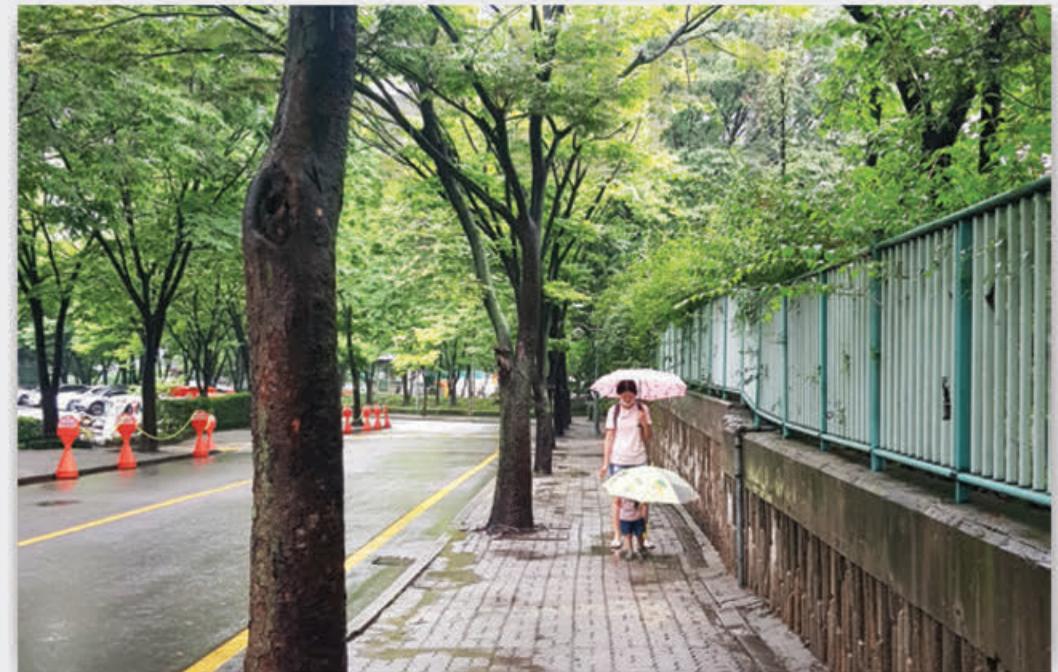
표들은 대부분 노년층이었기에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없었고 대다수가 자녀들의 용돈과 연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아직 고장나지 않은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 혹은 경비원의 명절 선물을 위해 관리비를 2,000원씩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또한 관리비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다. 젊은 동대표들이 요구하는 장부는 컴퓨터로 정리된 엑셀 혹은 한글 파일이었는데 컴퓨터와 거리가 먼 기존 동대표들에게는 이는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서로의 속사정을 알기 전까지 두 집단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안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두 집단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그동안의 소통방식을 반추하게 되었다. 이제 젊은 동대표들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빠르게 안전을 접수하고 현안을 파악한다. 기존 동대표들은 삶의 지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역할이 뚜렷하게 분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집단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아파트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 2022년 10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노후 시설을 교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단지에 변화를 꾀한다. 또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다 보니 연령대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 안전도 고르게 선정된다. 20대는 주차문제, 30대는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시설, 40~50대는 아파트 시설 문제, 60대는 공원, 70~80대는 복지와 쉼터, 90대는 건강 등 다양한 사안들이 제기된다. 이처럼 30대의 반란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치지 않고 모두를 승자로 만들며 막을 내린 사건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소통하며 하나가 된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소형 평형대인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주로 30대와 70대 이상이 주를 이룬다. 카톡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30대의 소통의 장이었다면, 노인회는 80대 이상의 노인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친목의 장이다. 약 44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아파트의 노인회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단순히 노인인 주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노인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구희선이 새로운 총무가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 균형 잡힌 식단이 생겨났다. 입주자대표회의로 15년을 활동한 구희선이 노인회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70세인 자신은 노인회에 들기에는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6시 반, 주민들이 구희선의 집에 찾아와 노인정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구희선은 결국 상황을 살필 겸 노인정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다. 거절할 수 없어 간 사무실에서 구희선은 우리 아파트 노인들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카풀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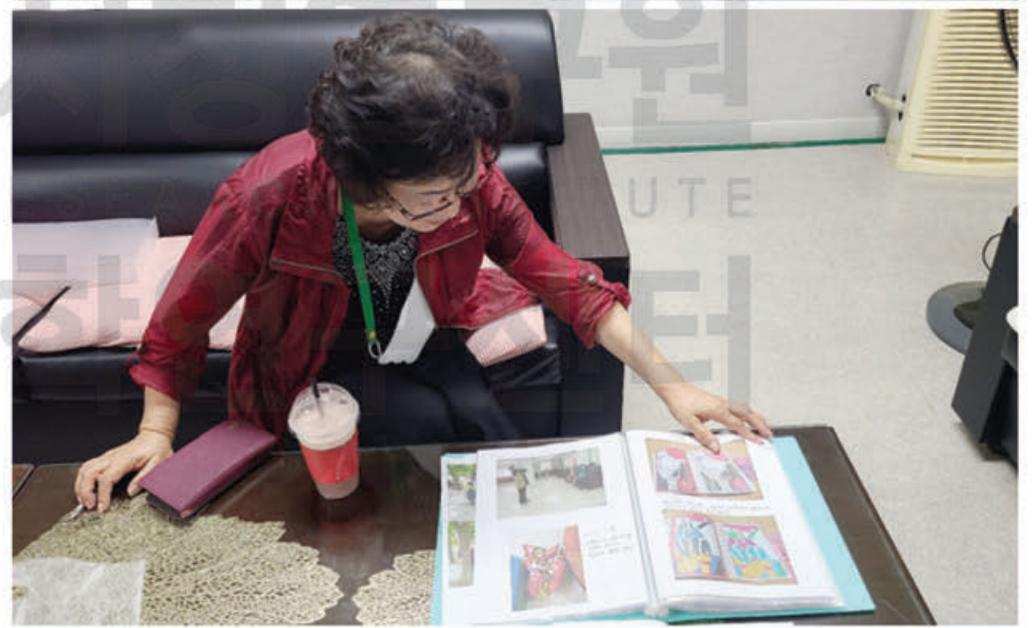
아파트단지 내 산책로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노인회 친목 프로그램과 운동 프로그램

수원 SUWON R 수원



노인회 일지

구희선 무슨 내가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일할 처지가 안 돼요. 구청에서 주는 돈은 아주 너무 복잡해. 안 되는 건 또 안 되고 뭐 다 맞춰서 석 달에 한 번씩 정산에 들어가잖아. 그거 하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하실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도 하고, 와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해서 다 이제 저거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업무 추진하는 거 뭐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동대표를 꼭 이제 오면서 알기 때문에 노인정 사정을 잘 알거든요

이렇게 노인회의 젊은 총무가 된 구희선은 새로운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이전에는 없던 감사장과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관리사무소의 지원금인 매달 50만 원과 구청의 33만 원은 어르신들의 밥상과 활동비에 쓰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정에서 취식이 어려웠던 때에는 지원금으로 두유와 떡을 마련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못 오시는 분께는 직접 배달을 해 드렸다. 한번은 구청에서 코로나 기간에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자 색칠놀이 책 20부를 보내 왔다. 구희선은 그냥 배부를 하면 어르신들이 안 하실 게 눈에 흰해 완성하시는 분께는 상품을 드리겠다고 홍보를 했다. 구희선은 직접 남문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의 속옷을 구매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고 색칠된 작품들은 노인정에 전시되었다. 막내인 75세 젊은 총무 구희선의 정성이 마음에 닿자 어르신들은 너도나도 자식들에게 아파트의 노인정에 대한 자랑을 했다고 한다. 자식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인정에 각종 과일들을 보내 물가가 치솟던 2022년의 여름도 달콤하게 보낼 수 있었다.

구희선은 노인정의 막내지만 75세로 세련된 보고서와 형식적인 일지를 작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노인정에 있었던 모든 일은 그의 스타일대로 기록된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프린트로 출력해 오리고 붙인다. 그 밑에 구희선은 한 글자, 한 글자 그날의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록한다. 자신들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구희선을 보며 노인회 회원들은 “우리 총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도와주자”고 하며 구희선의 곁을 지켜줬다. 이런 끈끈한 유대에 반응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은 노인정 리모델링과 필요한 가구를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였다. 처음에 노인회의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에 반대했던 한 동대표는 노인정에 가서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후 그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노인정의 일에 임하며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그래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여느 단지와 다른 특별한 곳이다. 진심이 오가는 사람들의 두 눈으로 반짝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2) 젊음을 유지하는 노후 아파트의 비결

올해로 26살이 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비교적 고령의 아파트이다. 하지만 아파트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고령의 아파트가 여전히 찬란한 젊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깔끔하게 도색된 외벽에 투명한 현관 자동문, 출입 차량에 맞춰 오르락내리락하

는 주차차단기, 내리치는 빗물을 막아 주는 정자와 씬터들. 이 아파트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곳의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상생이다. 주민들은 “우리 관리사무소만큼 일을 잘하는 곳이 없다”며 칭찬한다. 사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대단지이자 오래된 아파트로 관리하기가 쉬운 대상은 전혀 아니다. 3,129세대, 한 가구당 두 사람이 산다고 가정을 해도 최소 6,258명이라는 인원을 21명의 직원과 67명의 경비원과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천화수 관리소장은 대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에는 전기, 설비 등의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사무실의 직원들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사무실 내에서도 업무 후 피드백을 거치기에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중 약 70%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위탁관리는 아파트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회사에서 연중 계획, 아파트 관리 등의 교육을 받은 소장을 해당 아파트로 파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치관리가 있는데,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소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관리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아파트가 위탁 관리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그 많은 위탁 관리 회사 중 가장 큰 ‘우리관리’라는 위탁회사와 함께하고 있다. 300여 개의 단지를 관리하는 우리 관리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 회사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도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본래 각 세대의 뒀인 수도꼭지나 변기와 같은 잔 고장들을 관리사무소가 해결해 주기도 한다. 어르신들에게는 수리 기사를 부르는 것이 번거로운 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천화수 이제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해피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바로 여기서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세대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관리 주체인 소장이나 직원이 가면 우리 직원이 얼마만큼 친절했는지 또 요구한 만큼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본사의 시스템에서 피드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어떤 주민들과 관계에서 얼마만큼 잘 소통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관리가 돼서 아무래도 주변에 평가들이 이제 낫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천화수 소장과 직원들에게도 즉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곤 한다. 가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안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공고는 사무실의 뒀이다. 문제는 대단지에 대규모 인원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 터, 문제 제기나 반박은 결정을 내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공



주차차단기와 단지 내 외부차량 방문 시 안내 현수막

고를 낸 사무소로 들어와 곤욕을 치를 때가 종종 있다. 또 아파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품이 단종되거나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천화수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 자신들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천화수 이제 여기에 하나의 히스토리를 보면 1997년 아카 말씀드린 12월 16일 날 사용 검사를 대면서 승강기가 이제 이제 한양 엘리베이터라는 회사에 승강기가 설치됐었어요 그런데 그 승강기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보통 승강기는 법적으로 부품은 15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1997년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니까 20년이 되면서는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엘리베이터 주요 부품이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났는데 이제 부품이 생산이 안 되니까.

결국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계속 생길 때마다 부품과 기술자를 구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언제든지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대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와 계약하였다. 이처럼 부품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설 전체가 말썽인 경우도 있었다. 급수 형태의 문제였다. 상향식 급수 형태는 직접 세대로 들어가는 형식이고, 고가수조의 형태는 저수지의 물이 옥상에 올라간 후 옥상에서 내려오는 형식인데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고가수조의 형태로 지어졌던 것이다. 고가수조는 초기비용이 적게 들지만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저수지에서 옥상으로 물을 올릴 때 필요한 펌프가 자동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이 펌프가 녹으면서 물의 양을 조절하지 못해 옥상에 물이 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계속 수도가 말썽을 일으키자 2012년에서 2013년경에 상향 조정이 되는 부스터 방식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설 전환은 이전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더 깨끗한 물을 각 세대에 공급해 줬기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입장에서도 잘된 일이었다.

말썽을 부리지 않은 것들도 때가 되면 주민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파트에는 장기수선 계획이 있는데, 그중 외벽 도색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통 아파트는 5년마다 새 옷을 입기로 되어 있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벌이고 있던 때라 시설물에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소송이 끝나고 13년 만인 2010년도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단지는 새 옷을 입게 되었다. 새 옷은 알뜰하게 입혀졌다. 도색과 지하주차장의 하자 공사까지 포함해 약 2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최대한 싸게 해 달라고 부탁해 6억~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리사무소의 알뜰함은 여기서 끝이

수원
SUWON RE
수원



아파트 단지 곳곳에 위치해 설치된 경비실과 ATM기

아니다. 다른 대단지의 경우 조경관리를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맡기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직원이 직접 해서 그 예산을 더욱 필요한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한다. 이전 동대표였던 김혁수는 이런 관리사무소의 알뜰함을 한편으로 걱정한다. 경비를 쓰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식해져 자신들의 근로환경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김혁수 트럭 조그마한 트럭이 하나 있거든요. 트럭에 에어컨이 올 여름에 고장 났었는데 그걸 안 고치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에어컨이 고장 난 지 오래됐는데 도저히 못 견디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리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했냐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소극적으로 하시냐. 꼭 필요한 거는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껴진 예산은 아파트의 구석구석에 스며들며 아파트의 젊음을 유지시킨다. 현관 지붕을 보수해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고 노후 아파트의 문제인 누수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노인들이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안전바와 보안을 위한 자동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배관공사라고 한다. 2022년 올해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530여 개의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CCTV는 화질이 낮아 주차나 방범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를 교체하면서 모니터도 보완하였다. 사각지대에도 추가로 설치해 아이와 노인이 많은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것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 CCTV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2022년 7월 21일 새벽, 한 주민이 술을 마시고 단지 내에서 가방을 분실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그 가방 속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주민은 경찰서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상시 대기 중이었던 관리사무소의 두 직원이 몇 시간 동안 CCTV를 추적해 가방의 흐름을 뒤쫓았다. CCTV에 등장한 가방은 아파트 경비원의 손에 대롱대롱 붙들렸고 바로 쓰레기 수거함에 던져졌다. 경비원 또한 가방 속 현금 천만 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CCTV를 교체한 덕분에 가방은 제 주인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고 관리사무소의 두 직원은 곧 표창장을 받게 되리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이 에피소드는 시설 교체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가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협업으로 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어 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수원
SUWON R
수원

3.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기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 바로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이다. 2단지는 1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황골'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2단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101동부터 단지가 시작된다. 그렇기에 택배기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주소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두 단지가 별개의 단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4살 때부터 1단지에서 자라 현재 27살이 된 이지은은 "1단지랑 2단지, 이 둘은 황골 세트야. 둘은 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운명공동체처럼 존재하던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가 아파트 명칭을 '센트럴파크뷰'로 변경함에 따라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당혹감에 빠졌다. 물론 영통동 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시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같은 이름을 공유하던 2단지가 명칭을 변경하니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 얼마 후 1단지 내에는 "아파트 명칭 변경,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도 함께 해봅시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래 황골은 마을 지형이 큰 봉황(鳳凰)이 앉아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황골이 정감 가고 편안한 인상을 준다는 주민들도 있는 반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주민들도 있다. 사실 황골이라는 것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아파트 명칭에 '주공'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주공이 주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부동산 가치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시도인 것이다. 하지만 변경된 명칭에 대한 의견은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명칭 변경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추세이며 소유주의 동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명칭 변경을 제안하는 현수막



영통센트럴파크뷰로 이름이 바뀐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

김진석 아무리 한자의 뜻이 좋아도 내가 내 이름이 안 좋으면 바꾸듯이, 아파트 이름도 안 좋으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 (중략) 주공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사회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주공! 하면 사실 지금 주공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LH도 휴먼시아 많이 쓰고 또 바뀌잖아요. LH도 시대가 변하면서 이름을 계속 바꿔 왔거든요.

이진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건 좋은데 영문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어서 그냥 숲소리 아파트 이렇게.

홍은아 굳이 바뀌어야 하나 싶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황골로 불리던 곳에서 살았고 익숙한 곳인데. 이름 바뀐다고 아파트 값이 확 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은 황골인 거 다 아는데. 근데 주공은 좀. 이해는 돼요.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발맞춰 걷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2022년 8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안은 11월에 준공 예정인 '미로어린이공원'이다. 1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김진석은 이 사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주민 중 하나이다. 세 살이었던 김진석의 두 아이는 현재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고 더 이상 놀이터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1단지의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자신의 아이들이 놀 공간이 단지 내에는 마땅하지 않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이들과 차를 몰고 광교호수공원까지 가야 했다고 한다. 광교신도시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잘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 단지 아이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웃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싶었다.

그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간 후에 그의 바람은 실행으로 옮겨졌다. 그는 지역구 의원을 만나 이런 저런 고충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제안하였다. 다만 그의 제안은 생생했다는 점에서 특별하였다. 지역구 의원과 인근 단지들의 어린이공원들을 직접 돌며 그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진석 의원님한테 직접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여기(황골 주공/단지아파트) 어린이공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진짜 한 세 명이나 네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 명 네 명도 까르르 웃고 있는 거예요. 동 시간대에 의원님하고 의원님 차로 박지성 어린이 갔는데 정말 한 200명 300명 있는 거예요. 의원님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집에서 격리되는 이런 아이들, 더군다나 우리 일동은 어린이들이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적으로 더 많을 걸로 추산되는데, 소형평형이다 보니까 근데 이 어린이들이 다 집에만 있다.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여기에 좀 시에서 좀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니까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좀 유치해 줘서 6단지처럼 박지성 어린이공원처럼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권유 드렸거든요.

2022년 10월 현재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어린이공원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니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진서는 아이들에게 직접 놀이기구를 투표하도록 했다. 단지 내를 다니며 이진서는 아이들에게 스티커 표를 주고 자신이 원하는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진서는 여자아이들이 생각보다 “와일드한 기구를 선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에게 놀이기구에 대한 투표권이 생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이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 줄 때 비로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공원 조성을 기획하면서 아이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지만 주민들은 세대통합형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구상도 세심하다. 김진석과 황골 주민들이 희망하는 화장실은 부모가 아이들



완공된 미로어린이공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다는 것은 꼭 다른 아파트에는 있지만 우리 아파트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고령인 동네인 만큼 기존의 것들을 '개성 있게', '트렌디하게' 혹은 '새것'처럼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전개되기도 했다. 아파트의 명칭 변경과 외벽 도색이 집단적인 작업이라면 실내 인테리어와 상권 이용 등은 입주자 개인의 선택이자 변화의 시도였다. 인근에 위치한 광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새 아파트와 오래된 아파트의 차이가 디자인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비교적 젊은 주민들은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3살 때부터 이 아파트에서 산 이지은은 요즘 이사 오는 집들은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필수로 한다고 말한다. 전에는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지만 요즘은 소음과 이웃에 대한 예의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양해를 구하는 글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게시된다고 한다.

20대인 이지은은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에 위치해 있지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와 도보 10분 거리인 '프리미엄 아울렛'의 쇠퇴가 안타깝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손잡고 브랜드 옷과 운동화를 사러 가던 유일한 곳이었던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전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자 추억이 희미해지는 기분이라고 한다. 현재 이지은은 온라인 쇼핑몰을 애용하기도 하지만 수원역의 애경백화점과 롯데몰에서 필요한 것을 산다고 한다. 하지만 집 근처에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가게와 "감성 카페"가 하나도 없는 건 20대의 이지은에게는 불편한 점으로 다가온다. 또한 그는 황곡초등학교 근처 상권이 더 발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동네 상권인 만큼 브랜드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오기보다 동네만의 특색 있는 무언가를 바라기도 한다.

이지은 물론 이제 수원역(백화점)도 가깝고, 옷도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같은 어플로 사는데. 그래도 적어도 올리브영 하나 정도는. 브랜드 화장품 가게 하나 정도는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급할 때 주변에서 살 데가 없으니까. 영통까지 나가야 하잖아요. 20대가 그렇게 없는 동네가 아닌데. 아니 심지어 그럴 장소도 많은데. 카페도 그나마 메가커피 들어오고 하면서 좀 요즘 동네 같은 느낌. 그래도 개인 카페. 인스타 감성 카페 좀 들어오면 좋는데.

홍은아 막 저기 있는 스타벅스, 빵다방 이런 거 말고 복희네 커피, 멜라카, 와우 커피 이런 데도 커피 맛도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만 있는 거니까 더 의미도 있고 저기 돈가스 집도 우리 동네 맛집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만의 그런 곳들이 생기면 좋은 일이지요.



황골마을 근린상권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상가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인동선 환기구 설치 반대 현수막

청명마을(3단지) 근처에 생긴 영흥공원도 처음에 주민들에게는 집 주변에 큰 공원이 생긴다는 희소식으로 다가왔지만 공원의 축구장이 습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듣고 단숨에 좋지 않은 소식이 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영흥공원 설명회 때 맹꽁이 등 생태계를 고려해 보존되리라고 약속된 습지가 다음 보고서에서는 누락된 걸 발견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하였다. 공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맹꽁이들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근처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여기서 20년을 살아왔는데 6월이 되면 애네들이 온다.”고 말하면서 힘을 보탤다. 그러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영흥공원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가세하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 집회로 번지게 되면서 결국 영흥공원 사건은 주민들의 승리가 되었다. 습지는 보존되고 축구장은 무산되었던 것이다. 그때를 이진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이진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영흥 사람들 되게 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집회하는 거 처음이라고 우리도 참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시위를 하면 뭔가 되는구나, 하는 승리의 기억.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영흥 사람들이 순하다는 말을 이제 참지 말자. 우리는 순하지 않아.



광역버스 정류장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이렇게 주민들에게 영흥공원 사건은 “승리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흥공원 사건은 맹꽁이와 생물들의 터전을 보호하는 문제기도 했지만 행정과 주민들 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했다.

이후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지하철 환풍구 문제에도 “우리는 순하지 않아”라는 자세로 임하였다. 인동선의 환풍구 설치 예상 후보 장소가 황곡초등학교 주변이 되면서 주민들은 “영통입구역을 여기다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해 준 것도 없으면서 그런 시설들은 다 여기다가, 안 좋은 거 다 처박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실제로 2012년 분당선 청명역이 영통입구 쪽에 개통될 것이라는 소문과 달리 바로 옆 역인 영통역과 운행시간이 1분 미만 거리에 개통되면서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명역의 개통은 황골 주공2단지아파트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으나 이게 곧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버스 만차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다.

한태일 우리 동네가 다 좋은데 교통도 좋고 조용하고 애들 키우는 데는 학교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 저기 청명역도 생겼고 근데 서울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아무래도 서울 가는 버스가



청명역 입구(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저기 아래서 다 만식이니까. 우리 딸도 나 출근할 때 아침마다 저기 경희대까지 태워다 달라고 해. 집앞에서 타면 출근 못 한다고.

안효은 서울역이랑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이면 정류장에 줄 꼭 서 있거든요 어떤 때는 버스 한 세 대 보내고 나서야 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이제 난 늦잠 잔 것도 아니고, 내가 게을러진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사무실에서 눈썹밥 먹고.

수인분당선의 노선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강남역과 서울역을 직통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바로 건너편 정류장에서 서울행 광역버스와 지방행 시외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정류장이 고속도로를 타기 바로 직전의 정류장인 탓에 자주 만식이 되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은 버스를 놓칠세라 1시간 일찍 출근하기도, 아예 전 정거장에 가서 기다리기도 한다. 주민 김진석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모든 광역버스들이 영통 ‘입구’인 이곳을 지나가지만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출퇴근 시간대

에 영통입구에서 출발하던 노선 이 두 세대 정도 운행되었지만 그마저도 없어지자 주민들에게 ‘영통입구역’은 더욱 절실한 것이 되었다.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 안효은은 집앞에 직통 버스가 있는데도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지하철이 개통되어도 번거로움이 배가 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안효은 집앞에 바로 강남 가는 버스가 있는데 굳이 청명역까지 가고. 청명역에서 선릉까지 갔다가 또 2호선으로 환승하고. 아니 근데 청명역도 집에서 걸어가면 한 /5분 걸려요. 애매해 가지고. 근데 강남 가는 버스는 신호등만 건너면 되거든요? 뭐랄까. 동선 낭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청명역의 위치는 다소 애매하다. 대단지이다 보니 청명역에서 집까지 가까운 곳은 도보로 3분, 먼 곳은 15분이 걸리기도 한다. 청명역을 둘러싼 잡음은 지역 의원들도 알고 있는 듯하다. ‘영통입구역’은 매년 지역 선거 때마다 소비되는 단골 공약으로 선거철에는 영통입구라는 단어가 동네에 찌렁찌렁 울리기 때문이다. 주민 한태일의 말처럼 “영통입구역 문제는 더 이상 편리한 교통을 위한 투쟁”이 아닌 “지역 주민과 행정가들의 신뢰의 문제”가 되어 버린 듯하다. 따라서 주민들은 일방적인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을 희망하지 않는다.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며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을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승리의 기억”도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행정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압도의 기쁨이라기보다 함께 연대하고 화합하면서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인식된다. 그렇기에 주민들에게 이 기억은 앞으로 다가오는 안전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행정의 구도는 대립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협력하고 서로 돕기도 한다. 주민 김진석은 미로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김진석이 단지 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안했을 때, 지역구 의원과 영통구청, 수원시 관계자들이 진행에 앞서 주민 참여를 중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다.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두 집단 간에 충분한 논의가 오갔으며, 시설물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정하였다.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자 수원시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 방문해 3일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였다.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나의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매일 아침 쌓아 올라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4. '우리'가 만들어 가는 아파트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묘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그 매력이 아파트를 녹슬지 않게 한다. 아마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많은 존재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주민들의 '우리'에는 아파트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들, 경비원과 미화원, 인근 단지 입주자, 지역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아파트를 만들지 않는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방문하고 이용하고 쉬어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는 주민들의 손길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애착을 아파트라는 공간에 담아내는 작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한 주민의 말마따나 "황골 1단지의 엄청난 단합"의 역할이 컸다. 단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도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되면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

이러한 경험들은 주민들에게 있어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를 단순히 '나의 집'이 아닌 '우리의 집'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존에 주민들이 지니고 있던 '우리'에 대한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가족에서 이웃, 이웃에서 주민, 주민에서 지역사회까지 우리라는 공동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면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의 주민들은 여타 단지들보다 가장 '큰 단지'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간의 갈등들을 건강하게 해소해 나가는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이웃과 단절된 채 삭막한 아파트 숲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은 이곳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곳으로 유지할 것이다. 늘 그래 왔던 대로.

황골 주공1단지아파트



김진석 황골 1단지가 살기 좋아지면 영통구가 살기 좋아질 거고 그러면 수원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이런 활동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기쁨을 찾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기쁨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원

0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영통신도시는 수원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1997년 12월 '영통지구' 첫 입주가 추진되었다. 주공1단지, 4단지, 5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총 11개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 9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두세 개의 단지를 묶은 단위로는 황골마을, 청명마을, 신나무실마을, 살구골마을, 벽적골마을로 다섯 마을이다.¹ 영통신도시는 개발계획 당시부터 전체 가구의 98%가 공동주택이었으며, 이는 광고신도시 개발 전까지 수원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영통지구 동쪽으로 용인시와 경계를 접해 있는데 그 경계에는 청명산이 있으며, 동쪽 1.8km 지점에는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한다. 남쪽에는 망포동이,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도 인접해 있다.² 이렇게 형성된 영통지구는 삼성 등 대기업 직장인들의 주거주지가 되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수도권 남부에서 주목받는 신도시로 성장하여 수원의 상업과 교육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추가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개통, 분당선 청명역과 영통역 개통으로 수원 시내뿐만 아니라 성남과 용인 등 인접 도시로 가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졌다.

2022년 현재 신도시를 빼곡하게 채우는 아파트들이 더 생겨났지만, 1·2단지 황골마을부터 3·4단지 청명마을, 5·6단지 신나무실과 7단지 살구골로 내려오는 대로변에 터를 잡은 아파트 단지들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영통동의 주거와 생활권을 대표하는 곳이다. 특히 영통지구 3단지는 학교 및 학원가가 시작되는 상가들과 인접하고, 도서관과 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병원, 공원이 모두 가까운 곳이다. 덕분에 주민들로부터 '살기 좋은 동네'로 불리고 있다.



벽산삼익아파트 공사현장
(수원박물관 제공, 1996년 3월 19일)



벽산삼익아파트(영통에듀파크) 전경(2023년, 김승일 제공)



벽산삼익아파트(영통에듀파크) 단지 상가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영통에듀파크)

영통동 시내로 들어와서 봉영로를 타고 쪽 내려오거나 청명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육교를 마주하고, 건너편에는 영통사(사찰)이 보인다. 육교 우측은 3단지 아파트의 사잇길이다. 이 사잇길부터 큰길을 더 걸어가 학원가가 시작하는 느티나무사거리 우측이 3단지 벽산삼익아파트(2023년 영통에듀파크로 명칭 변경)가 위치한 구역이다. 영덕중학교에서부터 아파트 단지로, 느티나무사거리 학원가 쪽으로 길을 건너는 학생들을 지나쳐, 아파트 입구에 가까워지면 초창기부터 있었던 상가가 먼저 반긴다. 아파트 진입로와 보도에는 사람들이 편히 오고 간다. 등·학교 시간이면 노란 차들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운다. 정자에서는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한다. 그런 모습이 아파트의 삭막함보다는 정감을 느끼게 하고, 활기가 있어 보인다.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주민 채서연에게서 아파트 단지 입구 상가에 있었던 빵집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어 보니,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가가 품은 기억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를 잠시 걷기만 해도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을 옆에서 함께 경험하는 듯했고, 여러 번 방문해도 첫인상은 바뀌지 않았다. 주민 개개인은 속속들이 복잡함을 안고 살더라도 아파트 환경이 제공하는 편안함은 모두가 공감하며 누리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신도시에서의 삶이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들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청명마을(3단지)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배치도
(영통벽산삼익아파트 홈페이지 제공)

수원서원대학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서원대학교

1.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의 공간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32'이다. 건설사에 따라 321동부터 327동까지는 삼익아파트, 331동부터 337동까지는 벽산블루밍아파트로 14개 동이며 총 1,24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17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이고, 29평(73.79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① 96㎡(벽산) ② 96㎡(삼익) ③ 109㎡(벽산) ④ 109㎡(삼익)

㎡)과 33평(84.96㎡)의 두 평수만 있다. 아파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침실 3개, 거실, 주방, 전·후면 베란다가 있고, 지역난방을 가동하고 있다.

아파트 내 시설은 단지 중앙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 룸이 한 건물에 있다.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이 있으며, 게이트볼장 겸 공터에는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다. 놀이터와 쉼터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지상·지하주차장, 쓰레기수거장은 아파트 건물마다 배치되어 있어 편의성을 더한다.

아파트 단지 테두리에는 주출입구에서 나와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유치원, 길을 따라 더 가면 중학교, 교회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초등학교가 바로 단지에서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붙어 있다. 입구 건너편에는 등기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영덕중학교 맞은편에는 영통도서관이 있다. 영덕초등학교 건너편에는 영흥숲공원이 있고 그 건너에는 3단지 대우동신아파트 경계 지점에 경기수원의외국인학교가 있다. 아파트 주 출입구 좌측과 교회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청명육교에 인접한 332동과 333동의 진입로를 이용하면 청명역이 도보 5분 정도로 매우 가깝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는 2007년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애정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곳곳을 돌보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일 것이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비결일 것이다. 필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학을 만나 아파트 단지의 주민 구성과 생활, 관리 업무, 주변 현안 등을 여쭙보았다. 그는 아파트 관리소장 임기가 대체로 짧은 편인데, 영통 단지 관리소장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였다.

박재학 주민들이 다 만족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할 때(보람을 느껴요). (중략) 영통 단지 관리소장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3년 근무하고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또 어디는 입주 때부터 계신 경리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20년, 오래된 거지. 그분들은 산 증인이죠.



2007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표지석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벽산삼익아파트 324동 앞 놀이터



벽산삼익아파트 내 늘푸른유치원



영덕중학교 앞길

아파트 단지를 오고 갈 때마다 정자와 벤치, 쓰레기집하장 주변이 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파트가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아파트 입구에서 중앙으로 조금만 걸어오면 갈림길 중앙 인도로 들어가는 길에 폭·높이 3m가량의 목조 아케이드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이것을 '파고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명칭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것은 별 뜻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시설물일 수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 된다. 학교나 유치원의 통학 버스나 학원 버스가 올 때쯤에 맞춰 이 앞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서 있는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에도 버스들이 수시로 지나들며 아이들을 태워 간다. 또한 이곳은 만남의 공간이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채서연은 이곳이 특별해지는 시간을 '파고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차로 다양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이 교차하는 가운데, 몇 년간 스치는 다른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게도 되고, 다른 유치원 엄마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한다."고 회상하였다.

채서연 실생활이니까. 거기는 여전히 지금 저희 아이가 늘 아침마다 가는 곳이지 출근하는 곳. 천문대가 는 버스도 오는 데가 여기. 차라는 데가 한 군데예요

조사자 그럼 모든 학원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 여기서 멈춰 서는 거예요?

채서연 네네네. 저희가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대형 버스나 이런 것들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지, 다시 들 어온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사자 역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웃음) 출구가 많아서 좋아. 그래서 이거 를 (글로 남기셨구나) 늘 아이들이 모갔던 곳이기 때문에.

채서연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딱히 만날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많이 만나요

박재학은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로 전근한 후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쪽에 서 있는 광 경을 지켜보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장소이다 보니 이곳에서 파고라를 설치 하게 된 경위를 말해 주었다.

박재학 아침에 한 9시 내외 정도에 가면 애들 보내는 부모님이 거기서 이별의 장소예요, 거기가. 몇 시간 헤어지는데도 손 빠이빠이 하고 난리가 아니야. (웃음)

조사자 보니까 애들 막 엄청 많던데요 거기 기다리는.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센터



아파트 건물 연결 통로

박재학 이제 거기 이제 학원 가는 애들 줄 서 있는 거고 또 이제 학원 끝날 되면 또 부모들이 와서 또 애들 또 데리고 가고. 뭐 요즘 저 표현을, 지난번에 시에서 한 거 보니까 '맘스레이션'⁵이라고 하대? 들어봤어요?

조사자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박재학 아이고. 엄마들이 애들 학원 보내고 이제 뭐야 뭐야 오고 할 때 잠깐 대기하는 장소를 '맘스레이션'이라고 한대. 우리 저 파고라가 '맘스레이션'인 거죠. (중략) 비안 맞게 한 것(지붕)도 그때 만들었고, 벤치도 만들었지요. 아이들이 처량하게 비 맞지 않게. 주민들이 위해서.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아파트 동마다 중앙 연결통로가 있다는 것도 벽산삼익아파트의 구조적 특징이다. 아파트를 돌아서 가지 않아도 땀 뚫린 통로 덕분에 곧바로 출입구나 다른 동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의 외부인 차단시설이나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다.

정자에서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과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이자 담소 공간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를 기다리거나 놀기도 한다. 주민들의 편안한 표정 속에서 이곳이 쉼터로 잘 이용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단지 안팎에는 이런 정자와 벤치가 배치되어 있어 오가는 동안 언제든지 몸을 맡길 수 있다.

상가 뒤 공터는 본래 게이트볼장이었던 곳인데, 단지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데 현재는 열리지 않는다. 야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소음과 냄새로 불편을 겪은 경우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개되지는 못하였다. 현재 공터 북측에는 운동기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이들의 작은 운동장처럼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는 공터에 대신 주차를 하기도 한다.



파고라의 정자와 후면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 정자(상)와 게이트볼장 및 운동시설(하)

3단지 사이 산책길(상)과 산책길 옆 농구장(하)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의 생활환경을 그린 그림(『청명로 132』 1쪽 및 표지 일부, 그림 서혜진) 산책길과 정자, 놀이터, 학교 등이 보인다.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와 영덕중학교 방향으로 가는 길 등은 걷기 좋다. 대로변 보도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로 오가기도 편리하다. 3단지 벽산삼익아파트와 대우동신아파트의 경계에 조성된 산책길은 주민들이 편안히 오고 가는 산책로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 아빠의 표정, 희로애락을 나누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곳이다. 또한 아파트에서 보이는 '뒷마당'에는 그 사잇길로 나가는 길 말고도 아파트의 오른쪽을 빙 돌아 단지 입구에 이르는 비정형의 샛길이 있는데, 꼭 쪽 뻗은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이나 샛길이 주는 재미가 있다.⁸⁾

2.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

1) 교육 시기에 맞추어 전입·전출하는 젊은 입주자들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젊다.”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게 있어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지이다. 결혼과 동시에 영통신도시로 이주하여 몇 번의 이사를 거쳐 2014년부터 벽산삼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 채서연은 아파트 평수에 맞춰 이사하게 되는 분위기와 생활환경, 결혼과 육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채서연 1단지, 2단지는 한 25명 정도, 8단지 9단지도 그 정도 되고요 중간으로 올라올수록 평수가 늘어나요 애가 들고 하나씩 여기로 이사 온 거죠 여기가 29명 30명이니까. 그래서 저희 단지에서 좀 살다가 밤이 모자라다 그러면, 옆에 단지는 이제 60명까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거나. (중략) 아파트 앞 사거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1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3단지로 이사 오고, 8~9단지 사람들은 7단지로 이사 오고 약간 이런 느낌. (중략) 최근에는 단지별로 엄청 금액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대출 더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면 되고 전세로 살아도 잠깐만 살 거니까 그냥 수리 안 하고 살고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면서 10년 이상을 전세로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조사자 계속 연장하시면서. 오히려 자기인 분들이 덜 있으신 편인지.

채서연 그렇지는 않아요 자가 비율이 지금은 옆에 단지는 거의 100프로는 아니지만 그렇고 저희도, 한 1,400가구 중에서 300가구 정도가 세입자고 나머지는 다 자가예요

아파트 단지에 젊은 입주민이 많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 학구열이 높다는 평을 듣고 학군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이유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동네는 학군이 좋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특히 영덕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교이다. 2022년 4월부터 입주자대표를 맡은 강풍희는 아파트 생활과 환경에 대해 소개하며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풍희 영덕초등학교는 수원시 교사들이 (전근) 오고 싶은 1위예요 그리고 또 영덕중학교는 수원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 50위예요 대단하지요 그만큼 여기가 그래요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에 참여한 벽산삼익아파트 젊은 주민들

한편 다양한 인프라들이 젊은 층이 영통신도시 거주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는 경로당(노인정)이 있는데, 젊은 입주민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활발하게 모임을 이어 가는 곳이다. 간단히 소개를 하고 아파트 생활에 대해서 여쭙자, 모여 계신 할머니들이 주신 답변은 이러하였다. “교통이 좋아.” “보건소도 가깝지, 도서관도 가깝지.” “전철 타기도 가깝고 버스 타기 좋아. 서울 가는 것도 그렇고 부산 가는 것도 타기 좋아.” “병원도 많고” “여기 살기 좋은 데라고 텔레비 나왔잖아.” “젊은이들이,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 영통이래요.”

그래서 벽산삼익아파트는 전입률도 높지만 전출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자녀의 학령기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주민들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다.

채서연 특히나 영통, 저희 아파트는, 딱 그 특징 나이까지만 살다 다 떠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 이사 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살고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박재학 여기는 다른 단지보다 좀 전출입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문에 (왔다가) 개들이 이제 커서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조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 전출입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편이죠.

영통동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풍경은 ‘4인 가족’이다. 직업군은 삼성이나 현대에 종사하는 전자·IT계열 직장인, 공무원의 비중이 높다. 1단지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시작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가정들이 많은데, 3단지에서는 그 연장선처럼 한 가정의 인생 주기가 이어진다. 혼자 살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은 영통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채서연은 이야기하였다. 그가 결혼 전 시끌벅적한 곳에서 살다가 영통동에 처음 왔을 때 ‘유모차를 밀고 있는 어떤 아줌마’를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뇌리에 남았다고 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 1인 가구가 비중이 높아지는 도시와는 다른 영역과 지역적 특성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2) 입주 초창기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애정

물론 젊은 입주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 노인회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얼마나 사셨나?”는 질문에 한 93세 어르신은 24년간 살아왔다고 하였다. 대체로 20년 넘게 살았다는 분들이 많았다. 자녀들이 결혼해 낳은 손자 손녀들이 대학생이 된, 현재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살았던 곳은 수원 내 다른 지역이거나 다른 지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로운 이곳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벽산삼익아파트와 신도시 생활은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는 곳으로 바뀌어 갔다. 따로 분리해 살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도 좋은 곳이다. 앞다투어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신 어머님들의 말에서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현재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허정훈은 첫 입주인 1997년부터 거주하고 있다. 그는 동대표, 입주자대표를 거쳐 은퇴 후에도 노인회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동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청명단오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지역문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애썼다. 허정훈의 이야기를 통해 3단지 아파트, 영통에 살아오면서 쌓아 온 삶의 흔적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입주 초창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의 분위기나 기억들, 변화한 것들이 어떠한지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회원과 회장 허정훈

허정훈 그때만 해도 여기 이제 입주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영동 이쪽에 공기가 좋고 야산이 있었고 여기가 들판이 있었고 가운데 연못이 있었고 여기다가 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배수가 좀 높았어. 그 래가지고서 여기가 당첨됐으면 했어. 아주 다들 좋아했고 그럴 정도로 딱 입주를 했는데. 나는 지방 근무 를 하다가 3년 후에 올라왔지. 여기가 점점 살면서 좋아지는 게 뭐냐면 첫째는 교통. 전철서부터 시작해가 지고 나중에는 여기서 서울로 가는 버스도 그냥 한 번만 환승하면 그냥 (갈 수 있어). 그리고 일개 동네 관 공서가 그렇게 많은 수가 (있어). 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방서. 우체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편집중 국. 또 중소기업청, 그냥 세무서가 아니고 남부세무서. 또 전화국, 또, 등기소, 가정법원. 지금 또 수원 전체 를 총괄하는 세무서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칭사가 들어오는데 도서관 옆에. (중략) 지금은 이 제 광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쪽) 집값이 더 비싸지. 그래도 서울 가서도 “너 어디 사냐?” “수원 어디 사냐?” 그러면 “영동 살아.” 그래. 옛날에 한참 분당 개발되어가지고 “너 어디냐?” “분당 산다.” 그러면 “어유 거기 사냐.” (라는 반응). 그런 식으로 영동이 그래도 괜찮은 도시고

2000년대부터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에 거주해 온 이경순은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고 독립한 후에도 부부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경순 물렸는데 운동할 때 보니까 /단지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지대가 좀 오르막이더라고요 시원 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겨울에 조금 추워. 그런데 공기가 좋아. 우리도 처음에는 6단지를 살까 했거든 요. 여기가 좋더라라고 구조도, 이제 여기가 3베이 구조고 옛날에는 다 2베이지잖아요. 근데 여기 3베이 구 조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음, 그래서 나는 또 여기 나무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앞에서, 딱 앉으면 바 로 숲속이예요. 아주 그냥.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산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걸 보고 사는데 공 기가 진짜 너무 좋고 여기는 노인 분들이 좀 많이 살아.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옛날에 20 몇 년 전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의 사는 거야. 원래 학생들이 더 많이 살아야 하는 곳이야, 위치로는. 학군이 좋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사를 어떻게 가겠어. 병원 다 걸어서 가고 전철 있고 버스 있지. 차 없는 사람들도 그 래서 이사를 안 가지. 그래서 노인정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젊은 사람은 많이 살겠나.

조사자 어르신들은 또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시던데. (웃음)

이경순 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좀 살기는 살지.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은 세를 졌으니까. 세를 졌는데 세는 누가 들겠어, 애들 다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들지.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애 공부 다 시켰 으니까 사실 여기 살 이유가 없어 비싼 땅에. 나도 사실 이거를 월세를 주고 다른 데 그냥 전세로 팔까 이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외 인근 시설(김승일 제공)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과 산책로

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귀찮은 거야 그게 이사하기가. 이제 교통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나는 친구들이랑 모든 게 다 여기에다 이렇게 형성되어, 여기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략) 우리도 이제 남편 정년 이후로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것 같은데 이사를, 나는 안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웃음) 먼 거리 출퇴근을 하시더라도 (중략) 나는 내가 맨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여기처럼 좋은 데는 없다.” 그 정도로 또 서울 생활권이에요 그냥 버스가 한 방에 다 가니까 40분, 50분이면 다 가니까 서울 생활권이야. 전철 좋지 공기 좋지. 마트 다 있지. 여기가 프리미엄 아울렛 있지, 학교도 (근방에) 경희대 있고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다. 운동하는 공원도.

주민들은 아파트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이제 벽산삼익아파트 단지와 영통동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자치활동과 지역의 민속 행사, 경제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명물 축제 같은 일로도 연결된다. 아파트 단지의 환경이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서 초창기 입주주민들이 느끼고 있을 자부심이 전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주변 기업과 학교에 종사하는 외국인 주민들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 안내 현수막에는 가끔 영어로 된 것도 함께 달린다. 입주민 중에 외국인 주민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예전에 비해 그 수가 줄기는 했으나, 인접한 외국인학교의 교사 가족이나 삼성SDI 등 기업 연구원 소속·파견으로 근무하는 주재원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입주주민들은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왔다. 박재학 관리소장에 따르면 2022년 10월 현재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일본, 그리고 영어권에



라디오영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2022년 10월 영통커피축제) 환경을 주제로 진행한 비정상회담 코너(서지은, 린, 김은하)이다.

서 온 입주주민들이 있고, 15~20가구 정도이다. 이경순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남편의 직장 상사였던 일본 가정과의 교류를 말해 주었다.

이경순 나는 일본 분. 그분이 이제 부장으로 이제 모셨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애서컨 기술자. 근데 이제 이쪽으로 고문으로 이제 삼성에서 초빙했지. 근데 이제 남편이 일을 잘하니까 제 가이드 하고 모셔다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랑이 그렇게 하고 식사도 일요일 갈 때 같이 식사했어. 우리 집에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합격했을 때 선물도 갖고 오고. 방학 일주일간을 일본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애들을 관광도 시켜주고 그런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생략) 우리도 자주 가고 그분 가족 사모님도 우리 집에 오고 이제 퇴직하신 이후에는 못 갔지.

채서연의 경우에도 후술할 마을미디어 활동인 ‘라디오영통’을 통해 외국인 여성 주민과도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류하였다. 이분들은 외국인학교 교사이거나 남편을 따라 온 일본 분이였다.

조사자 (사진을 보며) 외국인 분도 계시네요.

채서연 지금 거기 진행하셨던 분이 지금 수지로 이사 가셨는데, 이분이 이주 여성들과 함께 방송을 만드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주 여성조차도, 앞에 있는 분은 이분은 영어 강사고 이분은 일본인이신데, 여기에 무슨 이사분이시고,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던 분인가.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주 여성, 옛날 생각하는 이주 여성(과는 달라요).

넘기고 '우리 자체에서는 그냥 그 업무가 있는 거라면 통장들이 해라' 그래서. 점점 점점 부녀회가 (역할이) 줄어들고 봉사단체였는데, 없어지고 통장이 이제 그 임무를 거의 대신하고.

강풍희 부녀회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원래 야시장 이런 것도 부녀회에서 비용을 할 수 있고, 아파트 광고지, 이런 것도 부녀회에서 했었어요. 그렇게 기금이 모이고 해서 운영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없어졌을걸요? 야시장도 옛날에는 부녀회에서 했던 것을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측에서 했지요.

3.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 주민자치와 교류

1) 입주자대표회의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주민자치 활동으로는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기존에 동대표를 했거나 입주자대표를 했던 분들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1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아파트의 대표적인 주민 자치 활동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제반 사항, 주민들의 의견 전달, 아파트 내외 현안을 놓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진다. 조직은 각 동대표, 회장 1인(동대표를 겸함), 감사 2인, 총무이사, 기술이사, 건축이사, 환경이사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순은 10여 년 전 동대표를 하며 했던 활동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경순 우리 아파트 제가 할 때는 여기 식칠(했죠). 동대표들이 엄청 열심히 일해요 매일매일 아파트에 대해서. 뭐라 할까. 저는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따라갔는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회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 이제 페인트를 이름에도 들어가는 걸 했고. 그때 몇 억이 들어갔나. 그렇더라고요. 단지가 지금 여기가 조금 조금씩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싹 고치고, 작년인가 고쳤어요.

시간이 흘러 없어진 것 하나는 바로 '부녀회'이다. '반상회'도 옛날에는 열렸지만 현재는 없다. 2010년대 들어서는 주민 자치가 부녀회를 통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큰 사안들을 논의·운영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최정훈 옛날에는 부녀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제 동대표들이 이제 부녀회에 웬만하면 동의를

최근의 아파트 내 현안으로는 주차공간 증설, 아파트 명칭 변경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을 진행했다. 2022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강풍희에 따르면 현재 동대표는 세 동의 공석이 있지만 운영상의 큰 문제는 없다. 동대표의 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지만, 11명 중에 8명이 60대 이상이다. 그는 앞으로 동대표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 노인회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자치활동 중에서, 노인회는 타 단지와 비교해도 활발하다. 조사자가 문화프로그램 참관과 인터뷰를 하러 방문했을 때, 회원들은 프로그램 시작 30분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점심식사를 준비하시는 임원들은 미리 나와서 준비한다. 그래서 계신 분들과 잠시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노인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웃음치료와 생활요가(월요일), 스마트폰 교육과 노래교실(수요일)이 있다. 이것은 노인회 회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반영했고, 참여하는 회원이 시간마다 20명 이상으로 많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잠시 모이지 못하기도 했지만 평소 20명 이상은 꾸준히 참석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이 중 웃음치료 수업을 하러 온 강사에게 간단히 참관 소개를 드리자, 곧바로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이경애(웃음치료 강사) 여기 노인회장님께서서는 리더십이 대단하세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세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많이 참여하세요. 원래 오늘은 안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쉬어서 보강하는 거예요. 여기 분들은 정말로 참여하려고 하고, 변화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잘 따라하세요. 평소 출석률도 높는데, 특히 아바님들 참여율이 높아요.

노인회는 바로 옆 청명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행사, 명절 덕담과 선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활동 프로그램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벽산삼익아파트 노인회 활동 프로그램인 요가와 웃음치료

물을 나누기도 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설날 세배와 세뱃돈을 주고받는 모습은 어느 가정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삭막하고 단절된 관계가 일상적인 요즘,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이 서로가 웃을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최정훈 애들도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때 인사 오고. 우리도 어린이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고, 딱지치기, 줄넘기 이런 거, 각종 놀이를 애들하고 하는 거야. 명절 때는 다 와서 세배하면 세뱃돈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쥐어 줘. 그리고 사랑, 과자, 떡 이런 거 사 왔다가 나가는 애 하나하나 이렇게 손에다가 주고.

허정훈은 앞으로 노인회 운영과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회비는 회원당 4,000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한 달 3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매번 식사의 재료비로 쓰기도 빠듯하다. 회비를 더 걷는 방법도 있고, 이전에 아파트 단지 행사 등으로 은행이나 마사회 등에서 후원을 받았던 것처럼, 노인회 활동도 앞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더 편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수원시청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하영구센터

3) 마을방송국 '라디오영통'

'라디오영통'은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수원시 마을미디어 활동이다. 원래 벽산삼익아파트 독서모임으로 소소하게 모였던 멤버들이 참여하면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맘카페에 가입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대표인 채서연을 비롯한 주부들이 주 활동자이다. 당시 이 아파트 공동체 이름을 '한뼘'이라 지었는데, 여기에는 "공동체 이름처럼 삭막한 도심에서 주민들과 한 뼘씩 이어 가고 싶었던" 바람이 담겨 있다. 2017년에는 마음에 맞는 아파트 주민 15명에게 지지 차원에서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고, 때마침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주민 몇 명과 마을미디어 교육도 받았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미디어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꿈을 키워 나갔던" 것이 라디오영통의 시작이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 가다가 2019년에는 수원도시재단 주민제안공모사업(미디어분야)에 선정되면서 마을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현재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인정받아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수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제는 수원시미디어센터로 시민 대상 '팝업교육' 강좌를 나가서, 방송 만드는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벽산삼익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라디오영통 방송국

현재 라디오영통이 활동하는 공간은 벽산삼익아파트 관리소 지하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 룸'이다. 현재는 이렇게 탈바꿈한 공간이지만, 이전에는 부녀회 공간으로 쓰던 곳이었다. 기존 모임과 행사 때 사용했던 여러 집기들이 있었지만, 부녀회 활동이 축소되면서 차차 쓰지 않게 되면서 창고처럼 되었다. 그렇게 쓰이던 곳에 주민들이 모여 영통동의 현안을 나누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지하창고는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과 영통동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된 것이다.

이 공간의 반은 교육·놀이 공간으로, 반은 라디오 부스로 꾸며져 있다. 입주민 대상으로 취미활동 수강도 했고, 배우신 분이 다음에는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이들 그림책도 읽어 주기도 했다. 이렇게 '라디오영통'의 공간은 또 다른 모임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채서연 '영통주민모임터'(인터넷 카페)가 있고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엄마들 외에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초·중학교 이후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 거주 기간이 짧다는 언급) 그래서 아파트에 살다 가는데 애들한테 별 추억도 없는 것 같고 그



라디오영통 개국식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안꾸민터

래서, 그렇죠 여기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된 거죠 (중략)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해서 '땅 속 카페' 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라디오영통 간다." 라고 하지만.

'라디오영통' 활동은 주민들의 교류, 동네의 현안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된 그리고 여성들이 주부로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과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한데 모아 사진과 다. 간단한 디자인을 넣어서 2019~2020년에 만든 기념 책자도 있다.

채서연 직장 다녔던 엄마가 잠깐 애기 때문에 휴직하면서 라디오 방송 활동했는데 이 축제 때 친정엄마가 와서 디제이(하는 것을 보고), 딸이 바깥에서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은 아니지만 딸이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친정엄마랑 통화할 일이 보통 잘 지나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라디오 녹음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링크를 특방에다. 그러면 친정엄마는 딸의 전혀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생각하는 감동 포인트예요.



라디오 영통의 '보이는 라디오'

채서연은 코로나로 라디오영통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벽산삼익아파트 주민들,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곳을 추억하는 글과 그림을 엮어 『청명로 132』라는 책자를 내기도 했다. 책에 들어가는 그림은 모두 주민들이 직접 그린 것들이다. '우리 동네 풍경 이야기', '우리 동네 라디오영통 이야기', '우리 동네 일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작성한 라디오 대본을 넣기도 했다. 한편 라디오영통은 유튜브 영상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아파트 공간, 영흥공원을 촬영하여 나름의 생각들을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영통커피축제가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로 모이는 라디오영통 팀원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10월 22일 제7회 영통커피축제가 열린 반달공원을 찾았다. 올해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를 알리며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개최되었다. 코로나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행사였고, 날씨가 좋은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렸다.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어 주고 음악을 틀어 주어 축제의 분위기가 더 살아났다. 축제를 공동 주관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도 스텝으로 함께하였다. 특히 경품 추첨과 퀴즈를 풀 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주민들이 몰려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오랜만에 모여 코너를 진행하는 라디오영통 멤버들은 분주하지만 에



라디오영통 기념 책자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학연구소

너지가 넘쳤다. 채서연은 라디오영통 활동이 갖는 가장 큰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채서연 애정을 가지려고 이런 활동을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애정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라디오 대본도 쓰고 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다로 흘러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녹음을 하고 나면, 좀 더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나 개인의 기록이 되는 것 같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나의 역사를 내가 쓴다.

이렇듯 영통 주민들의 모임이 활발하고 활동이 많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자, 허정훈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젊고” “삼성전자나 SK 등 직장인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고, 생각하는 차원이 높기 때문”이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주었다.

4.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의 현안과 전망

1) 주차공간 추가 확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지는 만큼 3단지아파트에서는 가구당 1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 단



구 테니스장



현 주차장

지가 오래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이런 민원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테니스장 하나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강풍희 주차공간을 위해서 이번에 테니스장을, 두 개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주차장으로 바꾸게 됐어요. 승인이 나서 이제 공사 들어가요.

조사자 테니스 회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강풍희 사실 그제, 물론 그분들은 반기지는 않으셨지. 그런데 아무래도 주차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공사 후, 326동 테니스장이 주차장으로 바뀐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깨끗하게 주차공간이 만들어졌고 30대 정도가 더 주차할 수 있게 되었다.

2) 영덕초등학교 증축과 영흥푸르지오·영흥숲공원 건립

영덕초등학교는 신도시 형성 이후로 '콩나물 교실'이라 불리며 과밀 학급을 계속 유지해 왔다. 1998년에는 4·5층 증축, 2008년에는 급식소와 창고 등을 더 마련하는 등 두 번의 증축공사를 거쳤다. 그러다 2022년 들어 영흥공원 건너 원천동에 '영흥대우푸르지오'(1,509세대)가 준공, 해당 입주 예정자들이 영덕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증축 비용 일부를 투자하면서 공사에 들어갔다.

3단지 학부모들은 계속 교실이 부족해 공부 환경이 열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내고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증축은 그대로 진행되어 교실 10개, 특별실 8개, 체육관과 급식실, 연구실 2개 등을 준공하기 위한 3차 공사가 시작되었다. 운동장의 반 정도의 면적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사는 2023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영덕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영흥숲공원의 경우 본래 습지와 숲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고 야트막한 동산이 어우러진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아파트 신설 및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새롭게 정비를 거쳐 2022년 10월에 재개장하였다.

공원 근방의 도로가 재정비되고 넓어지는 한편, 공원 자체도 접근성이 좋게 변화하였다. 이로서 편리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살아있는 자연체험장이었던 환경이 사라지고 어디에나 있는 공원이 된 것 같아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있다.



공사 중인 영덕초등학교



영흥숲공원(수원시 포토뱅크 제공)

3)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주민들의 의견

영통도서관 뒤편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쓰레기 처리 시설로서 200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3단지와 인접해 있다. 이곳은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22년 9월 말 공론화를 거쳐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대체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청명벽산아파트 내에서 이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아파트 베란다에 '소각장 OUT'라고 작은 현수막을 걸어놓은 집들이 몇 보인다.



소각장 OUT 현수막

소각장에 대해 주민들의 견해는 조금 다른 편이다. 젊은 층의 경우는 “소각장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면서 소각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 알고자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채서연은 2020년에 라디오영통에서 처음 소각장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유튜브 채널로 알리게 되면서, 한 주민의 1인 시위가 시작되고 영통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대체로 소각장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반응이다.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지내 왔기 때문에 아파트의 환경이나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더 발전시키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4) 영통에듀파크 명칭 변경

청명마을 벽산삼익아파트는 새로운 변화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는 아파트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1단지 황골마을 주공아파트가 '황골빌리지'로 이름을 변경하자, 3단지에서도 아파트 이미지를 살려 이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명칭 변경 제안이 나왔다. 2022년 8월과 9월에 두 번의 전자 투표를 진행하였다. 명칭 변경이 통과되려면 단지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2년 11월 현재 투표는 진행 중이다.



명칭 변경 찬반투표 안내 현수막

강풍희 (이름을 바꾸자는) 아이디어는 제가 제안했어요. 20년 넘게 같은 이름을 잘 쓰는데 왜 바꾸려고 하나고 듣고 있기도 해요.

조사자 그림 선생님께서는 명칭 변경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강풍희 아파트 명칭은 주위 환경하고 매치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삼익건설 없었잖아요. 벽산건설도 이제 없는 건설회사 브랜드를 왜 써야 해요? 경영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기 주위에 교육 얼마나 좋아, '에듀', '파크'도 바로 옆이고 이제 잘 어울리는 걸로 바꾸면 우리 아파트가 좀 필 수가 있죠 이 가치가 더 올라와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박재학 투표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조사자 보니까 좀 의견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지난번 주민 분들 뵈면서 생각이 든 게 젊은 분들은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있고 노인 분들은 대체로 반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학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는 생각이 있고, 없어도 있는 대로 살자는 생각도 (있으니까).

3단지를 아파트를 둘러싼 내부적·외부적 현안들은 주변 학군의 지위와 외부 신설 아파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다시 새로워질 학교의 풍경, 이미 새 단장을 마친

공원, 그리고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아파트의 미래를 점칠 새로운 네이밍까지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벽차게도 느껴진다. 하지만 이웃이 금세 바뀌면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기존의 사람들이 계속 어울려 살아왔기에, 3단지 주민들이 모색해야 할 방향성은 결국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3단지 아파트를 몇 번씩 오고 가는 동안 필자는 어느새 이 동네와 친밀감이 쌓여 있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소위 '오래된 신도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기에, 아파트 동네의 일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공감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25년이 넘게 사람들이 살아온 집이었고, 자녀들의 가장 치열한 시기를 보냈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사람들의 역할이 지속되는 곳이 영통지구 아파트가 아닌가 한다.



영통에듀파크 명칭이 붙은 단지 안내도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소

주

1. 수원시, 2019, 『100만 도시 성장기-수원의 오늘을 만든 7가지 장면』, 170쪽.
2. 이성호, 2019, 『수원 내 주거공간 계층화의 사회·공간적 특성 연구-영통, 광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51쪽 및 53쪽.
3. 본래 파고라란 돌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엮어 놓고 등나무 따위의 덩굴성 식물을 울리어 만든 서양식 정자나 길, 장식과 차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규범 표기는 '파걸라'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4. 라디오영통, 2021, 『청명로 132』, 3쪽.
5. 'Mom's Station'이라는 신조어로, "엄마가 아이의 통학버스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부르는 말이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 이러한 표기가 많다. 영어이기도 하고 꼭 엄마만 아이를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승하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기를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안받기도 했다.([우리말 바꾸기] '맘스테이션'은 '어린이승하차장'으로", 『중앙일보』 2019년 7월 1일)
6. 라디오영통(서혜진, 아파트의 위로가 되는 공간), 2021, 『청명로 132』, 1-2쪽.
7. 「전국 최초 아파트 속 마을방송국, 라디오영통」 20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에서 영상부문 최우수상 받아, 『e수원뉴스』 2019년 12월 24일, (<https://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201912230613432323>)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CENTER 수원시정연구원

03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주민생활

1.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입지와 살기 좋은 주변 환경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수원시 동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주택단지인 영통지구에 위치한다. 살구골이라는 이름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988번지에서 989번지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골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영통지구의 남동쪽에 있는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영통구 매영로 366에 위치한다. 아파트는 대형 쇼핑몰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근접해 있고 단지 주변에는 살구골공원, 풀잎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영흥공원 등이 위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특징적이다.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1998년 준공되었다. 아파트 단지는 721동에서 730동까지 10동이며, 총 612세대가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간다. 평수는 37평, 50평, 62평의 중대형으로 1인 보다는 가족 단위의 생활이 주를 이룬다. 2022년 현재 2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이지만 유지 보수 등의 관리가 매우 잘 이루어져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자랑한다. 준공 당시 아파트는 최고의 아파트 기술로 설계되어 살구골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준공 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낡은 문구가 아니다.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아파트의 위치와 근린 환경도 한몫을 차지한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역과 강남 등의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뛰어난 것과 10분 정도 거리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수원신갈IC가 있다는 것을 큰 편리함으로 꼽는다. 이수진(가명) 동대표는 아파트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살구골 현대아파트 분양 광고

교통편이 얼마나 편리한지 설명하면서 특히 서울 진입이 용이함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영통역 지하철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권 진입도 용이하고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많다. 광역버스를 타면 살구골 현대아파트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데 10분 내로 짧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낮에 교통체증이 없으면 40~50분 정도로 가능하고 명동이나 서울역으로 가는 직행도 있다. 이러한 서울 접근성은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권에서 일을 보면서도 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 전 회장 이재춘도 살구골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큰 장점 가운데 하나로 서울로의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함을 꼽았다.

마찬가지로 심재수 노인회 회장은 현대아파트가 분양되던 1998년 당시 입주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주민이다. 심재수 노인회 회장이 아파트의 교통을 큰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1998년에 매탄동에 살다가 영통이 수원의 명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교통을 포함해 모든 것이 더욱 발전하겠다는 판단으로 이곳으로 입주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입주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의 경관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분당선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주민들이 후회하기도 할 정도로 현재는 교통이 어느 곳보다 편리하다.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꼽히는 것은 교통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접한 공원과 한몫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원에 차량이 통제되며 단지에서 바로 연결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큰 장점으로 꼽는다. 아파트와 맞닿은 공원의 장점은 이수진 동대표도 크게 공감한다. 자신이 여기 살면서 가장 좋은 장소



살구골 현대아파트
 ① 120㎡ ② 162㎡ ③ 199㎡

중 하나가 바로 옆에 위치한 살구꽃공원이라 말한다. 살구꽃공원은 나무가 매우 울창하여 여름에도 시원한 곳이다. 처음 이수진 동대표가 이사 와서 얼마 되지 않아 2014~2015년 메르스사태가 있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를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2주씩 학교를 못 갔지만 그동안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원에 갔다고 회고했다.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싸서 먹이고, 유치원생 초등학생인 아





현대아파트 인근 영통역 출구



현대아파트 인근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정류장

이들은 거기서 공을 차고 즐겁게 놀았다. 그리고 아파트 근처의 롯데마트 뒤에는 독침산이 있다. 그곳은 수원의 둘레길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다. 그 둘레길까지 가지 않더라도 독침산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기분 좋은 운동과 휴식이 된다. 작은 산을 한 바퀴 돌면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린다. 동네에 있는 작은 산이지만 들어가면 깊은 산 같은 느낌이 들어 좋다는 이수진 동대표의 소감은 아파트 주변의 공원이나 산과 같은 자연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파트 근처에 자연이나 생태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너무 힘들지 않게 산책이 가능한 산은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바로 앞으로 사회복지센터가 있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댄스 수업도 있고 수영장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센터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아파트 인근 살구골공원 산책로

김현순(관리소장) 자녀가 어릴 때 이사 와서 이제 다 키운 50~60대 되신 분들도 (이사를) 안 나가세요 다른 곳은 공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단지는 앞에 살구골공원이 있고 옆에 풀잎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두 공원이 이쪽(아파트)으로 다 연결이 돼서 영동을 쪽 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또 공원에는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 운동 헬스기구가 있고 정자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애들이 다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편,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큰 장점을 가진 곳이다. 이수진 동대표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대치동에서 살았다. 결혼을 하면서 용산으로 이사와 살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수원으로 오게 되었다. 이수진 동대표는 서울 생활에 만족했지만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서 아이들을 키우기에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처음 수원에 왔을 때는 서울 출신인 남편도 친구들을 만날 때 계속 서울로 다니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고 아이들 다 키우면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굳이 서울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

이 든다는 것이다. 용산에서 오래 살았던 이수진 동대표는 처음 집을 팔고 현대아파트를 사서 들어왔다. 그러나 이후 용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큰 변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 면에서 서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수진 동대표는 주거만족도가 높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도 제공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물론 아파트 주변의 학원들을 서울 대치동에 비할 수는 없지만 대형 브랜드학원에서부터 보습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선택 폭이 넓고 교육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좋고 부담도 적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본 주민들은 살구골 현대아파트 생활에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모두 아파트에 근접한 편리한 교통과 공원이 아파트 내에서 연결되며, 아파트 근거리에서 쇼핑이 가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주민들을 만족시킨다.



잘 정비된 가로수와 현대아파트 내 메인 도로

2.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 구성과 활동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1998년 분양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초기 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아파트 거주민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다가 최근 2~3년 전부터는 초·중등학교 자녀를 둔 40~50대의 연령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살구골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3년 전에 유입 인구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김현순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연령층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젊은 1970년대 생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많은 경우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부들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혹은



현대아파트 내 조경



현대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상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았다. 또한 보통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 나이가 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다시 들어와 부모와 함께 사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특별한 광경 가운데 하나는 휴일이나 명절이 되면 오히려 매우 북적이는 곳이기도 하다. 또 다른 주민 구성의 특징은 다른 아파트와 달리 살구골 현대아파트에는 동별로 각각의 다른 전문직군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김현순(관리소장) OO동에는 의사 분들이 다 사세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앞에 있는 OO동은 교수 분들이 또 많이 사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사를 안 가지고 계속 사시고 잠깐 아이들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 보낼 때는 잠깐 집을 비워 놓고 다른 곳에서 한 2년 정도 거주하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 동탄이나 광고 등 인근 지역에 분양을 받아 놓고 자녀분들이 거기 살고 부모님은 그냥 여기 살다가 또 잠시 바꿔서 살다가 그런 경우도 보고 그랬어요.

이처럼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이후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 비율이 높고 또 최근 젊은 세대의 유입이 급격히 늘었다는 사실은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갖는 여러 장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유입은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변에 좋은 학군과 학원가 등의 교육 시설이 매우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나갔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아파트 구성원의 연령대가 젊어지는 주요 원인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한 예로 서울에서 살다가 2014년부터 현대아파트로 이사 온 한 주민은 큰아이가 중학교 갈 때가 되자 학교를 알아보다가 영일중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것을 알고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학업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학교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적은 편이라고 만족을 보였다. 게다가 대형 브랜드 학원들을 포함해 작은 보습학원들이 아파트 근처 상가에 모여 있어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어 편리하고 이동에 버리는 시간이 없어 좋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지적 장점으로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40~50대의 젊은 세대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와 같은 주민 구성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8명의 대표가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 평소에도 필요한 아파트 관련 사안들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이 같은 방식은 대표들이 현안을 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

수원시정연구회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정연구회



현대아파트와 영통동 중심상가(김승일 제공)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와 광고(설명회 촬영)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입대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회의실에 모여 이런저런 현안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현재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 중인 이수진(가명)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수진 동대표는 작년 8월 달부터 동대표 일을 맡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통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준비한다. 모임은 보통 7시에 시작해 한 시간 이내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제 시간에 끝난 적은 없고 보통 1시간 30분이나 길게는 2시간까지도 걸릴 만큼 열의가 대단하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이수진 동대표는 아파트 살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전 세대가 납부하는 장기 수선충당금의 이용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모래를 한 번씩 갈아 낸다든지 아스팔트는 언제 깔고 도로 포장은 언제하고 이런 것들을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 알게 되었다. 이수진 동대표는 자신이 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파트 시설은 늘 있었던 것이기에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 일을 통해 그것들이 몇 년에 걸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수진 동대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또 다른 예로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당시를 소개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각 경비실 앞에 알리고 스티커를 붙여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색과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경비실에서 배포한 명단에 자신의 동과 호에 서명을 하고 스티커를 받아서 디자인을 선택했다. 이수진 동대표는 “저희 집은 막내가 그 담당이 됐거든요. 막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투표하고 왔어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아파트 유지와 보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지하주차장을 도색할 때는 아파트 주민이 직접 디자인한 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들은 시설물 교체 등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 회의를 통해 아파트의 문제를 나누고 해결한다. 각자의 일상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아파트의 현안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입대의 구성원들은 특별히 해외 출장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일보다 입대의 활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간단한 현안 처리에서부터 장기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전반의 일처리를 다룬다. 회의 참석률이 높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회의의 진행이 순조롭다. 필요한 수리 사항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진행방식을 결정하며 5년의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수진 동대표는 이처럼 입대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파트 운영과 관리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아파트 단지 내의 건물과 환경 등에 훨씬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오고가면서 지금 어디가 부실한 거 같다는 것이 포착되면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려 준다. 그러다 보니 입대의 활동 전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아파트를 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활동 중인 입대의 8명의 연령대가 40~50대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입대의 활동에만 전념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현순(관리소장) 입대의가 (40~50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제한에 좀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업무에 대한 의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 안건이 많아지는 거죠. 주로 카톡을 이용해서 의견을 좀 받는 편이기는 하고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단 싶은 것들은 안전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막 만지 거는 이런 분들은 없으시고 아파트에 애정을 갖는 게 느껴져요.

한편, 현대아파트의 동대표의 선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하면 희망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대부분 바쁜 생활로 희망자가 쉽게 나서지는 않는 어려움도 있다.

이수진(동대표) 아파트에 공지가 붙어요 밴드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전에 아파트 /층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했는데, 보통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들 생활이 바쁘시니까, 전 오며 가며 관리소장님이라 칭분을 쌓다 보니까 관리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됐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아파트 주민들은 바쁜 일상 탓에 선뜻 입주자대표에 지원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단 입주자대표로 선출되면 매우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활동하고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계획이나 결정들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나 사업에 대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만족한다. 이것은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에는 주민안전대책위원회도 있다. 이후 아파트 현안과 관련해 더 언급하겠지만, 현재 아파트 현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인동선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아파트의 피해 및 대책 마련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주민안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 주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도 이것을 공유하고 협력한다. 이수진 동대표는 주민안전대책회의의 내 의사결정이 매우 민주적이라며 만족해한다. 주민안전대책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견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주민안전대책회의가 오늘의 회의 안건이나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면 입대의 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자연스럽게 의견이 수렴되다 보니 그 실행력은 높아지게 된다. 최근의 아파트 현안 가운데 주요 이슈인 지하철 관련 문제의 경우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면서 연대할 수 있었다. 의견 수렴이 적극적인 가운데 운영방식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집단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건의함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2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건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올리는 규정이 있다. 500세대 이하는 10가구가 제안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살구골 현대아파트에서는 한 사람이 제안한 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다.

김현순(관리소장) 이번 안전에서 한 주민 제안이 이렇게 카톡으로 온 거예요. 홈페이지 쪽 횡단보도가 좀 위험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을 회의에서 제가 주민 안전으로 올려요 그러면 입대의에서 어찌 됐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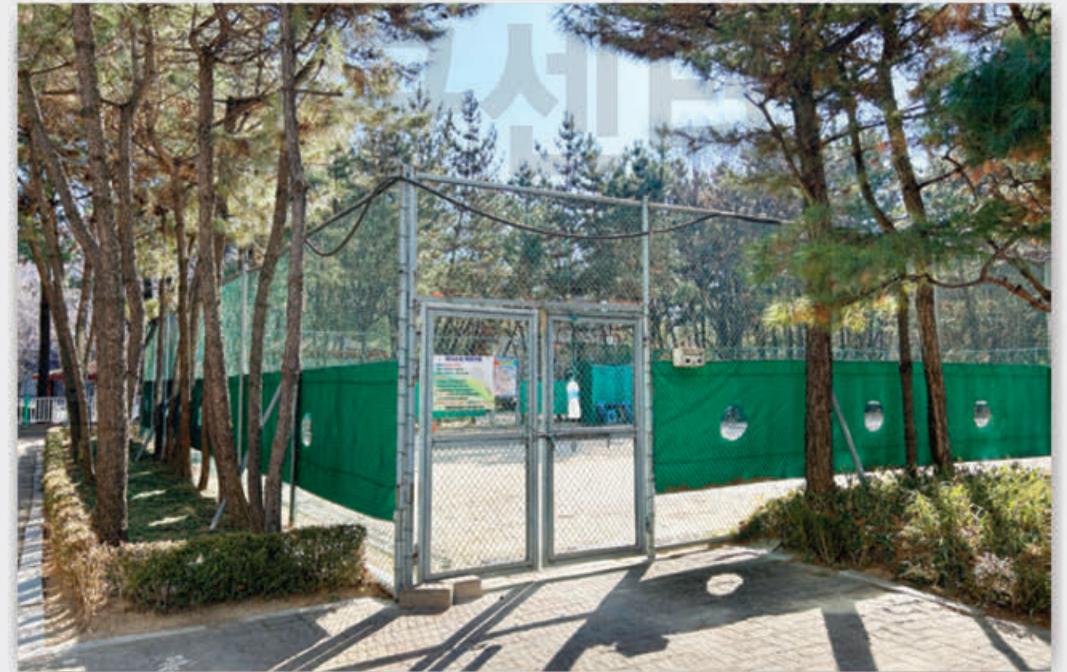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한 주민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지나쳐 버리지 않고 경청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그 건의가 처리가 안 된 이후 다른 주민으로부터 동일한 건의가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주민에게 그 논의가 왜 부결되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경청하려는 노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건의가 들어오면 김현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활동이 원활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과 활동으로 주민들은 서로가 좋은 이웃으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아파트 생활을 만들어 간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중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주민들 간에 협의로 끝나기 때문에 더 확장되지는 않는다.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신뢰하고 또 그만큼 관리사무소도 열의를 다함으로써 물리적인 편리함뿐만 아니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3.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살구골 현대아파트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있다. 커뮤니티 활동이 처음부터 활발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주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안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은 요가나 줌바 그리고 탁구장 같은 시설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자 주부들은 몇 명씩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 바둑, 줌바 등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넓은 지하 공간에는 탁구대 3대와 탁구채도 구비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주민전용 테니스장이 마련되어 있어 야간에도 테니스가 가능하다. 김현순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보하니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좋다.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체육 공간



현대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시

김현순(관리소장) 요가나 줌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탁구장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주부들이 몇 명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아파트 관리소 내 다목적 공간)에서 바둑도 한 번씩 하시고 줌바는 여기 아래층 지하에 있어요(웃음). 지하의 홀이 엄청 넓어요. 지하 건물의 반은 다목적 실이라고 해서 줌바와 요가방으로 만들어져있고 반은 탁구장으로 해서 탁구대가 3개 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옆에 주민 전용 테니스장이 있어요. 요즘 아마 아파트에 테니스장이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수진 동대표는 살구골 현대 아파트가 1998년 준공되어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 전한다. 현재 다양한 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지하 시설은 원래 골프 연습장이 있었다. 그러다 골프 연습장이 나가게 되었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체육 공간이 탄생하였다. 주민들이 오고 가며 잠깐씩 들러 탁구를 치기도 하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다. 줌바와 요가 강의는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진행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수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를 섭외한다. 보통 다른 곳으로 운동을 가려면 옷을 챙기고 화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단지 내 강의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자칫 방치되기 쉬운 지하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세심한 배려와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더욱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4. 노인회와 어르신들의 생활

현재 총 2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노인회 활동을 하신다. 심재수 노인회 회장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현재 행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특히 노인들은 코로나에 취약점이 많아 현재 봉사 활동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실시하고 아파트 근처의 공원 쓰레기 줍는 정도로 활동 중이다. 그래도 평소 단지 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김현순(관리소장) 경로당에 어르신들 중에 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는 좀 젊은 어르신이 있고 방에 좀 많이 누워계시는 분들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들 있어 방이 2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편의공간인 '현대사랑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경로당 간판

한 번씩 식사는 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인가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구청 지원금이 있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요.

한편, 2년 전 어르신들의 더 즐거운 아파트 생활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버이날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단지 내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남녀 각각 한 분씩 찾아 케이크나 꽃을 전달하자는 것이었다. 관리소에서 조사한 결과 89세 어르신이 최고령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9세인 분이 부부이며 연세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부가 나란히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는 더욱 특별한 행사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70세가 넘는 고령의 어르신들 가구를 파악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녀들 연락처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김현순 관리소장은 작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어르신 부부를 언급했다. 할머니는 키가 크고 통통한 편이신데 할아버지는 작은 체구였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항상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며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을 다니고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어 화단에 심어 놓은 것들을 자꾸 뽑아 가셨는데 김현순 관리소장이 그걸 가져다 드리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한다. 김현순 관리소장은 아직도 그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소개하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이사를 가시고 더 이상 노부부를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같이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한편, 심재수 노인회 회장은 살구골 현대아파트가 1998년 준공된 당시에 입주해서 2022년 현재까지 25년 동안 거주 중이다. 심재수 회장은 살구골 현대아파트와 함께했던 자신의 인생 궤적을 소개하였다. 1998년 영통 택지개발이 이루지고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온 심재수 회장은 처음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를 전해 주었는데, 지금 광고가 뜨듯이 당시에는 영통지구가 뜨고 있어서 매탄동에 살다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교통의 요지가 되고 분당선 전철이 생기면서 더욱 그 가치가 올라갔고 점점 더 살기 편리한 아파트가 되었다. 그는 입대의 임기가 2년인데 2년씩 다섯 번을 하고 영통지역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회장을 그리고 수원시 입주자대표협회에서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는 분위기에서 노인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하철 출구와 환풍기 위치 변경 요구 현수막

수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5. 아파트 현안과 앞으로의 전망

현재 아파트에서 가장 큰 현안은 지하철 관련 사항이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인동선(인덕원-동탄)의 지하철 출입구와 환풍구가 정문 앞에 건설될 계획이다. 지하철의 출입구와 환기시설이 아파트 바로 앞으로 설치되면 여러 문제와 불편함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출구의 위치를 공원 쪽으로 조금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지하철 문제는 2년 전부터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는 공사가 들어가거나 가시적인 것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아서 본격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공사는 2022년 2월부터 진행이 되었고 그때부터 공사의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복잡한 정문으로 출구와 환풍기가 생길 예정인데 정문은 이미 복잡하고 통행량이 많다. 그런데 출구가 정문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설계되면서 그에 따른 인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현재 아파트 앞쪽의 녹지 공간이 많이 깎이게 된다. 그렇게 되

면 지하철 출구로 인해 거의 반 정도의 녹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에도 복잡한 정문 공간과 많은 녹지를 깎아 가면서 설계하는 것보다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주민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김현순(관리소장) 인동선 때문에 만든 거죠 인동선에 관련된 그것들을 주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50명 정도 구성되었어요.

조사자 집회가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김현순(관리소장) 엄청 많이 했죠.

조사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김현순(관리소장) 지금은 현재(2022년 8월)는 소강상태죠 7~8월에 소강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중순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거의 날마다 했어요.

이처럼 50여 명의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토론을 거쳤다. 대책위의 회의가 끝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련된 서류를 만들거나 공문을 보낼 때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논의된 내용이나 민원 내용을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법적인 것이 관여되다 보니 공문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어서 자문을 받기도 했다. 자문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법률 관련 전문 상담이 가능한 아파트 주민들의 도움으로 훨씬 수월하게 공문 등의 서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집회를 할 때도 피켓이나 현수막 문구 등 필요한 부분들도 아파트 주민들이 도움을 주었다. 관리사무소는 집회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주민들이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집회 가능 선을 안내하고 안전하게 집회가 진행되도록 도왔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현수막과 문구를 만들고 제작해서 집회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현수막을 만들어 각 세대의 창문에 부착했다. 현수막은 자율적으로 붙였는데 창문 외부에 부착이 쉽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설치를 도왔다. 그렇게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되었고 무더운 여름 날씨인 8월 현재에는 소강상태에 있다. 집회 초기에 주민들은 거의 매일 집회에 참여하면서 아파트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갔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 중인 이수진 동대표는 이 현안의 대응 과정과 방식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두드러짐을 꼽는다.

이수진(동대표) 일단은 사실 저는 동대표이고 입대이는 아파트 전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라 지하철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다 일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희망하시는 주민 분들이 모여서 주민안전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관여를 해주시고 있고요 처음에 사업주체에서 얘기한 아파트와 관련한 환풍구 위치라든지 지하철 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시위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검토 중이고 그러다 보면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아 약간 열려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현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다. 관심이 매우 높은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들도 있어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통보하거나 하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밴드에 공지를 올렸다. 밴드에는 아파트에 있는 현안이 공유가 되었고 주민들은 대응 방식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달았다. 그 댓글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안전대책위원회(비대위)가 탄생했고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이 많았다. 주민들은 지하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구와 환풍기 시설이 바로 정문 앞에 설치되었을 때 안전과 환경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은 자율적인 참여와 민주적으로 열린 방식을 통해 모든 주민과 소통하면서 빛을 발했다. 이런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5월부터 거의 매일 많은 주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아파트 소장에 따르면 초기에는 한 1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일 참석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매일 모든 주민들이 나올 수는 없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 가기 위해 주민들은 한 번에 다섯 동씩 함께했다가 다음에는 37평과 50평대 주민들이 함께하기도 했다. 그런데 37평형은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주 나오기가 어려워 50평형에 있는 두 동을 함께 묶어 집회를 하는 등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갔다. 집회를 진행하면서 아파트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동의 이웃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 친밀감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현안을 함께 헤쳐가려는 노력 속에 주민들은 서로 유대감을 쌓으며 즐겁게 시위를 이어 갔다. 아파트 현안을 함께 풀어 가는 노력 속에서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졌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사거나 현금을 내기도 했다며 김현순 관리소장은 그때를 회상하였다.

이수진(동대표)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 사 놓고 이제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가 받을 수는 없고 총무님 계좌로 하나 개인 계좌로 만들



인동선 지하철 출입구와 환풍기 공사

있어요. 원래는 주민안전대책위원회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총무님 제과로 해서 돈을 받다 보니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내는 분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민안전위원회에서도 그 돈을 막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종시에도 집회를 가고 서울로도 집회를 가고 그랬던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대절할 때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쓰는 거죠. 주민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면 안 쓰고 남은 돈은 쓴 거를 빼고 내가 낸 거 대비 비율 적용해서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만나도 먹는 것도 개인 비용으로 쓰세요. 그 돈을 안 써요. 그렇게 쓰라고 주셨는데 안 써요.

지하철 문제에 대응하면서 주민안전대책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회를 응원하기 위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모두를 위해 나온 일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안이 처리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후에 잡음이 생길까 하여 처음부터 비용 처리를 비롯해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민들 간의 신뢰를 높이면서 집회는 또 다른 화합의 장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문제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방식,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모두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 그렇다 보니 비대위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현안 전반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지하철 확장 공사가 국가 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사계획이 수정될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수진(동대표) 시나 철도공사에서 좋은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돈이다 보니까 그게 다들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바꾸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어 있어서 법으로 뭘 할 수는 없더라고요. 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치를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본인들도 이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방음벽도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한편, 아파트 주민들은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당국이 좀 더 깊게 고민해 보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고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규정'이라는 최소한의 안내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 출입구와 여러 개의 환풍구로 인해 생길 파장이 어떨지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 게다가 국가 기반시설인 지하철 공사는 대도시의 기반이자 10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주요 사업이다.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시설을 디자인 하면서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일상에 정책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히 살펴볼길 바라는 것이다. 즉 딱딱한 관리의 측면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재춘 전 회장은 이번 현안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인상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20년 넘게 살구골 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금처럼 반발한다거나 시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확장인 인동선 개통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다시 집회가 계속될 수도 있고,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된다면 서로 협의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춘(전 회장) 의견 반영에 따라 앞으로 또 집회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잘 진행된다면 서로 협의해가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 분들은 대체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뭘 얻기 위해 이 투쟁을 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좀 지나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좀 정상적으로 돌리라고 하는 정도지 심하게는 안 하시죠

이처럼 살구골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하면서 유대와 신뢰를 쌓고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손을 잡고 고민하고 노력한 경험은 귀한 자산이 되어 살구골 현대아파트에서 삶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끝으로, 1998년 준공된 영통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현재 세대의 편중 없이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여 주요 고속도로나 서울로 연결이 매우 수월하다. 고속도로 IC가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광역버스와 지하철도 바로 연결된다. 아파트에서 연결되는 공원은 아파트 모든 주민들에게 바쁜 일상의 휴식과 여유를 제공한다. 쇼핑, 병원, 은행 등의 편의시설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다. 게다가 아파트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은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과 활기를 더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체적 모임을 통해 줌바, 요가, 탁구, 테니스 등을 개설하고 건강도 증진하며 이웃들과 친밀감도 쌓아가고 있다. 노인회의 활동은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지만 쓰레기 줍기 등의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와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현재 살구골 현대아파트는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현안이 있다. 하지만 인터뷰한 주민들은 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과 신뢰가 높아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얻는 주변의 새 지역의 새 아파트에 비하면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30%가 넘는 주민이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층의 유입이 급격히 늘었다. 이처럼 2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아파트의 인기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화합이 살구골 현대아파트의 생활과 주거문화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살구골 현대아파트 전경